

구약
5

BELIEVER'S BIBLE COMMENTARY
Isaiah · Jeremiah · Lamentations · Ezekiel · Daniel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이사야 · 예레미야 · 예레미야애가 · 에스겔 · 다니엘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선 지 서 (1)

정 병 은 옮김

BELIEVER'S BIBLE COMMENTARY

BY

WILLIAM MACDONALD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BELIEVER'S BIBLE COMMENTARY

Isaiah • Jeremiah • Lamentations • Ezekiel • Daniel

WILLIAM MACDONALD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1-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화 : (031) 914-2732, 팩스 :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Ilsan4-dong, Ilsan-gu, Koyang-shi,
Kyunggi-do, 411-828, KOREA

차 례

| | |
|-----------------|-----|
| 약어표..... | 4 |
| 저자 서문 | 5 |
| 편집자 서문 | 7 |
| 선지서 | 11 |
| 선지서 서론..... | 12 |
| 이사야 | 21 |
| 이사야 서론..... | 22 |
| 이사야 주해..... | 33 |
| 참고 문헌 | 147 |
| 예레미야 | 149 |
| 예레미야 서론 | 150 |
| 예레미야 주해 | 157 |
| 참고 문헌 | 219 |
| 예레미야 애가..... | 221 |
| 예레미야 애가 서론..... | 222 |
| 예레미야 애가 주해..... | 226 |
| 에스겔 | 233 |
| 에스겔 서론 | 234 |
| 에스겔 주해 | 243 |
| 참고 문헌 | 313 |
| 다니엘..... | 315 |
| 다니엘 서론 | 316 |
| 다니엘 주해 | 323 |
| 참고 문헌 | 351 |

약어표

- ASV—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FWG—그란트의 숫자 성경(F. W. Grant's Numerical Bible)
JND—다비의 새번역(John Nelson Darby's New Translation)
JBP—필립의 의역본(J. B. Phillips' Paraphrase)
KJV—흠정역(King James Version)
KSW—(Kenneth S. Wuest's An Expanded Translation)
LB—현대어 성경(Living Bible)
NASB—새 미국 표준역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새 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NIV—새 국제역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
NKJV—새 흠정역(New King James Version)
RSV—개정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V—개정역(Revised Version(England))
TEV—오늘날의 영어 성경(Today's Bible Version)
A.D.—주후(主後;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B.C.—주전(主前; Before Christ)
NU—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

저자 서문

“신자 성경주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진지한 학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어떤 주석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주석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은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준 다음 보다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독자를 성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본 주석은 쉽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집필되었으며, 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인상을 풍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의 원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말씀의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딤후 2:15).

본 주석의 논조는 간결 명료하므로 독자는 어떤 구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쪽에 걸친 설명을 애써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분주히 돌아가는 현대생활은 진리가 짧고 간결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설명들을 소개함으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설명이 문맥과 나머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주석은 어떻게 성경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만일 본서가 목적 그 자체로 사용된다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덜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본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독려하고 주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심을 일깨우는데 사용된다면 그 목적을 이룬 것이다. 모쪼록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독자의 마음에 빛을 비취 주시기를 바란다.

편집자 서문

“주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1950년대 후반에 어떤 성경교사가 엠마오 성경학교(지금의 엠마오 성경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충고였다. 그 중 적어도 한 학생이 지난 3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 교사는 본 ‘신자 성경주석’의 저자인 윌리엄 맥도날드였고, 그 학생은 당시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본 편집자 아더 화스타드(Arthur Farstad)였다. 그는 평생에 단 한 권의 주석만 보았는데 헤리 아더 아이언사이드의 에베소서 강해서인 “하늘에 속한”(In the Heavenly)이 그것이었다. 10대 시절 어느 해 여름에 그 책을 정독한 후에 아더 화스타드는 주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1. 주석이란?

주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주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최근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발행인이 성경에 관계된 책을 15가지로 분류했다. 따라서 혹 어떤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주석이 스테디 바이블이나 심지어 성구사전, 성경지도, 성경사전 등 과도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주석은 절별 혹은 단락별로 성경 본문에 대해 “논평을 하거나”(comments) 도움을 줄만한 언급을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석을 저만치 젖혀두며 “저는 단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 자체만 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제법 경건한 말처럼 들리나 그렇

지 않다. 주석은 단지 최선의(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태의 성경 강해(하나님의 말씀을 절별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를 문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주석들(가령 아이언사이드 주석)은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출간했다. 게다가 모든 시대 모든 언어로 된 유명한 성경 강해서들이 영어로 보급된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강해서들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서는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신자 성경주석’이 간행된 것이다.

2. 주석의 종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주석을 집필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석은 매우 개방적인 것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본 ‘신자 성경주석’은 성경을 신앙과 삶 모두에 절대 충분한 영감 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주석이다.

주석은 매우 전문적인 것(예를 들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구문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설명을 가한 것)에서 매우 간략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은데 본 주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전문적인 설명은 주로 각주로 돌렸으나 본문 해설에 관한 한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충 얼버무림 없이 충실히 다루었다.

맥도날드의 글은 “강해가 풍부하다.” 그의 글의 목적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돕는데 있다.

주석은 또한 신학적인 진영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적인 것, 개신교적인 것과 로마 카톨릭적인 것, 전천년적인 것과 무천년적인 것 등으로 나뉘는데 본 주석은 보수적이며 개신교적

이며 그리고 전천년적이다.

3. 본서를 사용하는 방법

본 주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다음 순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대강 훑어봄—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저기 조금씩 읽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 구절에 대한 참조—어떤 구절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여러분은 해당 구절이나 문맥에 대한 설명을 찾아봄으로써 분명 적절한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3) 교리에 대한 연구—성경의 주요 언약들, 세대 구분, 성막 등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찾아 보라.

(4) 책별 연구—만일 성인 주일학교나 정규집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매주 해당 본문을 미리 공부해 둬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토론을 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 (물론, 만일 인도자도 본서를 참고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다른 주석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상고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는 난해한 본문이 흩어져 있으며 본서와 같은 주의 깊고 보수적인 책이 당신의 성경공부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성경공부는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듯이 그 출발이 막막하고 아득하지만 조금씩 진보하면서 꿀맛과 같이 달콤한 시간이 된다.

맥도날드는 30년 전에 세계 “주석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 바 있다. 새 흠정역본(New King James text)에 맞춰 편집을 하면서 이 성경주석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 봄으로써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석을 즐겨 사용하라!”는 충고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선 지 서

선지서 서론

구약성경 중에서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를 흔히 “선지서”라고 부른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단지 다른 대부분 책보다 길다는 이유로 ‘대선지서’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2권의 보다 짧은 선지서는 ‘소선지서’로 알려져 있다.

1. 선지자들의 사역

성경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이다. 이들은 1) 죄와 하락의 시대에, 백성들에게 그 죄를 알리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하기 위해 일어났다.

구약시대에 선지자의 활동기간은 제사장직이 실패한 사무엘 시대에 시작되었다(BC 1100년경). 선지자들은 포로 귀환 및 예루살렘과 성전의 재건을 포함해서 구약 역사가 끝날 때까지(BC 400년경) 그들의 사역을 지속했다.

한편, 구약의 ‘집필’ 선지자들은 왕국이 분열될 때까지(BC 930년경) 출현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열왕기상과 역대상하에 기록된 사건들에 개입되었으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2. 선지자들의 사역 방법

1) 훌다와 같은 여선지자도 있었다(왕하 22:14; 대하 34:22).

선지자의 메시지는 공포(forthtelling)와 예언(foretelling)을 모두 포함한다고 흔히 지적되었다.

‘공포’란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음을 인식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혹은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렘 1:9; 겔 2:7).

또한 ‘예언자’로서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백성들에게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의 결과를 말해주었다.

선지자들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항상 이해하지는 못했다(단 7:28; 8:15~27; 10:7~15; 계 7:13,14; 17:6). 특히 장차 올 메시야에 관해 예언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를 영광에 대해 예언할 때(벧전 1:10~13), 그들은 어떻게 메시야가 여호와와의 종으로 오는 동시에 온 세상의 임금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두 가지 구별된 강림, 즉 메시야가 베들레헴에 초림하는 것과 감람산에 재림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그 두 강림 사이에 시간적인 공백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

3. 선지서의 주제

구약 선지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하나님의 거룩성
- 2)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와 실패
- 3) 회개의 촉구
- 4) 회개치 않을 때의 심판
- 5)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 6) 이스라엘의 일부의 포로 귀환
- 7) 메시아의 도래와 거절당함
- 8) 메시아의 권능과 큰 영광 중의 강림
- 9)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회복
- 10) 그리스도의 우주통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교회는 구약 예언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창세 이후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란 사실을 신약에서 분명히 볼 수 있으므로(엡 3:4~6) 여기서 교회를 발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중언급(double reference)의 법칙이 일부 구약의 구절들을 이해하는 유용한 열쇠이다. 이중언급의 법칙이란, 구약의 예언 중 일부는 직접적이고 부분적인 성취와 장래의 완전한 성취의 두 가지 성취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엘 2장 28~32절의 예언은 오순절날에 부분적으로 성취된 한편(행 2:7~21), 주 예수님이 대환란 기간 끝에 그분의 지상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한 성취를 볼 것이다.

표면상 그 뜻이 분명한 예언도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예언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예언은 공상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어떤 사람과 사건을 가리켜 예언의 성취라고 말했다가 후에 그렇지 않음이 드러남으로써 큰 해악을 끼친 경우가 많이 있다.

4. 선지서의 용어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몇몇 주요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일반적으로 북왕국 열 지파를 가리킨다. 그러나 때로는 전체 민족, 즉 아브라함의 후손된 모든 이들을 가리킨다.

2) 반면에 “유다”는 일반적으로 남왕국, 즉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가리킨다.

3) “에브라임”은 특히 호세아서에서, 열 지파, 혹은 북왕국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요셉의 집 또한 북왕국을 가리킨다.

4)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로서 자주 언급된다.

5) 반면에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였다.

6) “니느웨”는 앗수르의 수도였다.

7) “바벨론” 성은 바벨론(바벨로니아) 제국의 수도였다.

8) “다메섹”은 아람(수리아, 시리아)의 수도였다.

우상숭배를 꾸짖으면서 선지자들은 종종 “새긴 우상”, “산당”, “상수리나무”, “동산” 등 우상숭배와 관련된 말들을 종종 사용했다.

“재판”(judgment)은 종종 선지자들에 의해 공의(justice)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들은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을 꾸짖었는데, 이는 뇌물을 취하여 공의를 베풀지 못하는 재판관들을 정죄한 것을 의미한다.

선지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잔존자라는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선지서는 잔존자가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왔듯이 말일에 이스라엘의 믿는 잔존자가 돌아올 것을 대망한다.

5. 선지자의 분류

선지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로 나뉜다는 점을 언급했다. 선지자는 또한 그

들이 살던 시대로 분류할 수도 있다.

포로 전 선지자

| | |
|------|-----|
| 이사야 | 요나 |
| 예레미야 | 미가 |
| 호세아 | 나훔 |
| 요엘 | 하박국 |
| 아모스 | 스바냐 |
| 오바다 | |

포로 시대 선지자

| | |
|-----|-----|
| 에스겔 | 다니엘 |
|-----|-----|

포로 후 선지자

| | |
|-----|-----|
| 학개 | 스가라 |
| 말라기 | |

포로 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사역을 한 선지자들이었다. 포로시대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었다. 포로 후 선지자는 포로 후에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도덕적인 상태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선지자는 그 메시지의 우선적인 대상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 | |
|-----|-----|
| 호세아 | 아모스 |
| 요나 | |

열방의 선지자

나훔 오바다

유다의 선지자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다니엘

미가 학개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어떤 선지자들은 둘 이상의 지역에서 사역했다. 예를 들어 요나는 열방의 선지자로도 분류될 수 있다. 미기는 유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예언을 했다. 나훔은 니느웨에서만 아니라 유다에서도 말씀을 전했다(1:15). 하박국은 열방에 대해 많은 예언을 했다.

여러 경우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그의 예언의 문맥 속에 감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이사야 12장 2절에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말씀이 나온다.

예레미야-‘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혹은 ‘여호와에 의해 높임을 받다’(52:31)

에스겔-‘하나님이 힘주시다’(34:16)

요엘-‘여호와는 하나님이다’(2:13)

미가-‘누가 여호와 같으리오’(7:18)

스바냐-‘여호와에 의해 숨기우다’(2:3)

말라기-‘나의 사자’(3:1)

6. 선지서의 연대

아래의 연대는 선지서의 여러 관련구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 왕국(북부 지파)

왕국분열 후 이스라엘의 주요 대적은 아람이었다. 그 후 앗수르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협했다.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단계는 이러하다.

1) 예후가 앗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쳤다(BC 842).

2) 므나헴이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쳤다. 디글랏빌레셀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취해가기 시작했다.

3) 브가의 통치시에 디글랏빌레셀이 납달리 성읍들을 정복하고 거민을 앗수르로 취해갔다(왕하 15:29). 디글랏빌레셀은 요단 동편 땅을 침범하여 그 두 지파 반을 메소보다미아로 사로잡아갔다(BC 740, 대상 5:26). 그가 목과하는 중에 브가가 살해되고 호세아가 왕위에 올랐다.

4) 호세아가 살만에셀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다가, 반역을 하고 애굽에게 선물을 보내어 동맹을 맺어 앗수르의 멍에를 끊고자 했다(왕하 17:3,4).

5)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그 성이 BC 722 혹은 721년, 사르곤 통치 원년에 함락되었다. 많은 백성들이 메소보다미아와 메대로 사로잡혀갔다(왕하 17:5,6,18). 나머지 백성은 조공을 바쳐야 했다.

유다 왕국(남부 지파)

북왕국을 정복한 후에 앗수르는 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비록 앗수르가 그들을 칠 것이나 성공치 못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유다 백성에게 알려주셨다. 그 일은 히스기야 통치기간에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칠 때 일어났다.

그 후 바벨론이 세력을 잡고 유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바벨론의 유다 정복을 초래한 정치적인 단계는 이러하다.

1) 여호야김이 애굽 왕의 앞잡이가 되었다.

2) 바벨론이 애굽과 앗수르를 정복하고 이에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 아래 처했다(BC 605).

3) BC 605년에(여호야김 34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 기명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왕족의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다. 이 포로에는 왕(여호야김)과 선지자 다니엘이 포함되었다(왕하 24:1~6; 대하 36:5~8; 렘 45:1; 단 1:1,2).

4)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여고냐 혹은 고니야)과 다른 많은 백성을 사로잡아갔다(왕하 24:10~16). 에스겔이 이 때 바벨론에 끌려갔다.

5)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많은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빈곤한 자들만 그 땅에 남겨두었다(왕하 25:2~21).

6) 그 땅에 남은 백성은 총독 그달라의 통치를 받았다. 예레미야가 그 무리 중에 있었다. 그 후 그달라가 암살되고 많은 백성이 예레미야를 이끌고 애굽으로 피신했다(왕하 25:22~26).

70년간의 포로기와 포로 후 시대

바벨론 제국은 BC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고레스는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조서를 공포했다. 스룹바벨 지도 아래 귀환자가 BC 538년 돌아왔으며, 에스라 지도 아래 귀환자가 BC 458년 돌아왔다.

메대와 다리오가 BC 538~536년까지 다스렸다.

메데-바사 제국이 지속되다가 BC 333년 헬라가 알렉산더 대제

지도 아래 세계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70년간의 포로기는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에서 BC 516년 성전 재건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 사 야

이사야 서론

“이사야는…히브리 선지자와 설교가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장려한 어투와 뛰어난 상상력,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체에 있어서 그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다. 옹게도 그는 ‘구약 선지자들의 왕’으로 불리어 왔다”(메릴 F. 영거).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수도를 방문하여 기독교문화를 탐방하는 자들은 위대한 작곡자 중 한 사람이 그 “세계적인 연주회”를 가진 집을 발견할 수 있다. 1742년 4월 13일 더블린에서 헨델의 ‘메시아’가 처음 연주되었다.¹⁾ 식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헨델의 곡의 탁월함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모든 오라토리오 중 가장 유명한 곡의 가사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그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 특히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가사에²⁾

-
- 1) (서론) 그것은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자선병원과 진료소의 필요를 돕기 위한” 구제사역이었다. 갇힌 자를 풀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을 강조한 점으로 보아 이사야는 종종 메시아의 초기사역과 관련있었던 구제사역을 즐겨뤘음이 분명하다.
 - 2) (서론) 서막에 이어, 이사야서 후반부의 시작이 테너 솔로로 불려진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40:1). 이사야 7장 14절을 읽고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는 콘트라alto(contralto, 테너와 소프라노의 중간, 여성의 가장 낮은 음역주) 솔로를 듣지 못하거나, 이사야 9장 6절을 읽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합창 소리를 듣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말씀도 이

가장 큰 기여를 한 선지자는 그의 메시아(헨델의 메시아이자 여러 분과 저의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출현하기 700년 전에 살던 히브리 기자였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이며, 그는 구약 예언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메시아적인 예언을 기록했다.

2. 기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히브리어로 ‘예수아 야후, ’여호와는 구원이다, 혹은 ’여호와와의 구원’)는 이사야서를 특징지우는 한 이상을 보았다. “이사야서를 받기받기 찢는” 비평적인 이론들 까닭에 여기서는 다른 책보다 다소 길게 서론을 전개하겠다.

※ 이사야서의 통일성

1세기 동안, 그것도 가설로가 아니라 사실인양 가르쳐진 소위 ‘고등 비평가들’의 여러 이론이 있다. 그것은 여러 학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이론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지 않았다.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지 않았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지 않았다. 바울이(아마도) 목회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았다.³⁾ 이사야는 그의 것으로 돌려지는 66권의 전반부만 기록했다.

이사야서가 그토록 중요한 작품이며, 메시아 예언으로 가득하

음악의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배경을 이룬다(53:4). 그밖에 다음 말씀들도 배경을 이룬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40:9).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35:5).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40:11).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53:3).

이 오라토리오의 가사 중 신약에서 취한 것은 거의 없는데, 이는 그 주제가 온통 메시아에 관한 것임을 감안할 때 특히 이상한 일이다.

3) (서론) 기자에 대한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본 ‘신자 성경주석’ 각 권 서론을 참조하라.

고(특히 비평가들이 다른 이들의 것으로 돌리는 부분에서), 신약에 자주 인용되는 까닭에, 일반 신자들을 위해 대중적인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그 비평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이사야의 기자권을 ‘적극적으로 논증’한 다음 그 통일성을 반박하는 주장들에 대해 하나씩 답변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

1) 역사와 전승의 증거

18세기 후반까지는 사실상 모든 유대 및 기독교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한 재능이 뛰어난 작가가 기록한 한편의 긴 예언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1795년에 J. C. 도어더라인(Doederlein)이 “제2의 이사야”(혹은 ‘Deutero-Isaiah’)를 40~66장의 기자로 제시했다. 물론 이사야 1~39장과 40~66장 사이의 내용 및 관점의 차이는 여러 세기 동안 모든 주의 깊은 독자들의 주목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자가 달라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내지는 않았다. 1892년 B. 뎀(Duhm)은 40~66장의 통일성을 부인하고 55~66장은 “제3의 이사야”(혹은 ‘Trito-Isaiah’)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들은 그 이상의 구분을 주장했다지만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계에서는 두세 권의 “이사야서”가 받아들여졌다.

초기의 전승은 둘 이상의 기자를 제시한 적이 없었다. 사실 이사야서의 통일성에 대한 믿음은 일찍이 자리잡은 것이요 모두 일치한 것이요 그리고 아무 도전도 받지 않은 것이었다.

2) 신약성경의 증거

이사야서는 신약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자주 인용된 구약성경이며, 항상 그 통일성을 염두에 두었다. 세례 요한(마 3:3; 눅 3:4;

요 1:23), 마태(8:17; 12:18~21), 요한(12:38~41), 바울(롬 9:27~33; 10:16~21) 등이 그 예언의 후반부를 이사야의 것으로 인용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38~41절이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책이 아닌 실제 기자 자신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41절).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서 후반부에 속한 이사야 53장 1절이며(38절),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이사야 6장 10절(39,40절)은 이사야서 전반부에 속한 것이다.

3) 계획과 전개 of 통일성

이사야서는 두세 명의 기자의 글을 편집한 것이라는 이론과 맞지 않는 일관된 계획과 질서를 보여준다.

4) 문체의 아름다움

이사야서 후반부의 탁월한 아름다움은, BC 6세기에 살았다고 주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작가가 완전히 잊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짧은 글을 남긴 소선지자들도 그들의 글의 기자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5) 사해 두루마리 사본

이사야서 사해 두루마리(BC 2세기)는 40장에 어떤 구분에 대한 암시도 보여주지 않는다.

※ 이사야서의 통일성에 대한 반박과 그에 대한 답변

이사야서의 통일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관점, ‘언어학적인’ 논증, ‘신학적인’ 논증 등 세 가지 주된 논증이 제기된다.

1) 역사적인 관점

이사야서가 두 주요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에는 거의 모든 이가 일치한다(1~39장과 40~66장). 36~39장은 일종의 역사적인 막간(幕間)이다. 흥미롭게도 1~39장은 구약을 반영하고 40~66장은 신약을 반영한다. 그 수에 있어서도 각각 구약과 신약의 권수와 일치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연의 일치인데, 왜냐하면 장 구분은 영감된 본문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1~39장의 관점은 분명히 포로 이전 시대이며, 40~66장은 포로 이후 시대이다. 이사야가 미래를 통찰하고 미래의 관점에서 기록할 수 있었을까? 많은 비평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우리 주님은(마 13장) 그렇다고 말했다.

만일 40~66장이 BC 6세기에 기록되었다면 왜 그 책이 바벨론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분위기를 풍기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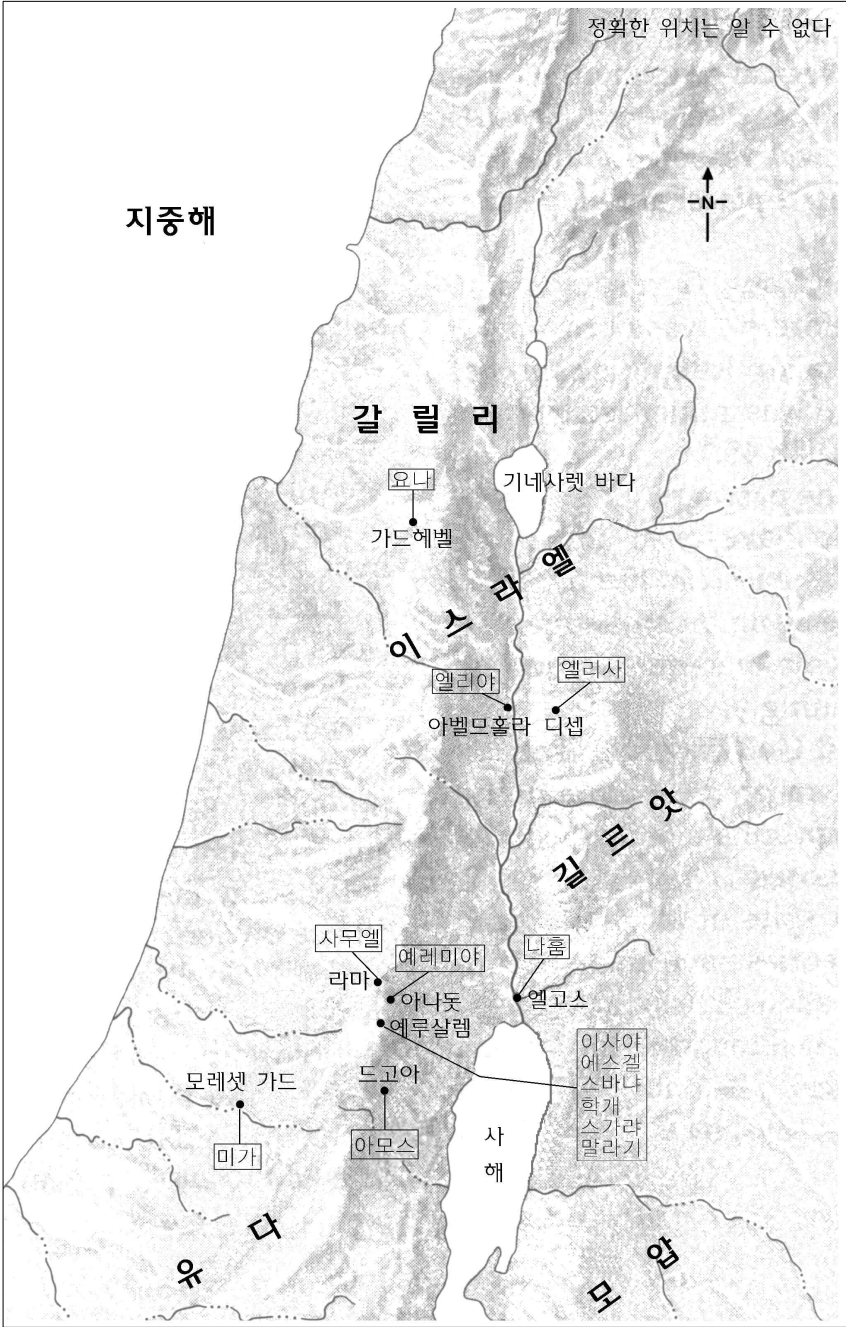
2) 언어학적인 논증

“제 2의 이사야”의 문체는 이사야의 문체와 다르다고 비평가들은 주장한다. 그들 모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시작하는 관점의 급작스런 변화를 주목한다(40:1).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기자의 문학적 융통성을 입증해줄 뿐이다. 플라톤, 밀톤, 셰익스피어 역시 내용에 따라 그들의 문체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40~66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메시아의 영광스런 위로가 그 차이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사야서의 두(혹은 세) 부분 간에는 문체상 많은 유사점이 있다. 그 많은 세부사항이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나, 그의 작품 전체에 나타나는 이사야의 문구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신적인 칭호이다.

3) 신학적인 논증

비평가들은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의 신학적인 모순을



▲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2 이사야”가 보다 “진보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진화론이라는 불건전한 이론체계에 부합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강조하고 “제2 이사야”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강조한다고 이들은 말한다. 사실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인 미가는 소위 “제2 이사야”와 유사한 사상을 지니고 있다.)

신학적인 논증은 세 가지 논증 중 가장 약한 것이지만, 그 이론들의 ‘본질적인’(real) 근거인 반초자연주의를 드러내준다.

이사야는 태어나기 수세기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급했다 (우리가 한 명의 이사야를 받아들인다면). 요세푸스는 고레스 자신이 이사야 45장에서 그 대목을 읽고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⁴⁾

일반적으로 첨가된 것으로 주장되는 많은 구절들은 “이미 성취된 극히 구체적인 예언들”이다. 여기에 다시 한번, 반초자연주의 성향이 그 예언들의 초기 연대를 거절하는 면으로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일진대 그분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원하는 만큼 세세히 장래를 예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

이와 같이, 그 이론들이 기존 기독교계에 깊이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전체는 1장 1절에서 말하듯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예부터 내려오는 한결같은, 복음주의 입장이 강력하고도 논리적이다.

3. 연대

이사야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사역을 시작했다(6:1; BC 740년경). 주로 유다에 대해 행해진 그의 사역기간은 네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대체로 선한 왕이었던 웃시야와 요담,

4) (서론) Josephus, *Antiquities* 11:1:f.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극히 선한 왕이자 이사야의 개인적인 친구였던 히스기야가 그들이다. 그가 산헤립의 죽음(BC 681)을 기록한 점으로 보아 이사야는 적어도 680년까지 살면서 60년이라는 장기간의 사역을 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악한 왕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죽었다.

4. 배경 및 주제

이사야의 이름의 의미도 이사야서의 주요 주제를 드러내준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온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예언서에 26회 나오는 반면 다른 선지서에는 모두 합쳐 7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주제는 또한 이 책의 통일성을 말해준다. 1~39장은 인간이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함을 말해주고, 40~66장은 그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책을 말해준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그 죄악됨으로 징벌을 받을 것이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장차 유대 백성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구주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치적으로, 소국 이스라엘은 신흥세력인 북쪽의 앗수르와 쇠약해가는 세력인 남쪽의 애굽의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자주 동맹 관계에 휘말려 들어갔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200년 앞을 내다보며 초강대국 바벨론의 장래를 예언했다.

5. 개관

1. 이사야 당대의 관점에서 본 징벌과 축복에 관한 예언(1~35장)

- 1)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그 사이로 비취는 영광의 빛줄기(1~5장)

- (1)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소(起訴)(1장)
- (2) 성결을 통한 장래 축복(2~4장)
- (3)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벌(5장)
- 2) 이사야의 소명, 성결 및 위임(6장)
- 3) 임마누엘의 책(7~12장)
 - (1) 메시아의 기적적인 출생(7장)
 - (2) 메시아의 놀라운 땅(8~10장)
 - (3) 메시아의 천년왕국(11~12장)
- 4) 열방에 대한 심판(13~24장)
 - (1) 바벨론에 대한 심판(13:1~14:23)
 - (2) 앗수르에 대한 심판(14:24~27)
 - (3) 블레셋에 대한 심판(14:28~32)
 - (4) 모압에 대한 심판(15,16장)
 - (5) 다메섹에 대한 심판(17장)
 - (6) 아프리카의 익명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18장)
 - (7) 애굽에 대한 심판(19,20장)
 - (8) 바벨론에 대한 심판(21:1~10)
 - (9) 두마(에돔)에 대한 심판(21:11,12)
 - (10)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21:13~17)
 - (11)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22장)
 - (12) 두로에 대한 심판(23장)
 - (13) 온 땅에 대한 심판(24장)
- 5) 노래의 책(25~27장)
 - (1) 천년왕국의 축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찬양의 노래(25장)
 - (2) 메시아에게 바치는 유다의 노래(26장)
 - (3) 구속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노래(27장)
- 6)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다시 일어남(28~35장)
 - (1) 에브라임(이스라엘)에 대한 저주(28장)

- (2) 아리엘(예루살렘)에 대한 저주(29장)
- (3) 애굽과의 동맹에 대한 저주(30~31장)
- (4) 의로운 왕의 통치(32장)
- (5) 약탈자(앗수르)에 대한 저주(33장)
- (6) 모든 열방에 대한 저주(34장)
- (7) 장래 왕국의 영광(35장)

2. 역사적인 전환점: 히스기야의 책(36~39장)

- 1) 히스기야의 앗수르로부터의 구원(36~37장)
 - (1) 앗수르가 하나님을 모독함(36장)
 - (2) 하나님이 앗수르를 멸하심(37장)
- 2)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38장)
- 3) 히스기야의 죄(39장)

3. 미래의 바벨론 포로기의 관점에서 본 위로의 예언(40~66장)

- 1) 이스라엘의 장래 구원에 대한 위로(40~48장)
 - (1) 하나님의 용서와 평강으로 인한 위로(40:1~11)
 - (2)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한 위로(40:12~31)
 - (3)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한 위로(41장)
 - (4) 여호와와 종으로 인한 위로(42장)
 - (5)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인한 위로(43~44장)
 - (6)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고레스로 인한 위로(45장)
 - (7) 바벨론 우상의 멸망으로 인한 위로(46장)
 - (8)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위로(47장)
 - (9) 이스라엘의 징계 받은 후 돌아옴으로 인한 위로(48장)
- 2) 메시아와 이스라엘에 의한 그분의 거절당함(49~57장)
 - (1) 종으로서의 메시아(49장)
 - (2) 참 제자로서의 메시아(50장)

- (3) 의로운 통치자로서의 메시아(51:1~52:12)
- (4) 죄악을 담당한 제물로서의 메시아(52:13~53:12)
- (5) 구속자와 회복자로서의 메시아(54장)
- (6) 세계 전도자로서의 메시아(55:1~56:8)
- (7) 악인의 심판자로서의 메시아(56:9~57:21)
- 3)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과 회개와 회복(58~66장)
 - (1) 참된 영성의 기쁨(58장)
 - (2) 이스라엘의 불의(59장)
 - (3) 시온의 장래 영광(60장)
 - (4) 메시아의 사역(61장)
 - (5) 예루살렘의 장래 기쁨(62장)
 - (6) 신원의 날(63:1~6)
 - (7) 잔존자의 기도(63:7~64:12)
 - (8) 잔존자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65장)
 - (9) 완전한 성취: 강 같은 평강(66장)

이사야 주해

1. 이사야 당대의 관점에서 본 징벌과 축복에 대한 예언(1 ~ 35장)

1)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그 사이로 비취는 영광의 빛 즐기(1~5장)

(1)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소(起訴)(1장)

1:1 이사야서의 첫 구절은 하나의 제목과 같은데, 그 역사적인 배경은 서론에서 다룬바 있다.

1:2~3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피고인 재판자리에 하늘과 땅이 참석하도록 소환을 받았다. 기소장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에게라도 기대할 수 있는 자연적인 감사와 충성을 보이지 않는 패역한 자식이라고 고소했다.

1:4~6 백성들은 ‘거룩한 자’에게 등을 돌리고 점점 더 불의를 행한 죄가 있었다. 비록 그 몸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으나 하나님의 징계는 성공하지 못했다.

1:7~9 7절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를 이미 일어난 것처럼 묘사한다.⁵⁾ 침략군이 유다를 황폐케 했다. 시온의 딸 예루살

렘은 폐허 가운데 황량하게 서 있는 초라한 임시 막사 같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수의 잔존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절되었을 것이다.

1:10~15 예루살렘(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들은, 하나님은 실재가 결여된 의식과 순종이 결여된 제사와 주는 자가 결여된 선물을 멸시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한 그들이 성전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밟고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 불의와 엄숙한 집회를 겸하여 하는 것은 그분께 가증스런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펼친 손 내지 무수한 기도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실 것이다.

W. E. 바인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동일한 위험성을 경고한다.

“외형만의 종교는 언제나 불의를 가리는 외투이다. 주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모든 것을 강한 책망으로 드러내셨다. 유대교의 그러한 그릇된 혼합이 기독교 안에서 크게 발전되었다. 신자는 죄 가운데 살면서 종교의식을 행할 정도로 그 양심이 심히 마비될 수 있다.”⁶⁾

1:16~17 그들이 할 일은 회개하고 악을 버림으로 스스로 씻고, 그런 다음 의와 사회적인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1:18~20 만일 그들이 이러한 거룩한 변론을 따른다면 그들은 깊이 몰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풀어주신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여호와와의 구원”을 뜻

5) (1:7~9) 이 예언들은 매우 확실하여 종종 완성된 행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완료시제로 표현된다.

6) (1:10~15) W. E. Vine, *Isaiah: Prophecies, Promises, Warnings*, p. 14.

하는 이 복음적인 선지자의 글의 첫 장이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복음 초청을 담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거룩한 변론은, 죄에서 정결케 되는 길이 있는데, 그 정결케 됨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과 전혀 무관하며 오직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완성하신 구속을 통해서만 이뤄진다고 가르친다. 이사야 1장 18절의 초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그 초청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나 백성들이 거절하고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때는 전쟁과 멸망이 그들을 기다린다.

1:21~23 예루살렘은 더 이상 신실과 공평과 의리의 성읍이 아니다. 이제 그것은 창기의 성읍이요 살인자의 도피처일 뿐이다. 그곳의 최상품은 부패되었고 그곳의 방백은 불한당들이다. 뇌물과 불의가 도처에 가득하다.

1:24~31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그분의 대적임을 보여주는 모든 이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실 것이다. 그분의 심판이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이전 영광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분의 공의가 회개한 자들의 구원을 보장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복합적인 이름이 묘사된 심판의 불가피함을 보증한다.

그러나 죄인은 멸망할 것이다. 우상숭배자는 그들의 신당(상수

리나무와 동산)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와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지도자들은 불이 잘 붙는 나무 같을 것이며 자신의 악행의 불꽃으로 타 버릴 것이다.

(2) 정결케 됨을 통한 장래 축복(2~4장)

2:1~3 이제 “아모스의 아들”은 현재의 혼란을 넘어 영광스런 메시아 왕국을 내다본다. 그 날에 예루살렘은 세계의 종교적 정치적 수도로 굳게 설 것이다. 이방 열국이 경배를 드리고 거룩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시온을 순례할 것이다.

2:4 왕이 국제적인 문제를 중재하고 백성들을 위해 판결을 행할 것이다. 그 결과 전세계적인 무장해제가 있게 될 것이다.⁷⁾ 무기 생산에 투자되던 기금이 농기구 생산에 투자될 것이다. 이러한 서론적인 구절은 미가 4장 1~3절과 유사한데, 이는 같은 성령에 의해 감동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2:5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런 전망이 이사야의 마음을 감동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해 즉시 회개하라(“여호와와 빛에 행하자”)고 촉구하게 했다.

2:6~9 이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온 죄악들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었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신에 동방의 신접한 자들에게 물었고 블레셋인 같은 술객이 되었다. 그들은 이방인과의 동맹이 금지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

7) (2:4) 이 구절은 하나님에 관한 서두의 말씀을 뻗체-뉴욕에 있는 UN건물에 새겨져 있다.

여 그들은 재물과 말과 병거를 많이 두고 그것들에게 안전을 의탁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만든 우상을 숭배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셨으며 그 때문에 그들을 용서치 않으셨다. “동방 풍속이 가득하여”라는 표현은 오늘날 서방 나라에서 동방의 종교가 인기를 끄는 양상을 잘 묘사해준다.

2:10~11 이사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돌이켜서, “눈이 높은 자”를 낮추는 여호와와의 두려운 진노를 피할 곳을 찾으라고 경고한다.

2:12~18 갑작스럽게 분위기를 전환하여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올 “여호와와의 날”의 심판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가 개개인이든(“백향목과 상수리나무”), 정부든(“높은 산과 작은 산”), 군사력이든(“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읍”), 상업이든(“배와 아름다운 조각물”)⁸⁾ 모든 인간의 교만함을 다루실 것이다. 인간의 거만함은 낮아질 것이고 여호와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우상은 폐기될 것이다.

2:19~22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 헤맬 것이다. 덧없는 인생은 의지할 가치가 없음이 자명해질 것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그분의 백성이 한 마음으로 신뢰할 가치가 있으시다.

3:1~5 2장 20절에 묘사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의지하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을 취해 가실 것이다. “양식과 물”의 상실은 기근 상태를 가리킬 수도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양식과 물”은 다음 구절에 암시된 중요한 지도자들을 상징할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능하고 성숙한 지도자들이 없어질 것이다.

8) (2:12~18) 슬루프형 배(a sloop)는 일반적으로 돛이 하나 달린 배를 가리킨다.

이 때는 압제와 독재와 오만과 불손과 불복종의 때가 될 것이다.

3:6~8 사람들이 친척을 붙잡고 “이 멸망”을 책임지라고 다그칠 것이나 친척은 집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으므로 그 칭을 뿌리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은 백성들 자신 외에 아무 탓으로도 돌릴 수 없다고 이사야는 말한다.

3:9~12 9절에서 이사야는 여덟 가지 “화”를 시작하는데, 둘은 이 장에 있고 여섯은 5장에 있다. 첫째 화는 백성들의 불공평과 부끄러움 없음을 꾸짖는다. 둘째 화는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는 한편 의로운 잔존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한다. 그들의 최악의 한 결과로 그들은 경험 없고 미숙한 자들(“아이”)과 약한 자들(“부녀”)과 그리고 속이는 자들에 의해 인도를 받고 있다.

3:13~15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재판석에 나오도록 소환하신다. 그들에 대한 고소가 퍼부어졌다. 그분은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희생시키며(뇌물과 강탈을 통해) 부를 쌓는다고 꾸짖으셨다. 평결이 “유죄”이므로 선고가 선언되었다.

3:16~24 이어서 유다 여자들의 교만과 교태와 값진 옷과 보석에 대한 신랄한 비난이 이어진다. 비싼 화장품을 바른 그들의 얼굴에는 악질이 생길 것이다. 그들의 몸에서 모든 아름다운 옷이 벗겨질 것이다. 숙녀가 되는 대신에 그들은 지저분한 난민처럼 몸에는 썩은 냄새를 풍기고 노끈을 두르고 머리를 말짱게 벗기우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자신의 누추한 신분을 드러낼 것이다.

3:25~4:1 그 외의 재앙으로 그들의 남자들을 전쟁에서 잃을 것이다. 남자들을 많이 잃게 되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는, 그의 이름으로 일컫고 또 결혼하지 못했으며 아이 없이 죽었다는 두려운 비난을 면케 해주면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4:2~6 4장 나머지 부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나라를 대망한다. 그분은 2절의 이름답고 영화로운 “씩(가지, 순)”이다. 메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는 ‘여호와와 의 싹’이다. 그것은 그의 예언적인 이름 중 하나이다. ‘내 종 순’(슥 3:8; 6:12), ‘의로운 가지’(렘 23:5; 33:15).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사 11:1). 그리고 그것은 그가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었을 때 염두에 두었을 표현이라고 어떤 이들은 생각한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와 의 싹’으로 불리는데, 이는 그의 능력으로 심겨져 그의 찬송이 되도록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 갈대아 해설문은 이 문구를 ‘여호와와 의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옮기고 있다.”⁹⁾

그분은 또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하는 그 땅의 첫 소산이다. 불신자들은 그분의 재림시에 주 예수님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생존자 명부에 기록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4절의 정결케 함은 복음이 아닌 심판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 시온 산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상징하는 낮의 구름과 밤의 화염으로 덮어질 것이다.

(3)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벌(5장)

5:1~2 그의 “사랑하는 자”(여호와, 혹은 ‘주’)를 위해 부르는

9) (4:2~6) Matthew Henry, “Isaiah,”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4:27.

노래에서 이사야는 그분의 포도원을 위한 여호와와 인자한 돌보심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위치를 택하고, 그 땅을 경작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보호하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고 술틀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기대하던 수확(순종, 감사, 사랑, 경배, 섬김) 대신에 그분은 악취가 나는 들포도(불순종, 거역, 우상숭배)를 얻으셨다.

5:3~6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며, 왜 그런 빈곤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느냐고 분노 중에 유다에게 물으셨다. 이어서 그분은 징벌이 임박했음을 선언하셨다. 그분은 유다의 보호막을 취해 가실 것이다. 그 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찢레와 가시를 얻을 것이며 가뭄을 겪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장차 올 바벨론 포로를 내다본 것이다.

5:7 그 원인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서 공의와 의로움을 기대하셨으나 살인과 짓밟힌 자들의 부르짖음만 얻으셨기 때문이다.

5:8~10 8~23절에서 우리는 3장에 이어서 계속된 여섯 가지 화를 볼 수 있다. 그 화는 다음과 같이 선언되었다.

“**첫째 화**”: 집과 땅이 절대부족 상태에 이를 때까지 부동산 시장을 궁지에 빠뜨리고 홀로 넓은 소유를 누리는 탐욕스런 지주들. 포로됨으로 많은 가옥이 빌 것이며, 땅은 빈약한 열매를 낼 것이다.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날 것이다.

5:11~17 “**둘째 화**”: 아침 일찍부터 밤이 깊도록 술을 퍼마시는 알콜 중독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행사를 완전히 무시

한 채 연회와 술판을 벌인다.

그러한 감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사로잡힘이 가까이 이르렀다. “귀한 자들”과 “무리”가 기근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어떤 부류도 굴복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방의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폐허에서 그들의 양떼를 먹일 때 하나님이 그 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5:18~19 “셋째 화”: 죄에 종노릇하고 정죄와 심판을 자초하는 완고한 거짓말쟁이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형벌을 빨리 내리라고 하나님께 도전한다.

5:20 “넷째 화”: 도덕적인 구별을 없애고 선과 악의 차이를 부인하는 자들.

5:21 “다섯째 화”: 아무 얘기도 듣지 않는 미혹된 자들.

5:22~23 “여섯째 화”: 술 마시는데 용감하고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굽게 하는 재판관들.

5:24~25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 없는 이 악인들은 불타는 초원의 풀처럼 삼킨바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분의 백성을 다루사 산이 진동하고 거리에 시체가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심판이 있다!

5:26~30 그분은 바벨론을 불러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라. 더없이 건장하고, 완전히 일치되고, 잘 무장되었다. 말과 병거들이 신속히, 맹렬히 다가온다. 그 군대가 사자처럼 덮쳐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다. 이 때는 유다의 어두운

날이다!

2) 이사야의 소명과 정결케 됨과 위임(6장)

6:1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¹⁰⁾, 이사야는 만왕의 왕에 대한 한 이상을 보았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39~41절에서 그가 본 왕이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 C. 제닝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는 밧모섬의 요한처럼 ‘성령의 충만’을 입고, 아돈(*Adohn*, 만물의 으뜸 되는 주재로서의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는 로마서 9장 5절처럼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을 뵈었는데, 그분은 모든 찬란한 위엄을 지닌 채 보좌에 앉아 계셨다. 그 보좌는 ‘만물을 다스리는 곳’이기에 그 자체가 ‘높이 들렸으며’,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동안 그분의 옷 자락이 그 영광스런 성전을 가득 채웠다.”¹¹⁾

6:2~5 “경외를 위한 네 날개와 섬김을 위한 두 날개”를 가진 “스랍”¹²⁾으로 불리우는 영물들이 그분을 모시고 서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한편,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기 전에 정결케 될 것을 촉구했다.

10) (6:1) 이 때는 BC 740년일 것이다. 무디는 이렇게 말한다. “웃시야의 통치는 말하자면 유대 역사에 있어 빅토리아 시대였다. 그 시대가 수치와 불명예 가운데 사라질 때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왕을 본 것이다.” *Notes from My Bible*, p. 85.

11) (6:1) F. C. Jennings, *Studies in Isaiah*, p. 61.

12) (6:2~5) ‘스랍’(seraphim)이라는 단어는 ‘세랍’(seraph, ‘불태우다’)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으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는 말씀과 같이(히 12:29; 신 4:24) 하나님의 불타는 거룩성을 강조한다.

이 이상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깊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그를 자복의 자리로 인도했다.

6:6~8 이어서 정결케 하는 일이 곧 따랐다. 그 때 비로소 이사야는 여호와와의 부르심을 들었다. 그는 즉시 자신을 여호와께 구별해서 드리고 사명을 부여받았다.

6:9~10 그는 메시지를 거절한 결과로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해진 백성들에게 여호와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다. 9,10절은 이사야의 사역의 ‘목표’가 아닌 그 필연적인 ‘결과’를 묘사해준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한 일을 설명하기 위해 신약에 인용되었다. 바인은 이렇게 말한다.

“이 백성은 심히 완고하게 그 길을 굽게 함으로 회개하여 고침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나아갔다. 어떤 사람이 최악 중에 스스로 강박케 하여 그 상태를 치료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응적인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이다.”¹³⁾

6:11~13 “어느 때까지니이까?”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백성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느냐는 뜻이다. 그 대답은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였다. 하나님이 잔존자(‘십분의 일’)를 남겨두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잔존자도 극한 환란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그 “거룩한 씨”는 다른 나무들이 베임을 당한 뒤에 생존한 큰 나무의 살아있는 “그루터기”와 같다.

13) (6:9,10) Vine, *Isaiah*, p. 32.

3) 임마누엘의 책(7~12장)

(1) 메시아의 기적적인 출생(7장)

7:1~2 7~12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담고 있는 까닭에 임마누엘의 책으로 불리어왔다.

6장과 7장 사이에 이사야는 요담의 통치를 뛰어넘어 아하스 시대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 이 때는 아람과 이스라엘(에브라임)이 유다를 대적하여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때였다.

7:3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습이¹⁴⁾ 아하스 왕을 만나러 “윗 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갔다. 아마도 아하스 왕이 그곳에 간 것은 예루살렘 성에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함인 듯하다. 세탁자의 발은 사람들이 세탁이 끝난 옷을 햇볕에 말리는 곳이었다.

7:4~9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셨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르신”과 “베가”)은 다 꺼져 가는 연기 나는 부지깥이에 불과했다. 비록 그 연합군이 유다를 쳐서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자를 왕으로 삼고자 계획했지만 그 계획은 전반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략했으나 앗수르의 진격으로 물러가고 말았다.) 아람의 주요 도시가 다메섹이고 그 머리가 르신임이 확실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65년 안에 확실히 정복될 것이다. (그 성취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7장을 보라).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고 그 머리가 베가임이 확실한 것처럼 아하스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확실히 폐위될 것이다.

14) (7:3) 그의 아들의 이름은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는 뜻이다.

7:10~13 여호와께서 아람-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한 징조를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구하라고 아하스에게 이르셨다. 아하스는 앓수르의 보호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경건과 겸손을 가장하고 거절을 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징조를 허락하셨다. 바인은 이렇게 말한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기를 거절하자 여호와께서 자신이 택하신 징조를 주고자 하셨다. 그 징조는 아하스 당시의 상황을 뛰어넘어 ‘다윗의 집’에 관한 예언과 약속을 절정에 이르게 할 것이었다. 아하스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 징조의 성취의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¹⁵⁾

7:14 다른 많은 예언들처럼 이 예언은 이른 성취(아하스 당시)와 이후의 완전한 성취(그리스도의 초림 때)가 있는 듯하다. 14절은 의문의 여지없이 그리스도, 즉 그 이름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처녀의 아들¹⁶⁾을 가리킨다. 다시 한번 바인의 말을 들어보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보라’(Behold)라는 말은 늘 미래의 상황과 관련된 것을 소개한다. ‘베들라’(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은 여자아이)와 구별되는 ‘알마’라는 단어가 선정된 것이 의미심장한데, 이 단어는 성숙하고 결혼할 준비가 된 여

15) (7:10~13) Vine, *Isaiah*, p. 35.

16) (7:14) 14절에서 ‘처녀’(알마)로 옮겨진 히브리어 단어는 ‘젊은 여자’를 뜻할 수도 있다. 이 예언은 이사야의 아내가 마헬살랄하스바스를 낳았을 때 미리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을 수도 있다(8:1~4). 그러나 궁극적인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출생이었다.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처녀’만을 의미할 수 있는 ‘파르테노스’라는 헬라이어 단어를 사용했다(마 1:23).

자를 가리킨다.”¹⁷⁾

7:15~17 15,16절은 8장 18절에 한 징조로 언급된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헬살랄하스바스를 가리킬 것이다. 이 처녀에게서 난 아들은 책임 연령에 이를 때까지 가난한 생활을 할 것이다(“삐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나 그 연령에 이르기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 땅이 그 왕들에 의해 폐한바 될 것이며, 따라서 유다가 두려워하던 그 동맹이 무효화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앗수르 왕의 침공을 통해 유다 역시 징벌하실 것이다. 어떻게 징벌하시겠는가?

7:18~22 하나님이 파리(애굽)와 벌(앗수르)을 부르실 것이며, 그들이 유다를 기습할 것이다. 앗수르는 하나님의 “새 내어온 사도”가 되어 수치와 불명예를 가져올 것이다. 제닝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 날에 유다는 참으로 가련할 것인데, 이는 한 사람이 소유한 부가 한 마리의 소와 두 마리의 양 내지 염소가 전부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작하지 않은 땅에서 나는 목초가 풍부하여 그 세 마리 짐승이 그에게 필요한, 혹은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내어줄 것이다.”¹⁸⁾

7:23~25 전에 풍성한 곡식을 내던 땅이 쪼레와 가시로 덮일 것이다. 더 이상 경작지가 없을 것이며, 우양을 먹이기에만 적당할 것이다.

17) (7:14) Vine, *Isaiah*, p. 35.

18) (7:18~22) Jennings, *Isaiah*, p. 90.

(2) 메시아의 놀라운 땅(8~10장)

8:1~4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서판에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뚜렷이 쓰고, 두 증인, 즉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후에 증거하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그 이름은 “노락을 신속히 하다”는 뜻이며, 앗수르에 의한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킨다. 여호와께서는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그 이름을 주라고 이르시면서 그 의미를 풀이해주셨다.

8:5~10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다. 북왕국 백성은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거절한 까닭에 “큰 하수”, 즉 유브라데의 범람한 물에 삼켜질 것이다. “실로아”(요한복음 9장 7절에 ‘실로암’으로 일컬어짐)는 예루살렘의 숨겨둔 수원(水源)이었으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유브라데는 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할 앗수르를 상징한다. 앗수르는 유다도 침공하여 그 임마누엘의 땅을 삼킬 것이나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목에까지”만 올라올 것이다. 유다의 대적들은 그들의 계획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흠어질 것이다.

8:11~15 이사야는 이 백성과 함께 그들을 대적하여 꾸민 모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만 신뢰하라는 여호와의 지시를 받았다. 그분은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다른 모든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실 것이다.

8:16~18 이사야는 역사가 그 성취를 기록할 때까지 신실한 제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봉함(封緘)해 둘 것을 명했다. 이사야는 여호와, 곧 지금은 그분의 백성을 피하고 계신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볼 것이다. 이사야(‘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와 스알야슈(‘잔

존자가 돌아올 것이다’)과 마헬-살랄-하스-바스(‘노락을 신속히 하다’)라는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비와 그 대적에 대한 그분의 심판에 대한 징조와 예표이다.

8:19 이사야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보라고 권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백성들을 일깨웠다.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 계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비종교(occult)에 몰입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간사의 모든 중대한 위기 앞에는 신비주의에의 몰입이 있었다.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유대와 이스라엘이 그러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에도 그러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안내와 영적인 문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진리의 성경 안에 예비해두셨다(딤후 3:16,17).”¹⁹⁾

8:20~22 모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보아야 한다. 만일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빛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모든 자들은 방황하고 곤고하며 주릴 것이며, 곤경으로 인해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구조를 기다릴 것이나 고통의 흑암만을 보게될 것이다.

9:1~5 이제 우리는 메시아의 강림으로 나아가게 된다. “납달리 땅”으로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북부 영토가 전에는 침략자에게

19) (8:19) Vine, *Isaiah*, p. 41

덜시를 당했으나 후에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방의 갈릴리”는 구주의 어릴 적 고향이자 그분의 공사역 현장의 일부였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갈릴리에 빛을 가져다주었다. 그분의 재림은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종살이와 전쟁을 그치게 할 것이다.

9:6 그 초림은 6절 전반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표현되어 있다. 첫째 문장은 그분의 인성을 가리키고 둘째 문장은 그분의 신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6절 후반부는 재림을 가리킨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 구절의 나머지는 그분의 위(位)의 영광을 묘사해준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이 이름은 그분의 위(位)와 사역을 말해준다.

“모사라”-그분의 다스리는 지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전능하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통치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혹은 영원의 아버지(혹은 ‘근원’), 스스로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바인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계시가 들어있다. (1) 그분은 영원 중에 존재하며 영원을 소유하고 계신다(57:15); (2) 그분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지혜로운 교사요 훈련자요 공급자시다.”²⁰⁾

“평강의 왕이라”(‘살-살롬’)-마침내 이 환란의 세상에 평강을 가져다주실 분.

20) (9:6) Vine, *Isaiah*, p. 43.

9:7 그분의 통치는 광범위하고 평화롭고 무한할 것이다.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이뤄질 것인가? 그분의 백성을 위한 여호와의 뜨거운 관심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9:8~12 다시금 이사야는 심판으로 돌이켜 그의 메시지를 네 부분으로 나눠 전하고 있는데, 각 부분은 다음 후렴구로 끝난다. “그렇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12,17,21, 10:4).

이스라엘은 이전의 징벌로 영향을 받음 없이 전보다 더 영화로운 모습으로 재건축하겠다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도전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동쪽으로는 아람군의 공격을 당하고 서쪽으로는 블레셋군의 공격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셨다.

9:13~17 여호와께서는 더 나아가, 존경받는 장로에서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불경건이 만연한 까닭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며 그 손을 여전히 펼치실 것이다. 자비가 아닌 심판으로 말이다.

9:18~21 그 땅은 죄악이 만연한 까닭에 내전과 폭정과 기근과 노략과 식인(食人)행위의 불에 살라질 것이다.

10:1~4 궁핍한 자를 노략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관원들에게 화가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뇌물과 강탈로 얻은 모든 부를 잃게 될 것이다.

10:5~11 하나님은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 앗수르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나 앗수르는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졌다! 그의 목적은 정복을 통해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는 그의 방백이 모두 왕이며, 주변의 성읍들이 그가 정복한 성읍보다 크지 못하며,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이 그가 사로잡은 혹은 그가 소유한 우상에 비교되지 않는다고 자랑했다.

10:12~19 그러나 하나님은 앗수르 왕의 교만과 거만을 벌하실 것이다. 앗수르 왕은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과 지혜 탓으로 돌렸다. 여호와와 손을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는 자기를 권 손 앞에서 스스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두려운 재앙이 앗수르의 용감한 전사들을 칠 것이며, 그의 영광과 그의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소멸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여호와이며, “그의 형극과 찢레”는 앗수르 군대이다. 그 군대의 남은 자는 희소하여 어린아이이라도 능히 셀 수 있을 것이다.

10:20~23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다시는 아하스처럼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이 예언의 상당 부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한다.

10:24~27 비록 앗수르 왕이 북방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지라도 유다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애굽에게 행하셨듯이 개입하실 것이며, 유다가 앗수르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다.

10:28~34 여기에 언급된 성읍들을 통해 우리는 앗수르 군의 공격 경로를 생생히 그려볼 수가 있다. 침략자들이 이르는 곳마다 두려움과 도피가 있다. 마침내 그들은 예루살렘 언덕을 눈앞에 둘 것이다. 그 때 여호와께서 개입하사 삼림을 베어 쓰러뜨리

듯이 그 군대를 멸하실 것이다.

(3) 메시아의 천년왕국(11~12장)

11:1 이사야 11장은 신구약을 포함해서 천년왕국에 관한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이다. 선지서에서 종종 나타나는 신속한 상황반전을 통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된다.

먼저 우리는 그 다윗의 아들되신 분의 계보, 즉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²¹⁾을 보게 된다(삼상 17:12).

11:2 메시아가 여호와의 신으로 기름부음 받는 모습이 세 가지 영적인 특징으로 묘사되어 있다. W. E. 바인은 그것을 이렇게 간명하게 설명한다.

“첫째로, ‘지혜와 총명의 신’은 이성적인 능력과 관계가 있다. 즉, 지혜는 사물의 속성을 헤아리고 총명은 사물의 차이점을 구별한다. 둘째로, ‘모략과 재능의 신’은 실제적인 활동과 관계가 있다. 즉, 모략은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능력이며 재능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능력이다. 셋째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여호와와의 사귄과 관계가 있다. 즉, 지식은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한다(‘지식과 경외함’은 모두 여호와에 대한 것이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ginosko*’, 즉, 너희는 그를 알기를 시작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를 안다(‘*oida*’, 즉, 나는 그를 직관적으로, 완전히 안다)’고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²²⁾

21) (11:1) “보라, 장미가 어떻게 피는지를”라는 아름다운 옛 독일 캐롤송은 여기에 나타난 이사야의 생각을 잘 표현했다. 그 시인은 이새의 뿌리에서 자라날 식물로 장미를 택한 것이다.

22) (11:2) Vine, *Isaiah*, p. 49.

11:3~5 이어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공평성이 장엄한 시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 다음 악인에 대한 그분의 징벌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평화롭고 안전한 통치 등이 묘사되어 있다.

11:6~9(상) 들짐승조차도 메시아의 통치에 굴복하여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할 수 있게 될 것이다.²³⁾

11:9(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런 약속 중 하나가 이 9절 하반절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천년왕국의 이상적인 모습의 이유를 말해준다.

11:10~16 메시아가 열방을 그에게로 이끄는 기호(旗號)가 될 것이며, 그분의 권위의 자리가 영화로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 중 잔존자를 사방에서 다시 모으실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브라임)이 평화로이 함께 거할 것이며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등 그들의 대적을 굴복시킬 것이다. “애굽 해고”(홍해)가 마를 것이며 유브라데 하수가 유다인들이 그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일곱 갈래로 나뉠 것이다. 북방에서의 귀환이 용이하게 되도록 대로가 앗수르와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해줄 것이다.

12:1~6 기쁨의 천년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감사와 신뢰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구원받은 잔존지는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음으로 즐거이 그 갈증을 해소할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 나아와 만족을 얻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열방에 대한 하

23) (11:6~9상) 독학한 미국인 웨이커교도 화가인 에드워드 힉스는 이 구절을 몹시 사랑하여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의 그림을 여러 차례 그렸다. 그의 매혹적인 화풍은 동물해부학에 대한 그의 지식을 훨씬 능가했다.

나님의 선교사로서 노래부를 것이다.

4) 열방에 대한 심판(13~24장)

(1) 바벨론에 대한 심판(13:1~14:23)

13:1~5 다음 열 한 장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앗수르를 멸한 제국 바벨론이다(BC 609년). 13장에서 우리는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게 정복당하는 모습을 본다(BC 539년). 그러나 예언 중 일부는 그 사건을 뛰어넘어 대환란 끝에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멸망당하는 사건을 내다본다(계 17,18장).

하나님이 메대 바사 군대(‘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를 불러 “존귀한 자의 문”(바벨론 성)에 들어가 “온 땅을 멸하게 하신다.”

13:6~13 이어서 그 재앙의 두려움이 묘사되어 있다. 놀람과 괴로움과 슬픔과, 하늘의 두려운 혼란과, 인구의 큰 감소가 따를 것이다. 본문의 일부는 메대 바사의 승리를 뛰어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천체에 격변을 일으킬 여호와와 날을 대망한다.

13:14~22 수많은 외인들이 바벨론을 빠져나가 그들의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남은 자는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을 당할 것이다. 19~22절은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었으나²⁴⁾, 완전한 성취는 미래에 있다.

바벨론 성과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에는 몇 가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사 13:6~22, 14:4~23, 21:2~9, 47:1~11; 렘 25:12

24) (13:14~22) 라이리는 이렇게 말한다. “바벨론의 하락은 단계적으로 일어났다. BC 20년경에 스트라보는 그것을 ‘방대한 황폐화’라고 묘사했다. 그 사막의 방랑자(아라비아인)조차도 그 현장을 멀리 했는데, 이는 그곳이 불길한 운명의 징조가 되었기 때문이다”(Ryrie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p. 1053).

~14,50,51). 예를 들어, BC 539년의 메대에 의한 바벨론 성의 함락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으며(사 13:19), 그 성이 영원히 사람이 거주하지 않게 되지 않았으며(사 13:20~22), 북방 민족에 의해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았으며(메데 바사는 동쪽에 있었다; 렘 50:30), 이스라엘 혹은 유다의 잔존자로 여호와의 구하거나 시온에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으며(렘 50:45),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사르는 일이 없었다(렘 51:58).

이와 같은 난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다시 다짐해야 한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언은 종종 시간에 대한 암시 없이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한데 결합시켜놓는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예언은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성취와 먼 완전한 성취의 두 성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그 경우이다.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지 않았다. 일부는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바벨론은 대환란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 운명이 계시록 17,18장에 이미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이 그 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확실할 것이다.

14:1~2 여호와께서 그분의 자비로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열방이 그들의 귀환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과 화평하게 지낼 것이다. 전에 이스라엘의 주인이었던 자들이 이제 그 종이 될 것이다.

“야곱”과 “이스라엘 집”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을

가리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포로된 나라에서 해방하여 그들의 땅에 다시 정착시키신다는 뜻이다. “야콥의 집”에 머무는 이방인들은 바벨론에서 개종한 자들이다.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올” “민족들”에는 유다 백성의 귀환을 도와준 고레스와 그밖에 사람들의 호의적인 지원이 포함될 것이다.

14:3~11 꺾박과 고된 속박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세를 꺾으셨고 그의 전제정치를 종식시키셨다. 이제 땅이 즐거워하며, 그 대적에 의해 더 이상 말짱게 벗기우지 않을 숲도 즐거워한다. 마침내 평화가 임했다! 음부에 거하는 자들이 그를 만나고 그도 권세를 박탈당했음을 보고 기뻐했다. 바벨론 왕의 자만과 허세가 사라졌다. 왕궁의 음악이 그쳤다. 그는 구더기를 깔고 자며 지렁이가 그 위를 덮는다.

14:12~17 조롱의 노래가 계속되는 동안 주제가 바벨론 왕의 멸망에서 그를 조종한 장본인인 사단(루시퍼)²⁵⁾ 자신의 멸망으로 확장된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유사하게 묘사하셨고(눅 10:18), 이사야 14장 13,14절의 표현이 사단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부적절한 점으로 보아(딤후전 3:6) 본문은 분명히 사단을 가리킨다”고 라이리는 말한다.²⁶⁾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있다고 주장한 까닭에 하늘에서 쫓겨났다. 13,14절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뜻”을 고집한 그 악명 높은 일을 잘 보여준다. 마침내 그는 음부에 던져질 것이며 놀람의 대상이

25) (14:12~17) ‘루시퍼’는 ‘빛의 운반자’를 뜻하는 ‘광명한 새벽별’의 라틴어 형태이다.

26) (14:12~17) Ryrie, *Study Bible*, p. 1054.

될 것이다. 음부에 거하는 자들이 그토록 큰 권세를 행사하던 자가 그토록 낮아진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14:18~21 조롱의 노래는 다시 바벨론 왕에게로 돌아와서, 대부분 왕들은 화려한 무덤에 누워있지만 바벨론 왕은 정중히 장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무 기념비도 없을 것이며, 그의 후손은 끊어질 것이다.

14:22~23 바벨론 성은 사람이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멸망의 비로 소제될 것이다.

(2) 앗수르에 대한 심판(14:24~27)

14:24~27 이제 주제는 이 당시 바벨론을 지배하던 앗수르의 멸망으로 전환된다. 앗수르 군대는 이스라엘 산에서 격퇴당할 것이다.²⁷⁾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대환란 때에 북방 왕이 임마누엘의 땅을 멸하려하다가 패배를 당함으로써 이뤄질 것이다.

(3) 블레셋에 대한 심판(14:28~32)

14:28~31 블레셋은 전에 블레셋을 물리쳤던(대하 26:6,7) 윗시야의 손자인 아하스(여기에 “지팡이”로 불리움)의 죽음을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후손인 히스기야가 “독사와 불뱀”처럼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왕하 18:8). 그 때 하나님의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은 안전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블레셋인에게 기근을 임하게 하고 그 남은 자를 살육하실 것이다. 침략자 앗수르가 연기 구름처럼 북방에서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안전할 것이다.

27) (14:24~27) “앗수르의 멸망에 관한 이 예언의 성취는 37장 21~38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라이리는 말한다(Ryrie, *Study Bible*, p. 1055).

14:32 만일 어떤 이방 사신들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묻는다면,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4) 모압에 대한 심판(15~16장)

15:1~7 이사야는 모압의 운명에 관한 애도의 노래를 힘차게 부른다. 그 수도 “알”과 그 오만한 요새 “길”이 갑자기 무너질 것이다. 마을과 촌락이 슬픔에 잠길 것이다. 그 땅을 떠나는 도피자들을 보고 이사야 자신도 측은히 여길 것이다. 온 땅이 황폐할 것이며, 사람들이 물건을 챙겨 들고 국경을 넘을 것이다.

15:8~9 부르짖음이 모압 변방에 미칠 것이다. 2절의 “디본”(수척해짐)이란 마을 이름이 9절에서 “디몬”으로 바뀌었는데, 디몬이 “담”(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유사한 점으로 보아 이것은 단어의 차이를 이용한 기법인 듯하다. 그와 같이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할 것이다.” 피한 자들도 사자에게 쫓김같이 쫓김을 당할 것이다.

16:1~2 모압의 황폐함에 대한 묘사가 16장에서 계속된다. “셀라”(그 수도인 페트라)로 피신한 모압인들은 전에 사마리아에 어린양을 보낸 것처럼(왕하 3:4) “딸 시온 산”(예루살렘)에 있는 “이 땅 치리자”(유다 왕)에게 어린양을 조공으로 바치라는 조언을 듣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임박한 재앙으로 인해 몹시 불안해할 것이다.

16:3~5 여호와께서 모압에게 하나님의 쫓겨난 유대인들을 어두운 그늘처럼 숨겨주고, 그들에게 피할 곳과 안전을 제공하라고 이르실 것이다. 토색하는 자와 멸절하는 자와 압제하는 자가 그

칠 것이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인자와 충실과 공평과 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16:6~12 모압의 멸망은 그 교만과 오만 때문이다. 그 땅에 통곡이 가득할 것이다. 헤스본의 비옥한 밭이 황폐하고 십마의 풍성한 포도나무가 마를 것이다. 다시금 이사야는 그 광범위한 황폐함을 슬퍼한다. 모압이 그의 우상에게 기도할 때 아무 도움도 오지 않을 것이다.

16:13~14 모압의 멸망에 관한 종전의 예언에 덧붙여, 하나님은 “폼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안에”, 즉 그 정한 때보다 조금도 길지 않은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더 알리셨다.

(5) 다메섹에 대한 심판(17장)

17:1~3 세 번째 말씀은 아람과 그 주변 성읍들의 중심도시인 다메섹이 낮아질 것을 예언한다. 에브라임(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은 까닭에 유사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그 요새를 잃고, 다메섹은 그 나라를 잃고, 그리고 남은 아람 백성은 그 영광을 잃을 것이다. 다메섹은 BC 732년 아람 군에게 멸망당했으며 사마리아는 10년 후에 멸망했다.

17:4~6 그 심판 날에 이스라엘은 모욕과 기근을 당할 것이다. “르바임 골짜기”의 이삭처럼 베임을 당할 것이며, 소수의 잔존자만 남을 것이다.

17:7~11 그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지으신 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사시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우상숭배와 관계된 모든 것을 거부할 것이다. 견고한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후의 히위 족과 아모리 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할 것이다.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가지”, 즉 이방과의 동맹과 그 종교와 풍습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확이 비참할 것이다.

17:12~14 12절에서 시작해서 18장 끝까지에서 우리는 “슬프다”로 시작되는 두 가지 사건을 동반한 짧은 삼입부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이방 나라들이 현대전의 가공할 “소동” 속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러나 갑자기 그들이 여호와에 의해 물러나며,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앗수르 군대의 멸망처럼 밤사이에 사라져버린다.

(6)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땅에 대한 심판(18장)

18:1~7 본문은 “슬픔”을 외치는 말이 아니라²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신을 보내는 이름 모를 우방국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르는 소리”이다(2,7절). “날개 치는 소리나는”이라는 표현은 유다 백성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리키는 듯하다.

한편, 하나님이 조용히 지켜보시는 동안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고 그 시체를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 산에 이를 것이다. 7절은 “백성에게서...”라고 옮겨지는 대신, “그 날에...홀 어지고 약탈당한 백성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옮겨질 수도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가리킨다.

28) (18:1~7) 이 단어는 ‘화’를 가리키는 일반 단어이나 여기서는 “17장 12절과 다르며, 진노보다는 동정을 표현한다(사 55:1; 숙 2:10)”(Franz Delitzsch, “Isaiah”,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7:348).

(7) 애굽에 대한 심판(19,20장)

19:1~3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러 강림하실 때 우상들이 떨고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내전이 일어날 것이며, 정부의 수뇌들이 우상과 각종 형태의 강신술(요술책)을 의지할 것이다.

19:4~10 잔인한 군주가 그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극심한 가뭄이 수원(水源)을 고갈시키고, 흉작을 가져오고, 어업을 망하게 하고, 직물공장을 닫게 하고, 방백이든 평민이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절망케 할 것이다.

19:11~15 소안과 늪에 거하는 바로의 최고의 모사들은 그 상황에 대처할 지혜가 없을 것이다. 사실 그들의 조언이 애굽에 재앙을 가져왔으며 따라서 이제 상황은 절망적이다.

1~15절은 이미 성취되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디르하카(Tirhakah)가 죽은 뒤에 애굽은 내전으로 분열되었다. 애굽은 열두 왕국으로 찢기어 모두 앗수르에게 굴복했다. 마침내 애굽은 4절의 “잔인한 군주”인 사메티추스(Psammetichus)에 의해 다시 통합되었다.

19:16~17 하나님이 그 주먹을 흔드실 때 온 백성이 두려움으로 흔들릴 것이다. “유다”를 언급만해도 애굽인의 마음이 좌절될 것이다.

19:18~20 그러나 애굽 땅 역시 회복이 약속되었다. “다섯 성읍”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며 그 중 하나가 “장망성”이라고도 불리우는 헬리오폴리스(태양성)이다. 그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며 그 둘이 여호와를 위한 증거가 될 것이다.

요세푸스는 BC 1세기에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대제사장 오니아스가 애굽에 단을 세우도록 허락받았을 때 19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예언의 완전한 의미는 의문의 여지 없이 천년왕국에 해당된다.

19:21~22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을 그분께 예배하도록 이끄는 데 성공할 것이다.

19:23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통과하여 자유롭게 앗수르에 갈 수 있는 대로가 생길 것이다. 열방이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참여할 것이다.

19:24~25 그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와 더불어 3국 동맹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왕국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 날에”라는 반복된 표현을 보라(16,18,19,21,23,24절).

20:1~6 BC 711년 앗수르 왕 사르곤의 군대장관, 혹은 “다르단”이 블레셋 성읍 아스돗을 정복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벗은 몸(완전히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속이 들여다보이게 벗은 상태)과 맨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가 앗수르에게 정복당할 때 당할 3년간의 수치를 보여주는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앗수르에 대항하여 애굽의 보호를 의지하는 것의 우매함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주석가들은 5,6절이 블레셋이나, 유다와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 온 지경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²⁹⁾

29) (20:1~6) ‘팔레스타인’(Palestine)이란 이름은 ‘블레셋’(Philistine)이란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8) 바벨론에 대한 심판(21:1~10)

21:1~4 21장의 세 가지 말씀은 바벨론과 에돔과 아라비아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준다.

“해변 광야”는 바벨론, 아마도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바벨론 지역을 가리킨다. 멸망이 광야에서 회리바람처럼 몰려올 것이다. 바벨론이 여전히 속이고 약탈하는 까닭에 바사(엘람)와 메대에 의해 낮아짐을 당할 것이다. 더 이상 바벨론이 다른 민족을 유다 포로처럼 신음하게 못할 것이다. 그 이상이 심히 두려워 이사야로 전율케 했다.

21:5 지도자들이 안전하다고 하며 잔치를 벌이고 흥청거릴 때 갑자기 무장하라는 비상명령이 내려질 것이다(“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것은 물론 벨사살의 연회를 가리킨다(단 5장).

21:6~10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워 공격해오는 무리, 특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기병들의 모습을 묘사하게 하라고 이르셨다. 그 파수꾼은 여러 날 동안 밤낮 파수한 후에 기병들이 짝을 지어 쳐들어온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가리킬 것이다. 이어서 그는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바벨론과 그 우상숭배 종교의 멸망을 선포했다. 이 선포는 이스라엘, 즉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키질을 당한 민족에게 위로의 메시지였다. 이 예언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약 2백년 전에 선포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수꾼이 될 수 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서서, 다가올 일을 알고 그 일을 경계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제 사색적인 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과 성경을 비교함으로써,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밝혀진 사

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목적에 관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바를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알게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고하고 권면할 수가 있다. 그는 하나님과 사귀을 나누면서 파수대 위에 서 있다(7절).”³⁰⁾

(9) 두마(에돔)에 대한 심판(21:11,12)

21:11~12 “두마”는 이두매, 혹은 에돔이다. 한 에돔 인이 근심 중에 파수꾼에게 밤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즉 앓수르의 위협이 거의 끝났는지를 물었다. 그 대답은 이렇하다.

“당신의 현재의 고통의 밤은 끝나고 새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곧 또 다른 밤이 올 것이다. 만일 당신의 근심 어린 물음에 위안이 되는 답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돌아와야’ 한다. 즉 ‘회개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당신이 바라던 대로, 고난의 밤이 끝나고 구원의 밝은 새 아침이 임할 것이다.”³¹⁾

(10)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21:13~17)

21:13~17 아라비아에게도 환란이 있을 것이다. 대상(隊商)들이 앓수르 군대를 피하여 숲 속에 숨을 것이며, 대학살을 피한 자들은 극심한 주림과 갈함을 당할 것이다. 아라비아의 영광이 1년 안에 쇠할 것이며 그 유명한 전사 중 소수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선포하셨다. “품꾼의 정한 기한”이란 표현은 1년보다 하루도 더 길지 않은 기간을 의미한다.

(11)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22장)

22:1~5 “이상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9~11절). 그

30) (21:6~10) Vine, *Isaiah*, p. 62.

31) (21:11,12) Victor Buksbazen, *The Prophet Isaiah*, p. 224.

성은 포위되었다. 백성들은 지붕에서 배회하며 대적이 문 앞에 이른 것을 보았다. 전에 절기를 즐기던 거리들이 질병에 죽은 자들로 가득했다. 도망가려던 관원과 백성들은 아무 저항도 못한 채 사로잡혔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가공할 심판을 보고 위로 받기를 거부했다.

22:6~11 “엘람”과 “기르”는 바벨론 군대의 남부군과 북부군을 가리킨다. 그들의 병거와 마병이 성을 에워싼 골짜기를 채웠다. 유다는 방어막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들은 병기고(“수풀 곳간”)를 샅샅이 살피고, 성벽을 보수할 돌을 얻기 위해 가옥을 헐고, 임시 수원(水源)을 확보하고자 애썼다.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그 재앙을 일으키고 오래 전에 그 일을 계획하신 그들의 창조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22:12~14 그 때에 여호와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셨으나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22:15~19 히스기야의 궁내 관원인 “셈나”는 자기를 위해 좋은 묘실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의 노력이 헛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공같이 그를 던져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며, 그는 이방 땅에서 죽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아마 셈나는 애굽과의 동맹을 지지한 무리의 지도자였던 것 같다.

22:20~24 셈나가 폐위된 뒤에 “엘리아김”(‘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주 예수님의 모형인 엘리아김은 완전한 권위를 갖춘 책임있고 동정적인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는 왕궁의 내실들을 관장하고 왕가의 시종을 택하는 “다윗의 집의 열쇠”³²⁾를 받을 것이다. (계시록 3장 7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한다.) 엘리야김은 그 지위가 견고할 것이며 그 직무의 권위가 완전할 것이다.

22:25 엘리야김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견고할 것이기에(23절), 그가 제거되고 실추되는 것은 그가 책임 맡은 유다 집의 포로됨을 가리킬 것이다.

(12) 두로에 대한 심판(23장)

23:1~5 다시스(아마 스페인을 의미하는 듯하다)에서 돌아오던 두로의 선원들은 깃담(구브로)에 이르렀을 때 두로의 멸망 소식을 들었다. 그들의 집이 무너지고 돌아갈 항구가 없으므로 그들은 당황하며 울부짖었다. 시돈의 상인들이, 그 이웃된 두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일과 곡식을 나일강 상류(시홀)에서 가져온 일과 열국의 시장을 형성하던 일을 기억하고,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두로의 어머니 성인 시돈은 두로의 폐허에 부딪치는 파도소리가 그 성의 참담함을 메아리치는 듯하기에 부끄러워했다. 마치 두로가 전에 아무 거할 아이도 없었던 듯했다! 애굽도 그 최고의 고객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

23:6~9 두로 인들은 피난처를 찾아 멀리 스페인(다시스)으로 가라는 얘기를 들었다. 한 때 번성하던 성의 거민이 이제 먼 곳으로 옮겨갔다. 누가 그 모든 권세와 부와 영광을 지닌 두로에게 이처럼 찬 재앙을 불러왔는가? 그는 인간의 모든 영광의 자랑을 떨시하기로 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셨다.

32) (22:20~24) “스페인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열고 왕이 들어간다’고 새겨진 다윗의 은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D. L. 무디는 말했다(Notes, p. 85).

23:10~17 두로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기억하고 다른 나라로 피하여 강(즉, 여러 나라를 흐르는 유브라데 강, 우리말 성경에는 “나일 강”으로 되어 있음-역주)같이 흩어지라는 얘기를 백성들이 들었다. 하나님은 상업도시(가나안)를 멸하려고 바벨론을 일으키셨다. 난민들이 갖담으로 피신할지라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는 앗수르에 의해 건설되어 미미하게 시작된 이름 없는 나라가 두로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놀랐다. 두로는 그 갈대아 왕국의 지배를 받는 70년간 잊혀질 것이다. 그 때가 지나면 다시 지면에 있는 열방과 더불어 상업적인 음란을 즐길 것이다.

23:18 “두로의 무역한 것과 이익”은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나아올”(시 45:12)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대망한다. 두로의 재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될 것이다.

(13) 온 땅에 대한 심판(24장)

24:1~3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하여 온 땅으로 확대되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까지 미친다. “땅”(the earth)은 “나라”(the land)로 옮겨질 수도 있으며, 2절에서 “제사장”을 언급한 것은 1~3절이 이스라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문이 그 땅과 그 백성(거민)을 교대로 언급하고 있음을 보라.

24:4~13 4절에서 “세계”를 언급한 것은 심판의 영역이 넓혀졌음을 보여준다. 온 세상이 부패된 원인은 사람들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노아 언약(창 9:16)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나, 그러나 그 무조건적인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었다. 어떤 이들은 모세 율법을 가리킨다고 생각하

나,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며 영원한 언약으로 불리우지 않았다. 마틴은 그의 주석에서 그것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과 더불어 분명히 맺은 언약”이라고 말한다.³³⁾ “약탈을 당한 성읍”은 예루살렘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도시 문명을 포함할 수도 있다.

24:14~20 보존된 잔존자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어서 이사야는 대환란의 처참함으로 인해 슬퍼했다. 그 날은 배도의 날이 될 것이다.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땅이 큰 지진이 일어난 듯 술취한 자처럼 흔들릴 것이다. 그것은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24:21~23 하늘의 악한 무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계시록 19장 19,20절; 20장 1~3절과 부합한다. 그들의 앞잡이 노트를 하던 “땅의 왕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그 심판을 함께 당할 것이다. 여호와와의 놀라운 영광이 해와 달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5) 노래의 책(25~27장)

(1) 천년왕국의 축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노래

25:1~5 25~27장은 “노래의 책”으로 불리운다. 여기서 회복된 유대인 잔존자가 대환란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인해 여호와를 찬송한다. 대적의 성읍들(꼭 어느 특정 성읍이 아니라)이 초토화되어 이방인들로 여호와와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했다. 하나

33) (24:4~13) John A. Martin, 'Isaiah',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Old Testament*, p. 86.

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셨다.

25:6~9 여호와께서 최고의 영적인 기쁨을 주는 연회를 시온 산에서 베푸신다. 그분은 무지의 막, 즉 모든 민족을 덮은 사단적인 몽매함의 면박을 벗겨주신다. 그분은 유대 백성에게서 죽음을 정복하고(대환란 때 죽은 성도들을 살리심으로), 슬픔을 제하고, 더러움을 없애주신다. 잔존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 하시리로다.…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25:10~12 “모압”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수치 중에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11절에서 그 손을 펴서 모압인들 중에 심판을 행하시는 “헤엄치는 자”로 비유되었다.

(2) 영원한 반석을 향한 유다의 노래(26장)

26:1~4 그 땅에 돌아온 회복된 잔존자는 믿음과 신뢰의 삶을 노래한다. 하나님의 성은 인간의 성과 대조된다(24:10). “의로운 나라”(구속받은 이스라엘)는 여호와를 견고하게 의지하는데서 오는 완전한 평강을 경험한다. 3절과 관련해서 유명한 미국 침례교 찬송시 작가인 필립 P. 블리스는 “나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는 이 구절을 성경의 다른 어떤 구절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하곤 했다.³⁴⁾

무디는 “평강이라는 나무는 영원한 반석의 틈바구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로 3절과 4절을 연결시켰다.³⁵⁾ 그들은 마침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어거스터스 토

34) (26:1~4) Quoted by Moody in *Notes from My Bible*, p. 86.

35) (26:1~4) Quoted by Moody in *Notes from My Bible*, p. 86.

플레디(Augustus Toplady)는 이 표현에서 영감을 얻어 “만세 반석 열리니”(Rock of Ages, 통일찬송가 188장-역주)라는 영어로 된 가장 놀라운 찬송시 중 하나를 지었다.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 험한 바위틈으로 피신하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다.

“나를 위해 쪼개진 영원한 반석이여
나를 당신 안에 숨겨주소서.
당신의 찢긴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죄책과 죄의 권세에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호흡이 끊어지고
내 눈이 감기고
내가 미지의 세계로 높이 올라가
심판 자리에 앉아 계신 당신을 뵈을 때
나를 위해 쪼개진 영원한 반석이여
나를 당신 안에 숨겨주소서.”

26:5~6 인간의 오만한 문명이 빈궁한 자와 곤핍한 자의 발아래 그 거만한 성이 밟히는 지경까지 낮춤을 당했다.

26:7~15 7~19절은 대환란을 통과할 때 잔존자가 드리는 기도를 보여주는 듯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길을 평탄케 하셨으며 그들은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 비로소 악인들이 “의”를 배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이미 높이 들렸다. 그 손이 분노 중에 내려올 때 저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 때 이스라엘에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잔존자들은 여러 이방 주인들에게 지배를 당해왔으나 이

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참 주인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방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14절). 이것은 악인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다만 이방 열국이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을 약속한 말이다.

26:16~19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 보이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치른 뒤에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사 신선한 “이슬”(성령)이 그 땅에 내릴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

26:20~21 그 어간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 중 신실한 잔존자에게, 그분이 배도한 세상에 그분의 진노를 쏟아 붓는 동안 밀실에 숨어 있으라고 이르신다.

(3) 구속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노래(27장)

27:1 장차 올 주의 날에 여호와께서 “날랜 뱀 리워야단”(앗수르)과(우리말 성경에는 ‘...곶’으로 되어 있음—역주)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바벨론)으로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애굽)을 죽이실 것이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모든 괴물이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이해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세계 열강을 조정하는 사단을 묘사하는 것으로 본다. 사단은 뱀과 용으로 불리기 때문이다(창 3:1; 계 12:3, 13:2, 16:13).

27:2~6 그 날에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받은 포도원(이스라엘)에 대하여 노래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그분은 밤낮 그것을 지키실 것이다. 그분은 더 이상 그분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으

실 것이다. 만일 어떤 적대적인 세력이 그 잔존자를 치러 일어나면 그분이 그들을 쫓겨와 가시처럼 불사르실 것이다. 그 세력들은 여호와께 보호와 평화를 의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은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지면을 결실로 가득 채울 것이다.

27:7~9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군주들처럼 대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징계는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었다. 그분은 우상숭배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우상의 마지막 남은 자취까지 완전히 없애버릴 때 성취될 것이다.

27:10~11 그 사이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가축이 풀을 뜯고 여인들이 땀감에 쓸 나뭇가지를 주어 모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임한 것은 백성들이 아무런 영적인 지각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7:12~13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참 것과 거짓 것을 갈라내실 것이다. 그 때에 그분은 앗수르와 애굽과 같은 이방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 땅에 돌아온 그들은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5)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부흥(28~35장)

(1) 에브라임(이스라엘)에게 화 있을진저(28장)

28:1~4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자 그 슬취한 자의 죄잔해기는 꽃이었다. 그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술

과 쾌락과 물질주의와 성(性)에 탐닉한 사람들이 가득한 기름진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면류관과 같았다. 앓수르의 정복자들이 6월의 처음 익은 무화과를 먹으려 듯이 그 성을 삼키려고 지켜 서 있다.

28:5~6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그분은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사 심판을 집행하고 대적을 그 성문으로 몰아내게 하실 것이다.

28:7~8 이사야는 유다에게로 돌이킨다.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술에 취했고 그 상(床)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타락했다.

28:9~10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이야기하듯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불평하며 조롱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린아이 대하듯 하며 단음절어로(히브리어로) 가르치고 계심을 생각지 못하시는가?”³⁶⁾

28:11~13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그렇다.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대하듯 하고 있다. 너희가 나의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까닭에 내가 이방 침략자(앗수르)를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들의 다른 방언이, 그들에게 안식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

36) (28:9,10) 본문은 종종 문맥을 벗어나 적당한 교수법으로 인용된다(예를 들어, 한번에 조금씩, 알려진 것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아가는 교수법). 그러나 그것이 의문의 여지없이 좋은 충고이긴 하나, 문맥에서 의미하는바는 확실히 아니다.

한 백성들에게 심판의 표가 될 것이다. 제닝스는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극히 단순하고 극히 분명한 말로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거절할 때의 모든 책임이 메시지의 모호함에 있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 있게 하기 위함이다.”³⁷⁾

28:14~15 유다의 관원들은 애굽과 맺은 언약이 앗수르의 공격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자랑했으나, 그러나 그들의 동맹은 그들에게 사망과 음부를 의미할 것이다. 그들은 거짓과 허위(虛僞)를 의지하고 있었다. (“사망”과의 언약과 음부와와의 맹약은 물론 문자 그대로 그것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은 까닭에 사망과 음부와 약조를 한 셈이며 따라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뜻인 듯하다. 어떤 주석기들은 이 언약을 이스라엘과 짐승(the Beast) 사이의 미래의 동맹(단 9:27)을 묘사하는 것으로 본다.)

28:16~17 하나님은 메시야를 믿을만한 가치 있는 유일한 것, 즉 견고한 기초로 삼으셨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는 모든 것이 공평과 의의 시험을 거쳐야 하며, 심판이 모든 거짓된 신뢰 대상을 제해버릴 것이다.

28:18~22 유다의 정치적 동맹은 침략자가 올 때 유다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 대적의 모든 침입이 성공할 것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임을 때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침상이 너무 짧고 이불이 너무 좁다.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이 원하는

37) (28:11~13) Jennings, *Isaiah*, p. 333.

위로와 보호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에 그들의 대적에게 행하신 심판을 그분의 백성에게 행하시기 위해 일어나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비웃는다면 그들의 속박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28:23~29 허버트 반테르 루그트는 본문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사야는 농부의 일의 세 가지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을 설명해준다. 첫째로, 농부는 끊임 없이 땅을 일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씨뿌릴 준비가 되면 일구던 손을 멈춘다(24절).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이룬 뒤에는 곧 끝이 난다. 둘째로, 농부는 흠뿌릴 것과 줄줄이 심을 것을 잘 분간해서 씨를 심는다(25,26절).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에 알맞은 훈련을 신중하게 선택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끝으로, 이사야는 농부가 곡식을 떠는 모습을 보여준다. 농부는 극히 조심하여 소회향은 가벼운 막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묵직한 도리깨로 떠다. 곡식의 경우에는 알곡을 부숴뜨리지 않을 정도의 무게의 수레바퀴를 그 위에 굴린다(27, 28절). 이와 같이 전능자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큰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능한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의 상태를 다루신다.”³⁸⁾

(2) 아리엘(예루살렘)에게 화 있을진저(29장)

29:1~4 “아리엘”은 다윗이 그 진을 친 특권적인 예루살렘 성이다. 그곳의 백성들은 해마다 종교적인 절기를 즐길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을 괴롭게 하사 아리엘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자”와 “제단”이라는 두 가

38) (28:23~29) H. Vander Lugt, *Our Daily Bread*, Radio Bible Class, 더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지 의미가 있다(에스겔 43장 15,16절에서는 “아리엘”이 “번제하는 바닥”으로 옮겨져 있다). 전에 “하나님의 사자”였던 그 성이 이제는 “불타는 제단”이 되었으며, 그 백성은 제사의 희생물이 되었다.

29:5~8 그러나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실 것이며 대적들은 “세미한 티끌”과 “불러 가는 겨”같이 쫓겨날 것이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삼킬 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 대적들은 꿈에서 깨어나듯 물러날 것이다.

29:9~12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눈을 가리운 것이 결국 그들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심판을 자초했으며, 그들은 술 취한 듯 비틀거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려졌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인봉된 책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워져 읽을 수 없는 책이다. 모두가 핑계가 있다.

29:13~14 그들의 신앙이 외형적인 것뿐이며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입으로 신조를 암송하는 문제이기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심판을 행하사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취해 가실 것이다. 14절의 “기이한 일”은 산헤립의 침략을 가리킨다. W. E. 바인은 이렇게 설명한다.

“유다의 관원들은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려 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인 지략이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반역행위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정치적인 책략을 무산시키고 유다를 무력한 상태에 빠지게 하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³⁹⁾

39) (29:12~14) Vine, *First Corinthians*, p. 23.

오늘날 “기이한 일”은 복음을 통해 성취된다(고전 1:18~25).

29:15~16 마치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듯 애굽과 비밀히 모의하는 거짓된 관원들에게 화가 선포되었다. 그들은 진흙을 토기장이로 여기고 토기장이를 진흙으로 여기는 등 매사를 임의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을 거부한다.

29:17~21 그러나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구원의 날이 온다. 지금의 거친 숲(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될 것이며, 지금 기름진 밭으로 생각되는 것이 무성한 숲으로 보일 것이다. 그 때에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며 소경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할 것이다. 압제자와 조롱하는 자가 사라질 것이며, 의인을 울무에 빠뜨리려는 자도 사라질 것이다!

29:22~24 본문은 여기서 “야곱”으로 불리우는 믿는 잔존자의 상태를 묘사한다. 수치와 모욕이 지나간 일이 될 것이다.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개입하신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 그분을 높일 것이다. 미혹을 받던 자와 원망하던 자가 총명하고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될 것이다.

(3) 애굽과 동맹을 맺을 자들은 화 있을진저(30,31장)

30:1~7 “패역한 자식들”은 앗수르를 대적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은 유다의 정치인들이다. 그런 동맹에 대한 기록이 없는 까닭에 그것을 미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유다는 애굽이 믿을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상들이 네게브(남방)의 위험한 지역을 지나 유다에서 애굽으로 조공을 실어 나르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유다의 사신들이 소안과 하네스까지 이를지라도 그 전체 계획이 실패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을 일컬어 “라합-헴-

세벳”(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하신다.

30:8~14 애굽과의 동맹과 그 모든 잘못된 신뢰는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여호와와의 율법을 공공연하게 거절한 것임을 후손을 위해 기록해 두라. 유다는 애굽이 나약한 방어막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그 높은 벽은 불쭙 튀어나와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사소한 일에 쓸만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질그릇이 깨지듯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30:15~17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해오셨다. “네 구원은 내게로 돌아오고 나를 의지하는데 달려있다. 네 능력은 황급히 애굽에게 도피하지 않고 나를 잠잠히 신뢰하는데 달려있다.” 그러나 유다는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대적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네가 도망할 것이긴 하나 패배와 두려움 속에 도망할 것이다! 너는 소수의 군대에게 쫓겨날 것이며 산 위의 가냘픈 깃발처럼 될 것이다.”

30:18~25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의 불행한 결과가 그 선택의 어리석음을 가르쳐줄 때까지 기다리신다.” 유다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분은 그들의 선생과 인도자요, 비와 비옥함과 번성을 주시는 자요, 치료자요 반석이요 보호자가 되실 것이다. 그분의 백성은 “오염된 물질처럼 그들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참 잘 되었다!’라고 외칠 것이다.”

30:26~33 26절의 강렬한 빛은 영광과 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불경건한 나라들은 멸망의 키로 키질 당할 것이다. 앗수르는 여호와께 맞아 쓰러질 것이며 유다는 그 모든 징벌

의 채찍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도벳”(지옥)의 타는 불은 그 악한 왕을 반겨 맞는다.

31:1~3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 그분은 악행하는 자(유다)의 집과, 행악을 돕는 자(애굽)를 치실 것이다. 돕는 자(애굽)는 비틀거리고, 도움을 받는 자(유다)는 넘어질 것이다.

31:4~9 하나님은 “여러 목자”(앗수르)가 쫓아내려는 사자와 같으시다. 혹은 달리 표현하자면 그분은 예루살렘 위를 날아다니는 새매와 같으시다. 그분은 그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그 우상을 던져 버릴 것이다. 앗수르인은 여호와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멸망할 것이다. 산헤립의 멸망으로 본문의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니다. 이 예언은 훗날, 즉 대환란 때에도 성취될 것이다.

(4) 의로운 왕의 통치(32장)

32:1~8 1~5절은 그리스도의 천년통치를 묘사한다. 그분은 의로 다스리는 왕이며, 열두 사도가 그 방백이 될 것이다(마 19:28). “한 사람(우리말 성경 난하주 참조-역주)이 광풍을 피하는 곳… 같을 것이며”(2절). 그 사람은 피난처와 보호와 생기와 그들을 주시는 주 예수님이다.

더 이상 백성들이 그 눈이 멀어 보지 못하거나 그 귀가 닫혀 듣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성급히 결정 내리는 자는 신중한 분별력을 갖게 될 것이며, 지금 머뭇거리는 자는 주저함 없이 자신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도덕적인 구분이 흐리지 않을 것이다. 분별력이 없는 자는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사람들의 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어

리석은 자와 악인은 그러한 자로 폭로되고 따라서 징벌을 받을 것이다. 너그러운 자 역시 그러한 자로 드러나 복을 받을 것이다. 6~8절은 이사가 당시의 삶의 모습을 묘사한다.

32:9~15 그러나 그 나라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유다의 “부녀들”은 여전히 사치와 안일과 자기 만족 가운데 살고 있다. 곧 심판이 불어닥쳐 흉작과 인구 감소와 황폐함이 따를 것이다. 유다의 환란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성신이 부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때 광야가 비옥한 밭이 되고, 지금 비옥한 밭으로 간주되는 것이 숲처럼 많아질 것이다.

32:16~20 사회적인 정의와 의가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어 평강과 고요함과 안전과 신뢰를 가져올 것이다. 대적(鎗)은 하나님의 심판의 우박으로 낮아질 것이며, 그 성(그 수도)은 무너질 것이다. 그 때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가 아무 위험 없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행복한 때가 될 것이다.

(5) 악탈자(앗수르)에게 화 있을진저(33장)

33:1~6 앗수르의 학대와 속임이 임할 것이다(1,2절). 그 때 하나님의 백성은 환란 중에 여호와께 구원을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진동하는 소리로 인해 민족들이 앞을 다뤄 도망한다. 이제 유다 백성이 도주하는 대적의 전리품을 취하고 한데 모을 차례이다.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사 시온을 공의와 의로 가득 채우고 그 시대를 평안케 하고 그분의 백성을 영적인 보화로 부요케 하실 것이다.

33:7~9 본문은 히스기야가 산헤립에게 평화의 사신을 보내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는 얘기를 듣던 때로 돌아간다(왕하 18:13~16). 그러나 그것으로도 앓수르 인을 매수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산헤립은 유다를 침공하여 약탈과 고통의 잔재를 남겼다.

유다의 사신들은 그들의 임무가 실패하여 심히 애통해한다. 앓수르 인이 유다를 침공하여 그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극히 아름다운 곳들이 황폐해졌다.

33:10~12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서 원수를 치러 일어나신다. 그분은 앓수르인을 가리켜 겨를 잉태하고 짚을 생산할 것이라고 풍자하신다. 다시 말해서 앓수르인의 계약이 헛되다는 것이다. 앓수르인이 다른 이들에게 쏟은 분노가 되돌아와 그 자신을 완전히 삼킬 것이다. 불붙은 “횃돌”(석회)과 “가시나무”는 완전한 심판을 가리킨다.

33:13~16 불경건한 이방인(“먼데 있는 자들”)과 시온의 배도한 유대인(“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된다. 심판의 불, 즉 그분의 불타는 진노에서 살아남을 자는 의롭게 행하고 모든 형태의 악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자들뿐이다.

33:17 그 때 안전과 만족을 얻은 믿는 잔존자는 그 영광 중의 왕과, 경계가 크게 확장된 그 땅을 볼 것이다.

A. J. 고든은 그의 찬송시에 이 구절을 인용했다.

“마침내 그림자가 거뒤틀리고 어둠이 밝을 때
저 먼 나라에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뵈오리.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뵈오리.
일찍 죽임 당하신 그 어린양을 뵈오리.

그 때 나는 구속받은 모든 무리와 함께 이렇게 외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양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33:18~19 앓수르인이 조공으로 바친 금을 측량하고, 그 정탐꾼이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 성의 망대를 계산하고, 유다인이 그들 중에서 앓수르인의 이방 언어를 듣던 그 두려운 순간들이 생 각날 것이다.

33:20~22 천년왕국의 시온에서 엄숙한 정한 절기들이 다시 열릴 것이다. 그 성은 안전하고 영구하게 박힌 장막 같을 것이다. 강이 성읍에게 그러하듯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보호와 생기와 아름다움이 되실 것이다. 어떤 대적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과 하지 못할 것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까닭이다.

33:23~24 23절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지 그 대적을 가리키는 지에 대해 주석가들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만일 그것이 시온의 대적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그 성을 공격할 배의 운명을 묘사하는 셈이다. 만일 그것이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면 23절은 “배를 조종할 수 없는 모습이든, 아니면 더욱 가능성 있게도, 필요한 줄과 장막과 막대와 천으로 그들의 거처를 만들 수 없는 모습이든, 백성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말해준다.”⁴⁰⁾

그 나라에서는 절름발이도 재물을 취할 것이다. 질병이 그칠 것이며, 백성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40) (33:23,24) Vine, *Isaiah*, p. 83.

(6) 열국에게 화가 있을지어다(34장)

34:1~4 34장에서 우리는 열국 전체에 대한, 특히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볼 수 있다. 에돔은 다른 모든 민족을 대표할 수도 있다. 여호와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이며 산에서 피가 흘러내릴 것이다. 천체도 격변할 것이다.

34:5~7 “피에 취한” 여호와의 칼이 맹렬히 에돔에게 임하되 평민(어린양, 염소, 수양)과 귀인 혹은 지도자들(들소, 송아지, 수소)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34:8 그 날은 여호와와 보수의 날이다.

“보수’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듯 누군가에게 보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심판자로서 정당히 부과하신 선고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킨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34:9~17 본문은 에돔의 운명을 묘사한다. 에돔은 사람이 거하지 않는 광야를 이루어 기이한 새들과 들짐승의 거처가 될 것이다.⁴¹⁾ 하나님은 그것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까지 심판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그 이름에 걸맞는 나라도, 왕도, 방백도 없을 것이다. 그 폐허는 가시가 덮일 것이며 낮선 짐승들(정체를 확실히 알 수 없는)의 거처가 될 것이다. 모든 불길한 짐승들이 짝을 만나 새끼를 낳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돔의 폐허를 주어 대대로 거하게 하실 것이다. 본장의 “영영히”라는 말은 “대대로”를 뜻한다.

41) (34:9~17) 11절의 “혼란과 공허”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고 혼돈하며”로 옮겨진 단어와 똑같다.

(7) 장차 올 왕국의 영광(35장)

35:1~7 반역적인 나라들이 멸망한 후에 우리의 주와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왕국이 소개된다. 그 기간은 땅의 비옥함과, 영광과 아름다움 중에 계신 여호와와의 임재로 특징지어진다. 성도들이 피차 격려할 것이다. 모든 종류의 불구가 사라질 것이며, 광야가 변하여 물이 넘쳐난 밭이 된 것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35:8~10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수백 마일의 광야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만 다니는 “거룩한 길”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전세계적인 분산에서 돌아오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이 아버지 집으로 옮겨지는 순간 맛보게 될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보여준다.

어떤 성경판본의 경우, 이사야서 각 페이지 상단의 부제는 사실상 “교회에 대한 축복”과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거의 모든 예언은 직접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이다. 축복이든 저주가든 그러하며, 교회는 나중에, 혹은 적용의 측면에서 거론된다. 제닝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한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취해 가버리고 오직 가난한 유대인에 대한 위협만을 남겨두는 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므로’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긴 하다. 다만 그들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므로 그 위로의 예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영적인 성격을 지닌 모든 것이 그렇게 적용된다는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즉,

이스라엘이 새로운 은혜 언약 아래 누리게 될 물질적인 축복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 동일한 은혜에 의해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계시되기 오래 전에 이스라엘에게 직접 주어진 그 약속들의 성취는 아니다.”⁴²⁾

2. 역사적인 과도기: 히스기야의 책(36 ~ 39장)

때로 “히스기야의 책”으로 불리우는 36~39장은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38장 9~20절을 제외하면 그것은 열왕기하 18장 13,17절~20장 19절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1) 히스기야가 앗수르에게서 구원받음(36~37장)

(1) 앗수르의 신성모독(36장)

36:1~3 36장에서 앗수르 왕의 대리자인 “랍사게”(문자적으로는 ‘술관원장’, 그러나 ‘총독’ 혹은 ‘관원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서” 히스기야의 세 사신을 만난다. 이곳은 아하스가 일찍이 아람-에브라임 동맹군의 위협에서 건짐 받기 위해 여호와께 의지하는 대신 앗수르를 의지하기 위해 나아간 그곳이었다(7:3).

36:4~10 랍사게는 애굽의 약속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그 비열한 나라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상케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산당과 단

42) (35:8~10) Jennings, *Isaiah*, p. 417.

을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잘 모르고 한 말이거나 고의적으로 꾸며낸 말이었다. 히스기야는 우상의 산당을 제하고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을 강화했다. 랍사게는 이어서 산헤립이 말 2천 필을 거저 준다해도 유다 왕에겐 그 말을 탈 사람조차 없을 것이라고 조롱을 했다. 유다가 그토록 사람이 부족할진대 애굽이 도와준들 어찌 앗수르를 물리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끝으로 그는 여호와께서 앗수르인에게 명하여 유다를 멸하라고 하셨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36:11~20 히스기야의 사신들은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말한 오만한 자랑과 위협의 말로 유다 백성의 사기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아람어로 말하라고 청했다. 랍사게는 그 청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또 한 차례 긴 연설을 하며, 히스기야가 거짓된 안전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다 백성이 그에게 항복하면 풍부한 양식을 내어주고 또 본토와 똑같이 비옥한 땅에 거주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는 그 신(神)으로 앗수르 대군에게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던 여러 정복당한 성읍들(사마리아를 포함해서)을 열거하며 예루살렘을 누가 능히 견져내겠느냐고 통렬히 몰아세웠다. 하나님의 백성이 굴복해야 한다고 랍사게는 오만하게 다그쳤다.

36:21~22 히스기야의 백성은 그들의 왕의 명령을 좇아서 랍사게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만 왕에게 나아가 그의 말을 보고했다.

(2)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멸하심(37장)

37:1~4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가 한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겼다. 그는 성전에 나아가간 후에 사신을 이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J. A. 알렉산더가 지적한대로, 이 비유는 “극한 고통과, 압박한 위협과, 긴박한 상황과, 철저한 연약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존함 등을 표현해준다.”⁴³⁾ 믿음을 압도하는 겁악함 중에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조롱하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를 꾸짖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37:5~7 이에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앗수르 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히스기야를 안심시키셨다. 여호와께서 한 신(아마도 두려움의 신)을 산헤립에게 보내어 그로 한 소문을 듣고 자기 땅에 돌아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37:8~13 랍사게는 산헤립을 다시 만나러 예루살렘을 떠나가다 산헤립이 라기스에서 북서쪽으로 10마일 거리인 립나까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물론 군대의 일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 때 애굽을 통치하던 구스 왕 디르하가가 그를 치러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산헤립은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랍사게의 긴 연설과 비슷한 신성모독적인 편지를 전했다. 그는 앗수르 열왕의 역사적인 승리를 재진술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37:14~20 히스기야는 지혜롭게도 그 편지를 성전에 들고 가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다. 그의 큰 믿음을 보여주는 짧지만 감동적인 기도를 통해 그는 앗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을 훼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고, 앗수르 왕에게서 유다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

43) (37:1~4) J. A. Alexander, *The Prophecies of Isaiah*, p. 289.

37:21~29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시(詩)로 응답하시되, 먼저 처녀 딸 예루살렘이 몰락해가는 산헤립을 조롱하는 모습을 묘사하셨다. 이어서 여호와를 조롱하고 마치 유다와 애굽을 이미 정복한양 떠들어댄 잘못을 꾸짖으셨다. 하나님은 산헤립이 오래 전에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행하고 있는, 여호와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다. 그 악한 왕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여호와께서 앗수르를 코에 갈고리를 켜 짐승처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37:30~32 이어서 히스기야에게 이르시기를, 올해와 내년에는 앗수르의 침략으로 양식공급이 한정될 것이나 내후년에는 작물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안심시키셨다. 포위에 대비하여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백성들이 나아와 정상생활을 회복할 것이다. 그분의 백성을 위한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보증할 것이다.

37:33~35 앗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거나 공격할만큼 가까이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그 성을 방어하실 것이며 침략자를 오던 길로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

37:36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사자가 밤새 앗수르인 18만5천 명을 쳐죽였다.

1815년에 지어진 한 훌륭한 영시(英詩)는 이 사건을 생생히 묘사해준다. 여기에 그 시 전문을 실어본다.

“산헤립의 몰락

늑대가 우리를 덮치듯 앗수르 군이 침공했네.

보병들은 자줏빛과 금빛으로 번쩍거리고

창날의 광택은 밤마다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깊은 갈릴리 바다 위의 별빛과도 같았네.

해질 녘에 깃발을 든 군대는
한 여름 숲의 잎사귀처럼 푸르렀으나
아침에 여기 저기 었드러진 군대는
가을 바람에 떨어진 낙엽과 같았네.

죽음의 천사가 날개를 펴고
대적의 잠든 얼굴 위를 날으니
잠든 자의 눈이 차가워지고
전에 부풀었던 심장이 영원히 고요해졌네!

거기엔 말들이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누웠는데
오만하게 씩씩거리던 콧소리가 아니라
흰 거품을 땅에 쏟으며 혈떡이는 소리라.
그 몸이 바위에 부딪쳐 산산이 부서지는 물결처럼 차가웠네.

거기엔 마병들이 창백한 얼굴로 누웠는데
이마엔 이슬이 맺혔고 감옷은 녹슬었네.
장막은 고요했고 깃발만 나부꼈네.
창은 꺾였고 나팔은 소리 없었네.

앗수르의 과부들은 통곡했고
바알 신전의 우상들은 무너졌네.
강력한 이방 세력이 칼에 맞지도 않았건만
여호와의 낮 앞에서 눈처럼 녹아버렸네!”⁴⁴⁾
(조오지 고든, 로드 바이런; 1788-1824)

37:37~38 산헤립은 니느웨로 돌아왔으나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 그의 우상의 신전에서 살해당하고 말았다.

2)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38장)

38:1~8 38장은 연대적으로 37장 뒤가 아닌데, 이는 6절에서 히스기야가 앓수르의 위협에서 건짐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데 반해, 앞장 끝에서는 그 위협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중한 병이 들자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으며, 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을 연장해주셨다. 그가 회복되고 산헤립이 쫓겨날 것이라는 징조로 하나님은 아하스의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8절은 원문상 난해한데, 아마도 아하스가 시간을 알리는 층계가 있는 침탑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그림자를 기적적으로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신 것 같다.

38:9~15 히스기야는 자신의 회복을 기념하기 위해 시를 지었다. 이것은 이 역사적인 부분의 독특한 일부로서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 시는 그가 생애 절정기에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채웠던 슬픔으로 시작한다. 그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할 것이다. 즉 여호와와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의 생명은 목자의 장막이 거둬지거나 완성된 베가 베틀에서 말아지는 것 같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버림받음과 고통과 절박함과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의 무력함을 표현했다.

44) (37:36) *The Literature of England, An Anthology and a History*, p. 726.

38:16~20 그러나 16절에서 분위기가 바뀐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곤경을 통해(by) 사람이 살고, 또 그것이 인간의 성품에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고 시인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죄를 사해주셨다는 암시였다. 18절은 구약 성도들이 지닌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불분명한 견해를 반영한다. 이제 그는 살아났으므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해줄 수 있었다. 그는 종신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다짐했다.

38:21~22 이 구절은 연대적으로 6절과 7절 사이에 해당한다. 본문을 여기에 위치시킴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연약함이 어떠한 그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그 사용된 수단과 그 징조가 주어진 까닭을 설명해주셨다”라고 켈리는 말했다.⁴⁵⁾

메튜 헨리는 본문에서 병고침에 대한 두 가지 훌륭한 교훈을 끌어내었다.

“(1) 하나님의 약속은 기존의 방법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방법을 촉진하고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히스기야는 확실히 회복한다. 그러나 그는 ‘한 몽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여야’ 한다(21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노력의 힘을 신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다….

(2) 생명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우리가 겨냥해야 할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을 행하고 지식과 은혜와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이어야 한다.”⁴⁶⁾

45) (38:21,22) Kelly, *Isaiah*, p. 289.

46) (38:21,22) Henry, “Isaiah”, 6:209.

3) 히스기야의 범죄(39장)

39:1~7 39장은 그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온 듯한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그의 모든 재원(財源)을 보여준 히스기야의 중대한 실수를 기록하고 있다. 히스기야는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이 앗수르의 위협에 처한 유다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 그 되어진 일을 듣고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 유다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왕의 자손은 바벨론 궁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바벨론이 아닌 앗수르가 유다의 주된 위협이었던, 그러니까 그 일이 이뤄지기 70년 전에 선포된 것이다.

39:8 “여호와와 말씀이 좋소이다”라고 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그의 복종하는 마음과, 또한 개인적으로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안도감을 반영해준다.

3. 장래 일어날 바벨론 포로 상황의 관점에서 본 위로의 예언(40~66장)

만일 1~39장이 구약 39권에 부응한다면 예수, 즉 메시아에 대한 그림으로 가득한 40~66장은 확실히 신약 27권에 부응한다.

이사야서의 이 부분(40~6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과, 그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온 민족이 회복될 것을 대망한다.

1) 이스라엘의 장래 구원에 대한 위로(40~48장)

(1) 하나님의 용서와 화평으로 말미암은 위로(40:1~11)

40:1~2 40장은 귀환하는 포로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된다. 예루살렘의 환란은 끝났고 그 불법은 용서되었다. 그 모든 죄로 인해 이미 두 배(즉 충분하고 적당한 정도로)나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그 사이에 이 오랜 세상과 심지어 교회도 위로가 심히 필요할 것이다. 우리들 각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동정의 삶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위로의 기술을 구하세.
영혼마다 질병의 짐이 무겁고
그리스도를 닮은
많은 위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일세.” (A. E. 헤밀톤)

40:3~5 “여호와와 의 길을 예비하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고(마 3:3), 엘리야가 재림시에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말 4:5,6). 그분의 오심을 예비한다는 것은 지형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영적 문제이다. 물건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 중에 신실한 자들은 그분께 온전한 충성을 바치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⁴⁷⁾

산과 작은 산은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골짜기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모든 거칠고 울퉁불퉁한 성품이

47) (40:3~5) G. Campbell Morgan, *Searchlight from the Word*, p. 229.

평평하게 되어야 한다. 여호와와 영광(즉, 여호와 자신)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계 1:7).

40:6~8 여호와께서 “외치라!”고 선지자에게 이르셨다. 모든 육체가 얼마나 헛되며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영구적인지 말하라는 것이다. 본문은 모든 인생의 덧없음을 묘사하는 반면에 특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군주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는 말씀은 많은 기독교 학교의 모토로 사용되어왔다(라틴어로, *Verbum Dei manet in aeternam*). 윌리엄 켈리는 이렇게 말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말씀이 영원히 신뢰하기에 약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말씀은 하늘이나 땅보다 더 안정적이다.”⁴⁸⁾

40:9~11 시온 자신이 메시아가 온다는 좋은 소식을 알리는 전령일 수도 있고, 그 소식이 어떤 여성 전령(‘너’는 여성형이다)에 의해 시온에 전해질 수도 있다. 10,11절은 하나님의 엄위와 인자를 보여주는데, 그분은 그분을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엄위하시지만 이방인 중에 흠어진 그분의 양무리와 어린양에게는 인자하시다. 본문은 그분의 권능과 영광 중의 오심을 묘사한다.

(2)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는 위로(40:12~31)

40:12 본문은 우상의 헛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대표적인 대목을 시작한다. 여호와께서는 손바닥으로 바닷

48) (40:6~8) Jennings, *Isaiah*, p. 467.

물을 헤아리고 뿔으로, 즉 그 엄지손가락 끝에서 새끼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로 하늘을 재셨다. 그분은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보셨다.

40:13~14 아무도 여호와와 신을 지도한 적이 없다. 그분의 모든 창조와 섭리의 역사는 외부의 도움 없이 이뤄졌고 또 이뤄지고 있다.

40:15~17 열방은 그분에게는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이 보잘것 없다. 레바논의 숲은 그분에게는 땀감으로도 부족하고, 온갖 짐승은 번제에 쓰기에도 부족하다.

40:18~26 사람이 만든 신상이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감히 묘사할 수 있겠는가? 부지는 보석으로 우상을 만들고 가난한 자는 나무로 우상을 만든다. 얼마나 우스꽝스런가!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어떠하심과 능력의 광대함에 대해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말인가? 별들을 지으신 분의 위대하심을 감히 어떤 신상이 이해하겠는가? 그분이 밤에 별들을 불러 나오게 하실 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나온다.

40:27~31 만일 유다 백성 중 어떤 이들이 낙심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는지 의아해한다면, 그들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라. 그분이 그토록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별들보다 그분의 백성을 잘못 돌보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3)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는 위로(41장)

41:1 하나님은 열방을 불러 그분과 대면케 하신다. 그들은 그

힘을 새롭게 해야 한다. 즉 최고의 변론을 펴야 한다.

41:2~4 여호와께서는 먼저 자신이 동방에서 오는 자인 고레스를 부르는 모습을 묘사하신다. 여기에 과거시제가 사용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의 확실성을 묘사하기 위함이다. 어떤 이들은 2,3절이 아브라함의 소명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묘사된 사람의 군사적인 승리는 아브라함의 성취를 훨씬 능가한다. 이 사람(바사 왕 고레스)은 깨어지지 않은 승전의 기록을 갖고 있다. 그의 전진하는 길을 막는 것은 티끌과 그루터기처럼 나약하다. 그는 낮은 지역들을 휩쓸면서 전진한다. 누가 고레스를 일으켰으며, 누가 한 세대를 명하여 다른 세대를 잇게 하는가? 그는 여호와, 곧 태초에 계신 자다. 그리고 나중에 있을 자, 곧 마지막 세대에게도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41:5~7 열방은 정복자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피차 격려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은 서둘러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할 우상을 만든다. 가련한 우상은 흔들리지 않도록 한 곳에 단단히 박혀 있게 해야 한다!

41:8~10 8~20절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과 돌보심을 묘사한다. 여기에는 “우상이 당신을 그렇게 자상하게 돌본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종이 되게 하셨다. 그들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인 다음 구절에서 그분의 함께 하심과 그분과의 관계성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리고 그분의 붙드시는 능력을 확신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1:11~16 그들의 대적은 멸망하고 사라질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돕는 자요 구속자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을 치는 타작기계로 삼으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여호와로만 즐거워할 것이다.

41:17~20 가련하고 궁핍한 자가 여호와와의 돌봄을 받을 것이다. 천년왕국의 땅은 물이 풍부할 것이며 광야가 각종 나무로 번성할 것이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되어 여호와께서 참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41:21~24 21절에서 하나님은 열방과의 논쟁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분은 그들에게 장래 일을 예고하거나 이미 있는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보라고 도전하신다. 그것들로 예언하게 하라. 그것들로 선약간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보게 하라! 그러나 그것들은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⁴⁹⁾

41:25~28 25절에서 다시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북방에서 오는 자”로 등장한다. 그는 원래 바사(동방, 2절)에서 왔으며, 그런 다음 메대(북방)를 정복하고, 거기서 정복사업을 펼쳐나갔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자기를 인도하고 능력을 부으신 분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스 1:2)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어떤 우상도 고레스의 출현을 예고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분의 백성

49) (41:21~24) Jennings, *Isaiah* p. 486, f.n.

에게 미리 이르셨으며, 그분은 우상 중에서 권위 있게 말할 자를 찾지 못하셨다. 그것들은 모두 허상이요 믿을 가치가 없다.

41:29 41장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과 무가치한 “부어만든 우상”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바인은 이것을 원문과 가깝게 이렇게 옮겼다.

“그 모두를 보라! 허상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과 황폐함이 그들의 부어만든 우상이다.”⁵⁰⁾

(4) 여호와와 종으로 말미암는 위로(42장)

42:1~4 “종”(Servant)이란 이름을 이사야는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스라엘의 경건한 잔존자”(43:10), “고레스” 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문맥이 그 의미를 분명히 해준다. 1~4절에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붙들고 택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부으신 주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는 이방에 공의를 베풀 것이며,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며, 참 회개를 멸시하거나 믿음의 불꽃을 꺼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의로운 나라를 친히 세울 때까지 낙심하거나 쇠하지 않을 것이다.

42:5~9 하나님, 즉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제 그 메시아에게 말씀하신다. 친히 의로 부르신 그 메시아를 통해 성취하실 일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시며, 더군다나 새긴 우상 따위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으신다. 그분의 과거의 예언은 이미 이뤄졌으며, 이제 그분은 다시 한번 미래를 계시하신다.

50) (41:25~29) Vine, *Isaiah*, p. 105.

42:10~13 이스라엘은 땅의 먼 민족들을 불러 전쟁의 용사같이 강립하여 그 대적에게 보복하는 메시아를 찬양하라고 호소한다. 그달과 셀라를 언급한 것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새 노래에 참여할 것을 의미한다.

42:14~17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이 잠잠히 참는 때는 지나갔다. 이제 그분은 대적들에게 분노를 쏟으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믿는 잔존자를 인자하게 대하실 것이며, 그리고 모든 우상숭배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42:18~22 19절에 나오는 “중”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말씀과 행사에 대해 귀먹고 눈먼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누가 내게 온전한 자(우리말 성경 난하주에는 ‘충성된’으로 되어있음-역주) 같이 소경이겠느냐?”의 “온전한”은 특권에 있어서 그렇다는 뜻인 듯하며, “누가 내가 신뢰하는 자 같이 소경이겠느냐?” (JND), 혹은 “누가 나와 화평한 자 같이 소경이겠느냐?”(NASB)라고 옮겨질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연합 관계를 맺었으나 그 높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율법을 높이셨다. 그것은 그분께 존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멸시하고 불순종했으며, 그 결과 약탈과 탈취와 사로잡힘을 당하였다.

42:23~25 이사야 선지자는 물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 부으셨으나 아무도 그분의 징계의 의미를 헤아리고 염두에 두지 않는 듯했다.

(5)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말미암는 위로(43~44장)

43:1~7 부드러운 사랑의 어조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을 창조하고 조성하고 구속하고 부르신 그분이 물과 불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애굽을 그들의 속량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유대인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취된 약속이었다. 바인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대가로 그와 그의 아들 캄비세스로 애굽과 인근 나라들을 차지하게 하셨다. 세바는 구스 가까이 있는, 흰 나일과 푸른 나일 사이의 큰 지역이었다.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단순히 선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속전(‘코펠’), 즉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인 것이었다.”⁵¹⁾

이스라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과 사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얻는 대가로 사람들을 주실 것이다. 즉 심판이 이방 사면에 임하게 하사 그분의 아들과 딸들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5~7절은 그러한 회복을 묘사한다.

43:8~13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범정에 소환하신다. 그들로 나아와 장래 일을 예언할 우상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증인으로 부르신다.⁵²⁾ 그들은 그분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즉 그분이 영원

51) (43:1~7) Vine, *Isaiah*, p. 115.

52) (43:8~13) 삼위일체를 반박하는 이단 중 하나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본문 말씀을 그들의 종파의 기원으로 사용한다. 그들은 여호와의 진리 중 많은 것을 거스려 증거하기 때문에 마땅히 ‘거짓’ 증인으로

하시며, 그분 외에는 구원자와 구주가 없으며, 그분의 선언과 행위는 막을 수 없음을 증거해야 한다.

43:14~2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바벨론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은 그분이 여호와요, 그분의 백성의 거룩한 자요 창조주요 왕임을 드러낼 것이다. 그분은 그들로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그 뒤를 쫓는 애굽인들을 멸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출애굽은 그분이 이제 행하실 일에 비하면 잊혀져야 할 일이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을 위해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다. 새롭게 된 땅에서 황무지가 물이 풍부하여 광야의 들 짐승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도 기뻐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43:22~24 본문은 이스라엘의 포로 이전 시대로 돌아간다.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괴로워했다. 그들은 마지못해 그분께 제물을 바쳤으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었기에 아무 제물도 가져오지 않은 것과 다름없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짐만을 지워드린 것이었다!

43:25~28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리신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만한 어떤 요소를 그들이 내세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들의 역사는 죄와 실패로 점철되었다. 아담 이후로 계속 그러했다. 그런 까닭에 그분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44:1~5 본문에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을 위한 여호와의 심장

불러야 한다. 문맥은 그들이 본문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소리를 듣는다. 그분의 사랑은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 그분은 그들을 “야곱”(간청자), “이스라엘”(하나님의 방백), “여수룬”(정직한)이라고 부르신다. 그들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택하신 분이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나의 신”(성령)에 대한 약속은 오순절 날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를 볼 것이다. 그 때에,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 모두에서, 갈한 땅이 넘치는 물을 즐길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름과 야곱의 이름과 여호와와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5절은 “이방”이 여호와 및 그분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할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시 87:45).

44:6~8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분은 소위 신(神)이라 일컫는 것들에게 그분이 하시듯, 특히 “옛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듯 장래를 예언해보라고 도전하신다.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분이 미래를 예언하셨으며,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그분의 증인이다. 그분은 그분 외에 다른 참된 반석이 있음을 알지 못하신다. 그렇다면 어찌 이스라엘이 다른 반석을 알겠는가?

44:9~11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와 실망을 당할 운명이다. 우상은 무익하고 무력하다.

44:12~17 여기에 부자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철공이 있다. 그는 열심히 일하여 원하는 모양을 빚어낸다. 그러나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어야 한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상을 만드는 자가 그렇게 빨리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가 만드는 생기 없는 우상은 어떠하겠는가?

혹은 여기에 가난한 자를 위해 나무 우상을 만드는 목공이 있다. 그는 사람의 모양이 나올 때까지 나무를 쪼아낸다. 그는 나무의 일부는 그 몸을 더웁게 하는 뿔감으로 쓰고 일부는 음식을 만드는데 쓰고 그리고 일부는 우상을 만드는데 쓴다. 그는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린다.

44:18~20 그들이 보기를 거절한 까닭에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들은 그들의 주인인 그 나무가 그들의 종이라는 것과, 그들이 그 일부에게는 절하고 그 일부는 집안 일에 사용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그들은 재와 같이 무가치한 것을 먹고, 망상에 미혹되고, 스스로를 속박에서 구원치 못하고, 그리고 그 손에 거짓된 것이 들렸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치 않는다.

44:21~23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들의 창조자요, 그들은 그분의 종임을 기억하라는 호소를 듣는다. 그분이 그분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운 죄악의 구름을 지워버리셨다. 그분은 그들을 속박에서 회복시키셨으며 이제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신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므로 모든 피조물이 노래하고 외치라는 초청을 받는다.

44:24~27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에게 자신을 구속자, 여호와, 창조자, 보호자 및 회복자로 제시하신다. 그분은 갈대아 술사들과 신접한 자들의 예언과,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좌절시키신다. 그분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되고 그분의 백성이 고레스의 조서 아래 포로된 데서 돌아올 것이라는 자신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확증하신다.

44:28 고레스에 관한 이 예언은 그가 태어나기 150~200년 전에 그 이름을 들어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랄만하다. 또 한가지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내 목자”라고 부르신다는 점이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건져내고 성전 재건에 권위를 부여하는데 사용하실 인물로 고레스를 거명한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고레스는 이사야가 210년 전에 예언한 성전건축에 관한 것을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그 예언은 이사야가 성전이 훼파되기 140년 전에 한 것이다. 고레스가 그것을 읽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생각하며 감탄하던 때에 그는 그 기록된 것을 행하고자 하는 큰 감동과 충격에 사로잡히고 말았다.”⁵³⁾

(6)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고레스로 말미암는 위로(45장)

45:1~6 여호와께서는 고레스를 가리켜 “기름부음 받은 자”(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단어)라고 부르시는데, 이는 그 바사왕이 그분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열방(우선적으로 바벨론)을 물리치고,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은밀한 곳에 숨긴 엄청난 양의 재물을 취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여전히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기름부음 받은 자요 목자로 부르며(44:28),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일컬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그리고 온 세상으로 그분만이 여호와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53) (44:28) Flavius Josephus, *Antiquities*, 11:2.

45:7 7절은 흥정역과 다른 초기 번역을 근거로⁵⁴⁾ 어떤 이들이 주장하듯 하나님이 도덕적인 “악”을 창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텔리취는, 초기의 “기독교” 이단인 마르시온과 영지주의자들이 본문을 근거로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존재”였다고 가르쳤다고 지적한다.⁵⁵⁾

악(惡, 재난을 포함해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텔리취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의문의 여지없이 하나의 행위로서의 악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 아니라 자유를 부여받은 피조물의 자발적인 행위이다.”⁵⁶⁾

현재의 본문에서 빛과 그 반대인 어둠 및 평안과 그 반대인 환란이 대조되어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가리켜 종종 우리는 그분이 그것을 창조하신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빛과 어둠이 페르시아(바사) 사람들이 영원히 다투는 두 신으로 경외하던 두 원리를 가리킨다고 믿는다. (어떤 이들은 고레스가 그러한 종교를 좇았다는 아무 증거도 없다고 말한다.) 고레스가 정복사업을 펼쳐나갈 때 이스라엘에는 평안이 있고 이스라엘의 대적에게는 환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전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54) (45:7) 영어는 히브리어보다 훨씬 어휘가 풍부하다. KJV에 ‘악’(evil)으로, NKJV에 ‘재난’(calamity)으로 옮겨진 히브리어 단어는(우리말 성경에는 ‘환란’으로 옮겨져 있음-역주) 그 두 가지와 그 이상(‘재앙’, ‘악함’ 등)을 의미할 수 있다. 1611년에 출간된 성경에 ‘도덕적인’ 잘못(악)을 암시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 선택되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문맥으로 보아 ‘재난’이란 번역이 훨씬 낫다.

55)(45:7) Delitzsch, “Isaiah”,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8:220,21.

56) (45:7) Delitzsch, “Isaiah”,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p. 221.

45:8 여기에 묘사된 풍성한 의(혹은 정의)와 구원(혹은 구출)의 이상적인 상태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위해 개입한 결과로 생긴 것이다. 그 완전한 성취는 천년왕국을 대망한다.

45:9~11 유다를 구속하기 위해 이방인을 사용하실 여호와와의 권한을 의심하는 자에게 화가 선포된다. 그것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손이 없다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과 같다. 11절은 질문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너희가 내 아들들에 관해 미래의 일을 내게 묻고, 내 손의 행사에 관해 내게 명령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게 물을 권리가 있느냐?”는 것이다.

45:12~13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늘을 펴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그분의 포로된 백성을 해방하고 그분의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 고레스를 일으키셨다. 그 성의 재건은 후에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 성취되었지만(느 2:8이하),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여 그 일의 기초를 처음 놓은 것은 고레스의 지도력이었다.

45:14~17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자들이 장차 예물과 조공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나아올 것이며, 유대인의 하나님이 참 신이며 다른 신은 없다고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그러하듯 이 약속은 구원받은 잔존자로 하여금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판단과 행사로 인해 하나님을 송축하게 만든다. 거짓 신을 만들고 경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나, 여호와에 의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재림 후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45:18~19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공허하게

나(‘토후’,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된 같은 단어) 혼돈스럽지 않았다. 그분은 세상을 사람이 거주하도록 지으셨으며, 분명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을 사람에게 드러내셨다. 그분은 혼돈스럽게 창조하지도, 혼돈스럽게 의사를 전달하지도 않으셨다. 그 반대로 그분은 진리와 의 안에서,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45:20~21 그분은, 우상을 갖고 다니며 아무 힘없는 신들을 향해 기도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우상이 그분처럼 장래를 예언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촉구한다.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유일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시다.

45:22~25 그분은 이방인들에게 그분께 나아와 구원을 얻으라고 초청하고, 모든 무릎이 그분께 꿇고 모든 혀가 그분을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롬 14:11; 빌 2:9~11).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그 성취를 볼 것이다. 그 때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의와 힘’의 유일한 근원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분의 모든 대적이 회개하고 그분께 나올 것이며, 이스라엘은 의롭다 함을 받고 우상이 아닌 그분을 사랑할 것이다.

(7) 바벨론의 우상의 멸망으로 말미암은 위로(46장)

46:1~2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가 바사인에 의해 옮겨지고 있다. 피곤한 짐승들이 비틀거리면 우상들도 함께 뒤뚱거리린다. 그것들이 상징하는 신들은 그 우상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포로로 잡혀 옮겨졌다.

46:3~4 사람들에게 의해 옮겨진 우상들과 대조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노년이 되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제임

스 스튜어트는 본문을 이렇게 간략히 요약한다.

“이사야 이후로 사람들은,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후자는 영혼이 지고 갈 죽은 짐인데 반해 전자는 영혼을 인도할 산 능력이라는 것을 인식했다.”⁵⁷⁾

46:5~7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하겠는가? 그러나 미혹된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위한 신을 만들기 위해 석공에게 많은 돈을 바치고 있다. 그들은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갖고 다닌다.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며 움직이지 못한다. 그것은 기도를 들을 수도, 구원할 수도 없다.

46:8~11 우상숭배로 마음이 기우는 자들은 잠시 멈추어, 어떤 일이 이뤄지기 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들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갈대아인에게서 구원하기 위해 고레스(“동방의 독수리”)를 부르실 것이다.

46:12~13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절하는 자들이 이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확정된 목적을 듣는다.

(8)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은 위로(47장)

47:1~4 바벨론 성이, 그 보좌에서 쫓겨나 종이 되어 천한 일을 하고 강을 건너 포로로 끌려가는 아름다운 처녀 왕후로 묘사되어 있다. 그녀는 별거벗겨지고 사람들 앞에 몸을 드러낼 것이다. 하

57) (46:3,4) James S. Stewart, 더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나님이 보수하시며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구속자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행하실 것이다.

47:5~15 바벨론은 다음 네 가지 죄로 인해 징벌당할 것이다.

(1) 하나님이 비록 바벨론을 세워 그분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지만, 그분은 바벨론에게 잔인하고 무정하게 대하라고 명하지는 않으셨다. 바벨론은 자기 역할을 넘어 행동했다. 이제 바벨론은 “내가 영영히 주모가 되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다.

(2) 바벨론은 교만하고 오만하여 자신의 번성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벨론은 장차 과부와 고아가 될 것이며, 그 슬사 중 아무도 재난을 막지 못할 것이다.

(3) 바벨론은 스스로 잘못이 없고 징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벨론의 우쭐덤과 교만한 자기 만족은 재앙을 그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4) 바벨론은 술사와 점성술가를 의지했다. “바벨론이 그것을 몹시 필요로 하는 까닭에 여호와께서 바벨론에게 그것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하셨다”라고 제닝스는 말한다.⁵⁸⁾ 하나님의 징벌은 화로의 포근한 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이 될 것이다. 바벨론과 내통한 자들은 바벨론을 구원하지 못한 채 그들의 길을 갈 것이다.

(9)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은 후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은 위로 (48장)

48:1~2 하나님은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포로들에게 말

58) (47:5~15) Jennings, *Isaiah*, p. 556.

씀하신다. 그 대부분은 아마도 배도자이며, 소수만 여호와께 신실하다. 그분은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성 백성(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칭하나 방백이 아니라고 꾸짖으신다. 그들은 유다(찬송)에게서 나왔으나 그분을 찬송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들의 죄는 시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성이라고 칭하지만 거룩하지가 않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의지하지만 경건하지가 않다.

48:3~5 여호와께서 그들의 역사를 미리 예언하셨으며, 그것은 예언대로 이뤄졌다. 그들의 완고함과 강박함을 아신 까닭에, 하나님은 그 행하실 일을 미리 선언하사 그들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그들의 우상의 공로로 돌리지 못하게 하셨다.

48:6~8 이제 그분은 새로운 것, 즉 고레스를 통한 포로 귀환을 예언하고자 하신다.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 “물론 나는 미리 다 알고 있었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48:9~11 그분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위해서 유다의 포로 상황을 종식시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연단하시되, 문자적인 불속의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바벨론 포로)에서 하셨다. 이제 그분은 그 자신의 이름, 즉 그들에 의해 모독을 당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회복시킨 공로를 우상과 함께 나누지 않을 것이다.

48:12~16 자신을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처음과 나중)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붙드시는 자로, 역사의 조종자로, 예언의 하나님으로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고레스)를 일으킬 것

이라고 선언하신다. 16절에 “주 여호와”, “나”(그리스도), “그 신”(성령) 등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나와있음을 주목하라. 여기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레스에서 그 예표하는 인물인 주 예수님, 즉 재림시에 이스라엘을 전세계적인 흠여집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슬며시 대상이 바뀐다.

48:17~19 다시금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속자요 그들의 하나님 이요 그들의 교사와 인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신다. 만일 그들이 그분께 순종했다면 평강과 의와 다산(多産)과 그분과의 그침 없는 사귄을 누렸을 것이다.

48:20~22 그분은 경건한 잔존자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와 여호와를 그들의 구속자로 즐거이 선포하라고 호소하신다(계 18:4). 21절은 출애굽에서 성취되었다. 만일 여호와께서 과거에 그 일을 행하셨다면 또 다시 행하실 수 있으시다. 여호와께 순종하여 바벨론과 그 모든 상징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기를 거절하는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평강을 알지 못할 것이다.

2) 메시아와 이스라엘에 의한 그의 거절당함(49~57장)

(1) 종되신 메시아(49장)

49~53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까닭에 그분의 백성과 대면하신다. 이 부분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책이다.

49:1~6 49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1~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듯 보일지 모르나, 문맥으로 보아 주 예수님만이 온전히 거기에 적합하다. 3절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언급되었으나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지 않고 참된 “하나님

의 방백”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5,6절에서 그 종은 이스라엘과 구분된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회복, 즉 먼저 고레스를 통한 회복과 그 후에 메시아가 그 나라를 세울 때의 장래 회복이 나타나 있다.

이 종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호소한다. 그는 그의 출생과,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주어진 것과(마 1:21), 그의 날카롭고 권위 있는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여호와와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방백(이스라엘)으로 세우신 것을 진술한다. 더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할 때의 그 영혼의 고통과(마 11:16~24),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실 만족(4절과 마태복음 11장 25,26절을 비교하라)에 대해 암시를 준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생산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6절 후반절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인용되어 있다.

49:7 초림시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이방 열왕보다 못한 자로 멸시와 미움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재림시에는 세상 군왕들이 그분께 경의를 표할 것이다. “관원들의 종”(Servant of rulers)이란 표현은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었다. 요셉, 모르드개,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등을 생각해 보라.

49:8~13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여호와와의 종은 그 땅에 돌아오도록 백성들을 부르고 그 돌아오는 길을 이상적으로 예비할 것이다. 그들은 세계 모든 곳에서, 저 멀리 “시님 땅”(중국을 가리키는 뜻함)에서 나아올 것이다. 그 때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위로와 동정

을 경험하는, 온 세상이 기뻐할 날이 될 것이다.

49:14~16 그 사이에 시온 성은 그의 여호와가 그를 잊어버렸다고 느낄 것이다. 그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은, 어미는 그 젖 먹는 자식을 혹 잊을 수 있어도 자신은 자신의 성을 결코 잊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온은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졌고, 그 성벽이 결코 그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여호와와 손바닥에 대한 언급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사랑의 상처와 비교해보게 된다. 한 유명한 영국의 그리스도인 시인은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다.

“내 이름이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졌네.

영원도 그것을 지울 수 없네.

내 마음 속에 그것은

지워질 수 없는 은혜의 표로 남아있네.” (어거스터스 토플레디)

49:17~18 이스라엘 자녀들은 속히 시온에 돌아올 것이며, 황폐케 하던 자들은 떠나갈 것이다. 그 성에 모인 무리는 신부의 보석과도 같다.

49:19~21 이스라엘의 황폐하고 적막했던 곳들은 인구증가를 경험할 것이다. 시온은 그렇게 많은 유대인이 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오랫동안 시온은 홀로 있었지 않은가!

49:22~23 여호와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열방이 포로된 자들을 그 땅으로 실어 나를 엄청난 수송 작전을 벌일 것이다. 이방 군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기다리면 결국 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49:24~26 만일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자신들이 강력한 군주에게서 해방될 수 있을는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그들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과 싸워 그들의 자녀를 구원하실 것임을 알게 하라. 압제자들이 그 뿌린 것을 거둘 때, 세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2) 참 제자되신 메시아(50장)

50:1~3 마음과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그들과 이혼한 것(렘 3:8)이 일시적인 충동 때문이 아니며, 그들을 갈대아인에게 넘긴 것이 그 이방나라에 빛을 졌기 때문이 아님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신다. 그 원인은 그들 자신의 죄악과 허물에 있었다. 이스라엘 중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분이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것인가? 그분이 홍해와 요단을 마르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분이 애곡으로 하늘을 덮지 않으셨는가?

50:4~9 이어서 메시아가 말한다. 구약의 여호와를 쫓아낸 백성이 신약의 예수님을 쫓아냈다. 메시아는 하나님에게서 합당한 말을 하도록 가르침 받은 참 제자로 왔다. 아침마다 그분의 귀는 그 날에 필요한 교훈을 아버지에게서 받기 위해 열렸다. 그분은 혹 그것이 십자가로 가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했다. 그분은 뒤로 돌아서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고난과 수치에 내어주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을 온전히 확신한 가운데 그분은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다. 그분은 물론 부활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 이제 그분은 대적 사단에게 그분을 정죄 해보라고 도전한다. (우리도 이제

동일한 도전장을 던질 수가 있다; 롬 8:31~39). 그분의 모든 대적은 쪼먹은 옷처럼 헤어질 것이다.

50:10 마지막 두 구절은 두 부류의 사람을 묘사한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지침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은 여호와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넘치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다.

50:11 두 번째 부류는 스스로 지침을 만들어내려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피운 햇불 가운데로 행할 수 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슬픔 중에 눕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3) 의로운 통치자 되신 메시아(51:1~52:12)

51:1~3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찾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반석(메소보다미아)에서 그들을 취하신 후로 그들을 돌보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은혜롭게 대하신 일과 그들에게 무수한 후손을 허락하신 일을 기억하고 격려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시온을 위로하겠다는 그분의 약속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 “들으라”는 세 번의 부름(1,4,7절)과 “깨소서” 하는 세 번의 부름을 주목하라(51:9,17; 52:1).

51:4~6 메시아는 천년왕국 동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천년왕국 끝에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모든 불신자가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51:7~8 여호와께서 대환란의 어두운 기간에 사람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잔존자들에게 이르신다. 이는 악인의 운명이 인쳐졌고, 그분의 백성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51:9~11 이것은 잔존자들로 하여금 바다를 말리어 구속받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사 애굽(라합)과 바로(용)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여호와께 호소하도록 촉구한다. 하나님은 과거에 개입하신 것에 대한 기억이 그들로 구속받은 포로들이 시온에 돌아올 것을 내다보게 한다. F. C. 제닝스는 그 사건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한다.

“그들의 머리는 그들이 이제까지 헛되이 추구하다가 마침내 얻은 기쁨과 즐거움의 화환으로 두른 반면에, 그들이 지나온 폭풍은 그들의 모든 한숨과 눈물과 함께 뻑뻑한 구름이 물러가듯 사라져 버렸다.”⁵⁹⁾

51:12~16 여호와께서 당시의 느부갓네살이든 장래의 불법의 사람이든 전제군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신다. 그들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면 유약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그들은 죽지도 않을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요 양식이 썩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포로는 그 당시에는 고레스에 의해 해방되었으며, 메시아가 영광 중에 나타날 때는 메시아에 의해 해방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무한히 높으신 그분은 또한 심히 가까이 계셔서 그 손 그들로 그분의 백성을 숨기신다. 그분은 그들의 입에 그분의 말씀을 넣어 주사 그들로 세상에서 그분의

59) (51:9~11) Jennings, *Isaiah*, p. 593.

선교사가 되게 하신다.

16절은 주 예수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성부께서 메시아의 입에 그분의 말씀을 넣어주고 그분을 보호하고 구비시켜주어 그분으로 천년왕국 기간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고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다.

51:17~20 “꺾지어다, 꺾지어다!” 예루살렘의 아들 중 예루살렘을 인도할 자가 없고, 기근과 칼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예루살렘 남자들이 그물에 걸린 지친 영양처럼 무력하게 누운, 그 고난의 암흑한 밤이 지난 후에 그분이 예루살렘에게 “꺾지어다”라고 명하신다.

51:21~23 그분이 예루살렘을 비틀거리게 만든 그분의 분노의 잔을 취하실 것이며, 그것을 예루살렘의 대적들에게 건네주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분의 백성을 잔인하고 무정하게 대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52:1~2 다시 한번 시온은 그 포로된 잠에서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부름을 받는다. 시온은 다시는 이방인에게 침략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천년왕국의 도래를 대망한다. 그 때에 비로소 그 일이 실현될 것이다.

52:3~6 이스라엘은 금전적인 소득을 위해 종으로 팔린 것이 아니기에 역시 값없이 구속될 것이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초청을 받고 애굽에 내려갔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학대를 당했다. 후에 앗수르인이 까닭 없이, 금전적인 목적이 없이 그들을 압제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 값을 지불하지 않는 압제자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 정복자들은 기뻐하

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그러나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강한 자로 나타내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이 전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52:7~10 이어서 유대인이 전세계적인 흩어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귀환자들이 산을 넘어 시온으로 돌아올 때에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전령들이 앞서서 온다.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이 여호와께서 무리를 이끌고 돌아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 노래를 부른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와 능한 구원을 기념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52:11~12 귀환자들은 성전기구를 메고 예루살렘에 다시 가자갈 때에 그 포로되었던 땅의 부정함의 것들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황급함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후에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4) 죄를 짊어진 제물되신 메시아(52:13~53:12)

52장 13절 이하는 사실 53장에 속한다. 이 본문은 그 지상생애에서 십자가까지, 그리고 그 후의 영광스런 나타남까지 여호와와의 종의 생애 전체를 추적한다. 그 자신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인 아돌프 사피르(Adolph Saphir)는 이 십자가에 대한 위대한 예언 중 하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복스럽고 보배로운 장이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들이 너에 의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그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된 그 십자가 아래로 인도되었는가! 말일에 회개한 믿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찢은 분을 바라보고 ‘그는 실

로 우리의 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라고 외칠 때, 그것은 너에 대한 얼마나 영광스런 주석이 되겠는가!"⁶⁰⁾

52:13 여호와와의 종은 그 지상생애 동안 내내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분은 부활로 “받들어지고”, 승천으로 “높이 들렸으며”,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중에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다.”

52:14 그분의 초림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고난의 깊이에 놀랐다. 그분의 얼굴과 몸이 사람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하였다.

52:15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의 영광의 장려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NKJV 난하주).⁶¹⁾ 열왕이 아직 듣지 못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입을 다물 것이다. 그들은 그 때 겸손한 갈보리의 사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때에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그 얼굴을 숨기고

60) (52:11,12) David Baron, *The Servant of Jehovah*, pp. 46,47.

61) (52:15) “입을 봉하리니”와 가까운 표현은 ‘놀라다’라는 번역이다. 그러나 ‘뿌리다’라는 전통적인 번역은 레위인이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과 구속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바인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그분에게 가한 모욕과 손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으나, 장차 올 그분의 영광의 나타남을 통해 그분이 열방을 놀라게(깜짝 놀라 뛰고 두려워 떨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의 의미는 ‘뿌리다’가 아니라 ‘놀라다’이다(문법적인 구문론이 밝혀주듯이).” *Isaiah*, p. 166.

당신의 절박한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던가?
전에는 상하고 찢긴 당신의 얼굴에서
이제는 그분의 모든 영광을 보네.” (미스 C. 톰슨)

53:1 이스라엘의 회개한 잔존자들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소수만이 그 소식을 믿은 일을 회상한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53:2 주 예수님은 여호와의 즐거운 시선 앞에서 자라나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질적이고 연한 식물처럼 자라났다.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 즉 매우 달갑지 않은 토양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에게서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보지 못했다. F. B. 메이어는 그분의 겸손의 신비를 이렇게 묘사한다.

“연한 순, 흡입관(官)이 굳은 땅을 뚫고 들어가고자 고통스럽게 인간힘 쓰는 것, 자연적인 매력의 결여 등등의 사상(詩想, image)은 그리스도가 가난한 시골 사람인 부모에게서,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고, 늘 가난한 생활을 영위하고, 서민들이 헌신적으로 그분을 따르고, 십자가 양쪽에 도적과 악인이 서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이 그분의 교회를 이루는 등등 비천한 상황의 이야기를 담은 신약을 통해 온전히 해석된다. 그것은 실로 비천한 상황이었다.”⁶²⁾

53:3 멸시와 거절을 당한 그분은 슬픔이 무엇인지 아는 슬픔의

62) (53:2) F. B. Meyer, *Christ in Isaiah*, p. 126.

사람이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이스라엘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슬픔의 사람,
파산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가!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구주인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내 대신 저주를 받고
그 피로 내 죄사함을 인쳤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구주인가!” (필립 P. 블리스)

53:4~6 잔존자들은 이제 그분에 관한 진리를 알고 인정한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간, 방황하는 자들이었으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죄 없는 대속물인 그분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잔존자들이 그분을 인정할 그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인해 상했네.
그분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네.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고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케 했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입었네

그분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고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줄로 여겼네.
그분이 우리의 제물로 죽을 때에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옮겨졌네.

우리는 방황했었네. 우리는 모두 방황했었네.
‘양떼의 목자’의 우리를 멀리 떠나 방황했었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찾아 차갑고 황량한 산을 두루 다니다가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셨네.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셨네.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네.” (토마스 O. 치솔름)

우리 주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진 다섯 종류의 상처를 입으셨다.

- (1) 타박상(contusions)-막대기로 맞음
- (2) 열상(裂傷, lacerations)-채찍에 맞음
- (3) 침투상(penetrating wounds)-가시면류관에 찔림
- (4) 관통상(perforating wounds)-못 박힘
- (5) 결각상(缺刻傷, incised wounds)-창에 찔림

53:7~8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불평 없는 양처럼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분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그분은 한창의 나이에 끊어졌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므로 후손이 있을 가능성이 없었다(우리말 성경과 달리 옮겨졌음)

-역주).

53:9 악인들은 그분을 범죄자와 함께 장사하려 꾀했으나(우리 말 성경과 달리 옮겨졌음-역주)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셨다. 그분은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분은 아무 강포도 행치 않고 아무 거짓말도 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그분을 수치스럽게 장사하려 꾀했다.

53:10~11(상)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분을 상하게 하고 그분으로 슬픔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셨다. 그분의 영혼이 속죄제물이 되었을 때, 그분은 그 후손, 즉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볼 것이며, 그분의 날이 길어 무한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그분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그 피로 구속받은 허다한 무리를 보고 그분은 크게 만족할 것이다.

53:11(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라.”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분의 지식이 그분을 십자가로 이끌 것이며 그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신자들을 의롭다고 여길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혹은,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다시 말해서 그분을 알게 됨으로 사람들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뜻일 수도 있다(요 17:3). 어떤 경우든, 그분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인용한 치솔름의 찬송시의 마지막 연(聯)은 이렇게 승리의 찬가를 부른다.

“누가 그분의 세대를 셀 수 있을까?

누가 그분의 십자가의 모든 승리를 선포하겠는가?

수많은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기적이 그분의 뒤를 따르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승리의 주요 장차 올 왕이라!”

53:12 그분의 완성된 사역의 또 한가지 결과는, 여호와께서 그분으로 존귀한 자, 즉 그 존귀함이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성도들과 함께 분깃을 나누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한 자”는 스스로는 약하나 주님 안에서 강한 신자들을 가리킨다.

그분의 영광스런 승리의 네 가지 이유가 주어져 있다.

- (1) 그분은 그 영혼을 죽음에 내어주었다.
- (2) 그분은 범죄자, 즉 두 강도와 함께 헤아림을 입었다.
- (3) 그분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 (4) 그분은 범죄자를 위해 중보를 했다.

데이빗 베론은 이렇게 말한다.

“동사 ‘아프기야’(‘중보를 했다’)는 불완전한 혹은 불분명한 미래를 가리키는 말로,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표현한다. 델리취의 말대로, 그 가장 놀라운 성취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의 기도였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그 중보 사역을 그분은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지금 임금과 구주로 좌정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⁶³⁾

이 중대한 이사야 53장 전체의 역설(逆說)에 대해 무디는 이렇

63) (53:12) David Baron, *The Servant of Jehovah*, p. 140.

게 말한다.

“덜시를 받았으나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 가난했으나 부유했다. 죽었으나 살아났다. 이 53장을 성취하려면 두 명의 메시야가 존재해야 한다고 랍비들은 얘기했다.”⁶⁴⁾

(5) 구속자와 회복자 되신 메시야(54장)

54:1~3 54장이 “노래할지어다!”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귀를 말하는 53장 바로 뒤에 그 말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을 것이다.

첫째 구절은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포로된 이스라엘을, 자식이 많고 즐거워하는 회복되고 구속된 이스라엘과 대조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1~31절에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지상의 예루살렘을 비교하는데 이 구절을 적용했다. 그 땅의 경계는 인구 폭발을 감당할 정도로 대폭 확장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열방의 지도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버려진 성읍들에 거하게 될 것이다.

54:4~8 애굽의 종살이(“청년 때”)와 바벨론의 포로생활(“과부 때”)과 관련된 모든 수치가 잊혀질 것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분과의 사귄 가운데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포로됨은 하나님의 일시적인 분노를 표현해주었으나, 회복은 그분의 큰 긍휼과 영원한 인자를 나타내줄 것이다.

54:9~10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듯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다시는 그분의 책망이나 분노를 경험

64) (53:12) Moody, *Notes*, p. 87.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54:11~12 비록 예루살렘이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단장하실 것이다. 그 둘 사이에 “화려한 채색”이 더해질 것이며, 그 기초가 “청옥”으로 놓일 것이다. 그 성첩과 성문과 성벽이 다 보석으로 꾸며질 것인데, 이는 지극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상징어들이다. 딘 알포드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이렇게 표현했다.

“지평선 너머 저 멀리 성루가 솟아 있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집이 우리 것일세!
거리는 벽옥으로 빛나고, 문들은 금빛으로 반짝이네.
기쁨의 강이 흐르며,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온 사방에 뿌리네.”

54:13~15 거룩한 교육이 모든 이에게 베풀어질 것이며, 넘치는 번영이 있을 것이다. 의가 다스릴 것이다. 더 이상 침략과 포로됨과 압제를 두려워함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심문과 징벌을 당할 것이다.

54:16~17 무기 제조자(“장인”)와 정복자(“진멸하는 자”)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을 넉넉히 다스릴 수 있으시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제조된 기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모든 고소하는 자를 직접 정죄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선언하셨다. 이러한 정죄로부터의 자유와 확실한 승리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다. 이것이 평강과 번영의 황금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신원해주시는 모습이다.

(6) 세계 전도자 되신 메시아(55:1~56:8)

55:1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는 복음적인 초청을 하시는 동시에 세계 만민을 복음잔치에 초청하신다. 필요에 대한 의식(갈증)만 있으면 되었다. 그 축복들은 성령의 물과 기쁨의 포도주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쥬이다. 그것들은 돈 없이 값없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들이다.

55:2~5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그 힘과 자원을 낭비해왔다. 참된 민족과 영구적인 기쁨은 여호와에게서만 발견된다. 만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그들은 영원한 언약으로 다윗에게 약속된(시 89:3,4,28,29) 모든 확실한 은혜를 얻게될 것이다. 이 축복들은 주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스런 통치 안에서 성취된다. 열방도 천년왕국의 축복에 참여할 것이며, 이스라엘과 열방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55:6~7 축복의 길은 여호와를 구하고 죄를 버리는데 있다. 그와 같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지는 그분에게 긍휼과 용서가 풍부함을 알게될 것이다.

55:8~9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길(방법)로 여호와를 판단해서 안 된다. 그분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신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구원의 복음의 계획에 있어 그러한데, 그 계획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요 사람의 노력을 자랑할 여지를 일절 허락지 않는다. 윌리암 코퍼는 ‘진리’라는 시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늘의 쉽고, 꾸밈없고, 방해받지 않는 계획은
사람의 복잡한 작품과 얼마나 다른가!
아무 속이기 위한 저속한 은혜도 없고

아무 무겁고 거추장스런 장식도 없네.
 약함도, 겉치레도 없이
 푸른 창공처럼 단순함 속에 위엄 있게 서있네.
 멀리서도 반짝이는 별처럼 뚜렷하고
 거기서 나오는 빛으로만 읽을 수 있는
 영혼을 일깨우는 한마디가 그 입구에 새겨져있네.
 ‘믿고 행하라.’”

55:10~11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처럼 저항할 수 없고 효과적이다. 온 세상 군대가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것은 그 뜻한 목적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55:12~13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기쁨으로 포로된 땅을 떠나 평안히 고토로 여행할 것이다. 만물이 그들의 해방을 기뻐할 것이다. 그 땅은 저주에서 해방되어 산물을 낼 것이다. 가시나무와 쯤레를 대신하여 잣나무와 화석류가 날 것이다. 이 모든 천년왕국의 축복은 여호와를 영예롭게 할 것이며 영원한 표징, 즉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에 대한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56:1~8 추방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공평과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방인도 고자(환관)도 그리스도의 나라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실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 때에 성전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 외에 이방인을 그

분의 우리에게 모으실 것이다.

(7) 악인의 심판자 되신 메시아(56:9~57:21)

56:9~12 9절은 반역 시대의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열방(“짐승들”)은 그 파수꾼이 위협을 보지 못하는 백성을 징벌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그들은 짓지 못하는 병어리 개처럼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못한다. 그들은 잠자기를 좋아하는 꿈꾸는 자들이다. 그들은 돈만 알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런 목자들이다. 그들은 “내일도 오늘같이 멋지게 더 멋지게 벌리리라”고 말하며 술 취하고 흥청거릴 친구들을 청한다(로날드 나스).

57:1~2 57장 처음 두 구절은 앞장 9~12절과 연결된다. 모든 죄와 압박의 와중에서 의인은 핍박에 휩쓸린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분은 자비한 자들(경건한 자들)을 악에서 건져내며 그들을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57:3~6 추방생활 중에도 일부 백성은 우상을 계속 숭배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신실치 못한 부모, 즉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다. 여호와를 조롱하는 그들은 패역과 궤탈의 자식이다. 그들은 나무를 숭배하며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에서 자녀를 바알과 몰렉에게 바친다.

57:7~10 그 모두는 산당에서 우상과 음행을 벌이는 것이다. 문설주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대신에(신 6:9; 11:20) 문설주 뒤에 우상의 상징물을 걸고 음행의 잔치를 벌인다. 그들은 몰렉에게 예물과 제물을 바치고 사신을 음부에 보내어 새로운 가죽스런 물건을 찾게 한다. 지치고 탈진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새 힘을 얻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러 나아간다.

57:11~13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이 잠잠히 계시는 까닭에 그들은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의 자기 의와 죄를 드러내실 것이며, 그들의 우상은 그들을 돕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그들을 완전히 실망시킬 것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축복을 얻을 것이다.

57:14~19 추방 중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대로가 건설되고 모든 장애가 제거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 지으신 영혼과 영원히 다투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분의 진노 아래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탐욕적이고 패역한 백성에게 진노를 부으셨으나 그분의 진노는 한계가 있다. 그분은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회복시키사 그들로 그분에게 입술의 열매를 가져오게 하실 것이다.

57:20~21 악인을 요동하는 바다에 비유한 이사야의 놀라운 비유가 어떤 영어성경에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옮겨져 있다.

“그러나 악인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폭풍으로 요동하고 안정치 못하는 바다와 같다!”⁶⁵⁾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65) (57:20,21) Jennings, *Isaiah*, p. 668.

3)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과 회개와 회복(58~66장)

이사야서의 마지막 9장은 신실한 자와 배도자 모두의 최종 결과를 묘사한다. 알프레드 마틴은 이렇게 요약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그 종의 백성이자 세상에 대한 축복의 통로인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영광스런 성취를 묘사해 준다. 본문 전체에는 반역자와 신실한 자 사이의 뚜렷한 대조,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빠짐없이 나오는 대조가 나타나 있다.”⁶⁶⁾

(1) 참된 영성의 기쁨(58장)

58:1~5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죄를 크게 선포해야 했다. 백성들은 정해진 매일의 의식을 행하는데서 기쁨을 얻고 참으로 순종하는 백성인양 행동하는 듯 보였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과 회개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만족에 빠졌고 고용인을 착취하고 금식 중에 다투고 싸운다고 지적하셨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금식이 아니다. 참된 금식은 육체적인 모양을 갖추거나 슬퍼하는 기색을 표하는 문제가 아니다.⁶⁷⁾

58:6~8 하나님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의 멍에를 치워주고, 주린 자를 먹이고, 가난한 자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궁핍한 이웃을 도와주는 행위가 따르는 금식을 기뻐하신다. 그와 같이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자는 인도와 고침과

66) (58장 서론) Alfred Martin, *Isaiah*, p. 107.

67) (58:1~5) 문자적인 금식은 영적인 훈련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신약은 금식을 명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만일 네가 금식하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금식할 때에...”라고 말씀하셨다(마 6:17).

보호를 보장받는다. “네 의”는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할 수도 있고,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할 수도 있다. 5~8절은 스코틀랜드 찬송시에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설명되어 있다.

“압박의 짐 느끼는 자들에게 당신의 연민의 마음 전하고
도울 자 없고 집 없는 빈민에게 당신의 특별한 돌봄 베풀라.
가서, 가난한 고아에게 당신의 풍성한 것으로 복 받고
방황하는 자를 당신의 집에 청하여 편히 쉴 곳 내어 주라.
살을 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 자를 따뜻하게 옷 입히고
버림받아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복된 임무 당신 것 삼으라.
그리하면 당신의 날이 평강과 희락 중에 아침빛같이 비취고
여호와의 영광이 당신의 모든 길을 비칠 것이다.”

58:9~12 경건한 자는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만일 그가 압제를 풀어주고, 지적하고 조롱하는 손가락질을 멈추고, 허망한 말과 비방을 그친다면, 만일 그가 영육간에 인간의 필요(고통)를 덜어준다면, 그의 밤이 변화하여 낮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는 인도와, 좋은 것의 풍성한 공급과, 건강과 힘과, 아름다움과 결실과, 그리고 민족적인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네 아들들은 오랫동안 버려진 네 성읍의 폐허를 재건할 것이며, 너는 ‘그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는 백성’으로 알려질 것이다”(12절, LB).

58:13~14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사업이나 이기적인 즐거움을 금하여 ‘안식일’을 공경한다면⁶⁸⁾,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히 여기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면, 그들은 그 날을 허

락하신 여호와로 기뻐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지도자의 위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아굽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으므로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2) 이스라엘의 죄악(59장)

59:1~8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게 막는다. 잘못된 여호와 편에 있지 않다. 그들의 손과 손가락과 입술과 혀가 모두 살인과 거짓을 일삼는다. 공의를 굽게 하고 부정직한 일이 만연되어 있다. 사람들은 악을 잉태하고 죄를 낳는다. 그들의 품행은 독사의 알처럼 위험하고 거미줄처럼 무익하다. 죄가 그들의 행동과 가는 곳과 그 생각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 그들은 평강과 공의 따위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굽은 것을 더 좋아한다.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었던 것은 전 인류에게도 해당된다(롬 3:15~17).

59:9~15(상) 이제 이사야는 믿는 간존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그의 것으로 자백한다. 그는 그들의 부정과 불의와 소경됨과 죽은 자 같음을 시인한다. 그들은 조바심 가운데 부르짖으며 낙담 중에 슬피 운다. 공평도 없고 구원도 없다. 그들의 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많았으며 그들을 쳐서 증거했다. 그들은 여호와를 부인하고 그분을 멀리 떠나 방황했다. 그들은 포학과 패역과 거짓을 말했다. 공평이 뒤로 물리쳐졌고, 의가 멀리 섰고, 성실이 거리의 희생물이 되었다. 정직이 거절당했고, 성실이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고, 경건한 자가 탈취를 당했다.

68) (58:13) 안식일과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신자 성경주석 신약 1, 마태복음” 189쪽을 보라.

59:15(하)~21 여호와께서 굶어살피고 공평이 없음을 슬퍼하셨다. 그분은 그 상황을 해결할 능력 있는 자(중재자나 중보자)가 없음을 기이히 여기셨으며, 이에 친히 개입하사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분의 팔(능력)이 그분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붙든다. 그분은 갑옷을 입고 의와 구원과 보수(報讐)와 열심과 분노로 그분의 대적을 치러 나가신다. 그분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그대로 주신다. 마침내 동에서 서까지 모든 백성이 그분을 주(主)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분(메시아)이 여호와와 기운에 몰려 홍수같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시온의 경건한 잔존자에게 구속자로 오실 것이다. 그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1~34절, 히브리서 8장 10~12절, 10장 16, 17절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3) 시온의 미래 영광(60장)

60:1~3 시온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 즉 메시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분의 재림의 때이다.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과 대환란의 어두움에 처해 있으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나머지 세상에 빛을 비추신다. 이방인의 대표자(열왕을 포함해서)가 다시 태어난 그 나라에 공경을 표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다.

60:4~7 예루살렘이 눈을 들어보니 그 아들과 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다. 이방인들이 예물과 조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에 큰 기쁨이 그 마음을 채운다. 낙타행렬이 원근 각처에서 금과 유향을 싣고 와서 여호와와 이름을 송축한다. 갈보리에서 완성된 메시아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성전 제사에 사용할 큰 무리의 양떼가 예루살렘에 이른다. 6절에서 몰락이 빠진 것을 보라.

몰약은 고난을 말해준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고난은 영원히 마감되었다! 그분의 재림시에는 금(영광)과 유향(향기)만이 있을 것이다.

60:8~9 이스라엘의 자손과 추방자들의 큰 무리가 재물을 잔뜩 실은 큰 배를 타고 새들의 무리처럼 이스라엘에 돌아온다.

60:10 이방인들이 건축자로 일하고 열왕이 하나님의 백성의 종으로 봉사한다. 입장이 바뀐 것이다. 하나님이 그 징벌하신 나라에게 이제 자비를 베푸신다.

60:11~14 아무 위험이 없으므로 성문을 잠글 필요가 없다. 그 반대로 열왕과 대상이 밤낮 재물을 가지고 왕래하므로 문을 열어 두어야 할 상황이다! 그 날에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파멸이 기다린다. 레바논은 성전 주변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최상품 나무를 보낸다. 전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이방인의 후손이 이제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성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으로 인정한다.

60:15~16 전에는 미움과 버림을 받은 시온이 온 세상 나라에게서 공급을 받는 아름다운 성이 된다. 그 때에 여호와의 옛 백성은 그분이 그들의 구주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60:17~22 값진 광물질(금, 은, 동, 철)이 그 성을 짓는데 사용될 것이며, 평강이 감독 역할을 하고 의(義)가 경찰 역할을 할 것이다. 강포와 파멸의 곳에 구원과 찬송이 있을 것이다. 해와 달의 빛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인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

이 모든 필요한 빛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어두움이 사라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슬픔이 끝날 것이다. 의로운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예비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백성 중 가난한 자가 무수한 자손의 복을 받을 것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명하셨고 또 속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4) 메시아의 사역(61장)

61:1~4 우리가 알기에 여기서의 화자(話者)는 주 예수님인데, 이는 그분이 나사렛 회당에서 1,2절을 인용하신 다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덧붙이셨기 때문이다(눅 4:16~21). 그분은 침례 받을 때 성령의 부음을 받으셨으며, 그분의 지상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되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지를 풀어 주는 일이었다. 그분은 “여호와와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말로 인용을 마치셨는데, 이는 이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란 말은 그분의 재림 때까지 성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영광스런 재림의 날에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 날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 때에 그분은 시온에서 슬피 우는 자를 위로하고 그 머리에 채 대신 화관을 씌우고,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실 것이다. 그 때에 그분의 택한 백성은 여호와에 의해 심겨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나무로 불리울 것이다. 그들은 폐허가 된 약속의 땅의 성읍들을 재건할 것이다.

61:5~9 이방인이 농부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과 종으로 공경할 것이다. 이방인의 재물이 유다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며, 오랜 세기동안의 수치가 끝나고 여호와와 백성이 값절의 존귀를 얻을 것이다. 그분의 택한 백성이 당한 불의와 강탈과 악행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

상하고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사 열국으로 그들을 여호와께 복 받은 자로 인정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새 언약으로 이해된다(렘 31:31~34; 히 8:8~12).

61:10~11 메시야가 그 구속받은 잔존자의 찬양을 인도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신 구원과 의의 영광스런 옷을 기리고, 천년왕국 동안 열방 앞에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의와 찬송이 발산되는 것을 기린다. (10,11절의 화자는 이사야, 시온, 메시야 등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으나, 필자는 1~3절과 같은 화자인 메시야로 본다.)

(5) 예루살렘의 장래의 기쁨(62장)

62:1~5 예루살렘에게 약속된 축복이 실현될 때까지 여호와께서는 잠잠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때에 열방은 시온이 보상을 받는 것을 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성에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왕이 그의 면류관을 다루듯 시온을 정중하게 다루실 것이다. “버리운 자”로 불리운 그 성이 이후로는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헵시바)라고 불리우고, “황무지”로 불리운 그 땅이 “결혼한 여자”(뿔라)라고 불리울 것이다. 이 이름들은 그분의 성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과 아버지로서의 기쁨을 말해준다. 예루살렘 시민이 그 성과 결혼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시온을 신랑을 기뻐하듯 기뻐하실 것이다.

62:6~9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로 예루살렘이 세계의 여왕도시가 될 때까지 중재하기를 쉬지 말고 또 그분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이르셨다. 다시는 이스라엘의 곡물을 대적들이 취해가지 못할 것이며, 수고한 자들이 그것을 취할 것이다.

62:10~12 이제 추방자들이 바벨론 성문을 지나 잘 포장된 대로를 따라, 깃발을 휘날리며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 왔다는 선포가 온 세상에 퍼졌으며,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란 위엄있는 이름을 지닐 것이며, 예루살렘은 “찾은 바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으로 불리울 것이다. 본문은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회복되는 날을 대망한다.

(6) 보수(報讐)의 날(63:1~6)

63:1~3 여호와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 먼저 그 대적을 멸하셔야 한다. 그 파멸은 여러 시기에,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 한 단계는 아마겟돈 골짜기에서 일어나며(계 16:16), 한 단계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을 3:12), 그리고 또 다른 단계는 에돔에서 일어난다. 에돔의 경우가 여기 63장에 나온 파멸이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피로 붉게 물든 영화로운 옷을 입고 에돔의 대도시인 보스라에서 올라온다. 왜 그 옷이 붉으냐는 질문에, 그분이 포도즙들의 비유를 사용하여 대적을 짓밟은 일을 묘사하신다. 그분이 그들에게 보수하고 그분의 백성을 구속할 때가 이르렀다. 아무 인간 구원자가 없기에 그분이 직접 나서서 승리를 쟁취했다.

(7) 잔존자의 기도(63:7~64:12)

63:7~10 이어서 이사야는 포로 중에 있는 잔존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가련한 상태에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한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 대한 하나님의 지난 섭리를 진술한다. 여호와께서는 자비와 긍휼과 은총만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찍이 그분의 백성으로 일컬으셨다. 그분은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그분을 버리고 다른 신을 좇을 것을 상상조차 못하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에 그분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또한 그분은 그들의 모든 시련 중에, 특히 애굽에서의 모든 환란 중에 동참하셨다. 그분 앞의 사자, 즉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분은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광야 여정 동안 내내 그들을 돌보셨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을 반역으로 보답했으며 이에 그분은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

63:11~13 그러나 옛적 모세와 그의 세대의 날을 기억해보아도 이런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다른 목자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모세에게 성령을 주시고, 바다를 갈라 모세로 그들을 이끌고 통과하게 하사 그 이름에 영원한 존귀를 돌리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신가? 그들로 바다를 통과하게 하고, 말이 넘어지지 않는 평탄한 광야처럼 길을 평탄하게 하신 여호와가 어디 계신가?”

63:14 가축(들짐승)이 휴식과 소생함을 얻으려고 골짜기에 내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안식의 땅에 인도하셨으며,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스스로 영화로운 이름을 얻으셨다. 삼위 하나님을 주목하라. 주 여호와(7절), 여호와의 사자(9절), 여호와의 신(10,11,14절).

63:15~16 여호와께서 과거에 베푸시던 자비를 생각하며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를 감찰하시고 추방자들을 위해 개입해주실 것을 간청했다. 마치 하나님의 열성과 능력과 긍휼을 잔존자에게서 거뒀 가신 듯했다. 이사야는 혹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정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라고 호소했다.

63:17~19 17절에서 잔존자들이 그들의 잘못의 책임을 여호와께 돌리는 듯 보이나, 실은 사람들이 먼저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마도 잔존자들의 말은, “왜 우리로 당신의 길을 떠나게 놔두셨습니까?”라는 의미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 허락하시는 것을 행하신다고 종종 사람들은 말한다. 어쨌든, 추방자들은 여호와께 은혜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짖는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비교적 짧은 기간 그 땅을 평안히 소유했었으나, 이제는 성소가 폐허가 되었고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와 언약관계를 맺지 못한 열방보다 결코 낫지 못했다.

64:1~5 63장 15절에서 시작된 기도가 이제 계속되어 자백으로 바뀐다. 잔존자들은 하늘을 가르고 분노 중에 그분의 대적들 향해 강림하시라고 하나님께 탄원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개입하신 일, 즉 그분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 행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독특한 나타나심을 회상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적인 의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 지속된 죄로 그분의 진노를 자극해왔으며 그들과 같은 백성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아해한다.

64:6~7 그들은 개인적인 부정함을 자백하고, 그들의 최선의 행위(의)가 더러운 옷 같다고 인정한다.⁶⁹⁾ 그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 바람에 물러가는 쇠패한 잎사귀 같음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영적인 죽음이 있다. 중재자가 어디에도 없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죄의 결과에 내버려두셨기 때문이다.

69) (64:6,7) 문자적으로, 월경(月經)용 천.

64:8~9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께서 그들의 아버지시며, 여전히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뭔가 행하실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분의 진노를 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잊고, 그들을 여전히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해주실 것을 그분께 호소한다.

64:10~12 온 나라와, 특히 예루살렘과 성전의 황폐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풀고 그분의 고난받는 백성을 위해 단호히 행동하셔야 하는 강력한 이유라고 잔존자들은 호소한다.

(8) 잔존자들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65장)

65:1 여기서 앞선 기도(63:15~64:12)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이 시작된다.

문맥으로 보아 첫째 구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0장 20절에서 이것을 이방인에 대한 부르심에 적용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65:2~7 본문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 및 이교주의와 관련 있는 가증한 것들에게 자신을 드리는 백성과 종일 변론하신다. 그들은 은밀한 의식을 행하며 스스로 동료 사람들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까닭에 그들의 모든 우상숭배와 죄악에 대해 그분이 보응하실 것이다.

65:8~12 여호와께서 나쁜 포도원(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좋은 포도송이(신실한 잔존자)를 남겨두겠다고 약속하신다. 이 보존된 잔존자는 그 땅에 거할 것이다. 양떼가 서쪽의 사른 평지와 동쪽

의 아골 골짜기에서 풀을 뜯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배도한 무리에게는 달리 적용된다. 그들은 성전을 버리고 “갓”(운수 신)과 “므니”(운명 신)를 숭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여호와와의 간청에 반응하는 대신 그들은 여호와께 악하고 가증스런 것을 선택했다.

65:13~16 참신자의 분깃과 불신자의 분깃의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 그것은 풍성한 양식과 굶주림의 차이이며, 풍부한 음료와 갈증의 차이이며, 기쁨과 수치의 차이이며, 노래와 애곡의 차이이며, 그리고 축복과 음녀의 저주(민 5:21~24)의 차이이다. 그 날에 세상의 죄악이 바로잡아질 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거나 맹세를 할 때 “진리의 하나님”이란 칭호를 사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 말한 바를 행하시는 분으로 인정받으실 것이다.

65:17 65장 끝 부분은 천년왕국의 상태를 묘사한다. 여기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지상왕국을 가리킨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영원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사야서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존재하지만,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것들이 사라져버렸다.

65:18~23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실 것이다. 슬픔과 고통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려서 죽거나 일찍 죽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100세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로 간주될 것이다. 100세된 죄인은 끊어질 것이다(우리말 성경 난하주 참조-역주). 사람들이 오래도록 살아서 그 수고한 열매를 먹을 것인데, 이는 신실한 자들의 경우에는 수명이 1000년까지 연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생

산적인 수고가 없을 것이며, 젊은이들은 전쟁이나 재난으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여호와와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65:24~25 더 이상 기도의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들짐승이 길들여질 것이며, 독사가 패배와 낮아짐의 흠을 식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아무 위험도 없을 것이다.

(9) 완성: 강같은 평화

66:1~2 이사야서 마지막장의 서두는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록되었다. 그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와 소유자로서 하늘에 좌정하셔서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거처는 겸손하고 통회하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의 마음이다.

66:3~4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을 자극한다. 실제적인 거룩이 따르지 않는 한 그들의 제사와 예물은 범죄요 가증한 것이다. 그들은 그 위선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택해 주실 것이다.

그분의 회개의 촉구를 거절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길을 고집하는 자들은 그분의 진노를 맞볼 것이다.

66:5~6 그분의 말씀 앞에 떠는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은 그 형제들에게서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악한 핍박자들은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 즉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는 말로 거짓 경건을 드러내며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개입하사 그들의 대적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심판이 성전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여호와와 음성이 보상의 때가 이르렀음을 드러낼 것이다.

66:7~9 7절에서 이스라엘은 해산의 고통(대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남자”(메시아)를 낳는다. 8절에서 이스라엘은 해산의 고통 “직후에”(즉시) 아들을 낳는다. 첫 번째 출생은 약 2천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 두 번째 출생은 대환란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출생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아무것도 막지 못할 것이다.

66:10~17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은 예루살렘에 큰 기쁨의 때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과 더불어 슬퍼한 모든 자는 그 날의 환희와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열방의 영광으로 부요해질 것이며,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에게 번성과 자양분과 위로와 원기회복을 줄 것이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은 복주시고 대적은 징벌하신다는 것이 모두에게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우상숭배자와 반역자에 대해 그분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분은 그들이 의식적으로 자신을 깨끗케 하기 위해 의식을 행하는 반면 심히 가증한 우상숭배를 행하고 있음을 보신다.

66:18~21 그분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아시며, 그분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그들은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현재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징조를 주실 것이다. 도피하는 자들은 여호와와 권능과 명성의 소식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갈 것이다. 그 때에 열방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올 때처럼, 운송수단을 동원하여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돌

려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
과 레위인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66:22~23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위는 새 하늘과 새 땅
처럼 영구하고 안전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서 온 순례자들이
정한 때에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66:24 거기에서 그들은 흰놈의 골짜기로 나아가 반역자들의 시
체가 성의 소각장의 영구적인 불에 화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것
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이사야서 마지막 구절을, 죄 가운데 살며 그
리스도의 소자를 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인용하셨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이사야서의 엄위한 말
씀을 세 차례 인용하셨다(44,46,48절).⁷⁰⁾

복음은 사람이 구주를, 즉 이사야가 그 많은 예언에서 그토록
아름답게 묘사한 여호와와 그의 종을 믿음으로 그러한 영원한 지옥의
불을 피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다.

이미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한 대부분 독자들에게 이
이사야서는 위대한 예언이요 위대한 시요,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기
뻐하시는 뜻을 행해야 한다.

끝으로, 경건한 성경학자인 W. E. 바인의 다음과 같은 실제적
인 권면으로 이 책을 마감한다.

70) (66:24)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이 세 구절 중 두 구절이 없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주석 마가복음 9장 각주를 보라.

“이 모두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우리의 길을 추구하고,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을 좇는 삶의 어리석음과 헛됨과 죄악됨을 밝히 드러낸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며 또 이루실 것이다. 그분은 그러한 확신에 아멘을 덧붙이심으로 그분을 즐거이 신뢰하는 것에 응답하신다. 순종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영의 평강은 그분의 얼굴의 빛남과 그분과의 거룩한 사귄의 고요함을 누리는 것이다.”⁷¹⁾

71) (66:24) Vine, *Isaiah*, pp. 214,215.

참고 문헌

Alexander, Joseph A. *The Prophecies of Isaiah*.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4.

Archer, Gleason L. "Isaiah". In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2.

Baron, David. *The Servant of Jehovah: The Suffering of the Messiah and the Glory that Should Follow*. Reprint. Minneapolis: James Family Publishing, 1978.

Buksbazen, Victor. *The Prophet Isaiah*. West Collingswood, N. J.: The Spearhead Press, 1971.

Delitzsch, Franz. "Isaiah".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s.17,18.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Jennings, F. C. *Studies in Isaiah*. New York: Loizeaux Bros., 1935.

Henry, Matthew. "Isaiah".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 4.

Kelly, William. *Exposition of Isaiah*. London: Robert L. Allen, 1916.

Martin, Alfred. *Isaiah: The Salvation of Jehovah*. Chicago: Moody Publishing House, 1952.

Meyer, F. B. *Christ in Isaiah*.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2.

Vine, W. E. *Isaiah-Prophecies, Promises, Warnings*. London: Oliphants, Ltd., 1947.

Young, Edward. *Who Wrote Isaiah?*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8.

| 신앙 생활 지침서 | 신앙 생활 지침서 |
|--------------------------------------------------|----------------------------------------------|
| 의사의 눈을 통해 본 병 고치는 기적 이더 C. 힐/36만/500원 | 황금의 집-성막(원색 사진 31편) J. 로우/96만/3,300원 |
| 그리스도인과 고난 겔투르드 할로우/36만/500원 |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윌리엄 맥도날드/114만/2,500원 |
| 그리스도인과 선교 칼 노트 2세/44만/500원 | 성경해석의 원칙 23가지 에드윈 허틀/360만/10,000원 |
|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레나널드 윌리슨/36만/500원 |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인도자들 알렉산더 스트라우크/416만/10,000원 |
|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폴 리틀/36만/500원 |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 알렉산더 스트라우크/224만/5,000원 |
| 믿는 자들의 적 존 슬리브/36만/500원 | 설교자와 그의 설교 A. P. 김스/464만/11,000원 |
|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인가 N. M. 프라이저, 송기섭/64만/1,200원 |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예배 A. P. 김스/240만/6,000원 |
| 오늘날의 반역 데이비드 롱/48만/800원 | 주님의 만찬 A. P. 김스/256만/5,500원 |
| 하나님께 돌아오라 윌리엄 맥도날드/64만/1,200원 |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 찰스 C. 라이리/242만/4,800원 |
| 그리스도인의 소망 프랭클린 퍼거슨/64만/1,200원 |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노르만 크로포드 외/289만/4,800원 |
| 그리스도인의 내면생활 C. I. 스코필드/96만/1,500원 |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M. 모리스/320만/8,000원 |
| 그리스도인의 성장지침 윌리엄 맥도날드/96만/1,500원 | 핵심 설교 노트 윌리엄 로저스/495만/11,000원 |
|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 윌리엄 맥도날드, 칼 노트 2세/96만/1,500원 | 나그네의 소금 이춘열/306만/4,800원 |
|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존 윌리엄 브람홀/128만/2,000원 | 왜가리와 우렁이(생명의 빛 컬럼) 임용민/240만/6,000원 |
|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데이비드 롱/96만/1,500원 | 뜻의 때와 같으리니 찰스 스텐리/192만/4,500원 |
| 바울과의 항해 H. A. 아이언사이드/96만/1,500원 | 세계 선교-전면전 L. E. 맥스웰/208만/3,500원 |
| 베드로의 사역과 증거 R. E. 할로우/96만/1,500원 | 엘리아, 엘리아 C. E. 타덤, V. E. 트램블/144만/2,800원 |
| 일곱 절기와 다섯 제사 존 리치/128만/2,000원 |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윌리엄 로저스/128만/2,500원 |
| 광야의 성막 존 리치/160만/2,800원 |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박준형/96만/1,700원 |
|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존 리치/160만/3,200원 | 구원의 영원성과 다행구절 해설 박준형/96만/1,700원 |
| 주 예수님의 재림 존 리치/128만/2,000원 | 영원을 계산하는 삶 윌리엄 맥도날드/128만/3,500원 |
| 믿음의 근본진리들 존 리치/128만/2,000원 | 참된 제자의 길 윌리엄 맥도날드/96만/1,800원 |
| 성령님의 역사 어네스트 타담/96만/1,800원 | 매일의 묵상 윌리엄 맥도날드/448만/11,000원 |
| 신약에 갖추어진 교리적인 비밀들 T. 어네스트 윌슨/142만/3,000원 | 성령충만한 기적 편집부 엠희/146만/3,000원 |
|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R. E. 할로우/128만/1,800원 | 결혼과 가정 A. J. 허킨스/160만/4,000원 |
|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나단 J. 스톤/200만/3,800원 | 잊혀진 명령-거룩하라 윌리엄 맥도날드/240만/5,500원 |
| 제사장 의복 C. W. 슬레일/208만/4,500원 | 장차 되어질 일들 R. E. 할로우/128만/3,500원 |
| 거짓 선지자 발람과 전도자 요나 W. W. 페라테이/178만/4,800원 | 그리스도인의 개인전도 윌리엄 맥도날드/96만/2,300원 |
| 말씀이 육신 되어 황성진/192만/5,500원 |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문제집 알렉산더 스트라우크/80만/1,700원 |
| 천사들 J. B. 커리/80만/2,000원 | 전대에 대한 명령 알렉산더 스트라우크/96만/2,500원 |
| 암송 카드-교회 진리, 제자의 삶, 전도의 삶 편집부/각 52요절/각 1,000원 | 말씀의 올바른 해석 존 필립스/384만/9,500원 |
| 암송 카드-구원의 진리①, ② 편집부/각 52요절/각 1,000원 | 부흥(부흥의 모형들) 데이비드 롱/224만/6,500원 |

예리미야

예레미야 서론

“모든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중의 마음 속에 예레미야를 연상시켰다는 점이다. 한번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서 대중의 견해를 들으실 때에(마 16:13이하) 어떤 보고는 그분을 BC 7세기의 팔목할 예언자와 동일시했다. 어떤 이들이 이 슬픔의 사람을 그 상한 마음의 선지자로 오해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닌데, 이는 예레미야와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당대 사람들에게 대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다(렘 9:1; 눅 19:41)” (R. K. 헤리슨).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이 그의 글을 이해하는 열쇠인데, 왜냐하면 그 사실과 그가 눈물을 흘린 이유를 기억하면 그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선지자는 다른 어떤 구약 선지자보다 자신의 마음과 성격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¹⁾ 성격상 그는 예민하고 내성적이었으나 당대의 배도를 신랄히 꾸짖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바벨론, 애굽, 앗수르 간의 세계주도권을 둘러싼 국제적인 긴장, 요시아 지도하의 유다의 마지막 부흥이 있던 후의 이스라엘의 급격한 영적인 하락, 하나님 말씀으로 세움을 입었던 사람들과 참 신앙의 이방종교에로의 변절 등 모든 것이 오늘날 서구세계의 기독교

1) (서론) 예를 들어, 10장 23,24절; 11장 18절~12장 6절; 15장 10~21절; 17장 9~11,14~18절; 18장 18~23절; 20장 7~18절 등을 보라.

교의 모습을 반영해 준다.

2. 기자

이 예언은 예레미야(히브리어로 ‘*이르케야후*’ 또는 ‘*이르메야*’)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 이름은 아마도 “여호와께서 던지시다”는 뜻인 듯한데, 그것은 “기초를 놓다”, 즉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다른 가능한 의미는 “여호와에 의해 높임을 받다”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3마일이 채 안 되는 베냐민에 속한 마을인 아나돗 출신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그 지위와 경제적인 안전이 위협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대부분 전파자처럼, 예레미야는 대적들에게서 비방과 오해를 당했다. 예레미야 자신이 제사장직을 수행했는지는 아무 증거가 없다.

3. 연대

예레미야는 그의 책 전반에 걸쳐 많은 연대적인 기술을 남겨놓았다. 그는 BC 627년(요시아 13년, 1:2)경에 사역을 시작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시드기야 11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BC 586년) 유다의 마지막 40년 동안 예언을 했다.²⁾ 예루살렘 멸망 후에 예레미야는 총독 그달라의 보호를 받았다. 그달라가 극렬분자들에게 살해당하자 예레미야는 일부 유대인들과 함께 애굽

2) (서론) 이것은 그가 요시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여고냐와 고니야로도 불리움), 그리고 앞잡이 왕 시드기야 등 다섯 왕의 통치기간에 사역을 했다는 의미이다.

에 내려가 거기서 여생을 보냈다. 그는 BC 582년에도 여전히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40~44장).

예레미야서를 연구할 때는 그 예언이 연대순으로 배열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4. 배경 및 주제

예레미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한 후에, 유다 왕국의 종말이 이르기 수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다. 그가 예언할 당시에는 앗수르, 애굽, 바벨론 등 3강(強)이 주도권을 놓고 대치하고 있었다.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예레미야는 곧 패자가 될 애굽과 일절 동맹을 맺지 말라고 외쳤다. 일찍이 앗수르가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으나, 20년이 못되어 그 수도인 니느웨가 끔찍한 에워싸임을 당한 후에 멸망했다. 애굽의 느고는 팔레스타인 북부 하란까지 진격하고 요시아 왕을 죽였다(BC 609년). 그와 앗수르의 잔존자들이 느부갓네살과 접전을 벌였는데 느부갓네살이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고의 군대를 격퇴했다. 유다는 자동적으로 바벨론의 손에 들어갔다. 앞서 느고는 요시아의 후계자인 여호야하스를 폐위하고 애굽에 보다 호의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호야김을 대신 자리에 앉혔다. 느부갓네살은 한 동안 유다를 소홀히하여, 여호야김이 유다의 독립을 위해 애굽에 도움을 청할 기회를 허락했다. BC 598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서 반역자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여호야김을 사로잡고 백성의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좌에 앉혔다.

아마 느고의 후계자인 삼틱(Psamtik) 2세가 바벨론과 맞서는 동맹세력을 형성하려 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그 동맹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히 만류했다(예, 28장). 그러한 제안을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예레미야는 지적했다.

시드기야는 애굽의 음모로 바벨론과의 관계를 파기했으며 그 결과 바벨론의 통치자가 내려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이 때가 588년이었으며, 애굽이 군대를 보내 그 포위망을 해쳤다. 그러나 곧 다시 포위망이 쳐졌고, 예레미야가 애굽을 가리켜 “부러진 갈대”라고 일컬은 것이 옳음이 입증되었다. 그의 개인적인 슬픔에 부합하게도 예레미야는 멸망과 사로잡힘에 대한 그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로 인해 그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포로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셨다. 예레미야의 달갑지 않은 임무는 이 사실을 그의 동족에게 알리고 그들로 바벨론에게 복종하도록 조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동족은 그를 반역자로 고소하고 그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다.

예루살렘이 마침내 이방 침략자들에게 함락당했을 때, 예레미야는 고토에 머무르도록 허락받은 무리에 속했으나 대다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다. 이제 그는 남은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애굽에 피신하지 말라고 조언했으나 그들은 그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다. 예레미야는 거기서 죽었다.

바벨론 포로를 예언한 것에 더하여, 또한 예레미야는 70년이 끝나면 그 제국이 멸망할 것과 유대인이 그들의 땅에 돌아올 것을 내다보았다.

5. 개관

1. 서론: 선지자 예레미야의 임명과 사명(1장)

2. 예레미야의 공적인 사역(2~10장)

1) 유다의 완고한 불신앙에 대한 설교(2:1~3:5)

- 2) 회개여부에 달려있는 유다의 장래(3:6~6:30)
 - (1) 과거의 죄와 미래의 영광(3:6~18)
 - (2) 회개의 필요성(3:19~4:4)
 - (3) 북방의 심판(4:5~31)
 - (4) 심판 받아야 할 유다의 죄(5장)
 - (5)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6장)
- 3) 성전 문 앞에서의 예레미야의 사역(7~10장)
 - (1)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6장)
 - (2) 유다의 죄에 대한 둔감함(8장)
 - (3) 눈물의 선지자의 탄식(9장)
 - (4) 우상숭배에 대한 풍자(10:1~18)
 - (5) 눈물의 선지자의 기도(10:19~25)

3.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경험(11~19장)

- 1) 예레미야와 아나돗 사람들(11~12장)
- 2) 예레미야와 썩은 허리띠(13장)
- 3) 예레미야의 가뭄에 대한 중재(14~15장)
- 4) 예레미야의 외로운 사역(16:1~18)
- 5) 예레미야의 한결같은 마음(16:19~17:18)
- 6) 예레미야의 안식일 설교(17:19~27)
- 7) 예레미야와 토기장이 집(18장)
- 8) 예레미야와 토기장이의 오지병(19장)

4. 유다의 일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20~23장)

- 1) 바스홀에 대한 예언(20:1~6)
- 2) 예레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불평(20:6~18)
- 3)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21:1~22:9)
- 4) 살룸 왕에 대한 예언(22:10~12)

- 5)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22:13~23)
- 6) 여호야긴 왕에 대한 예언(22:24~30)
- 7) 의로운 왕에 대한 예언(23:1~8)
- 8)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23:9~40)

5.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 관한 예언(24~29장)

- 1) 무화과나무의 징조(24장)
- 2)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25:1~11)
- 3) 바벨론에 대한 심판(25:12~38)
- 4) 백성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경고(26장)
- 5) 멩에의 징조(27장)
- 6) 하나냐의 거짓 예언과 죽음(28장)
- 7) 바벨론의 유다 포로에 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29장)

6. 회복에 관한 예언(30~33장)

- 1) 포로의 재집결(30장)
- 2) 그 땅의 회복(31:1~30)
- 3) 언약의 갱생(31:31~40)
- 4) 예루살렘 성의 재건(32장)
- 5) 언약의 인준(33장)

7. 역사적인 부분(34~45장)

- 1)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34~39장)
 - (1) 시드기야의 사로잡힘에 대한 예언(34장)
 - (2) 레갑 족속의 순종과 그 보상(35장)
 - (3)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태우다(36장)
 - (4) 예레미야의 투옥과 시드기야의 방문(37~38장)
 - (5) 예루살렘의 멸망(39장)

- 2)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유다의 상황 변화(40~42장)
 - (1) 예레미야가 총독 그달라와 함께 거함(40장)
 - (2) 총독 그달라의 피살(41장)
 - (3) 하나님이 애굽 도피를 금하시다(42장)
- 3) 예레미야와 애굽의 잔존자들(43~44장)
- 4) 바룩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메시지(45장)

8. 열방에 대한 예언(46~51장)

- 1) 애굽에 대한 예언(46장)
- 2) 블레셋에 대한 예언(47장)
- 3) 모압에 대한 예언(48장)
- 4) 암몬에 대한 예언(49:1~6)
- 5) 에돔에 대한 예언(49:7~22)
- 6) 다메섹에 대한 예언(49:23~27)
- 7) 그달과 하술에 대한 예언(49:28~33)
- 8) 엘람에 대한 예언(49:34~39)
- 9) 바벨론에 대한 예언(50~51장)

9. 결론: 예루살렘의 멸망(52장)

예레미야 주해

1. 서론: 선지자 예레미야의 임명과 사명(1장)

1:1~10 이 책의 첫 장에서는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소개되고, 부름 받고, 지시를 받는다. 그의 부친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하나로 묘사된다. 예레미야는 출생 전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으며(5절), 인간적으로 내키지 않았으며(6절),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부여받았으며(8,9절), 그리고 멸망과 회복을 예언할 사명을 위탁받았다(10절). 윌리엄 켈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인물과 사역을 이렇게 적절하게 요약해준다.

“이사와 비교할 때 예레미야의 독특한 성격과 스타일은 모든 주의 깊은 독자들을 놀라게 할만하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중심이었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놀라게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도덕적으로 다루는 예언을 보게 된다. 물론 이방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지만, 여전히 주된 관심은 유대인의 영혼을 다루는 것이며,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레미야 자신의 경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볼 수 있다. 모든 선지자들 중에 이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영혼을 그토록 깊이 분석한 자는 없다.”³⁾

3) (1:1~10) William Kelly, *Jeremiah: The Tender-Hearted Prophet of the Nations*(‘부드러운 마음의 열방의 선지자, 예레미야’), p. 9.

1:11~19 이어서 여호와께서 살구나무와 꿩의 가마리는 시창 각 교재(教材)를 통해서 그분의 선지자를 가르치신다. 봄철을 알리는 첫 번째 징표인 살구나무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가까웠음을 암시했다(11,12절). 그 면이 북방에서부터 기울은 꿩의 가마는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택한 까닭에 곧 유다로 뿔어 넘칠 바벨론이었다(13~16절). 예레미야는 유다 열왕과 그 방백과 그 제사장과 그 백성에게 그런 달갑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17~19절).

2. 예레미야의 공적인 사역(2 ~ 10장)

1) 유다의 완고한 불신앙에 대한 설교(2:1~3:5)

2:1~3 2~19장은 유다에 대한 일반적인 책망을 보여준다. 유다는 한 때 여호와와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 유다는 그분께 거룩했으며, 유다를 괴롭히는 자는 재난을 당했다. 그러나 이제 카일 에이츠의 표현대로 ‘밀월관계는 끝났다.’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전날의 뜨겁고 순전했던 사랑의 관계를 상기시키신다. 유다는 그 사랑하는 자와 깊은 사랑에 빠졌으며, 그 달콤한 사랑은 삶을 음악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다. 유다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했다. 추호의 신실치 못함이 나 부정한 생각이 유다의 헌신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과 좌절로 부서졌다. 이스라엘은 이제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는 언약의

맹세에 신실치 못했다. 다른 신들이 유다의 사랑을 앗아갔다. 그는 아웨를 사랑하기를 멈췄으며, 그 행실이 심히 부끄러웠다.”⁴⁾

2:4~19 이제 여호와께서 왜 유다가 변했는지를 물으신다. 백성들과 제사장과 관원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 이루신 모든 행사를 잊어버렸다. 그들의 신에게 충성스런 것됨과 계달과 같은 이방 나라와 달리, 유다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무가치한 우상을 좇았다. 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앗수르 및 애굽과 동맹하여 그 자유를 종노릇으로 바꾸었는가?

2:20~25 “내가 옛적에 네 멩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었다”는 것(20절)은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의미한다. 혹은 “내가 옛적부터 네 멩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섬기지 아니리라”(RSV, 우리말 성경도 이와 유사함-역주)라고 옮겨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다가 율법으로 부과된 하나님의 제약을 던져버렸다는 의미가 된다. 어느 경우든, 본문은 계속해서 백성이 얼마나 악하게 우상숭배에 빠졌는지를 묘사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으나 그들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그들의 최악은 비누로 지울 수 없었다. 그들은 성욕이 발동한 발이 빠른 약대와 들나귀 같이 이방 신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2:26~37 이스라엘 집의 죄가 그를 따라잡고 그가 구원을 부르짖을 때에, 그의 무수한 신이 구원을 베풀지 못할 것이다. 그 사이에, 징계에 아무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제약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음녀의 죄짓는 기술을 뛰어넘고, 무고한 빈민을

4) (2:1~3) Kile M. Yates, *Preaching from the Prophets*, p. 139.

죽이고서도 늘 죄 없다고 항변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이 거절하신 열방을 신뢰한 까닭에 그들을 징벌하사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3:1~5 신명기 24장 1~4절에 의하면, 이혼한 아내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면 그녀와 헤어진 사람이 그녀와 재혼할 수 없었다. 유다는 많은 연인을 소유했으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돌아오라고 촉구하신다. 유다는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여 그 땅에 부정과 가뭄을 불러왔으나 창기와 같이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체 아뢰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악한 말과 행실을 알고 계셨다.

2) 회개 여부에 달려있는 유다의 장래(3:6~6:30)

(1) 과거의 죄와 미래의 영광(3:6~18)

3:6~14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찍이 극심한 음행을 범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도 그 죄를 고집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이와 같이 배역한 이스라엘 열 지파가 패역한 유다보다 더 의로왔던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회개와 자복 가운데 그분께 돌아올 것을 유다에게 촉구하신다.

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것과 그것이 간음 때 문이었음을 주목하라. 마태복음 19장 9절의 구주의 말씀은 이것과 일치된다. 배우자가 부도덕의 죄를 범했을 때는 무죄한 측에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그분은 가르치셨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한 말라기 2장 16절 말씀은 분명 모든 이혼이 아닌 비성경적인 이혼을 의미한다.

3:15~18 본문은 천년왕국을 대망한다. 하나님이 지식과 총명으로 그들을 양육할 그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때는 메시아 자신이 그곳에 계실 것이기에 언약궤가 필요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되어 여호와와 보좌로 불리울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세계적인 흩어짐에서 회복되고 재결합할 것이다.

(2) 회개의 필요성(3:19~4:4)

3:19~4:4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 사이의 미래의 대화를 볼 수 있다. 그분은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자 하나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서 축복을 앗아간다. 그들은 회한의 눈물로 반응한다. 다시 한번 그분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신다. 그들은, 우상은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이며, 그들의 배도는 큰 대기를 지불케 했으며, 그리고 이제 그들은 수치와 모욕에 싸여있다고 고백한다.

(3) 북방의 심판(4:5~31)

4:5~13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며, 열방이 그분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그들의 우상을 버리라고 재차 촉구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자와 뜨거운 바람과 구름과 회오리바람과 독수리처럼 침략자(바벨론)를 보내실 것이다. 10절은 하나님이 전에 평화를 약속하신 것과 지금 심판을 내리겠다고 위협하시는 것의 차이를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없음을 표현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가 광명한데서 아는 것을 어두움 중에 의심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환란과 낙심의 때에는 확실한 것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는 우리가

믿는 바를 의심하고 의심하는 바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믿고 의심하는 바를 의심하는 것이다.

4:14~18 유다는 그 악(惡)에서 속히 돌이켜야 하는데, 이는 북방의 단과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미 재앙의 경고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다의 극심한 죄와 반역으로 인해 에워싼 자들이 곧 예루살렘에 내려올 것이다.

4:19~22 그의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사랑이 19~21절에 표현되어 있다. 임박한 전쟁과 패망과 황폐함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슬픔에 압도되었다. 21절의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라는 물음은 22절에서 여호와에 의해 응답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사실상 “백성이 그 어리석음과 죄에서 돌이킬 때까지”라고 말씀하신다.

4:23~31 예레미야가 장차 유다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 본 이상을 묘사한다. 황폐함이 이를 것이나 그것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이 아닐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경고하신다.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징계의 손길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외관이나, 초산하는 자의 고통소리 같은 예루살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의해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4) 심판 받아야 할 유다의 죄(5장)

5:1~9 만일 의인이 거기서 발견된다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실 것이다. 비천하고 우준한 자들에게서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예레미야는 “귀인들”(the great men)에게 관심을 돌렸으나 동일하게 실패했다. 그러므로, 사자와 사막의 이리와 표범의 살육으로 묘사된 심판이 불가피했다. 전에는 그분과 언약을

맺었으나 지금은 다른 신으로 맹세하고 행음에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백성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가?

5:10~13 백성이 여호와와 임박한 위협을 부인하고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까닭에 대적에게 그들을 쳐서 멸하라(그러나 완전히 멸하지는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5:14~19 예레미야의 말은 백성들을 사르는 불과 같았고, 백성들은 나무와 같았다. 바벨론 사람들이 삼키고 멸하려고(완전히 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고 있었다. 유다는 자기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긴 대가로 이방 땅에서 종노릇할 것이다.

5:20~31 하나님은 그분의 어리석은 백성의 둔감함에 놀라신다. 바다는 그분께 순종하지만 그들은 순종치 않는다. 그들은 비가 중단된 때에도 비를 주시는 분을 두려워하는 아무 기색이 없다. 그토록 거만하고 그토록 패역하고 그토록 죄에 빠진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실 수 있겠는가? 켈리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적인 악의 최악의 경우는 백성의 일부가 범죄할 뿐 아니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그 땅에 행해지는 것인데, 그것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30,31절). 이와 같이 도덕적인 청렴의 모든 원천이 부패했으며, 그 결과 그들에게 여호와의 심판만이 내려질 것임이 자명해졌다.”⁵⁾

5) (5:20~31) Kelly, *Jeremiah*, p. 20.

(5) 예루살렘 멸망 예언(6장)

6:1~8 경고의 나팔과 기호(旗號)가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피신하라고 알려주는데, 이는 바벨론 목자들과 그들의 양무리(군사 지도자들과 군대)가 공격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갈대아인들이 전략을 논하는 소리가 들린다. 백성들의 포학과 강포와 탈취로 인해 하나님은 유다에게 추방을 명하셨다. 바로 이 순간에도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그 악행을 중단하라고 경고하신다.

6:9~15 만군의 여호와께서 포도 따는 자가 포도를 따듯이 바벨론인이 그 땅을 말갹게 벗길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예레미야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 좌절감을 느꼈으나 그 일을 그만 둘 수 없었다. 백성들의 탐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거짓과 그들의 부끄러워 아니함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임박한 운명의 메시지를 쏟아 부으라고 그에게 지시하셨다. 영적인 하락의 때에 번영을 약속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

6:16~21 백성들은 옛 의로운 길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축구를 거절하고 경고 받기를 거부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져오는 향기로운 냄새나는 제물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임할 것이다. 백성들이 엎드러지고 멸망할 것이다.

6:22~26 대적이 북방에서 침략하여 큰 두려움과 슬픔과 통곡을 불러올 것이다.

6:27~30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금속을 시험하는 자로 삼으셨다. 유다 백성은 놋과 철과 같이, 이물질은 제거할 수 없는 납과 같이, 버림받은 은과 같이 완강하다. 예이츠는 이렇게 말한다.

“아마 언젠가 우리는 최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쓸모 없는 자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아 하나님께 그토록 밝히 보이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버려진 은은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스스로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무가치하다고 인을 치셨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⁶⁾

3) 예레미야의 성전 문 앞에서의 사역(7~10장)

7:1~4 7장은 “성전 설교”로 불리운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이 훼파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은 그곳에 거하는 분을 신뢰하기보다 그 건물을 신뢰하고 있었다.

7:5~15 그들의 참된 안전은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의롭게 사는데 달려있었다. 그들은 성전에 나아가는 한 그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관점으로 외적인 종교를 보시고, 그분의 아버지의 집을 정결케 하실 때에 그 성전에 대해 여기 11절의 “강도의 굴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마 21:13; 막 11:17; 눅 19:46). 유다가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을 당하게 한 까닭에 그것은 실로의 성소처럼 훼파될 것이다. (실로의 멸망은 사사시대 내지 사무엘상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⁷⁾

6) (6:27~30) Yates, *Preaching*, p. 141.

7) (7:5~15) “발굴작업 결과 실로가 BC 1050년경에 멸망했음이 밝혀졌다. 이 때가 블레셋이 퀘를 빼앗아간 그 때였을 것이다(삼상 4:11)”(*The Wesle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ed. by Albert F. Harper, et al., p. 1095).

7:16~16 예레미야는 유다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했다. 그때에도 그들은 거리에서 ‘하늘 황후’⁸⁾와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제물과 희생을 먹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순종이다. 22절은 23절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 헌신이 없는 제사는 무가치하다.

7:27~34 유다가 교정 받기를 완강히 거절하는 까닭에 예레미야는 탄식을 해야 했다. 그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사람을 제물로 바친 까닭에 끔찍한 살육을 당할 것이며 그 땅은 황폐케 될 것이다.

(2) 죄에 대한 유다의 무감각(8장)

8:1~7 하늘의 무수한 군상(群像)을 숭배하던 자들의 뼈가 바벨론인에 의해 파헤쳐져 하늘 아래 노출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죽기를 소원할 것이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죄를 졌다가 회개하는 자들과 달리 유다는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율법에 대해 말하자면, 백성들은 그 정한 이동법칙에 순종하는 학과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와 달리 율법을 거스렀다.

8:8~12 백성들은 스스로 여호와의 율법에 관해 지혜롭다고 생각했으나, 서기관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거절했다. 그들은 탐욕적이고 기만적이며, 문제를 피상적으로 처리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가올 징벌의 때를

모세의 성막은 실로에서 보존되어 후에 기브온으로 옮겨졌다(대하 1:2,3).

8) (7:16~26)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후에 회심하지 않은 많은 이교도 무리가 교회 안에 밀려들어와 그들의 이방 사상을 전했다. “하늘 황후”라는 이 이교도 칭호를 우리 주님의 동정녀 어머니에게 적용하는 것은, 큰 영예로 생각되었지만, 완전히 거부하고 “주의 계집종”이라는 겸비한 칭호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눅 1:38).

당할 것이다.

8:13~17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말갹게 줍듯이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백성들은 물리나 성안에서 멸망한다. 바벨론 군대가 “제어할 수 없는 독사”처럼 진격해온다.

8:18~22 상한 마음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추방당한 유대인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소리를 듣는다. 이에 하나님은 왜 그들이 그분을 버리고 신상과 이방 우상을 택했는지 물으신다. 다시 한번 백성들은 바라던 구원이 오지 않았다고 부르짖는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가망 없어 보이는 곤경을 보고 극도로 슬퍼한다. 22절은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다”는 유명한 영가(靈歌)의 근거 구절이다.

“길르앗에는 상한 자를 온전케 할 유향이 있네.

길르앗에는 죄로 신음하는 영혼을 치료할 유향이 있네.”

(3) 눈물의 선지자의 탄식(9장)

9:1~11 1,2절의 화자(話者)는 예레미야이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의 칭호가 1절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읍하리로다!”

많은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2절에 나타난 예레미야의 감정에 동감할 수 있다. 카일 예이츠는 이렇게 말한다.

“이 구절은 몹시 침울한 상황에 처한 지치고 곤하고 낙심한 선지자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것은 ‘위대한 영혼의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불리울 수 있다. 그 괴로움에 찬 순간에 그는 그에게서 아무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기를 원했다. 모든 책임감과 모든 부담스런 것에서 벗어나다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 그는 공허하고 불경건하고 형식적인 종교를 바라보는데 말 그대로 이력이 났다. 이제껏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파하고 경고했건만 그가 얻은 것은 그의 영혼을 바짝 마르게 하는 그런 무책임감뿐이었다.”⁹⁾

그는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징벌을 슬퍼한다. 이어서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열거하고, 심판의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예루살렘을 승리의 굴혈로 만들고 유다 성읍들을 황폐케 할 일을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9:12~22 이 재앙은 유다의 우상숭배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그 죄 까닭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곡하는 부녀”(직업적인 애곡자)를 불러와 그 두려운 살육과 파멸에 대해 애곡하게 하라고 이르신다. 사람들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9:23~24 본문은 예레미야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이다. G. 허버트 리빙스톤은 이렇게 말한다.

“본문은 암기할 가치가 있다. 인간은 지혜와 용맹과 부를 위해 다투지만,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기뻐하신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 여호와를 아는 자는 복 있는 자이다.”¹⁰⁾

9) (9:1~11) Yates, *Preaching*, p. 143.

10) (9:23,24) G. Herbert Livingston, “Jeremiah”, *Wesley Bible*, p. 1100.

9:25~26 유다의 잔에 더해진 쓴맛은 열방과 함께 징벌 받을 것인데, 이는 유다가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전에서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것(RV와 NASB)¹¹⁾은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이교의 관습이었다(레 19:27).

(4) 우상숭배에 대한 풍자(10:1~18)

10:1~5 이 장은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번갈아 묘사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의 길과 그 생명 없는 우상을 배워서 안 된다.

예이츠는 이 우상에 대한 풍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용물로 사용하는 가련하고 무기력한 우상을 신랄하게 비난한다. 그들은 자기가 죽은 나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식을 꾸며야 하는 아무 반응 없는 막대기들이다. 그들이 사람을 이끄는 대신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다닌다. 그들은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시다. 아무 언어도, 아무 능력도, 아무 기식도, 아무 지식도, 아무 가치도, 아무 영향력도, 그리고 아무 영구성도 그들의 것으로 돌려질 수 없다. 반면에 야웨는 영원하고, 살아있고, 능동적이고, 권능이 있으시다.”¹²⁾

10:6~9 하나님은 두려워할 만한 열방의 큰 왕이시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에 부복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11) (9:25,26) 이것은 “가장 먼 구석에 있는 모든 자들”이란 문구를 달리 옮긴 것이다.

12) (10:1~5) Yates, *Preaching*, p. 144.

10:10~16 여호와께 사시고 참된 하나님이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망할 것이다. 여호와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미련하고, 그 만든 신상은 헛되다. 야곱의 분깃은 창조주요 만군의 여호와시다.

10:17~18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추방지로 쫓아내실 것이므로 가져갈 만한 것을 모으라는 명을 듣는다.

(5) 눈물의 선지자의 기도(10:19~25)

10:19~25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서, 에워싸임과 포로됨의 두려운 상황을 슬퍼하고, 인간의 무지를 자복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실 것과, 그분의 백성을 삼킨 까닭에 그 대적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을 요청한다.

3.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경험(11 ~ 19장)

1) 예레미야와 아나돗의 사람들(11~12장)

11:1~10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시기를, 그분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언약과,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한 저주와 순종한 자들에게 임한 축복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라고 하셨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일깨워주시던 것들은 계속해서 거절당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좇음으로 언약을 파기할 음모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11:11~13 그분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며, 유다의 무수한 신들은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할 것이다.

11:14~17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세 번 들었다(7:16; 11:14; 14:11).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숨기거나 그들의 운명을 바꿔볼 양으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올 권리가 없다. 전에는 여호와에 의해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불리우던 유다가 이제 그 우상숭배로 인해 불태워질 운명에 처했다.

11:18~23 여호와께서 이 유순하고 의심할 줄 모르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알려주셨다. 이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아뢰자 그의 대적이 징벌 당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주어졌다.

12:1~6 예레미야는 왜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 같은 악인은 번성케 하고 자기 같은 의인은 고난당하게 하시는지를 물었다.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의 형제에게 속임당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보다 더 심한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답하셨다. 만일 그가 비교적 조용한 상황(보행자와 함께 달림)을 직면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다가올 극심한 시련(말과 경주함)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12:7~14 유다에 대해 여러 가지 애정어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유다 자신이 불러온 황폐함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셨다. 특징 있는 새는 종종 다른 새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법인데, “무늬 있는 새”로 표현된 유다가 그러했다. 하나님은 열방을 징벌하고 유다를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12:15~17 그러나 후에 열방은 그들의 땅에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키면 그들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그분의 축복을 함께 누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열방은 진멸될 것이다.

2) 예레미야와 썩은 허리띠(13장)

13:1~11 유다는 예레미야가 유브라데로 가져가 숨기라는 지시를 받은, 사용하던 허리띠에 비유되었다. 유다는 한 때 여호와와 친밀한 사귄을 나누는 위치에 있었으나 이제는 허리띠처럼 옮겨지고 “숨겨질” 것이다. 그 죄로 인해 유다는 250마일을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유브라데 근처에 “숨겨질”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 허리띠를 다시 찾자 그것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다.” 예레미야가 실제로 유브라데에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스코필드는 다음과 같은 유용한 해설을 덧붙였다.

“어떤 이들은 거리와 전쟁상황에 비추어 예레미야가 실제로 그의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묻었는지 여부를 의심한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사역기간 중에는 주변지역이 평화로웠던 시기가 있었다. 예레미야가 실제로 바벨론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사건은 쉽게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그곳에 가다가 허리띠를 파묻고 돌아오는 길에 허리띠를 다시 찾았을 것이다. 또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유브라데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수마일 떨어진 와디 파라(Wadi Farah)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 아무 때나 그 허리띠를 파묻을 수 있었다. 요컨대, 본문은 단순한 환상이나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묘사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못쓰게 된 허리띠는 이

스라엘의 만족스럽지 못한 삶과 봉사를 암시하는 상징 역할을 했다.”¹³⁾

13:12~14 모든 백성이 포도주로, 그들의 생각대로 문자적인 포도주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로 찰 것이며, 병처럼 부서질 것이다. 헤리슨은 이렇게 말한다.

“예레미야는 알콜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기동성을 손상시키는 것처럼, 장래 위기에 사람들은 술 취한 듯 행동하며 우군과 적군을 분간하거나 자기를 방어하지 못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¹⁴⁾

13:15~23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방을 피할 수 없다.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처할 것이다. 왕과 왕후가 폐위되고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될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 땅을 황폐케 할 것이다. 이 모두는 유다의 죄악 때문이다. 유다와 그 죄는 서로 뿔레야 뿔 수 없다.

13:24~27 유다의 배도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말(간음, 사특한 소리, 음행의 비루하고 가증한 것)은 모두 성적인 부도덕의 의미를 내포한다.

헤리슨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시대의 명목상의 신자들처럼 백성들은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책임을 그들의 어깨에 지우고는 그들이 간음에 상응하는 수치스런

13) (13:1~11) *New Scofield Reference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pp. 784,785.

14) (13:12~14) R. K. Harrison, *Jeremiah and Lamentations*, pp. 99,100.

공공연한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한다...이 모든 것의 아이러니는 유다가 전에 구애하던 바로 그 백성에게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폭 빠진 까닭에 유다는 전에 언약의 사랑으로 자기를 아내로 삼으셨던 그분에 의해 타락한 음녀로 공공연히 폭로될 것이다.”¹⁵⁾

3) 가뭄에 대한 예레미야의 중재(14,15장)

14:1~6 14~39장의 메시지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주어진 것이다. 유다는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빠졌다.

“이 때의 가뭄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언약에서 예고된(신 28:23~24) 징조 중 하나였으며, 아합 시대에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된바 있었다(왕상 17:1이하). 비록 오랜 공백 후의 일이긴 하지만, 앗수르가 북왕국을 포로로 잡아감으로써 그 징조가 계속되었을 때 유다는 그 일을 매우 엄숙한 경고로 받아들였어야 했다.”¹⁶⁾

14:7~16 예레미야는 백성들 대신 자복하며 구원을 청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답하셨다. 오히려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안전을 약속했지만,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예언을 들은 백성들과 더불어 소멸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성과 온 땅이 처참하게 파멸될 것을 슬퍼하라는 명을 받았다.

14:17~22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

15) (13:24~27) R. K. Harrison, *Jeremiah and Lamentations*, p. 101.

16) (14:1~6) *New Scofield, NKJV*, p. 785.

했는데, 이는 아브라함(창 18:23~33), 모세(32:11~13), 사무엘(삼상 7:5~9) 등의 중재를 생각나게 한다. 그는 그들의 악함을 인정하고, 그들이 비와 소나기를 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앙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5:1~4 백성들을 위한 중재는 소용없었다. 그들은 사망과 칼과 기근과 포로됨을 당할 운명이다. 모세와 사무엘 같은 최고의 중재자들도 심판을 막을 수 없었다. 르나세가 그 원인이었다. 그는 몰렉 숭배를 비롯하여 온갖 형태의 우상숭배를 예루살렘에 퍼뜨렸다(왕하 21:1~16).

15:5~10 예루살렘의 가련한 상황은 그들이 여호와의 징계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결과이다. 이상적인 가정을 소유한 여인이 살아서 그 자식의 봉양을 받지 못할 것이다.

15:11~18 예레미야는 까닭 없이 그의 백성들에게서 미움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신원을 받아 그 대적들이 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유다는 북방의 철(갈대아인)을 꺾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 북방의 철이 유다의 보물을 가져갈 것이다. 예레미야는 특히 자신이 여호와께 심히 충성스러웠는데 왜 자신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지 의아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발견했다.

15:19~21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분에 관해 잘못된 생각을 품고, 때때로 그런 무가치한 생각을 표현했다고 답하셨다. 그런 생각들은 귀한 금속에서 천한 찌꺼기를 제하듯 제거되어야 한다. 그의 대적들은 그에게 돌아올지라도 그는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G. 캠벨 몰건은 이렇게 말한다.

“그로 하여금 그 마음에서 그러한 찌꺼기를 제하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금에만 헌신하게 하라. 그렇게 해야만 그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입으로서 적합하게 될 것이다.”¹⁷⁾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그를 압박하는 자들이 넘볼 수 없는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자기 종을 견지고 구속하실 것이다.

4) 예레미야의 외로운 사역(16:1~18)

16:1~9 예레미야는 임박한 멸망으로 인해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성경에서 결혼을 금지당한 유일한 사람이다. 애곡과 금식도 금지되었는데, 이는 죽음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요, 그 재앙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6절과 관련하여, 친지와 친구들이 죽은 자의 집에 모여 함께 먹고 마시며 고인(故人)의 덕을 기리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유족을 위로했다. 켈리는 이러한 유대인의 관습이 우리 주님에 의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준다.

“죽은 자 앞에서 음식을 먹는 이러한 관습은 주 예수께서 그분을 기념하는 놀라운 예식에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신 그 기원이 된 듯 하다.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7절). 거기서 당신은 유대인과 예수님의 만찬을 대하게 된다.

17) (15:19~21) G. Campbell Morgan, *Searchlights from the Word*, p. 243.

그것은 유대인에게 잘 알려진 관습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진리를 새겨 넣으셨다. 그것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가 알 듯이 그것을 제정한 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른 때가 아닌 그 때 제정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이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절기에 인상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새롭고 별다른 절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시작된 것이다.”¹⁸⁾

16:10~18 만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모든 큰 재앙이 임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묻는다면, 예레미야는 그들의 열조와 그들 자신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백성을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나, 먼저 어부와 사냥꾼(바벨론인)이 그들을 찾아내어 포로로 잡아갈 것이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5) 예레미야의 한결같은 마음(16:19~17:18)

16:19~21 예레미야는 열방이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날을 내다본다.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징계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유다에게 알리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표하신다.

17:1~11 유다의 깊이 빠진 우상숭배는 그를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산은 예루살렘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저주를 가져오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축복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이는 마음을 아시며, “자고새¹⁹⁾가 낳지 않은 알

18) (16:1~9) Kelly, *Jeremiah*, pp. 43,44.

19) (17:1~11) “‘자고새’를 언급한 것은 그것이 종종 다른 새의 알을 품는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염두에 둔 것이다”(Harrison, *Jeremiah*, p. 107). 그러나 갈

을 품다가 그 새끼를 내버려두듯이” 부정직하게 부를 쌓는 자를 징벌하실 것이다.

9절은 인간의 자연적인 마음에 대한 달갑지 않은(그러나 매우 옳은) 평가이다. R. K. 헤리슨은 KJV에 “극도로 악한”으로,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 “몹시 악한”으로 옮겨진 표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중생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은 9절에 ‘몹시 악한’(RSV-‘극도로 부패한’, NEB-‘극도로 병든’)이란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절박한 상태에 처해 있다. 15장 18절과 30장 12절에는 ‘치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나온다. 모든 세대는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말미암는 영혼의 중생을 필요로 한다”(요 3:5이하; 딤후 3:5).²⁰⁾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대한 너무 가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 메튜 헨리의 보다 장황하면서도 요긴한 ‘폭로’를 여기에 인용한다.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을 줄로 미처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악함이 숨어 있다. 스스로, 적어도 그 마음으로는, 자신을 실제 모습보다 훨씬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범하는 흔한 잘못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처한 ‘마음’, 즉 인간의 양심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다.’ 그것은 간계하고 거짓되다. 그것은 ‘가로채는데’(의미심장한 표현이다) 빠르다. 그것은 야곱이 ‘찬탈자’라는 그 이름을 얻은 기원이다. 그것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사물에 거짓된 색깔을

은 페이지 각주에서 헤리슨은 그것이 “모래 너조(雷鳥)의 변종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말한다.

20) (17:1~11) Harrison, *Jeremiah*, p. 106.

입히고, 평안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평안을 호소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거나 그가 보지 못한다거나 그가 요구하지 않는다거나 그대로 행해도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거나 그 외에 유사한 얘기를 그 마음에 말할 때에(즉, 그 마음이 그들에게 속삭이게 허락할 때에), 그 마음이 속임을 베푼다. 그것은 사람들을 속여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더욱 악화되어 그들을 자기 기만자로 자기 파괴자가 되게 한다. 여기서 마음은 ‘극도로(절망적으로) 악한’ 지경에 이른다. 그것은 치명적이요, 절망적이다. 다른 기능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양심이 거짓의 어미요 속임의 앞잡이라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요, 한탄스럽고 구제불능한 지경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속에 있는, 마땅히 ‘여호와와의 등불’이 되어야 할 그것이 거짓된 빛을 발한다면, 하나님의 영혼의 대리자인 그것이 영혼을 속이고 잘못된 관심사를 불러일으킨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는가? 마음의 거짓됨은 그토록 심히 부패되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라는 개탄을 자아낸다.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누가 다 묘사할 수 있겠는가?”²¹⁾

17:12~18 예레미야는 유다의 안전이 하나님의 영화롭고 높은 보좌에 있음을 기뻐했다. 이어서 그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치유와 구원을 이스라엘의 소망에게 간구드렸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목자 역할을 피하거나 예루살렘의 저주의 날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여호와께 상기시켜드렸다. 그는 오직 여호와와의 말씀만을 선포해 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을 징벌하사 그의 수고를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

21) (17:1~11) Matthew Henry, “Jeremiah”,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4:519,520.

6) 예레미야의 안식일 설교(17:19~27)

17:19~27 여기서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을 받았다. 그들은 만일 순종하면 다윗 왕가의 통치자가 계속 존재하고 성전예배가 계속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반면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형벌(예루살렘의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어빙 L. 켄슨은 왜 안식일 준수가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보는 진정한 시험은 그분의 말씀에의 ‘순종’ 여부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 중 하나는 그 날 일하지 않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었다(17:21~22).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삶에 미치는 물질주의의 끊임없는 압박이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그런 까닭에 십계명 중 이 한 계명이 마음에 일시적인 것이 우선하는가 영원한 것이 우선하는가를 알아보는 진정한 시험이 되었다.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유다에게 그토록 중요했던가?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동과 그가 전할 것을 명받은 분명한 메시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²²⁾

이와 유사한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주일(主日)에 적용된다. 주일 역시 영육간의 재충전과, 구속주와 우리의 구속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이 주의 첫 날 부활의 승리를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22) (17:19~27) Irving L. Jensen, *Jeremiah, Prophet of Judgment*, p. 59.

7) 예레미야와 토기장이의 집(18장)

18:1~12 여호와와 토기장이요, 유다(여기서는 ‘이스라엘’로 불리운다)는 그릇이다. 그릇이 망가진 것은 하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이었다. 진흙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분이 원하시는데로 (심판이든 축복이든)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개치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의 대답은 그들의 계획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18:13~17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행동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고 불합리하다고 꾸짖으셨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통해 그 땅이 황폐케 되는 것을 보는 자들을 놀라게 할 과멸을 불러왔다. RSV는 14절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듯하다. “레바논의 눈이 시론의 험한 바위를 떠나겠는가? 산에서 흘러내리는 찬 물이 마르겠는가?” 너희는 자연의 그러한 것들을 의지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믿을 수 없다! “눈은 레바논을 버리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샘의 근원을 잊어버렸다.”²³⁾

18:18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은 예레미야를 치기 위해 모의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한 변함 없는 신뢰를 드러내고, 비방으로 예레미야를 공격할 음모를 꾀했다.

8) 예레미야와 토기장이의 오지병(19장)

19:1~9 예레미야는 오지병을 성의 쓰레기 집하장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상

23) (18:13~17) C. F. Keil. “Jeremiah”,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9:300.

송배와 사람을 제물로 바친 일로 인해 유다를 곧 진멸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말을 들었다.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살육의 골짜기로 불리울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할 때에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행해질 것이다.

19:10~15 예레미야는 오지병을 깨뜨림으로써 바벨론에 의해 일어날 대과괴와 멸망을 묘사했다. 매장지가 부족할 것이며, 우상 송배가 행해지던 집들이 더럽힘을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 돌아와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까닭에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거듭 선포했다.

4. 유다의 일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20~23장)

1) 바스홀에 대한 예언(20:1~6)

20:1~6 여호와와의 집의 유사장인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웠다. 다음날 착고에서 풀리자 예레미야가 바스홀에게 그의 운명과 그 가족의 운명과 온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을 알려주었다. 바벨론 왕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바스홀의 이름은 마골밋사빕(사방으로 두려움)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그가 당할 모습을 말해준다.

2) 하나님께 대한 예레미야의 원망(20:7~18)

20:7~18 7~18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기 없는 사역에 회의를 느낀다. 여호와께서 그를 권유하여(속여) 그 사역을 행케 하셨다. 그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것이라는 그 인기없는 메시지

를 그만 전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 속에서 불같이 타올랐다. 그는 그의 친구들이 그를 해하려고 모의하는 것을 엿들었으나 그 문제를 여호와께 의탁했다. 때로 그는 확신 있었고 여호와를 송축했으나, 때로는 심히 낙심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3)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21:1~22:9)

21:1~7 시드기야 왕이 바스홀(20장의 바스홀과 다름)과 스바냐(선지자 스바냐가 아님)를 보내어 바벨론의 침공에 관해 여호와께 묻게 하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침략자들을 도와 유다를 치실 것이라고 회답했다. 왕과 살아남은 백성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왕이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 켈리는 이렇게 말한다.

“왕위(王位)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항상 축복의 마지막 보루였다. 만일 왕이 올바르게만 하면, 비록 백성과 선지자들이 심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푸신다. 모든 것이 왕, 곧 다윗의 후손에게 달려있었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을 징벌하실지라도 그분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들을 보존해두셨다. 그러나 그들만 잘못되지 않고 왕이 그 죄악의 우두머리일 경우엔 그들을 도저히 보존해둘 수 없었다.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떠맡은 비극적인 임무였다.”²⁴⁾

21:8~14 저항하는 자는 망할 것이며, 바벨론인(갈대아인)에게 굴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왕의 집은 불의와 압제를 그치라는 경

24) (21:1~7) Kelly, *Jeremiah*, p. 47.

고를 받았다. 예루살렘 백성, 즉 골짜기의 거민은 파멸을 당할 것이다.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거민”이란 표현은 조롱하는 말인 듯하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문자적인 묘사 같지 않다.

22:1~9 22장은 연대순은 아니지만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을 다루고 있다. 연대순으로 말하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순이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왕이 첫째이고 나머지는 그대로이다.

첫 번째 왕 시드기야는 공평과 의를 베푸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가 길르앗과 레바논같이 번성할지라도 말갈계 벗기우고 사람이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경고는 비참한 종말을 맞은 세 왕의 역사를 통해 입증되었다.

4) 살룸 왕에 대한 예언(22:10~12)

22:10~12 여호아하스로도 불리운 둘째 왕 살룸은 요시아의 아들이었다. 그는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 다시는 그의 고국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

5)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22:13~23)

22:13~19 셋째 왕 여호야김은 샅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궁궐을 지었으며, 그 부친(요시아)의 분을 좇지 않았으며,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끌려나가 아무 슬퍼하는 자 없이 죽을 것이다. 그는 나귀같이 매장될 것이다. 즉 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22:20~23 백성들은 레바논과 바산에 올라가 그들의 사랑하는 자(이방 동맹군)와 목자(관원들)가 느부갓네살에게 멸절당한 것

을 슬퍼하라는 명령을 들었다. 그들도 사로잡혀갈 때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으로 신음할 것이다.

6) 여호야긴 왕에 대한 예언(22:24~30)

22:24~30 넷째 왕 고니야(여고나와 여호야긴으로도 불리움)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다. 그의 후손 중 아무도 다윗의 위에 앉지 못할 것이다. 여고나의 후손 중 아무도 그의 위를 잇지 못했다. 그의 자리를 이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의 숙부였다. 찰스 H. 다이어는 이렇게 말한다.

“이 예언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마태는 그의 계부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적인 계보를 제시해주었다. 그러나 요셉의 계보는 여호야긴(고니야, 마 1:12; 대상 3:17)의 아들인 스알디엘의 뒤를 이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지 않고 요셉의 육체적인 후손이었다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자격이 없었을 것이다. 누가는 그 아들 나단의 계보를 통해 다윗의 후손이 된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계보를 제시했다(눅 3:31).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야긴의 ‘저주’아래 있지 않으셨다.”²⁵⁾

7) 의로운 왕에 대한 예언(23:1~8)

23:1~8 관원들(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은 까닭에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남은 자를 회

25) (22:24~30) Charles H. Dyer, “Jeremiah”, in *Bible Knowledge Commentary*, 1:1158.

복시키고 그들에게 충성스런 목자들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를 일으켜 그들의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다지 인기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주의가 요청된다고 켈리는 지적한다.

“이 예언은 명백히 메시아, 즉 주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우리가 아닌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주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한다. 이 예언을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뭔가 잃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정적이 언제나 최선의 선택이다. 이웃의 물건을 훔치면 당신은 그 이웃이 잃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이웃의 손실은 적을 수 있으나, 당신은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된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이러한진대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에게서 그 분깃의 일부를 빼앗는다면 우리 자신은 엄청난 빈곤을 면치 못할 것이다.”²⁶⁾

5절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가지(“순”, 혹은 “아들”)로 불리운다. 스가랴 3장 8절에서 그는 “내 종 순”으로, 스가랴 6장 12절에서는 “순이라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사야 4장 2절에서는 “여호와와 가지(순)”로 불리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제시된 네 가지 모습(왕, 종, 인자, 하나님과 아들)과 일치된다.

“여호와 우리의 의” 혹은 ‘여호와 치드케누’(6절)는 여호와와 일곱 가지 복합 이름 중 하나이다.²⁷⁾ 맥체인은 이 이름을 가지신

26) (23:1~8) Kelly, *Jeremiah*, p. 48,49.

27) (23:1~8) 다른 이름들은 이러하다. ‘여호와 이레’(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창 22:13,14); ‘여호와 로페카’(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출 15:26); ‘여호와 넛시’(여호와는 나의 깃발-출 17:8~15); ‘여호와 살롬’(여호와는 평강이시다-삿 6:24); ‘여호와 로이’(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23:1); ‘여호와 삼마’(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겔 48:35).

여호와와 깊이 묵상하며 다음과 같은 훌륭한 찬송시를 지었다.

여호와 치드케누 - '여호와 우리의 의'

이전에 나는 은혜와 하나님을 몰랐네.
위험도 모르고 짐도 느끼지 못했네.
친구들이 나무에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를 말해줬지만
여호와 치드케누가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사야의 노도 같은 글과 요한의 단순한 글을
종종 마음을 달래고 호기심을 채우려고 즐거이 읽었지만
그 글이 저 피 뿌린 나무를 묘사할 때에도
여호와 치드케누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물이 그분의 영혼에 넘칠 때에
나는 시온 딸들이 눈물을 흘리듯 울었지만
아직 내 죄를 나무에 못박지 못했고
여호와 치드케누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값없는 은혜가 위로부터 오는 빛으로 날 깨웠을 때
울법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난 죽음이 두려워 떨었네.
내 안에는 아무 피난처도 아무 안전도 없었네.
여호와 치드케누가 내 구주가 되셔야 했네.

내 모든 두려움이 그 아름다운 이름 앞에 사라졌네.
내 죄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졌네.
나는 값없이 생명을 주는 생수의 샘에 담대히 나아갔네.
여호와 치드케누가 내게 모든 것 되시네.

여호와 치드케누! 나의 보배와 자랑이네.
여호와 치드케누! 난 결코 버림받을 수 없네.
당신 안에서 나는 물과 들에서 승리하리.
나의 줄이요 닳이요 나의 흥패와 방패시라!

사망의 그늘이 골짜기를 덮어도
그 한마디가 내 혈떡이는 숨결에 힘을 주리니,
나의 하나님이 내게서 생명을 취하실 때에
여호와 치드케누가 내 죽음의 노래가 되리.(로버트 머리 맥체인)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땅에 다시 인도해들이신 분으로 알려지실 것이다.

8)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23:9~40)

23:9~22 23장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엄숙한 책망이다.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평안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분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그 심판이 그분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될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임 없이 말했다.

23:23~29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백성을 우상숭배로 이끈 선지자들의 꿈을 폭로하신다. 그들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겨’와 같았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가 있는 ‘밀’과 같고 ‘불과 방망이’ 같았다.

23:30~32 여호와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셨다. 예이츠

는 이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묘사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거짓과 속임을 베풀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 대해 세 가지 죄목을 제시했다. 즉 그들은 부도덕했으며, 하나님을 알지 않았으며,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소유하지 못했다. 그들은 거룩한 의무를 등한히 했으며, 죄에 적극 가담함으로 백성들의 도덕적인 수준을 낮추었다.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매우 수준이 낮았다. 그분의 거룩한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버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전했다.”²⁸⁾

그들은 오늘날 우리와 매우 흡사했다.

23:33~40 백성들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²⁹⁾이 무엇이나?”고 물음으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그분의 짐이며 그분이 그들을 던져버릴 것이라고 대답해야 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엄중한 말씀”이란 말을 더 이상 농담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금하셨다. 만일 그들이 불순종하면 그분이 그들을 가혹하게 벌하실 것이다.

5.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24 ~ 29장)

28) (23:30~32) Yates, *Preaching*, p. 146.

29) (23:33~40)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마사*’)는 ‘짐’(burden) 또는 ‘신탁’(神託, oracle)을 의미할 수 있다. 라이리는 그것을 가리켜 “무게 있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단어”라고 부른다(*Ryrie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p. 1187).

1) 무화과나무의 징조(24장)

24:1~7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한 광두리에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었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가리켰는데, 이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기에 그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24:8~10 악한 무화과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방백과, 그리고 여고냐 시대의 분산 후에 그 땅에 남은 백성들을 가리켰다. 그 포로들은 그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나, 나머지는 흩어져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멸절할 것이다.

2)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25:1~11)

25:1~11 예레미야는 23년간 유다 모든 백성에게 경고해왔으며,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70년을 머물 것이다.

그 포로상황이 70년간 지속된 이유와, 하나님이 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미리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역대하 36장 20,21절에 나와있다.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레위기 25장 3~5절은 7년마다 그 땅을 경작하지 않은 채 뇌뒤

야 한다고 가르친다. 백성들은 그 법을 불순종했다.

3) 침략자 바벨론에 대한 심판(25:12~38)

25:12~29 그러므로 속히 돌아오리라는 기대는 거짓이었다.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갈대아인(바벨론인)에게로 그 진노를 돌리실 것이다. 포도주 잔의 비유를 통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와 열방에게 쏟아지고 마침내 느부갓네살 자신(세삭 왕)에게도 쏟아질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명을 받았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그 열방에게 알려야 했다. 하나님이 먼저 예루살렘을 징벌하실진대, 열방은 도저히 그 징벌을 면할 길이 없다.

25:30~38 본문은 “크게 부름”과 “외침”과 “요란한 소리” 등의 생생한 표현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의 두려움을 묘사한다. 유다 양떼의 인도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초장을 황폐케 하신 까닭에 애곡할 것이다.

4) 백성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경고(26장)

26:1~11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 서서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여호와께서 실로를 버리셨듯이 성전을 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하라는 명령을 들었다.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은 인간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을 주목하라(3절). 하나님은 그분의 ‘무조건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결코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없으시다.)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와 백성들은 흥분하여 예레미야를 위협했다.

26:12~19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메시지를 재차 반복했다. 이에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변호했으며, 장로들은 미가가 선한 왕의 때에 담대히 예언했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실을 무리에게 상기시켰다.

26:20~24 본문은 반대자들이 제기한 주장일 수도 있고, 단순히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와 동일한 예언을 한 우리야라는 선지자의 처형을 명하여 죽인 사실을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무리를 설득하여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보호했다.

5) 명예의 징표(27장)

27:1~11 이 예언은 여호야김 시대로 연대가 추정되나(1절), 27장 나머지는 그 연대를 시드기야 시대로 돌린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서기관의 실수로 설명한다. 다섯 명의 이방 왕들의 사신이 아마도 바벨론을 대항하여 동맹을 맺으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들은 줄과 명예의 실물교훈을 통해, 바벨론의 명예가 그들에게 임하여 바벨론이 매대 바사에 멸망하기까지 머물러 있을 것이며, 만일 그들이 그 명예에 복종치 않으면 그들의 선지자들의 말과 달리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다.

27:12~22 유대인의 성전에 적용되던 고대 풍습에 대한 라이리의 해설은 본문의 의미를 명확히 해준다.

“정복자는 습관적으로 피정복민의 우상을 자기 신의 신전에 가져갔다. 유대교는 신상이 없는 종교였기에 그 대신 성전 기구를 가져갔다.”³⁰⁾

시드기야는 바벨론인에게 복종하라는, 여호와의 전의 기구가 곧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간청을 들었다.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은 기구가 바벨론에 옮겨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들의 권위를 증명해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제시했다. 그러나 그러한 간구는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그 기구는 바벨론에 옮겨져 포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70년간 그곳에 머물러 있을 운명이었다.

6) 하나님의 거짓 예언과 죽음(28장)

28:1~9 앓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바벨론 포로가 2년 안에 끝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 그 예언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재앙을 예언했으나,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예언했다.

28:10~17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나무 멩에를 꺾고는 거짓 예언을 했다.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갔다(11절). 켈리는 예레미야의 자제력을 이렇게 칭찬한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 늦 성벽과 같았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던 그 동일한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 하나냐와 다투기를 거절했다. 그가 그런 행동을 취한 이유는 명백하다. 예레미야는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동안은, 또는 오래 참음의 은혜가 요청할 때는 책망과 경고를 했다. 그러나 양심이 전혀 활동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 고백할 때는 그는 다만 자기

30) (27:12~22) Charles C. Ryrie, ed., *The Ryrie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p. 1187.

길을 갔다. 그는 하나님께 선지자와 선지자 사이에 판단하시도록 맡겨드렸다. 만일 예레미야가 옳았다면 하나님은 거짓이었다.”³¹⁾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에게 쇠명예를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로 낙인찍히고 그 해에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다. 그는 두 달 후에 죽었다(1절-“5월에”, 17절-“7월에”).

7) 바벨론에 거하는 유대인 포로에 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 (29장)

29:1~9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게 보낸 서신으로, 장기 체류에 대비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신접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29:10~14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가 70년만에 끝나고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13절은 때때로 외관상의 성공 없이 여호와를 구해온 모든 이들에 대한 격려이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범죄하고 무한하신 분과의 사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여전히 확실한 그분의 말씀이다. 피상적으로 관심있는 체하는 것으로는 금보다 더 귀한 보화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항상 만날 수 있다. 그분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앙망하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분의 팔은 그분에게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 항상 열려 있다. 하지만 부지

31) (28:10~17) Kelly, *Jeremiah*, p. 67.

런히 그분을 찾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만족스런 선물을 깨닫고 그분을 찾고자 하는 자는 전심으로 찾으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정결함과 평안과 기쁨과 승리가, 그분의 자녀를 기꺼이 맞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것이 될 것이다.”³²⁾

29:15~32 바벨론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과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은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까닭에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고난당해야 했다. 두 거짓 선지자인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와, 그리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지 않음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 예루살렘의 제사장을 꾸짖는 편지를 쓴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저주가 선언되었다. 예레미야는 이어서 스마야의 가족이 멸망할 것과 스마야가 포로기간이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을 예언했다.

6. 회복에 관한 예언(30 ~ 33장)

30~33장은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주로 심판을 다루는 이 책의 밝은 부분이다. 클리드 T. 프랜시스코는 이 부분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다.

“예레미야서의 이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고무적인 말씀은 기록된바 없다. 그의 메시지는 대부분 심판과 멸망에 관한 것이지만 그는 장래를 꿈꿀 때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전파할 수가

32) (29:10~14) Yates, *Preaching*, pp. 146,147.

있었다. 그러한 설교에는 그의 마음이 빨리 들어갔다.”³³⁾

포로귀환은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했다. 30~33장은 마지막 때와 최종적인 회복을 대망한다.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생을 예고하는 유명한 새 언약을 담고 있는 까닭에 매우 중요하다. 그 일은 30장 4~17절에 나오는 “야곱의 환란의 때”(대환란)가 지나야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견해와 달리 그분의 언약을 지키신다. 예레미야는 회복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받을 사라는 명령을 받았다.

1) 포로들이 다시 모일 것이다(30장)

30:1~11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결합될 것이다. 먼저 야곱의 환란의 때(대환란)가 있을 것이며, 이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압제하는 열방의 세력을 깨뜨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그들의 왕 다윗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약속은 일반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문자 그대로 다윗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인다.

30:11~17 이스라엘의 상처가 지금은 고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를 고치고 그들의 대적을 노략하실 것이다.

30:18~24 본문은 천년왕국 때 나타날 목가적(牧歌的)인 모습을 묘사한다. 마지막 두 구절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다. 다음 장에 나타나 있듯이 그 일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

33) (30~33장 서론) Clyde T. Francisco, *Studies in Jeremiah*, p. 107.

의 축복에 앞서 일어날 것이다.

2)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31:1~30)

31:1~20 친근한 표현을 통해 여호와께서 북부 지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백성들이 온 세상에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은 슬픔 대신 노래가 가득할 것이다. “라헬의 통곡”은 포로가 사로잡혀 가는 모습을 보는 슬픔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그 통곡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때에 그칠 것이다. 마태는 헤롯에 의한 유아 살륙과 관련하여 15절 말씀을 인용했다(마 2:18). 켈리는 이렇게 해설한다.

“성령께서 기쁨에 관한 말씀이 아닌 슬픔에 관한 말씀을 그 사건에 적용시키는 것을 본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성령께서는 단지 성취된 것을 언급하셨을 뿐이다. 그 때는 왕족의 출생지에서도 큰 슬픔이 있었다. 마땅히 큰 기쁨이 있어야 할 곳에 큰 슬픔이 있었다. 메시아의 출생은 마땅히 이스라엘 땅에서 우주적인 기쁨의 징표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이나,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백성들의 상태가 부끄러운 불신앙 가운데 있었기에 에돔인이 왕위를 찬탈하고 권좌에 있었다. 그러기에 온 땅에 강포와 속임이 가득했고, 라헬이 자식을 위해 애곡했지만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을 수가 없었다...따라서 성령께서는 이 예언의 전반부를 적용하신 다음 거기서 멈추셨다.”³⁴⁾

31:21~22 회개한 이스라엘은 길표와 표목(標木)이 있는 길로

34) (31:1~20) Kelly, *Jeremiah*, pp. 75,76.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하던 시대는 끝날 것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새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즉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남자’는 여호와를 가리킨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처녀가 우상을 좇아 여기저기 가던 일을 멈추고 임마누엘을 구하고 붙들 것이다라는 뜻이다”라고 윌리엄스는 설명한다.³⁵⁾

확실한 정통주의에 속한 경건한 학자인 켈리는 22절 하반절에 대한 인기있는 해석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 이렇게 설명한다.

“이 구절을 주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에 적용하는 것이 신학자들뿐 아니라 교부들 가운데서도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그 사건에 대한 암시가 추호도 없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은 동정녀가 아들을 안고 낳는 것과 전혀 같지가 않다. 남자를 안는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³⁶⁾

31:23~30 유다도 회복되고 그 성읍이 재건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는 즐거운 잠에서 깨어났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다시 사람이 거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죄 때문이 아니라 각기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당할 것이다.

3) 언약이 갱신될 것이다(31:31~40)

31:31~40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실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도덕 상태를 부여받을 것이며, 여호와를

35) (31:21,22) George Williams, *The Students'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552.

36) (31:21,22) Kelly, *Jeremiah*, p. 77.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히 8:8~13; 10:15~17).

하나님은 우선 이스라엘과 유다와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셨다(31절). 그것은 모세 율법과 달리 무조건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이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강조한다. 33,34절의 “내가 하리라”는 표현을 주목하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이는 그분을 통해서 그 축복이 확보되기 때문이다(히 9:15). 그 언약은 그분의 피로 비준되었다(눅 22:20).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개개의 신자들이 그 축복의 일부를 누릴 것이다. 즉 그들의 순종이 율법이 아닌 은혜가 동기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34절 상)은 천년왕국을 대망한다.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은 35,36절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해와 달과 별과 바다에 대한 규정이 폐해져야만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폐해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장차 재건될 것이며, 지금 불결한 곳이 “여호와의 성지(聖地)”가 될 것이다.

4)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이다(32장)

32:1~5 바벨론인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다. 시드기야는 일찍이 예레미야를 바벨론인의 형통을 예언한 까닭에 시위대 뜰에 가둬두었다. 4절에는 시드기야에 관한 세 가지 예언 중 하나가 있다. 여기서는 그가 바벨론 왕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말한다. 에스겔 12장 13절에서 우리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나 그 땅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 모습처럼 보이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다음 본문이 보여

주는데, 즉 느부갓네살이 하맛 땅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을 뺀 것이다(왕하 25:7). 그 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갔으나 그 땅을 보지 못하고(그 눈이 제거된 까닭에) 거기서 죽었다.

32:6~25 여호와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그의 숙부 하나멜의 밭을 은 17세겔에 샀다. (하나멜이 그에게 찾아와 그렇게 제안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는 행동이었다. 두장의 매매증서는 바룩에게 주어 토기에 안전하게 보관하게 했다. 바벨론인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명하셨는지 의아해했다.

32:26~44 예레미야에게 하신 여호와와의 답변은 유명한 말씀이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구주께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니

삶의 엷매인 문제들이 풀어헤쳐지네.

예수께는 어려운 일 없네.

예수께는 할 수 없는 일 없네.”(저자 미상)

하나님은 비록 백성들의 우상숭배 까닭에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이지만 후에 그분의 백성을 모으고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재산을 다시 사고 팔 것이며, 따라서 아나돗의 밭을 산 증서가 장차 유효할 것이다.

5) 언약이 인정될 것이다(33장)

33:1~16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 그 땅이 즐거워하는 백성들로 다시 가득할 것이며, 산마다 양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후손인 “의로운 가지”, 즉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을 것이다. 사람이 그 신부에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듯(고전 12:12) 여호와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신다.

33:17~26 다윗의 왕조와 레위 제사장직이 영구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낮과 밤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처럼 폐할 수 없을 것이다. 백성의 일부는 하나님이 그 두 집(이스라엘과 유다)을 버렸다고 비방하며 유다인을 버림받은 백성으로 멸시하고 있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은 그분의 언약은 자연의 법칙만큼 확실하다고 답하신다. 다윗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만큼 무수할 것이다.

7. 역사적인 부분(34 ~ 45장)

1)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34~39장)

(1) 시드기야가 사로잡혀갈 것이라는 예언(34장)

34:1~7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동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 칼로 죽지는 않지만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라고 왕에게 알리라는 명을 받았다.

34:8~22 한 때 전쟁 중에 시드기야 왕은 아마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 방어를 돕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로 모든 유다인 종을 해

방하게 했다. 후에 적군이 애굽 군대의 압력을 받아 잠시 물러가자(37:1~10) 백성들은 자유케 했던 모든 종을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분 앞에서 맺은 약속을 파기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칼과 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백성들을 그것들에게 붙이겠다고 선언하셨다. 성전에서 송아지를 바침으로 종을 해방하겠다는 언약에 서약했다가(15절) 그 언약을 파기한 자들은 그들의 대적에게 내어주어 살육을 당할 것이다. 시드기야와 그의 방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인이 돌아와 그 성을 불사를 것이다.

(2) 레갑 족속의 순종과 그 보상(35장)

35:1~11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레갑 족속을 여호와의 전에 초청하고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했다. 레갑 족속은 그들의 열조가 그들에게 남긴 분부 까닭에 포도주를 마시기를 단호히 거절했다. 또한 일찍이 그들은 집을 짓고 파종하고 포도 나무를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기를 거절했다. (갈대아인의 침입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해야 했다.) 그들은 진정한 나그네 성격을 유지했다. 얼마나 귀한 본인가!

35:12~19 유다 백성은 이와 현저히 대조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징벌을 당할 것이다.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항상 있는 그러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레갑 족속은 BC 841년 그 아들 요나답이 예후를 적극 도와 북왕국의 마알 숭배를 몰아낸 레갑의 이름을 본뜬 것이다. 그들은 유다에게 접근하여 계속해서 함께 거하되 그 생활방식을 달리하던 겐 족속(대상 2:25)의 후손인 유목민 부족이었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어떤 이들은 레갑 족속이 레위 지파에 흡수되었으며 그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고 믿는다. 오늘날 레갑 족속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기에 천년왕국 때는 그들의 신분이 밝혀질 것이다.

(3)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태우다(36장)

36:1~10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그가 전한 모든 예언을 기록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하셨다. 그 예언을 바룩이 받아 적고 1년 후에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낭독했다. 왜 예레미야가 여호와와의 전에 갈 수 없었는지는 아무 설명이 없다(우리말 성경 5절에는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와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이 당시 투옥되지는 않았으나 확실히 쫓기는 몸이었다.

36:11~19 미가야가 그 예언을 듣고 즉시 방백들에게 보고했다. 이에 방백들이 바룩을 불러 그 예언을 낭독해보라고 요구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바룩에게 이르기를 예레미야와 함께 가서 숨고 아무도 그들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36:20~26 방백들이 그 문제를 왕(여호야김)에게 보고하자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후디가 왕에게 그것을 읽어드리자 왕이 그 두루마리(하나님의 말씀)를 소도(小刀)로 연하여 베어서 불속에 던져 모두 태웠다. 이는 자유주의자들과 합리주의자들이 그 후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취해온 행동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방백 중 세 사람이 반대를 했지만 마침내 모든 두루마리가 불태워졌다. 왕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찾았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36:27~32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운 후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두려운 운명에 관한 부분이 추가된 예언을 다시 기록했다! 여호야김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그 후계자였다는 사실이(왕하 24:6) 30절의 저주를 무효화시키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여호야김이 이렇다 할 성취를 못한 채 3개월만 통치했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4) 예레미야의 투옥과 시드기야와의 면담(37,38장)

37:1~10 느부갓네살의 지배를 받는 속국의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으나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예레미야에게 청했다. 애굽 군대가 유다를 도우러 오자 갈대아인(바벨론인)이 그들을 쫓아내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인이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다시 올 것이라고 시드기야에게 알렸다. 설령 시드기야가 갈대아 군대를 쳐서 부상당한 소수만 남겨둘지라도 그들이 일어나 그 성을 불사를 것이다.

37:11~21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용무로 예루살렘을 떠나다가 탈주범으로 잡혀 토굴에 투옥되었다. 여러 날 후에 시드기야가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해 예레미야를 불러 보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인이 그 성과 왕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담대히 선언했다. 그런 다음 옥에서 풀어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머물렀다.

38:1~13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그 성을 떠나 바벨론인에게 항복하라고 권한 까닭에 구덩이에 던져졌다. 시드기야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다. 그는 방백들의 뜻을 거스려 예레미야를 보호할 수가 없었다. 한 구스인 환관이 형겔과 낡은 옷으

로 예레미야를 끌어올려 시위대 뜰에 돌아오게 하는데 성공했다.

38:14~20 시드기야 왕이 면책 특권을 약속하며 예레미야의 조인을 구하자 예레미야는 침략자들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고, 항복한 유대인이 왕을 조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38:21~23 만일 시드기야가 침략자들에게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왕궁 여인들이 그들을 사로잡은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왕을 조롱하되 왕의 친구들이 왕을 미혹한 다음 버렸다고 말할 것이다. 또한 왕의 아내들과 자녀와 왕 자신이 침략자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예루살렘이 불태워질 것이다.

38:24~28 시드기야는 둘 사이에 오간 얘기는 말하지 말며, 다만 토굴에 다시 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다고만 말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했다. 방백들이 와서 물었으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지시한대로 대답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답변은 분명 윤리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다. 그것은 진실이었나, 반(半)진실이었나, 아니면 완전한 거짓이었나? 그가 말한 것은 아마도 진실이었을 것이나,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다.

(5) 예루살렘의 멸망(39장)

39:1~10 예루살렘이 바벨론인에게 함락되자(BC 586년)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대가 도주를 하다가 사로잡혀 립나로 끌려갔다. 왕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고, 왕은 눈을 뺀 채 포로로 끌려갔다. 예루살렘 성은 파멸당했고 백성 중 가난한 자들만이 그 땅에 남겨졌다.

39:11~14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통해 예레미야를 잘 대접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서 풀려나 그달라에게 맡겨졌다.

39:15~18 구스인 환관 에벳멜렉³⁷⁾이 전에 여호와께 안전을 약속받은 바 있었다. 그는 이 때에 구원을 얻었다. 15~18절은 연대적으로 38장 13절 이후에 해당한다.

2) 예루살렘 멸망 후의 유다의 상황전개(40~42장)

(1) 예레미야가 총독 그다랴와 함께 거하다(40장)

40:1~6 갈대아 군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갈지 아니면 그다랴가 다스릴 그 땅에 머무르지 선택하도록 하자 예레미야는 결정을 주저했다. 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함을 알아챈 시위대장은 그를 그다라에게 돌려보내며 여행에 필요한 양식과 선물을 건네주었다. 시위대장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란 칭호를 사용한 것은 그가 유다인의 용어를 잘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지시 때문일 수도 있다.

40:7~10 들에 있는 모든 군대장관들이 그달라가 소수 잔존자를 책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벨론에게 복속된 유다 지방의 수도가 된 미스바에 있는 그에게 나아갔다. 그다라는 갈대아인의 통치에 복종하고 예전과 같이 생활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했다. 그는 갈대아인 앞에서 그들을 대표할 것이다.

40:11~16 다른 유대인 난민들이 모압, 암몬, 에돔 및 그밖에

37) (39:15~18) 그의 이름은 “열왕의 종”을 의미한다.

지역에서 그다라에게 돌아와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요나단과 몇몇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 바알리스에게서 보냄을 받아 그를 죽이려 한다고 그다라에게 경고하고는 심지어 이스마엘을 은밀히 죽일 것을 제안했다. 불행히도 그다라는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거짓 고소한다고 생각했다.

(2) 총독 그다라가 암살당하다(4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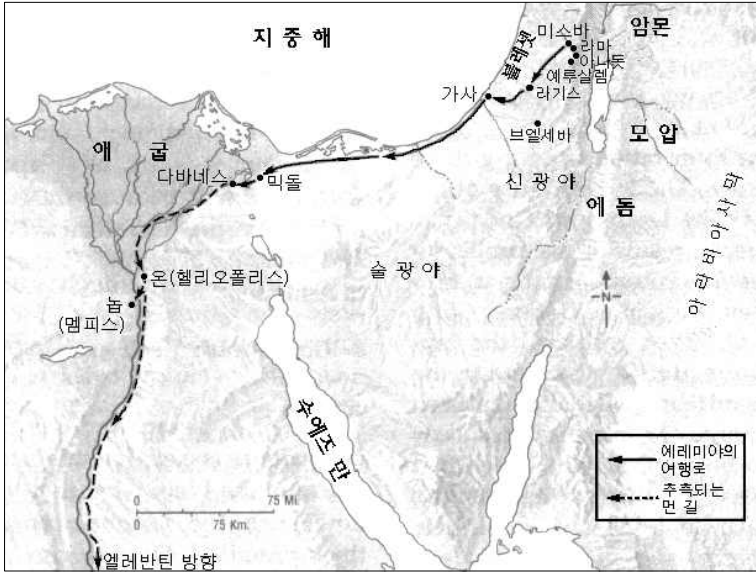
41:1~9 이스마엘과 그의 동료 열 명이 그다라와 그의 동료를 처죽였는데, 이는 그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것에 분개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스마엘이 왕족 출신인 까닭에 자기들이 다스리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스마엘은 동정을 표하는 체하다가, 휘파람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세겔에서 울며 오는 70명을 죽인 다음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졌다. 저장해둔 양식으로 목숨을 흥정한 10명은 살려두었다.

41:10~18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잡혀간 왕의 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요하난과 그의 군사에 의해 구출되어 베들레헬으로 피신했다. 그들은 갈대아인의 보복이 두려워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다. 이스마엘은 여덟 명과 함께 암몬으로 도피했다.

(3) 하나님께서 애굽 도피를 금하시다(42장)

42:1~6 요하난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의 일행이 여호와께 여쭙어 그들이 행할 바를 알게 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호소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자 그들은 여호와께의 지시가 어떠한지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다.

42:7~22 열흘 후에 응답이 왔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는 것이었다. 만일 그들이 머물면 하나님이 그들을 번



▲ 예레미야의 애굽 여행

성케 하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도피하면 그들이 유다에 있을 때 두려워하던 모든 위험이 애굽에 있는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미 애굽으로 도피하기로 결정 내린 듯했으며, 이에 예레미야는 그들이 그곳에서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진솔하게 알려주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동일한 일을 행한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종종 부모와 주일학교 교사와 장로와 그밖에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기로 정해졌다. 불행히도 그러한 모든 “조언을 구하는” 행동이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다.

3) 예레미야와 애굽에 남은 자(43,44장)

43:1~7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바룩에게 미혹을 받았다는

비난을 퍼부으며 요나단은 예레미야와 바룩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갔다.

43:8~13 애굽의 다바네스에서 여호와께서 큰 돌 몇 개를 바로의 궁 어귀의 벽돌 깔린 곳에 숨기라고 예레미야에게 명하셨다. 그런 다음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략하여 그 숨긴 돌 위에 그의 보좌를 세울 것이라고 예고하셨다. 기근과疫病과 칼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애굽의 신들은 불로 진멸될 것이다.

44:1~14 44장은 애굽에 머문 예레미야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다. 그는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예레미야는 그의 동족에게 그 모든 재앙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임한 것임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완전히 진멸될 것이며, 소수 난민 외에 아무도 유다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44:15~30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하늘 황후를 섬길 때 더 번성했다고 주장했다.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그 그릇된 숭배에 가담했다. 다시금 예레미야는 우상숭배가 그들의 재앙의 원인이며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일러주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그들만 징벌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 왕도 대적의 손에 넘기울 것이다.

4) 바룩에 대한 여호와의 메시지(45장)

45:1~5 45장은 여호야김 시대에 기록되었으며 따라서 연대적

으로 44장 앞에 온다. 아마 36장 1~8절 뒤에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유다에 임할 심판 까닭에 분명 낙심했을 바룩을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이다. 아마 그는 높은 지위에 오를 야망이 좌절된 까닭에도 낙심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세울 권한도 있으시고 허물 권한도 있으시다. 바룩은 자기를 위하여 혹은 유다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고, 목숨을 부지하고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그 일을 수행해야 했다. 켈리는 이렇게 설명한다.

“바룩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은, 심판날에 하나님의 성도와 종의 합당한 태도는 자기를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낮은 마음은 항상 성도에게 합당하나 악한 날에는 그것이 유일한 안전책이다. 겸손은 항상 도덕적으로 옳으며, 심판을 견디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집행되는 심판이다. 내가 보기에는 바룩이 이 교훈을 일찍이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이제 그는 그것을 배워야 했다. 이것은 초기에, 즉 여호야김 4년에 바룩에게 전해진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였다.”³⁸⁾

8 열방에 대한 예언(46 ~ 51장)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는 멸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시적으로, 아름답게 선포한다. 그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아라비아(그달과 하술), 엘람, 바벨론 등 아홉 나라에 대해 예언한다. 이 나라들은 지리적으로, 즉 서편에서 동편으로 열거되었다.

38) (45장) Kelly, *Jeremiah*, p. 94.

위치적으로 말하면 이 예언들은 25장 13절 뒤에 적합하다. 그것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성취되었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황폐할 것이나 이스라엘은 구속될 것이다. 바벨론에 대한 이 예언은 아마도 이미 성취된 듯하다. 일부 학자들은 바벨론의 재건³⁹⁾과 이후의 함락을 추측하기도 한다. 메대의 발흥은 51장 1~24절에 다루어져 있다.

1) 애굽에 대한 예언(46장)

46:1~12 46장은 애굽에 관한 노래로서 열방에 관한 일련의 예언들을 시작한다. 군대가 전투준비를 한 다음 황급히 물러나는 광경이 나온다. 이 군대는 애굽의 군대이지만 주로 구스인, 붓인과 루딤인 등 용병들로 구성된다. 그 군대의 패배는 BC 605년 갈그미스에서 이뤄졌다.

46:13~19 이어서 애굽이 침략과 추방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받는다.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칠 때 용맹스런 용병들이 앞서 다투어 쓰러질 것이며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할 것이다. 바로는 “빈 소리”라는 별명을 얻을 것이다(우리말 성경 난하주 참조-역주). 갈대아인이 다불과 갈멜같이 밀고 들어와 애굽인을 포로로 취해갈 것이다.

46:29~24 애굽인의 칼날이 심히 아름다운 애굽의 암송아지를 칠 것이다. 그 용병과 살찐 소들이 어지러이 물러날 것이다. “대

39) (46~51장 서론) 본 주석이 간행되던 해에(1990년), 고대 바벨론이 위치한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 지휘 아래 바벨론 재건을 실제로 시작했었다. 그러나 지금은(1991년) UN지원 아래 쿠웨이트 해방전쟁 기간 동안 다국적군의 이라크 폭격으로 인해 그 재건사역이 보류되었다.

적을 피하는” 애굽의 소리가 “달아나는 뱀의 스치는 소리 같다” (확대역 성경). 침략자들이 전투용 도끼를 가지고 다가온다. 그들은 뺨뺨한 숲을 벌목하듯 애굽인들을 넘어뜨린다. 그들의 수는 황충의 떼보다 많다. 애굽은 철저히 수치를 당한다.

46:25~28 여호와께서 “노의 이몬”(고대 테베의 태양신)과 바로와 애굽을 그 신들과 그 왕들과 함께 징벌하실 것이다. 그러나 후에 그곳에 다시 사람이 거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도 그 고토로 돌아와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릴 것이다.

2) 블레셋에 대한 예언(47장)

47:1~7 블레셋인은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 침략자에 의해 진멸될 것이다. 그들은 두로와 시돈과 단절될 것이며, 슬픔에 빠진 그들의 큰 성읍 가사와 아스글론은 여호와의 칼에 의해 소멸될 것이다.

3) 모압에 대한 예언(48장)

48:1~10 모압도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운명이다. 그 성읍들이 파괴될 것이다. 과멸의 부르짖음이 온 땅에 들린다. 백성들은 약탈자의 손길을 피하라는 경고를 듣는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것과 보물을 헛되이 의뢰했다. 이제 그들의 국가 신(神) 그모스가 그들과 함께 끌려갈 것이다. 10절은 침략자가 그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다. 또한 그 구절은 아무리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와 그의 일을 태만히 하거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선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경계의 말씀일 수도 있다.

48:11~27 모압은 평온한 역사를 지녀왔으며 그로 인해 강인한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 모압은 그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긴 적이 없는, 따라서 맛이 없게된 새 포도주 같았다. 이제 갈대아인들이 모압이 의뢰하는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베엘의 금송아지로 인해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은 그모스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헛된 자랑이 장송곡으로 바뀐다.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도피하고, 온 땅이 수치를 당한다. 들의 성읍들이 폐허가 된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한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에 취하게 될 것이다.

48:28~39 전에 오만하던 백성이 먼 피난처로 피하라는 권면을 듣는다. 그들의 오만함과 거만이 널리 알려졌으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황폐한 곡물과, 기쁨과 즐거움을 잃은 것을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를 폐하겠다고 경고하실 때 절망의 부르짖음이 모압으로부터 올라간다. 다시금 여호와께서 그 부를 잃어버린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퍼하신다. 모압은 백성이 슬픔에 잠긴다.

48:40~47 바벨론이 독수리같이 덮쳐서 두려움과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도저히 피할 수 없다. 백성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말일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4) 암몬에 대한 예언(49:1~6)

49:1~6 르우벤과 갓 지파가 포로로 끌려간 후 그들의 영토를 암몬 족속이 차지했다. 그들은 그 자랑과 자기 만족으로 인해 징벌을 당할 것이나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5) 에돔에 대한 예언(49:7~22)

49:7~22 에돔은 그 지혜와 난공불락의 위치(바위틈에 있다)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이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 하셨다. 윌리엄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12절 전반부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나, 후반부는 에돔에게 적용된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 인해 징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분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얼마나 더 징벌을 받겠는가!”⁴⁰⁾ 에돔에게는 아무런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

5) 다메섹에 대한 예언(49:23~27)

49:23~27 다메섹(수리아)는 멸망할 운명이다. 그 젊음이는 거리에서 쓰러질 것이며, 그 모든 군대는 멸절될 것이며, 다메섹은 불살라질 것이다. 25절은 NKJV의 대문자 ‘M’이 암시하듯이 여호와 자신이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 안에 포함된 한 시민의 말인 듯하다.⁴¹⁾

6) 그달과 하술에 대한 예언(49:28~33)

49:28~29 그달의 유목민 백성(아라비아인)은 바벨론에게 패배할 것이다.

49:30~33 염려 없는 나라 하술이 느부갓네살에게 침략당하고 그 보물을 빼앗기고 황폐케 될 것이다.

40) (49:7~22) Williams, *Student's Commentary*, p. 563.

41) (49:23~27) 히브리어는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분이 없으므로, 영어역본의 모든 대문자화 작업은 번역자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7) 엘람에 대한 예언(49:34~39)

49:34~39 엘람 족속(바사[페르시아]인)은 온 땅에 흩어질 것이나 여호와께서 말일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 때에 그곳을 다스리실 것이란 의미에서 그 보좌를 엘람에 세우실 것이다.

8) 바벨론에 대한 예언(50,51장)

50:1~16 50,51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다. 이 예언들은 메대에 의한 바벨론의 함락을 부분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그 완전한 성취는 여전히 미래에 있다.

바벨론은 예레미야서에 164회 언급되었는데 이는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횃수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 그 나라는 북방으로부터 정복당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후에 여섯 번에 걸쳐 이스라엘과 유다의 축복을 예언한다. 4~7절이 그 첫 번째다. 포로 중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이 약탈당할 것이므로 포로 귀환자를 이끌고 고토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듣는다. 정복군은 다국적군의 요소를 지닐 것이다. 11절은 갈대아군을 가리켜 한 말이다. “너희의 어미”는 갈대아 그 자체를 가리킨다. 바벨론의 멸망과 관계된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본 주석 이사야 13장 14~22절 주해를 참조하라.

50:17~34 이스라엘의 흩어진 양이 비옥한 땅으로 돌아오고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21~32절에 묘사되었고, 이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그분의 기억하심을 언급한다.

50:35~46 칼에 의한 멸망이 바벨론 백성을 기다린다. 침략자가 그 성을 황폐케 할 것이며, 그 멸망의 소식이 열방 가운데 들릴 것이다. 앞서 유다와 에돔에 각각 적용되던(6:22~24; 49:19~21) 41~43절과 44~46절이 여기서는 바벨론에 적용된다.

51:1~19 하나님이 바벨론에 멸망시키는 자를 보내어 아끼지 않고 멸하게 하실 것이다(“렙 카마이”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의 중심”이란 뜻의 암호문구이다). 그것은 그분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열방을 비틀거리게 하기 위한 심판의 잔으로 사용하셨다. 이제 바벨론이 여호와와의 보수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이 9,10절에서,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상과 대비된다.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이시다.

51:20~37 20~23절은 메대를 가리켜 하는 말이고, 24절은 아마도 유다를 가리켜 하는 말인 듯하다. 그 다음 25절은 다시금 바벨론을 가리킨다(“멸망의 산”). 바벨론은 거민이 없고, 폐허 더미이고, 들짐승이 거하는 영구적인 불모지가 될 것이다. 34,35절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이 말하고 있다.

51:38~44 본문은 BC 539년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벨사살과 그 방백들이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는 동안 메대가 바벨론을 함락했다(단 5장). 그러나 그 성은 그 때에 함락되지 않았다. “바다”는 미래의 침략자를 가리킨다.

51:45~51 유대인 포로들은 침략자가 쳐들어오기 전에 그 성을 떠나 가급적 신속하게 예루살렘에 돌아가라는 경고를 미리 받

왔다.

51:52~58 그 오만한 성이 무너지고, 그 새긴 우상이 훼손되고, 그 자랑하던 것이 입을 봉하고, 그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51:59~64 예레미야는 스리아에게 명하여 바벨론에 대한 이러한 기록된 예언들을 가지고 포로들에게 가라고 일렀다. 스리아는 그 예언을 다 읽어준 후에 그것을 유브라데 강에 던져야 했다. 유브라데 강에 그것을 던져 넣는다는 것은 바벨론의 운명을 묘사한 것이다. 연대적으로 본문은 29장에 속한다.

9. 결론: 예루살렘의 멸망(52장)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백성들의 포로됨을 기술한 역사적인 장이다.

52:1~16 시드기야의 말년에 대한 기술이 1~11절에 되풀이된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12~16절에 되풀이된다.

52:17~23 이어서 바벨론인이 취해간 성전 기구들에 대한 자세한 목록이 나온다.

52:24~27 시위대장이 예루살렘에서 74명을 취하여 바벨론 왕에게 데려가자 바벨론 왕이 립나에서 그들을 죽였다.

52:28~34 나머지 사람들은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다.

여호야긴왕 이 사로잡혀간지 37년에 바벨론 왕이 그를 옥에서 내놓고 죽을 때까지 인자를 베풀었다.

이렇게 해서 심판과 눈물로 가득한 이 예언서는 부드러운 기록으로 마감된다.

우리는 이 책을 여러 곳에 예언이 기록된 단순한 “히브리 역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기는 하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항상 새롭고, 항상 유효한 하나님 말씀의 일부이다. 약 3세기 전에 영국인 주석가 메튜 헨리는 예레미야서의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요약했다.

“이제 이 책의 예언과 역사를 함께 비교하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 교훈을 배울 수 있다.

(1) 극히 위엄있는 교회와 개개인이 변질되고 매우 타락된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2) 죄악은 그것을 품은 자들의 파멸을 가져온다.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분명 파멸로 끝난다.

(3) 외형적인 신앙고백과 특권은 결국 죄에 대한 변명과 파멸을 면하려는 구실일 뿐 아니라 죄와 파멸을 더욱 심화시킨다.

(4)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예언은 확실히 이뤄진다.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경고나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그분의 경고를 조롱하는 모든 자들을 정죄하고 혼란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여기 이 피로 얼룩진 장면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로 속지 말게 하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⁴²⁾

42) (52:28~34) Henry, “Jeremiah”, 4:711.

참고 문헌

Dyer, Charles A. “Jeremiah” and “Lamentations”. In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Old Testament. Wheaton, IL : Victor Books, 1985.

Feinberg, Charles L. *Jeremiah: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Francisco, Clyde T. *Studies in Jeremiah*. Nashville: Convention Press, 1961.

Harrison, R. K. *Jeremiah and Lamentations*.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3.

Henry, Matthew. “Jeremiah”.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 4. McLean, VA: MacDonald Publishing Company, n.d.

Jensen, Irving L. “Jeremiah and Lamentations”. In *Everyman’s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74.

Keil, C. F. “Jeremiah-Lamentations.”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s. 19,20.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1.

Kelly, William. *Jeremiah: The Tender-Hearted Prophet of the Nations*. Charlotte: Books for Christian, n.d.

von Orelli, Hans Conrad. *The Prophecies of Jeremiah*. Reprint. Minneapolis: Klock & Klock Christian Publishers, 1977.

신앙 생활 지침서

| |
|--------------------------------------------------------------|
| 신비로운 개미의 세계 델라 레크만/144면/3,500원 |
|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 존 B. D. 페이지/264면/7,000원 |
| 레위기기의 다섯 제사 H. A. 아이언사이드/80면/2,000원 |
|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C. H. 맥킨토쉬/160면/4,000원 |
| 여자의 너울과 하나님의 영광 피터 워/96면/1,500원 |
| 네가 믿인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찰스 스티라/240면/5,500원 |
| 아시아사에 나타난 그리스도 F. B. 메이어/288면/7,000원 |
| 예수님을 닮은 교사 최기관/416면/12,000원 |
| 권위와 순종 최기관/224면/6,500원 |
| 우리 신앙 항기 되게 하소서 최기관/176면/4,300원 |
| 축복으로 가꾸는 삶 최기관/288면/8,500원 |
|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최기관/288면/8,000원 |
| 경건의 시간 최기관/96면/2,500원 |
| 신앙의 경주(1), (2), (3) 조성훈/11 7,500원 (2) 10,000원 (3) 10,000원 |
| 은사의 분별과 활용 조성훈/160면/5,000원 |
|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 조성훈/160면/4,000원 |
|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조성훈/196면/5,500원 |
| 그리스도인과 죄 조성훈/128면/4,000원 |
| 법사에 감사하라 삼병혁/281면/9,000원 |
| 기독교인들은 과연 예수를 믿는가? 정 선/192면/6,000원 |
| 운명을 결정하는 세 가지 이야기 정 선/192면/6,500원 |
| 기독교와 금중이지 신앙 정 선/96면/3,000원 |
| 삶의 원리와 이단 사상들 추복현/128면/4,000원 |
| 하나님이 가리사대 패리드 아브라미/185면/6,000원 |
| 사람의 삶(고린도전서 13장 연구) W. 그레함 스크루기/96면/3,000원 |
| 천국(Heaven) 윌리엄 맥도날드/128면/4,000원 |
| 이렇게 구분된다 윌리엄 맥도날드/192면/6,500원 |
| 참된 헌신 윌리엄 맥도날드/224면/8,000원 |
| |
| |
| |
| |
| |

Q.T 및 훈련교재

| |
|---------------------------------------------------------------|
|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입문편 O. J. 김승/128면/4,000원 |
|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기초편 O. J. 김승/128면/4,000원 |
|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성장편 O. J. 김승/128면/3,500원 |
|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완성편 O. J. 김승/128면/3,500원 |
|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교회생활 O. J. 김승/128면/4,000원 |
|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제자훈련 O. J. 김승/128면/3,500원 |
|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결혼생활 O. J. 김승/128면/1,800원 |
|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일대일 양육(교사용) O. J. 김승/128면/2,500원 |
|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일대일 양육(학생용) O. J. 김승/128면/1,200원 |
|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 사용 설명서 O. J. 김승/128면/1,800원 |
| 매일성경 365-와서 먹으라(1년 신약 1독 큐티) R. E. & G. I. 할로우/336면/8,500원 |
| B.C.T. 묵상훈련 시리즈-마태복음 장병은/152면/2,500원 |
| 매일 성경 큐티-창세기 최기관/336면/8,500원 |
| 매일 성경 큐티-사사기, 룻기 최기관/208면/4,000원 |
| 매일 성경 큐티-히박국, 요한일서, 느헤미야 최기관/224면/4,500원 |
| 매일 성경 큐티-누가복음 최기관/336면/8,000원 |
| 매일 성경 큐티-사도행전, 학개 최기관/256면/5,000원 |
| 매일 성경 큐티-로마서 최기관/266면/8,500원 |
| 매일 성경 큐티-고린도전후서 최기관/272면/6,000원 |
| 매일 성경 큐티-갈라디아서, 아모스, 데살로니가전후서 최기관/208면/4,500원 |
| |
| |
| |
| |
| |
| |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서론

“이 책은, 죄는 그 모든 달콤한 유혹과 자극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근심과 불행과 황폐함과 고통의 무거운 짐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없이 증거해준다. 그것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동전의 반대편이다”(찰스 R. 스윈돌).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이 짧은 책은 헬라어와 라틴어와 영어 역본에서 “애가”(Lamentations)로 불리운다. 유대인들은 “어찌하여”(How) 또는 “슬프도다”(Alas)로 옮겨지는, 1,2,4장의 첫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 제목을 따왔다.

이 책은 BC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공통된 ‘주제’와, 1~4장의 독특한 글자 수수께끼식 ‘구조’에 의해 통합된 다섯 편의 시로 구성된다.

아마도 기억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의 각 행은 히브리어 철자 순으로, 각 구절마다 한 문자로 시작한다. 3장만 그 예외인데, 3장에서는 세 구절마다 같은 문자가 매겨져 있다. 5장은 히브리어 철자(22개)와 같은 수의 구절이 있으나 글자 수수께끼식은 아니다.

그렇게 엄격한 형태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애국적이고 진심어린 슬픔을 감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2. 기자

예레미야 애가서 자체는 그 기자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예레미야가 그 책을 기록했다는 전통은 오랜 것이며, 18세기까지 변화가 없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헬라어역(70인역)은 히브리어 원문을 암시하는 듯한 문체를 지닌 다음과 같은 서문을 제시한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황폐케 된 후에, 예레미야가 앉아서 울며 예루살렘에 대한 이 애가로 슬퍼하며 말하기를...”(이렇게 1장이 시작된다).

이 책의 문체는 “눈물의 선지자”를 암시해주며, 역대하 35장 25절 역시 예레미야를 애가를 짓는 일에 관련시키고 있다. 기자가 직접 목격한 자였으며, 다른 어떤 합리적인 후보도 기자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예레미야가 이 애가서를 기록했다는 전통적인 유대교와 기독교의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3. 연대

시온의 황폐화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매우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그 사건 직후(BC 586~585년경)와 예레미야가 애굽에 내려가기 이전 사이로 보인다.

4. 배경 및 주제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서운 고난과 환란의 때였다. 그 두려운 재앙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 깊은데서 흘러나온 이 애가서를 낳게 했다.

이 책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일종의 부록을 이룬다. 그것은 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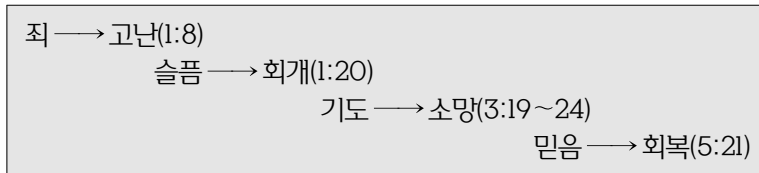
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깊은 슬픔을 묘사한다. 그는 자신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로 인해 마음이 고무되는 대신 자신의 백성의 참상으로 인해 심히 통곡했다.

이 책은 예레미야의 글일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실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 예레미야가 그 대변인 역할을 한 유대인 잔존자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바라보며 느끼는 슬픔.

(2)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죽기 위해 오신 메시야의 고통(예를 들어, 1:12을 보라).

(3) 대환란, 즉 야곱의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부름받을 장래의 날에 유대인 잔존자들이 겪을 슬픔.



▲ 소생에 이르는 길

5. 개관

1. 예루살렘의 처참한 파멸(1:1~11)
2. 백성들의 슬픈 부르짖음과 자복과 기도(1:12~22)
 - 1) 부르짖음(1:12~17)
 - 2) 자복(1:18,19)
 - 3) 기도(1:20~22)
3. 여호와를 예루살렘을 징벌하신 이로 보다(2장)
 - 1)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2:1~13)

- 2)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음(2:14)
 - 3) 방관자들의 조롱(2:15,16)
 - 4)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성취(2:17)
 - 5) 회개 촉구(2:18,19)
 - 6)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2:20~22)
4. 예레미야가 잔존자의 슬픔과 자복을 표현하다(3장)
- 1) 하나님의 심판(3:1~8)
 - 2) 여호와의 자비(3:19~39)
 - 3) 영적인 소생을 위한 촉구(3:40~42)
 - 4) 예루살렘에 대한 예레미야의 슬픔(3:43~51)
 - 5)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는 예레미야의 기도(3:52~66)
5. 유다의 과거와 현재의 대비(4:1~20)
6. 장래의 전망-에돔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4:21,22)
7. 잔존자가 자비와 회복을 하나님께 호소하다(5장)

예레미야 애가 주해

1. 예루살렘의 처참한 파멸(1:1~11)

1:1~11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멸을 볼 수 있다. 1~11절은 방관자들이 하는 말이다. 전에 사람이 많이 거하던 성읍이 이제 과부같이 되었다. 방백들이 노예가 되었고, 우상에게 버림을 받고, 친구에게 배반을 당했다(1,2절).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고, 아무 순례자도 시온에 경배하러 오지 않는다(3~9절). 바벨론 군대가 성소의 보물들을 노략해갔고(10절), 백성들은 기근을 당한다(11절).

2. 백성들의 슬픈 부르짖음과 자복과 기도(1:12~17)

1) 부르짖음(1:12~17)

1:12~17 본문은 예루살렘의 독특한 부르짖음을 말해준다. 12절은 “슬픔의 전형적인 표현”¹⁾이 되었으며, 그 목을 굳게 하고 그분을 거절한 그 동일한 성(城)에 대한 우리 주님의 탄식을 상기시킨다. 본문은 또한 강박한 군병들과 종교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그분의 고난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조롱하며 바라보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유다 백성들은 파멸을 가져온 이가 여호와이심을 인식했으며

1) (1:12~17) R. K. Harrison, *Jeremiah and Lamentations*, p. 210.

(15절), 비록 시온이 그 손을 펴고 간절히 자비를 호소했건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17절).

2) 자복(1:18,19)

1:18~19 유다인은 자복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신 것이 의로우신 일이며, 그들이 그분의 명령을 거스려 반역했으며, 그리고 그들의 이방 “연인들”(열국)이 그들을 속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3) 기도(1:20~22)

1:20~22 유다는 탄식 가운데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대적의 악함을 하나님이 보상해주시기를 기도했다.

3. 여호와를 예루살렘을 징벌하신 이로 보다(2:1~13)

1)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2:1~13)

2:1~7 본문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행하신 일, 즉 성전(발등상)을 파괴하고(1절), 성읍들을 삼키고(2절), 그분이 유다의 대적인 양 대적을 물리치기를 거절하고(3~5절), 성전을 동산의 천막처럼 대하고, 시온에서 제사제도를 폐하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신 일(6,7절)을 묘사한다.

2:8~13 그분은 그 성을 폐허가 되게 하셨으며,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혔고,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아무 말씀도 받지 못했고, 장로들은 슬피 울고, 처녀들은 부끄러워 머리를 땅에 숙였다(8~10절). 아이들은 굶주려 거리에서 기진하고 쓰러져 죽었다(11,12절). 백성들의 재앙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도저히 위로해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다(13절). “처녀 예루살렘”은 백성들의 실제 모

습이 아닌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다.

2)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경고하지
않음(2:14)

2:14 유다의 선지자들은 헛되고 어리석은 목시를 보았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기보다 거짓된 예언과 미혹케 하는 말을 지어냈다.

3) 방관자들의 조롱(2:15,16)

2:51~16 유다의 이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조롱했다. 그들은 박수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4)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성취(2:17)

2:17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낮추고 유다의 대적들의 권세(뿔, 히브리어의 상징어)를 높이셨다.

5) 회개의 촉구(2:18,19)

2:18~19 거리마다 굿주림으로 기진한 어린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부르짖으라고 여호와께서 부모들에게 촉구하셨다.

6)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2:20~22)

2:20~22 여인들은 기근으로 인해 그들의 자식을 먹었다. 하나님이 잔치에 초청하듯 바벨론을 초청하여 오게 하신 까닭에 거리에는 살육당한 자로 가득했다.

4. 예레미야가 잔존자의 슬픔과 자복을 표현하다(3장)

1) 하나님의 심판(3:1~8)

3:1~8 “나”와 “우리”라는 표현을 바꿔 사용하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경험과 그의 백성의 경험을 비교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흑암과, 그 손의 끊임없는 침(1~3절), 때이른 노화(老化)와, 꺾인 뼈와, 담즙과 수고와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갇히는 것(4~6절), 피할 수 없는 투옥과 응답 없는 기도(7~9절), 짐승 같은 매복과 과녁 삼은 공격(10~12절), 깊은 상처와 조롱과 쓴 식물(13~15절), 부러진 이와 재를 입음(16절), 기억력과 평안과 번영의 상실과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모든 기대가 사라짐(17,18절) 등으로 묘사되었다.

2) 여호와의 자비(3:19~39)

3:19~39 자신의 극심한 곤경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돌아보며 낙심에 빠진 중에(19,20절), 예레미야는 그 눈을 자기 자신에게서 여호와께로 돌렸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이 큼을 기억할 때²⁾ 소망이 새로워졌다(21~24절). 그는 고난의 학교에서 배운 교훈을 열거했다.

(1)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고 젊을 때에 그분의 멍에에 굴복하는 것이 좋다(25~27절).

(2) 하나님의 징계와 사람의 타격과 모욕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28~30절).

(3) 하나님의 거절은 최종적이지도 않고 아무 연고가 없지도 않

2) (3:19~39) 개인적인 기억을 이야기하자면 22,23절은 편집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편집자의 부친은 “여호와의 자비와...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22절)라는 문구를 즐겨 인용하셨으며, 편집자의 모친은 23절에 근거한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는 찬송을 즐겨 부르셨다. 두 분께서 주님 품에 안기신 후에 비로소 우리는 두 분의 감정(두 분의 성격을 잘 드러낸)이 이 애가서 3장에서 조화를 잘 이루었음을 알게 되었다.

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항상 뒤따른다(31~33절).

(4) 여호와께는 압제와 불의와 권리를 부인하는 것을 인정치 않으신다(34~36절).

(5) 그분은 주권자시며,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며, 만물이 그분의 뜻을 섬기며, 그분이 죄를 벌하실 때 원망하는 것은 우매한 것이다(37~39절).

3) 영적인 소생에 대한 촉구(3:40~42)

3:40~42 축복의 길은 자기를 살피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데서 발견된다. 자백되지 않은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

4) 예루살렘에 대한 예레미야의 슬픔(3:43~51)

3:43~51 주제가 예레미야와 그의 백성의 고난으로 전환된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뒤쫓아 죽이고, 그들의 기도에도 등을 돌리고, 그들을 이 땅의 찌꺼기가 되게 하셨다(43~45절).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과 위험과 파멸을 경험하는 동안 그들의 모든 대적들이 조롱했다. 그의 백성의 파멸로 인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염없이 울었다(46~51절).

5) 대적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예레미야의 기도(3:52~66)

3:52~66 새처럼 쫓기고,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져 물이 넘치게 되자, 예레미야는 이제 멸절되었다고 생각했다(52~54절). 그는 깊은데서 간절히 기도했으며, 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라 두려워말라고 하셨다(55~57절). 이제 그는 자신이 당한 일(보수, 모해, 훼방, 모욕, 험담, 조롱)을 헤아리고 신원해달라고 여호와께 아뢰었다. 의(義)는 그의 대적이 징벌과 저주와 쫓김과 파멸을 당할 것을 요구했다(58~66절).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은 것처럼”(고후 3:15) “수건이 덮인 마음”(65

절, 우리말 성경과 다름-역주)은 아마도 “마음의 강팍케 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이끄는 마음의 소경됨”을 가리키는 듯하다.³⁾

5. 유다의 과거와 현재의 비교(4:1~20)

4:1~20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이전 영광과 현재의 가련한 상태를 비교했다. 성전은 파괴되고,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버리고(3,4절),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죽고(5절), 징벌은 그칠 줄 모르고(6절), 존귀한 자들을 알아볼 수 없고(7,8절), 자비한 부녀들 가운데서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만연하고(10절), 그리고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성이 무너졌다(12절). 그 모든 일은 그 성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13~16절). 그들은 헛되이 애굽에게 도움을 의지했다(17절). 바벨론 군이 그들을 갑자기 에워쌌으며(18,19절), 여호와와 기름 부으신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갔다(20절).

6. 미래의 전망-에돔이 멸망하고 유다가 회복됨(4:21,22)

4:21~22 처녀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즐거워했으나 그녀는 엄한 징벌을 당하고 그 죄가 밝히 드러날 것이다. 시온은 회복될 것이다.

7. 잔존자가 하나님께 자비와 회복을 호소하다(5장)

5:1~14 본문에서 백성들은 그들에게 임한 끔찍한 상황, 즉 필

3) (3:52~66) C. F. Keil, “Lamentations”,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20:455.

수품의 고가격(4절), 강제노동(5절), 압제(8절), 기근과 위험(9,10절), 부녀들과 방백들과 장로들의 모욕(11,12절), 소년들과 노인의 곤경(13,14절) 등으로 인해 호소했다.

5:15~18 이 모든 두려움 까닭에 유다의 기쁨이 그치고, 그 춤이 슬픔으로 변하고, 그 면류관이 머리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시온산이 황무해졌다.

백성들은 그 모든 일의 원인을 이렇게 자복했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16절).

5:19~22 끝으로 백성들은 그들로 회복과 소생을 경험하도록 그들을 그분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했다. 흥미롭게도 여러 히브리어 사본에서 21절이 22절 뒤에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는 절망보다는 소망으로 이 책을 마감짓게 하기 위함이라.⁴⁾ 사실 카일의 말대로 22절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러한 반복이 불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원망과 간청이 끝까지 지속되는 이 애가서의 성격과 완전히 부합된다. 그러나 소망의 요소가 없지 않은데, 그 소망의 요소는 기쁨에 찬 승리의 높이까지 미치지 못할지라도, 게르라크의 표현대로 ‘일출이 가깝고 곧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지만, 그 자체로는 밤의 그림자를 쫓아내지 못하는, 먹구름 사이를 비추는 새벽처럼 멀리서 희미하게 발하는 빛’이다.”⁵⁾

※ 예레미야서 참고 문헌을 보라

4) (5:19~22) 회당에서 낭독하기에 한결 적절한 이와 유사한 반복이 전도서, 이사야서, 말라기서 등의 끝에 나온다.

5) (5:19~22) Keil, “Lamentations”, 20:455.

에스겔

에스겔 서론

“에스겔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에 걸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라는 한가지 놀라운 주제가 흐르고 있다. 인간의 크고 거만한 주장이 그 진리를 쫓아낸 듯 보이지만, 그분은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의 흐름을 주장하신다. 그분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통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땅 끝까지 증거하도록 뜻을 세우셨다”(찰스 리 화인베르그).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에스겔은 주로 “에스겔이 바퀴를 보았다”, “마른 뼈” 등의 유명한 사실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불행히도 그의 난해한 책에 대한 지식수준은 종종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확실히 에스겔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한 후에 읽어야 할 첫 번째 책은 아니다. 물론 적어도 일부 학적인 사람들은 이 예언의 놀라운 문체 까닭에 이 책에 매료되지만 말이다.

에스겔서의 특이한 점은(예레미야서와 달리, 그리고 이사야서와 대부분 소선지서와 다소간 달리) 심판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데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다. 바벨론 근처의 일종의 고대 강제수용소라 할 수 있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유대인 포로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예언을 기록했다.

2. 기자

에스겔(“하나님이 강하게 하다” 또는 “하나님에 의해 강해지다”)은 예루살렘이 훼파되기 11년 전 두 번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갔다.

1920년대까지 에스겔의 예언은 대부분, 합리주의 비평가들의 “가위질”을 피하였다.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개탄하여, 에스겔서의 통일성과 에스겔 기자권과 전통적인 기록연대를 부인할 이론을 서둘러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사실 이 책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란 시적인 선지자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오랜 유대교와 기독교의 입장은 매우 변호력이 있으며 비평적인 견해에 적절히 응답해왔다.¹⁾

이 책이 한 기자에 의해 기록된 까닭에 통일성을 지닌다는 존 B. 테일러의 여섯 가지 논증을 여기에 소개하겠다.

(1)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으며, 의도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

(2) 이 책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훼파라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

(3) 작품 전체에 반복해서 나오는 특정 문구들(“인자”, “여호와 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여호와인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 의 영광” 등의 표현)을 포함해서 ‘문체와 언어’가 일치된다.

(4) 에스겔은 대선지자들(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라)과 함께 ‘연대적으로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5) 전체적으로 ‘1인칭 단수’가 사용된 것은 명백히 자서전적인 형태를 이 책에 부여해준다. 기자의 신원이 에스겔 1장 3절과 24장 24절에 밝혀져 있다.

(6) 에스겔의 ‘인품과 개성’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 그의 진지함과 상징에 대한 선호,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 하나

1) 1(서론) 예를 들면 글리어슨 아처의 ‘구약개관’(Survey of Old Testament Introduction) “에스겔” 편에서.

님의 영광과 초월하심에 대한 경외심 등을 통해 그 점을 엿볼 수 있다.²⁾

3. 연대

에스겔은 자신의 예언의 연대를 정확히 밝혔다. 그의 첫 번째 예언(1:2)은 여호야킨이 사로잡힌지 5년에(BC 593년) 임했으며, 연대가 밝혀진 그의 마지막 예언은 BC 571년에 임했다(29:17). 즉 그의 사역은 적어도 22년간 지속되었다. 만일 그가 제사장으로서 30세의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다면, 예언을 마쳤을 때는 50이 넘었을 것이다.

4. 배경 및 주제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된 후 20여년간 동료 포로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헛되이 기대했으며, 이에 에스겔은 먼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쳤다.

에스겔의 예언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로 그는 유다의 죄를 열거하고, 백성들이 포로되고 도성이 파괴되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한다. 그것은 기이한 이상(異像)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선포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밝게 빛나는 구름이 성전 위를 배회하다 마지못해하는 듯 서서히 떠난다. 이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없다는 것과, 그분의 심판의 칼이 곧 더러워진 성전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서 전체에 흐르

2) (서론) John B. Taylor, *Ezekiel: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y, pp. 14~16.

는 중심 주제이다.

둘째 부분에서는, 유다의 이웃들이 우상숭배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대한 까닭에 정죄를 당한다. 그들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구스인이다.

끝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유다 온 민족의 회복과 재결합에 대해 말한다. 백성들이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분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그분의 백성에게 임하고 그들의 마지막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다. 성전이 재건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들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지상 천년통치, 즉 천년왕국을 대망한다.

다른 많은 선지서처럼 에스겔서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보다는 연대적인 편이지만 완전히 연대적이지는 않다. 우리는 여러 장들의 서두에 주어진 연대를 주목해야 한다. 알버트 바네스는 이 예언들의 연대를 다음과 같이 배열했다.

“이 예언들은 여러 장들 서두에 밝혀진 연대에 의해 여러 그룹으로 나뉘며, 연대가 없는 예언들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연대와 같은 연대에 전해졌거나 아니면 그 가까운 연대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1) 여호야긴이 사로잡힌지 5년—1~7장. 에스겔의 소명과, 예루살렘의 포위에 대한 예언.
- (2) 6년—8~9장. 백성들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점검과, 임박한 징벌에 대한 예언.
- (3) 7년—20~23장. 임박한 파멸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과 새로운 예언들.
- (4) 9년—24장. 포위가 시작된 해. 그 성이 무너진다는 선포.
- (5) 같은 해—25장.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에 대한 예언.

- (6) 11년—26~28장. 두로에 대한 예언. 이 해에 예루살렘이 18개월 간 포위된 끝에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
- (7) 10년—29:1~16. 애굽에 대한 예언.
- (8) 27년—29:17~30:19. 애굽에 대한 예언.
- (9) 11년—30:20~31:18. 애굽에 대한 예언.
- (10) 12년—32장. 애굽에 대한 예언.
- (11) 같은 해—33~34장. 신실치 않은 지도자들에 대한 판정.
- (12) 같은 해, 혹은 12~25년 사이—35장. 세일산에 대한 심판.
- (13) 같은 해—36~39장. 위로에 대한 이상들. 곡의 멸망
- (14) 25년—40~48년. 성전에 대한 이상.”³⁾

에스겔이 바벨론과 유다 사이의 먼 거리를 왕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능력에 대해서 ‘성서유니온 매일 해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 책의 문제 중 하나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머물면서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다. 한가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열국에 흩어진 자들이 고국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바벨론에 의해 통합과 화해를 이룬 영토에서는 그 일이 이전 시대보다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었다. 아니면, 기억 속에 희미해질 수 있는 구전(口傳) 메시지가, 바벨론 당국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문서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전령이 대신 가서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을 말로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

5. 개관

3) (서론) Albert Barnes, *The Bible Commentary; Proverbs-Ezekiel*, p. 302.

1. 에스겔의 소명과 위임(1:1~3:21)

- 1) 에스겔의 상황(1:1~3)
- 2) 수레를 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에스겔의 이상(1:4~28상)
- 3) 에스겔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게 하다(1:28하~3:21)
 - (1) 백성들의 상태-반역적(1:28하~2:7)
 - (2) 메시지의 성격-두루마리에 암시된바와 같은 심판(2:8~3:3)
 - (3) 백성들의 상태-무분별하고 마음이 강박함(3:4~11)
 - (4) 선지자의 역할-파수꾼(3:12~21)

2.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한 묘사(3:22~24:27)

- 1) 임박한 심판을 예시해주는 시각적인 교훈(3:22~21)
 - (1)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하라고 명하실 때까지 말 못하는 자인 채하라는 명을 받다(3:22~27)
 - (2) 박석으로 예루살렘의 포위를 묘사하다(4장)
 - (3) 날카로운 칼과 머리카락으로 백성들의 운명을 예고하다(5장)
- 2) 우상숭배의 파멸과 백성의 잔존자의 보존(6장)
- 3) 바벨론 침략의 임박성과 가혹성(7장)
- 4) 성전에서의 극심한 우상숭배에 대한 이상(8장)
- 5) 하나님의 임재의 사라짐과 우상숭배자들의 멸망(9장)
- 6)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상(10장)
- 7) 악한 방백들의 모략을 파함(11:1~13)
- 8) 잔존자의 보존에 대한 약속(11:14~21)
- 9) 영광의 구름이 감람산으로 사라짐(11:22~25)
- 10) 임박한 포로됨에 대한 에스겔의 표징(12장)

- (1) 그의 행구(行具)(12:1~16)
- (2) 그의 떨며 놀람(12:17~28)
- 11) 거짓 선지자들과 여선지자들의 운명(13장)
- 12) 우상을 숭배하는 장로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14장)
- 13)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15장)
- 14) 예루살렘의 혼인의 비유(16장)
- 15) 두 마리의 독수리의 비유(17장)
- 16) 신 포도의 비유를 거부함(18장)
- 17) 유다 마지막 왕들에 대한 탄식(19장)
- 18) 이스라엘의 과거 행적에 대한 하나님의 진술(20:1~32)
 - (1) 애굽에서의 우상숭배(20:1~9)
 - (2)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힘(20:10~17)
 - (3) 광야에서의 반역(20:18~26)
 - (4) 우상숭배(20:17~32)
- 19)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20:33~44)
- 20) 임박한 침략에 대한 그림(20:45~21:32)
 - (1) 삼림의 불(20:45~49)
 - (2) 뾰 칼(21:1~17)
 - (3) 두 길(21:18~32)
- 21) 예루살렘의 불결에 대한 세 가지 말씀(22장)
- 22) 행음한 두 자매의 비유(23장)
 - (1) 오홀라(23:1~10)
 - (2) 오홀리바(23:11~21)
 - (3) 바벨론의 침략(23:22~35)
 - (4)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23:36~49)
- 23) 끓는 가마의 비유(24:1~14)
- 24)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24:15~27)

3. 일곱 열국에 대한 예언(25~32장)

- 1) 암몬에 대한 예언(25:1~7)
- 2) 모압에 대한 예언(25:8~11)
- 3) 에돔에 대한 예언(25:12~14)
- 4) 블레셋에 대한 예언(25:15~17)
- 5) 두로에 대한 예언(26:1~28:19)
 - (1) 두로의 멸망(26장)
 - (2) 두로에 대한 애가(27장)
 - (3) 두로 왕의 몰락(28:1~19)
- 6) 시돈에 대한 예언(28:20~26)
- 7) 애굽에 대한 예언(29~32장)
 - (1) 바로와 그 백성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29장)
 - (2) 애굽의 멸망에 대한 애가(30:1~19)
 - (3) 바로의 몰락(30:20~31:18)
 - (4) 바로와 애굽에 대한 애가(32장)

4.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대적들의 징벌(33~39장)

- 1)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다시 위임을 받다(33장)
- 2) 거짓 목자들과 선한 목자(34장)
- 3) 에돔의 운명(35장)
- 4) 그 땅과 백성의 회복(36장)
- 5) 마른 뼈의 골짜기에 대한 이상(37:1~14)
- 6) 이스라엘과 유다의 재결합(37:15~28)
- 7) 이스라엘의 장래 대적들의 멸망(38,39장)

5. 천년왕국의 모습(40~48장)

- 1)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전(40~42장)
 - (1) 척량하는 장대를 가진 사람(40:1~4)

- (2) 바깥뜰의 동쪽 문(40:5~16)
 - (3) 바깥뜰(40:17~19)
 - (4) 바깥뜰의 다른 두 문(40:20~27)
 - (5) 안뜰의 세 문(40:28~37)
 - (6) 제사를 위한 기구(40:38~43)
 - (7) 제사장을 위한 방들(40:44~47)
 - (8) 성전의 현관(40:48,49)
 - (9) 성소와 지성소(41:1~4)
 - (10) 골방(41:5~11)
 - (11) 성전 서쪽 건물(41:1~12)
 - (12) 성전의 척량(41:13~15상)
 - (13) 성전의 내부장식과 기구(41:15하~26)
 - (14) 제사장의 두 방(42:1~14)
 - (15) 바깥뜰의 척량(42:15~20)
- 2) 천년왕국의 예배(43,44장)
 - 3) 천년왕국의 통치(45,46장)
 - 4) 천년왕국의 땅(47,48장)
 - (1) 물의 치료(47:1~12)
 - (2) 땅의 경계(47:13~23)
 - (3) 땅의 구분(48장)

에스겔 주해

1. 에스겔의 소명과 위임(1:1 ~ 3:21)

1) 에스겔의 상황(1:1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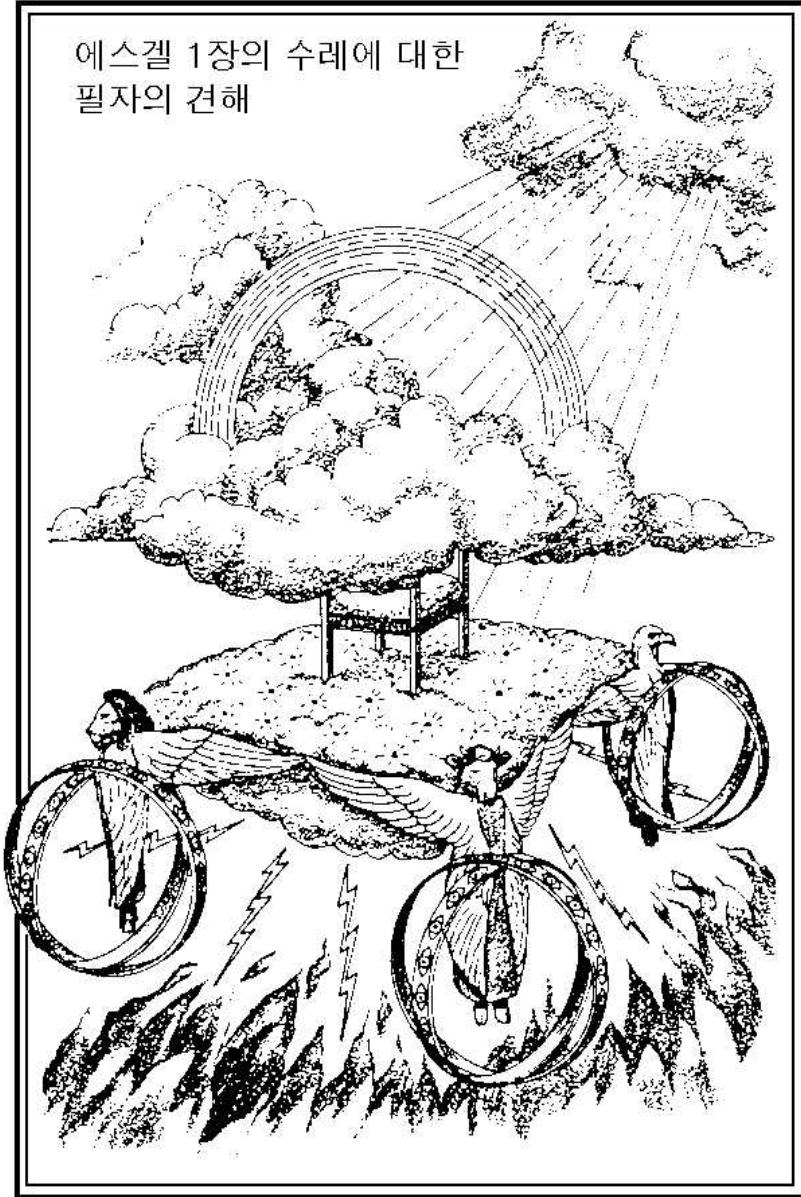
1:1~3 이 책 서두에 에스겔은 이미 초기의 바벨론 유수로 포로가 된 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이 일어나기 6,7년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다. 에스겔은 이 때 아마 30세쯤 되었을 것이다(“제 30년에”). 1~24장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그리고 첫 번째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다.

2) 수레를 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에스겔의 이상(1:4 ~ 28상)

1:4~28(상) 1장은 포로들 중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상으로 가득하다. 에스겔은 먼저 무서운 폭풍이 북방에서 몰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어서 각기 네 얼굴(사자, 소, 독수리, 사람)과⁴⁾ 네 날개와 곧은 발과 그리고 그 날개 아래 손이 있는 네 생물을 보았다. 이 생물들은 창조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들, 즉 그분의 위엄과 권능과 신속함과 지혜를 상징한다. 많은 열방이 보좌

4) (1:4~28상) 이 네 얼굴은 전통적으로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네가지 모습과 연결된다: 마태-사자(왕되신 그리스도); 마가-소(종되신 그리스도); 누가-사람(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 요한-독수리(하나님의 아들되신 그리스도). 본 주석 신약편 복음서 서론을 보라.

에스겔 1장의 수레에 대한
필자의 견해



▲에스겔의 수레 이상

이 그림은 에스겔 1장의 수레에 대한 필자의 개념을 그리고 있다. 한가지 점에서 이것은 본문의 묘사와 차이가 있는데, 즉, 본문에는 각 생물이 네 얼굴이 있는 반면에, 이 그림에서는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 각 생물이 하나의 얼굴만 보여주고 있다.

좌에 앉아 계신,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고 있다. 그들은 창조주 자신이 아닌 창조적인 속성들을 숭배한다.

궁창 위에 영광의 주께서 좌정해 계신 보좌가 있었다. 각 생물 곁에는 바퀴가, 아니 바퀴 안의 바퀴가 있었다(아마 회전 운동하는 물체처럼 한 바퀴가 다른 바퀴 쪽으로 직각으로 돌았을 것이다).

이같이 이 이상은 땅 위의 바퀴와, 바닥을 지지하는 네 생물과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수레를 표현해주는 듯하다. 에스겔은 예언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기 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상을 본 것이다.

본문은 웨이버의 훌륭한 찬송시를 상기시킨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얼마나 놀라우신지,
주의 위엄은 얼마나 찬란하고,
불빛 가운데 빛나는 주의 시은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원하신 주여,
주의 영원한 만대는 얼마나 엄위한지
밤낮 부복한 영혼들이
쉬지 않고 경배 드리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랑의 상급이시여,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를 우러르고, 또 우러르는 것은
얼마나 황홀할 것인가.” (프레드릭 윌리엄 웨이버)

에스겔은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그분이)(NKJV 난하주)⁵⁾ 성

음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43:3)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그 이상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북방에서 나오시는 것과, 바벨론이 그분의 심판의 대리자가 된 것을 묘사한다.

3)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도록 임명함(1:28하~3:21)

(1) 백성들의 상태-반역적(1:28하~2:7)

1:28(하)~2:7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를 앞드리게 하신 다음, 결과를 개의회치고 반역적인 나라 유다에게 예언하라고 이르셨다. 에스겔은 담대하고 또 순종적이어야 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할 일을 위탁하시고 그를 “인자”라고 부르셨다.⁶⁾ 에스겔서에는 이 중요한 표현이 90회 나온다. 테일러는 그 용례를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는 첫 말씀은 그를 그 이상 중에 묵도해온 위엄 앞에서의 합당한 자리에 위치시킨다. ‘인자’라는 표현은 에스겔의 보잘것없음 내지 단순히 인간에 불과함을 강조하는 히브리어 개념이다. ‘...의 아들’은 ‘...의 속성을 공유하다’는 뜻을

5) (1:4-28상) NKJV는 맛소라 사본을 따라 “내가 이르매”(When I came)라고 옮겼다. 이러한 사본상의 문제에 대해 새 스코필드성경의 주석은 이렇게 설명한다. “예루살렘 성을 그 죄 까닭에 멸하러 온 자는 분명 에스겔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었다. 문맥의 배경과 6개 가량의 사본의 번역과 데오도션 및 불가타 역의 번역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가(He) 그 성을 멸하러 오매’라고 옮기는 것이 최선이다. 또 다른 가능한 번역은, 문제된 단어의 마지막 문자를 ‘여호와’를 가리키는 잘 알려진 약자로 읽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멸하러 임하시매’라고 옮기는 것이다.”(*The New Scofield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p. 995).

6) (1:28~2:7) NRSV는 ‘아들’과 ‘사람’이란 ‘남성적인’ 단어를 피하기 위해 ‘인자’를 ‘죽을 인생’(mortal)이라고 풀어 옮겼다. 이것은 다니엘서와 우리 주님의 용례상의 관계를 덮어버린다.

암시하며, 따라서 그것이 ‘인간’(아담)이라는 단어와 결합하면 다름 아닌 ‘인간 존재’(human being)라는 뜻이 된다. 그 복수형은 흔히 ‘인류’의 뜻으로 쓰인다.”⁷⁾

다니엘 때까지는(7:13,14) 이 칭호가 메시아적인 암시를 띠었으며, 1세기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다.

“주님께서 이 칭호를 사용하신 것은 단순한 의미와 전문적인 의미 사이의 다의적(多義的)인 성격을 이용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이 메시아권을 공공연히 주장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자들로 그분의 본체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는 것을 방해하지 않은 것이다.”⁸⁾

(2) 메시지의 성격-두루마리에 암시된 바와 같은 심판(2:8~3:3)

2:8~10 이어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심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그의 사역이 인기가 없을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다. 우리 또한 복음의 참된 제시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걸림이 될 것이라는 예고를 듣고 있다. 그 복음은 십자가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이들에게 우리는 사망의 향기이다.

3:1~3 에스겔은 명령대로 두루마리를 먹었다. 이후에 “계시자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이다(계 10:8~10). 모든 선지자나 전도자는 메시지를 자기 것으로 습득하고 자기의 삶의 일부로 삼아야 한다(3:10).

7) (1:28하~2:7) Taylor, *Ezekiel*, p. 60.

8) (1:28하~2:7) Taylor, *Ezekiel*, p. 60.

(3) 백성들의 성격-무분별하고 마음이 강박함(3:4~11)

3:4~11 이어서 에스겔을 들을 마음이 없는 백성(여기서 유다는 ‘이스라엘’로 불리운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셨다. 많은 선교사들의 말대로 언어장벽은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거스리는 마음의 장벽은 극복할 수가 없다. 에스겔은 그 땅의 유다인들과 사로잡힌 중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담대히 전해야 했다.

그리스도의 참 좋은 강인한 마음을 가지되 강박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4) 선지자 에스겔의 역할-파수꾼(3:12~21)

3:12~15 이어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들에게 이끄셨으며, 그는 그들과 함께 앉아 7일간 침묵을 지켰다. 카일 예이츠는 에스겔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다.

“안락한 고향을 떠나 텔아비브에 있는 포로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부르심은 에스겔로서는 달갑지 않은 사건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고 거스릴 수 없는 거룩한 압박감을 감지했지만, 반갑지 않은 임무로 인해 괴로운 심경으로 갔다. 그와 그 백성에게 불행히도, 그는 즉시 말씀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1주일간 그 중심을 잃은 백성 가운데 앉아 있었다. 이 경험은 그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와 불행과 절박한 필요를 분명히 이해하게 했다. 그의 백성이라는 창을 통해 삶을 볼 수 있는 설교자가 그들을 돕고 그토록 절실히 요청되는 지도력을 베풀 수가 있다.”⁹⁾

3:16~21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엄히 경

9) (3:12~15) Kyle M. Yates, *Preaching from the Prophetic*, p. 181.

고할 책임이 있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었다. 피값을 찾는다는 엄연한 사실은 구약에서만이 아니라(18~20절) 신약에서도(행 20:26)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사자(messenger)의 책임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본문을, 모든 목구멍에 복음을 강제로 집어넣거나, 아무데서나 증거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크나큰 책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에 의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우리 역시 전도할 때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침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마땅히 증거해야 할 때 입을 다물고 있다.

2.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묘사(3:22 ~ 24:27)

1) 임박한 심판을 예시해 주는 시각적인 교훈(3:22~5:17)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기록했다(벧전 4:17). 그와 같이 하나님은 계시된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다.

(1)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실 때까지 병어리인 체해야 했다(3:22~27)

3:22~27 먼저 에스겔은 들로 나아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할 말을 계시하실 때까지 문을 닫고 입을 다물라는 명령을 받았다.

(2) 박석으로 표현된 예루살렘의 에워싸임(4장)

4:1~8 예루살렘은 암반 기초 위에 돌로 건설되었다. 박석(기

와 같이 진흙으로 만들어짐)은 바벨론을 상징한다(창 11:3,9). 이제 예루살렘은 그 도덕성과 우상숭배에 있어 바벨론보다 더 악해졌다(5:7). 그러므로 하나님이 박석을 이용하여 그 그려진 성읍 위에 운제를 세우고 외부의 도움과 단절시킬 철성을 쌓아 예루살렘의 에워싸임을 묘사하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셨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계셨음을 보여준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위해 390일을 왼쪽으로 눕고, 유다를 위해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야 했다. 하루는 1년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 총수(總數)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70인역은 390을 190으로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 그러나 그러한 바꿈은 히브리어 사본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또 다른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에스겔이 실제로 그 두 기간 동안 옆으로 누워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많은 주석가들은 그것이 시각적인 교훈이었기에 그가 그 기간 중에 대중에게 보일 때에만 그렇게 했다고 주장한다.

4:9~17 본문은 에워싸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기근과, 양식과 물의 배급 상황을 말한다. 처음에는 인분이 떡을 굽는 연료로 사용되었으나, 후에는 쇠똥으로 대치되었다. 이 4장은 에워싸임과 불안과 주립과 더럽혀짐 등, 유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결과를 보여준다.

(3) 날카로운 칼과 머리카락을 통해 예고된 백성들의 운명(5장)

5:1~9 실물교훈을 통해 에스겔은 성읍의 3분의 1은 온역과 기근으로 죽고(12절), 3분의 1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리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질 것을 보여주었다(2절과 12절을 비교하라). 소수가 살아남을 것이나 그 중 일부도 후에 죽을 것인데(3,4절), 아마

이들은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살해할 때 죽임당한 자들일 것이다. 이러한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됨은 백성들이 그들의 큰 특권에도 불구하고 주변 열국보다 더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보다 훨씬 더 높은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특권을 남용하고, 그로써 일시적인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상급을 잃는 불행이 없게 해주시기를 빈다!

5:10~17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만연할 것이다(10절). 성전이 더럽힘을 당했으므로 하나님이 공물을 베푸지 않으실 것이다(11~13절). 유대인은 열방 가운데 멸시를 당하고 강포와 살육을 당할 것이다(14~17절).

2) 우상숭배의 진멸과 백성들의 잔존자의 보존(6장)

6:1~7 “이스라엘 산”은 여기서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인데, 이는 우상의 신전(산당)이 흔히 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 땅이 그 우상숭배로 인해 징벌을 당할 것이다.

6:8~14 잔존자가 살아남을 것이다. 그들은 사로잡힌 중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들의 가증스런 일들로 인해 스스로 한탄할 것이다(8~10절). 우상숭배는 역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징벌당할 것이다(11~14절).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잔존자의 증거를 남겨두신다. 그들은 도덕적인 다수가 아니라 멸시받는 소수이다.

3) 바벨론 침략의 임박성과 가혹성(7장)

7:1~18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가 임했으며, 심판을 내리

는 이는 여호와이심이 분명하다(1~13절). 아무도 전쟁에 나오라는 부름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운 파멸로 인해 용기와 힘이 꺾일 것이다(14~18절).

7:19~22 물질적인 소유가 소용없게 될 것이다(19절). 성전(“화려한 장식”)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까닭에 외인, 즉 바벨론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성전을 노략하고 더럽힐 것이다(20~22절).

7:23~27 왕, 방백, 선지자, 제사장, 장로, 일반 백성 등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파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일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증거해야 했으나 완전히 실패했다. 그들이 이제 오직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 얼마나 엄위한 사실인가. 심판은 완전하다. 모든 부류와 온 땅에 미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절하는 민족은 그 도덕적인 근성을 잃고, 환란이 임할 때 의지할 곳이 없다. 이것은 개개인에게도 사실이다.

4) 성전 안의 가증한 우상숭배에 대한 이상(8장)

8:1~6 장로들은 심판을 증거해야 했으나, 이미 그 피할 길을 내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은 오늘날도 종종 사실이다.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다. 거기서 그는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가증한 사례를 목격했다. 그는 성전 입구에서 여호와와 시기를 불러일으킨 가증한 우상을 보았다.

8:7~15 에스겔이 본 두 번째 장면은 성전 뜰 안이었다. 유다 장로들이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거기 모여서 그 사면 벽에 그린

가증한 그림들에게 절을 했다.

세 번째 장면은 여인들이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모습이었다. 아마 그 신이 죽을 때 초목이 말랐던 것 같다.

8:16~18 우상숭배의 네 번째 예는 성전 안뜰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사장을 대표하는 약 25명이 태양에게 경배하고 그 태양종교의 음란한 풍습을 좇고 있었다. 17절의 “나뭇가지”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 나뭇가지를 코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멸시 내지 조롱을 암시하는 듯하다. 나뭇가지는 남근(男根)을 상징하는 가증한 상징물인 듯하다.

종종 구원받지 않은 종교지도자들이 불경건한 행실과 말도 안 되는 이단교리에 빠져 신문의 머릿 기사를 장식하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갖고 계신다.

5) 하나님의 임재의 사라짐과 우상숭배자들의 멸망(9장)

9:1~2 9장에서는 여섯 명의 집행인이 앞장의 우상숭배자들을 멸하기 위해 북방(바벨론 군이 오는 방향)에서 오는 것이 보였다.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은 은혜를 상징하는 듯하다.

9:3 영광의 구름(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이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슬퍼하여 성전의 지성소를 떠나간다. 그 영광의 구름은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 그 밝은 빛으로 성전 뜰을 가득 채운다.

9:4 우상숭배를 반대한 신실한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이마에 표를 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 만일 어떤 이들이 주님을 좇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과 한 무리가 되지는 않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

지는 않는가? 그들의 행동을 변명해주지는 않는가? 무관심을 보이지는 않는가? 이 신실한 남녀 사람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러한 반응은 그들의 마음상태를 보여주었으며 그들을 심판에서 보호해주었다.

이마의 표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문자(עף)였는데, 랍비들은 그것이 완전을 암시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또한 ‘토라’(율법)의 첫 번째 문자이기도 하다. 화인베르그는 “이곳과 계시록 7장 1~3절 사이에는 놀랄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한다.¹⁰⁾

“성경해석가들은 여기서 십자가의 표를 가리키는 모종의 예언적인 암시를 보았다. 초기의 사본에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문자(עף)는 십자가 모양이었다. 물론 에스겔은 기독교의 상징물을 생각했을리 없으며, 또한 본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놀랄만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다.”¹¹⁾

9:5~7 이어서 집행인들은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자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들이 그 표를 인식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은 자신이 심판에서 안전한지를 말씀에 기초하여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는가!

9:8~11 에스겔이 백성들을 위해 중재를 하자 여호와께서 그

10) (9:4) Charles Lee Feinberg, *The Prophecy of Ezekiel: The Glory of the Lord*, p. 56.

11) (9:4) Charles Lee Feinberg, *The Prophecy of Ezekiel: The Glory of the Lord*, p. 56.

들을 아껴보지도 않고 공홀을 베풀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더 이상 그들의 곤경을 보지 않으시므로 그분께 충성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말처럼 들린다!

본문과 다른 여러 본문들(노아와 방주 등)에 비추어 볼 때, 불경건한 자에게 심판을 쏟기 전에 참 신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으로 보인다.

6)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상(10장)

10장은 1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수레와 생물(여기서는 그룹으로 나와있다)과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준다. 그러나 1장은 포로된 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인 반면에, 이 10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반역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다.

10:1~2 여호와께서 가는 벼룩 입은 사람에게 그룹 사이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흘으라고 명하셨다. 이것은 그 성읍에 부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다.

10:3~5 본문은 삽입부로서 9장 3절에 묘사된 영광의 그룹의 움직임에 다시 보여준다.

10:6~17 그룹과 수레바퀴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본문에 주어 있는데, 이것은 그 형상을 묘사하기가 어렵다. 14절의 ‘그룹의 얼굴’은 1장 10절의 소의 얼굴과 동일할 것이다.

10:18~19 영광의 구름은 이어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전 동쪽 문으로 이동한다.

10:20~22 이어서 에스겔은 이 그룹이 1장의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이상은 우리 하나님의 두려운 권능과 지혜와 위엄에 대한 의식을 결코 잃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7) 악한 방백들의 제안을 거부함(11:1~3)

11:1~3 25인(방백들을 대표)이 그 성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것 없다고 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전처럼 건축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 그들은 쇠가마에 넣은 고기처럼 안전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고 한 25인의 말은 여호와의 말씀에 완전히 배척되었다. 일찍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므로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렘 29:4~11). ‘악한 피를 베푸는 자들’이 편지를 통해 포로들 가운데 거짓된 소망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방백들은 거기서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다.

마찬가지로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11:4~12 에스겔은 그들의 비유를 판이하게 재해석하라는 명을 받았다! 예루살렘 성이 가마였고, 살육당한 백성이 고기였다! 그들은 성밖에 끌려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을 당할 것이다(왕

하 25:18~21; 렘 5:24~27).

11:13 블라다(25인의 지도자인 듯함)가 아마도 그 악한 피의 결과로 죽자 에스겔은 그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재를 했다.

8) 잔존자의 보존에 대한 약속(11:14~21)

11:14~15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거민이 하는 말, 즉 포로들은 여호와를 멀리 떠나 방황하고 그 땅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게 속했다는 말을 알려줌으로써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셨다.

11:16~21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포로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다시 모으고, 우상숭배를 말끔히 제하고 여호와를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예이츠는 이렇게 설명한다.

“에스겔은 영적인 종교를 추구하는데 있어 예레미야의 본을 좇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확실히 마음의 종교이다. 마음은 개선할 수가 없다. 새로운 마음이 부여될 것이다. 형식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야 한다. 영적인 강조가 그들에게 그 생각과 예배와 행실과 충성을 변화시킬 야웨와의 접촉을 가져다줄 것이다. 새로운 영이 그들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18:31; 36:26이하).”¹²⁾

포로들의 진정한 소망은 여호와와의 약속에 기초를 둔다. “한 마

12) (11:16~21) Yates, *Prophets*, p. 182.

음”과 “한 영”에 대한 약속은 무조건적이다. 그것은 신약에서 성취될 것이다.

“우리의 주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우리가 당신 발아래 엎드리나이다.
주여, 당신밖에는 아무 피할 곳도,
아무 숨을 곳도 없나이다!” (사무엘 메들리)

9) 영광의 구름이 감람산으로 이동하다(11:22~25)

11:22~25 11장 끝에서 영광의 구름이 그 성에서 떠올라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향한다. 조지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마지못해서 물러났다. 그 보좌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 있다가(8:4), 문지방과(9:3), 문지방 위에 물러났다가(10:4), 그 다음에 동쪽 문에 물러났다가(10:19), 마침내 성 동편 산으로 이동했다(11:23).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쉬 끊지 못하는 사랑 가운데 그분의 성과 성전을 버리고 43장 2절(여전히 미래이다)까지 돌아오지 않으셨다.”¹³⁾

10) 임박한 포로됨에 대한 에스겔의 징조(12장)

(1) 그의 행구(行具; 12:1~16)

12:1~12 에스겔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옮겨갈 것을 보여주는 표로 그의 집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13) (11:22~25) Goe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579.

받았다. 그 눈을 가리고 밤중에 성벽을 뚫고 나감으로써 그는 시드기야(왕)가 어두울 때에(그가 땅을 볼 수 없을 때) 그 성을 도피할 것을 예고했다.

12:13~16 그러나 그는 사로잡혀 바벨론에 끌려가되 그 눈으로 바벨론을 보지 못할 것이다(13절). 이 일은 그대로 이뤄졌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을 도피하다가 사로잡혀 립나에서 그 눈이 빠진 채 갈대아로 끌려갔다(왕하 25:7). 백성들은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이며, 많은 이들이 칼과 기근과 염병에 죽을 것이다.

(2) 그의 떨(12:17~28)

12:17~20 에스겔은 떨고 놀라며 먹고 마심으로써 포로됨에 앞서 경험할 두려움과 근심을 미리 보여주었다.

12:21~28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멸망 예언이 성취된 적이 없었다는 속담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른 속담을 주사, 성취의 날이 가깝고 모든 예언(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 성취가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자들은 그들의 날에 그것을 볼 것이다.

그 예언을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장래 세대에게 적용하려는 백성들의 경향은 우리에게도 있다. 하나님이 메시지나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시 ‘우리 형제나 자매’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변화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기가 쉽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악하고 파괴적인 경향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거나 그분의 간섭을 부인하거나 지연시키는 그럴듯한 상투적인 변명들을 경계해야 한다.

11) 거짓 선지자들과 여선지자들의 운명(13장)

13:1~3 여기서의 주제는 거짓 선지자들(1~16절)과 거짓 여선지자들(17~23절)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예언을 지어냈다. 그들은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을 사용했으나 그것은 거짓말이요 거짓된 점괘였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설교자는 그들의 생각과 견해를 전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메시지를 얻는 설교자이다.

데니스 레인은 에스겔 시대의 설교의 특징을 이렇게 평했다.

“그것은 설교자 자신의 생각을 결코 뛰어넘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 그것은 아무 실질적인, 혹은 유용한 효과가 없었다. 그것은 값싼 은혜와 거짓된 평안을 제안했다. 그것은 그저 최근의 세계관을 반영할 뿐이었다.”¹⁴⁾

13:4~7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황무지의 여우같이 항상 황폐한 중에서 먹이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켰다. 그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그 갈라진 사이를 연결하고 무너진 벽을 보수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이다.

13:8~16 그들은 평안이 없을 때 평안을 예언하고, 곧 무너질 담에 회칠을 한 까닭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방해하려는 지도자들의 노력을 상징했다. 데이빗슨은 이것을

14) (13:1~3) Denis Lane, *The Cloud and the Silver Lining*, pp. 53~62.

이렇게 설명했다.

“이 비유는 백성들의 헛된 계획과 선지자들의 알량한 아침과 인정을 통렬하게 묘사해준다. 어떤 미약한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생성해내지 못할 때, ‘맞아! 솔직히 인정하겠어. 나도 같은 생각이 있어’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계획을 적극 인정해줌으로써 (적어도 그가 보기엔) 어느 정도 평판을 얻어낸다. 선지자들로 백성들이 쌓은 답에 회칠을 하게 한 원인은, 부분적으로는, 기존의 위치에서 뭔가를 이루고 지도자로서의 평판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들 스스로 정직히 그 정책을 인정한 대다수 무리보다 나은 지혜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들은 무리의 생각에 편승하고 무리의 계획을 쉽게 묵인했다.¹⁵⁾

오늘날 배도한 종교지도자들도 동일하게 회칠한 답이다.”¹⁶⁾

13:17~23 여선지자들은 사람들의 팔뚝에 방석을 꿰어 매고 머리에 수건을 씌우고 마술을 행했다. 그들은 마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살렸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 이 거짓 여선지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LB)은 17~19절을 이렇게 풀어 옮기고 있다.

“진토의 아들이야, 여호와께서 메시지를 주셨다고 주장하는 여선지자들에게도 말하라.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라. 마술방석을 팔에 매고 마술수건을 씌우고 면죄부를 돈주고 팔면서 노소를 막론하고 내 백성의 영혼을 저주하는 여인들에게 화있을진저. 그들은 이득이 없으면 도움을 주기를 거절한다. 두

15) (13:8~16) A. B. Davidson,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p. 88.

16) (13:8~16)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을 비슷한 이름으로 부르신다: “회칠한 무덤”(마 23:27).

어 응큼 보리와 한 조각 떡을 위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내게서 돌이키게 하려는가? 너희는 죽지 말아야 할 자들을 사망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 살아서는 안될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했다. 그들은 그 거짓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12)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14장)

14:1~11 이스라엘 장로 중 일부(우상숭배자들)가 에스겔을 찾아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자,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우상숭배자들에게 답하겠다고 선언하셨다. 만일 선지자가 우상숭배자들에게 대답한다면 그는 미혹을 받아 질문자들과 더불어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14:12~20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그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듣지 않으시고 그 땅에 기근과 들짐승과 칼과 열병을 보내실 것이다. 다니엘은 에스겔이 이 글을 쓸 당시 느부갓네살의 궁전에 거하고 있었으나 오래 전 하나님의 의인들과 함께 거론이 되었다. 오늘날은 과거처럼 믿음의 남녀 영웅들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신은 그들 중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

14:21~23 만일 하나님이 어느 땅을 엄하게 심판하신다면, 그분의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은 얼마나 더욱 심판하시겠는가? 그러나 잔존자가 건짐을 받아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의로운 일이었음을 증거할 것이다.

유다의 죄는 심히 커서 노아, 다니엘, 욥의 중재로도 용서받을 수 없었다. 범죄와 폭력과 낙태와 부도덕과 우상숭배와 마약과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사회는 어떠하겠는가?

13)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15장)

15:1~8 포도나무는 단지 열매를 맺는 데만 쓸모가 있다. 그것은 가구를 만들거나 작은 못을 만드는데도 쓸모가 없다. 땀감으로 쓰기에는 더더욱 부적합하다. 어떤 의미에서 포도나무는 예루살렘 백성을 가리킨다(6절).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벨론 침략의 불에 살라졌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상징한다(4절). 그 가지의 북쪽 끝은 앗수르군에 의해 불살라졌다. 남쪽 끝은 애굽 군에 의해 살라졌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인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에 의해 살라질 것이다(왕하 25:9). 7절의 두 번째 ‘불’은 도피한 자들의 사로잡힘을 묘사한다.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케 하기로 작정하셨다(8절).

신자로서 우리는 높은 특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을 책임도 있다. 만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헛되고 무익하다. 그것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으며, 우리의 간증은 사라질 것이다(요 15: 6).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로서 우리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14) 예루살렘의 결혼의 비유(16장)

16:1~7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역사를 추적하시는데, 예루살렘은 곧 그 백성을 가리킨다. 그것은 씻지도 않고, 원치도 않은, 주은 아이처럼 시작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보시자 그가 점점 자라서 극히 아름다워졌다.

16:8~22 그녀가 처녀로 성장하자 여호와께서 친히 구혼을 하고, 결혼을 위해 그녀를 정결케 하고, 넘치는 인자를 베풀고, 아름답게 꾸며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의지하여 그분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갔으며 지나가는 모든 이의 창기가 되었다.

16:23~34 그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인, 앗수르인, 갈대아 상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창기가 되어주었다. 어떤 이의 말대로 “그녀는 이방인보다 더한 이방인이 되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값을 주고 그녀와 죄를 짓게 한 점에서 일반 창기와 달랐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는가? 상대에게 돈을 주고 그런 짓을 할 창기가 있겠는가? 보물을 내어주면서 그런 짓을 할 창기가 있겠는가? 그런데 주님을 좇는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하늘에 속한 소중한 상급과 기업을 저버리고, 보화를 하늘에 쌓는 대신 그들의 돈과 시간을 세상 쾌락에 소모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잃어버린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영적인 간음에 빠진 자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16:35~43 그녀의 “비루함”에 대한 심판은 그녀가 값을 주고 유혹한 이방 열국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다. 신실치 않은 연인처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은 그 짝하고자 한 세상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고 있다(약 4:4~10).

16:44~52 예루살렘(유다)이 저지른 가증한 행위는 히트 족속, 아모리 족속, 사마리아 혹은 소돔 같은 이방 민족들의 그것보다 훨씬 악했다. 성적인 문란은 소돔의 최악의 하나에 불과했다. 소

돔의 “죄악”에는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가득한 게으름)”도 포함되었다. 본문은 현대 기독교계의 모습을 잘 묘사해준다. 화인베르그는 이렇게 말한다.

“소돔의 가증한 것들의 근원을 추적하면서 그 죄악의 뿌리로 교만을 포착한 점을 보라. 하나님이 양식의 풍족함으로 그녀를 넘치도록 축복하셨건만(창 13:10) 그녀는 그러한 축복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 독점하고 넘치는 안락을 누렸다. 그녀의 필요를 위한 풍족한 공급이 그녀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없었다. 이어서 그녀는 그녀의 이름과 땀해야 땀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가증한 행위와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최종적인 타격을 가하셨다(창 18:21).”¹⁷⁾

16:53~58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언젠가 소돔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53절은 그 성읍들의 회복을 묘사하는 말이지 죽은 악인의 궁극적인 구원을 암시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16:59~63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며, 유다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좇은 일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미래에 성취하실, 족장들과 맺은 무조건적인 축복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그분의 다른 기이한 것들 위에 빛나다고 한 존 뉴튼의 말은 옳았다.

17) (16:44~52) Feinberg, *Ezekiel*, p. 91.

15) 두 독수리의 비유(17장)

17:1~6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수수께끼를 베풀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셨다.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 끝을 꺾어 이방 땅에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 땅의 씨도 취하여 옥토에 심었다. 그 씨가 거기서 자라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17:7~10 이어서 그 포도나무가 또 다른 큰 독수리를 향하여 자랐으나 더 이상 번성하지 못했다.

17:11~21 여호와께서 친히 그 비유를 해석해주신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다(12절). 그는 유다 왕 여호야긴(높은 가지 끝)을 예루살렘(레바논)에서 바벨론(장사하는 땅)으로 취해갔다. 또한 그는 왕의 자손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13절).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는데(대하 36:13),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과 같았다(19절). 그 결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바로-호프라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16~21절).

17:22~24 본문에는 메시아(연한 가지)의 오심이 약속되었다. 그분은 다윗의 집에서 나올 것이다. 그분은 과실이 풍성한 나무가 될 것이며 백성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23절). 소망의 하나님이 그들을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그 눈을 들어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다. 우리도 미래를 바라보고 그러한 사실로 피차 위로해야 한다. 칼 F. 카일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나무들 위에 우뚝 솟은 백향목은 다윗의 왕가를 가리키며,

여호와께서 꺾어서 심으시는 연한 가지는 메시아의 왕국 내지 주권이 아닌 메시아 자신을 가리킨다...23절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높은 산 같은 높은 산은 메시아에 의해 온 세상 산들 위에 높임을 받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자리로 간주되는 시온을 가리킨다(사 2:2).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가지 끝이 거기서 자라 영화로운 백향목이 되어 그 아래 모든 새들이 깃들 것이다. 메시아는 자신이 건설한 나라의 백향목으로 자랄 것이며, 온 땅의 거민이 거기서 양식(나무 실과에서)과 보호(나무 그늘 아래서)를 발견할 것이다.”¹⁸⁾

정치는 늘 실패로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이 죄로 얼룩진 세상에 소망을 준다.

16) 신 포도의 비유를 거부함(18장)

18:1~4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의 책임을 그들의 조상의 실패로 돌리는 속담이 있었다.

“아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나님은 개개인이 각각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말로 이 속담을 논박하신다.

18:5~24 이어서 그분은 심판의 원리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신다.

(1)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정녕 살 것이다(5~9절).

(2) 의인의 악한 아들은 정녕 죽을 것이다(10~13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 당시는 물론 포로 기간에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스스로 자랑했다(눅 3:8; 요 8:39).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18) (17:22~24) Carl F. Keil, “Ezekiel”,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21:244,245.

삶이 악하면 아버지가 의로워도 아무 소용없다고 지적하셨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조상과 경건한 지도자들의 의롭고 거룩한 삶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실체가 되어야 한다.

(3) 불의한 사람의 의로운 아들은 정녕 살 것이나(14~17절), 그 불의한 아버지는 자기 죄악으로 인해 죽을 것이다(18절).

(4)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악인은 살 것이다(21~23절).

(5) 의로움을 버리고 죄악을 행하는 의인은 죽을 것이다(24절).

20절과 출애굽기 20장 5절 사이에는 아무 모순이 없다. 물론 출애굽기에서 가르치는 대로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부모의 잘못의 결과에 연루된다. 또한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각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

20절에서 말하는 징벌은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죄로 인한 육체적인 죽음이다. 5~24절에서 밝힌 원리들은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으며(5~9절), 의인이 마침내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우리 주님은 신약성경에서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논박하셨다(엡 2:8,9; 요 10:28).

18:25~32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으나, 하나님은 악인도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므로 아무 불공평함이 없으며, 그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잊어버리신다(22절). 이것은 기억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공의가 온전히 충족되었다는 뜻이다. 신자에게는 소송이 마감되었다.

17) 유다 마지막 왕들을 위한 탄식(19장)

19:1~9 본문은 유다 마지막 왕들에 대한 탄식이다. 이 왕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지만, 아마도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가리킬 것이다. 유다는 “암사자”다. 다른 나라들은 “사자들”이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젊은 사자들”이다(2절). “젊은 사자”가 된 “새끼사자”는(3절) 아마도 사로잡혀 애굽에 끌려간 여호아하스인 듯하다(4절). 다른 새끼사자(5절)는 여호야긴일 것이다. 유다는 다른 모든 열국과 다름없는, 사자들 가운데 암사자였다. 열국의 지도자들은 두렵고 또 이기적이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 주님은 자기 백성은 그렇지 않을 것을 기대하신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분의 심판을 초래할 것이다.

19:10~14 “네 피의 어머니”(10절)는 유다나 예루살렘, 즉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한 그들의 혈통을 이은 포도나무이다. 한 때 그녀는 강한 왕들(건강한 가지들)이 있었으나, 바벨론(동풍)에게 멸망할 것이며, 백성들은 포로(광야, 11~13절)로 끌려갈 것이다. 14절의 “불”인 시드기야는 찬탈자요 백성을 패망케 한 자로 간주된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다른 열국과 같이 왕을 원했다. 여기서 에스겔은 그들의 왕정(王政)의 마지막 막의 휘장을 내린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세상과 다르기를, 그분을 위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18)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20:1~32)

(1) 애굽에서의 우상숭배(20:1~9)

20:1~9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오자 여호와께서 그들이 묻는 것을 거절하셨다. 그 대신 그분은 그분을 향한 그들의 거듭된 거역의 역사를 열거하셨다. 장로들은 매우 보수적이고 정통적이어서 여호와께 여쭙어보았으나, 그러나 그 마음이 그분에게서 멀었다. 우상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것을 방해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회개하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건 자주 들은 말씀이야”,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어”, “심판밖에 할 말이 없는가” 하고 지루해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대신 팔짱을 끼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4~8절상),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그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셨다(8절하~9절).

(2)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힘(20:10~17)

20:10~17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10~13절상). 다시금 여호와께서 진노를 억제하시고, 이방인들이 비웃지 않도록 그들을 파멸에서 보존해주셨다(13절하~17절).

(3) 광야에서의 거역(20:18~26)

20:18~26 광야 세대의 자녀들이 거역한 일이 다시 언급되었다(18~21절상).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셨다(21절하~26절).

(4) 우상숭배(20:27~32)

20:27~32 약속의 땅에서 범한 그들의 우상숭배에는 아들을 불로 지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아들을 인간 제물로 드리는 풍습

까지 포함되었다.

19)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20:33~44)

20:33~38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영원히 이방인처럼 나무와 돌을 섬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32절). 그분은 흩어진 열방 중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모아 그분 앞에서 심판을 행하시라 의인은 영접하고(37절), 패역한 자는 그들 중에서 멸하실 것이다(38절).

20:39~44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회복될 때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거룩하신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39~44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사도 요한의 권면은(요일 5:21) 시대를 막론하고 유효하다.

20) 임박한 침략에 대한 묘사(20:45~21:32)

(1) 삼림의 불의 징조(20:45~49)

20:45~49 45절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21장의 시작을 이루는데, 그렇게 나누는 것이 개관에서 암시한대로 논리적으로 더 적합하다 하겠다. 45~49절은 남방(네게브, 유다 일부)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남방은 삼림의 불(바벨론의 침략)로 멸망할 것이다.

(2) 꺼낸 칼의 징조(21:1~17)

21:1~7 하나님은 그분의 날카로운 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겠다는 결단을 표하셨다. 에스겔의 탄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두려움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21:8~17 바벨론의 칼이 살육을 위해 준비되었고(8~13절), 여호와의 진노를 만족시킬 것이다(14~17절). 10절과 13절은 특히 난해하다. 그 의미는 아마 이러할 것이다. “유다가 즐거워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NKJV에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표현된 과거의 모든 무기를 멸시했었다. 이제 그들은 쇠로 만든 칼을 맞볼 것이며, 멸시하는 홀, 즉 유다가 더 이상 존재치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3) 분기점(分岐點)의 징조(21:18~32)

21:18~24 이어서 바벨론 왕이 그 땅을 향해 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두 길이 나누는 분기점으로 온다. 한쪽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한쪽은 랍바(암몬의 수도)로 향한다. 그가 어느 도시를 먼저 공격하겠는가? 그는 세 가지 점괘를 사용했다.

(1) 한 화살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놓고 한 화살은 랍바 쪽을 향해 놓았다.

(2) 집안의 우상에게 물었다.

(3) 도살된 짐승의 간을 살폈다.

결정은? 먼저 예루살렘을 공격하라!

21:25~27 시드기야가 25절의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왕”이다. 그의 왕권은 폐해졌고, 그는 메시아가 통치권을 갖고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마지막 왕이 될 것이다. 메튜 헨리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가 왕권을 갖고 올 때까지 시드기야 이후로 다윗의 집에 더 이상 왕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에게 주리라’(27절).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앉을 것이다(눅 1:32).…그리고 때가 되면 그가 기

업을 소유할 것이다. ‘그에게 주리라.’ 그러면 그를 반대하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단 2:45; 고전 15:25). 이것이 여기에 언급된 것은 다윗을 통해 맺어진 약속이 영원히 폐해질 것을 염려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아니다. 그 약속은 확실하다. 이는 메시아 왕국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¹⁹⁾

21:28~32 이어서 암몬 족속이 바벨론 왕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역사와 현재의 사건들은 그리스도가 통치권을 갖고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간정부를 무너뜨리시는 사례들로 가득하다.

21) 예루살렘의 더럽혀짐에 관한 세 가지 말씀(22장)

22:1~12 여기에는 예루살렘의 죄의 목록이 나와있다; 피 흘림(9절; 문맥으로 보아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가리키는 듯하다)과 우상숭배(3,4절), 살인(6절), 부모를 멸시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함(7절),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함(8절), 비방과 우상숭배와 음란함(9절), 부도덕함(10절), 음행과 근친상간(11절), 뇌물과 고리대금과 강탈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림(12절).

22:13~22 이러한 부당이득과 피 흘림의 죄로 인해 백성들은 열국 중에 흠이 될 것이다(13~16절). 예루살렘은 풀무와 같아서 그 안에서 백성들이 쓸모 없는 찌꺼기처럼 녹을 것이다(17~22절).

22:23~24 여호와께서 그 땅에게 그 모양이 가련하다고 말하

19) (21:25~27) Matthew Henry, “Ezekiel”,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4:878,879.

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셨다. 테일러는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 땅은 이 말씀에서 비의 축복을 빼앗긴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24절에서 대부분 주석가들은 ‘정결함’대신 ‘비 내림’이라고 옮긴 70인역을 더 선호한다. 그럴 경우 ‘비가 없고 소나기가 없는 땅’으로 옮겨진다.”²⁰⁾

22:25~31 사회의 모든 계층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지도자들(25절)(KJV와 NKJV의 ‘선지자’는 70인역에 ‘방백’으로 옮겨져 있다),²¹⁾ 제사장(26절), 방백(관리, 27절), 선지자(28절), 백성(29절). 의인도, 개혁자도, 하나님을 위해 설 중재자도 발견할 수 없었다(30,31절).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이나 계획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갈라진 틈을 막을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한 사람만 있더라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22) 두 창기 자매의 비유(23장)

(1) 오흘라(23:1~10)

23:1~4 본문은 두 창기 자매에 관한 비유인데, 오흘라가 형이고 오흘리바가 아우이다. 오흘라는 사마리아를 가리키고, 오흘리바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20) (22:23,24) Taylor, *Ezekiel*, pp. 168,169.

21) (22:25~31) Taylor, *Ezekiel*, p. 169. 이 고대 헬라어 역은 때로 전통적인 히브리어(맛소라) 사본에 없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존하고 있다. NKJV의 24,25절 각주는 다른 고대역본의 표현 외에 두 가지 실례를 보여준다.

23:5~10 오홀리는 (그녀는) “자기 장막”(이 있다)을 뜻한다. 사마리아는 일찍이 자기 자신의 예배장소를 세웠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다.²²⁾ 오홀리는 잘생긴 앗수르 마병과 음행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하나님에 의해 그 연인들에게 내어준바 되었으며, 그들은 그녀의 하체를 드러내고 칼로 그녀를 죽였다.

(2) 오홀리바(23:11~21)

23:11~21 오홀리바(“내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는 우상숭배적인 음행과 부도덕을 더욱 행하였다. 우선 그녀는 이스라엘처럼 앗수르 사람을 사모했다(12,13절). 그런 다음 벽에 그린 바벨론 사람의 형상에 푹 빠졌다. 그녀는 그들을 사모했으며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자기 땅에 오게 했다(왕하 16:7). 그녀는 젊었을 때에 애굽에서 행하던 죄악을 생각하고 더욱 음행을 행하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가증한 음란을 저질렀다.

(3) 바벨론 사람의 침략(23:22~35)

23:22~35 그 결과 하나님이 그녀의 바벨론 연인들을 통해 오홀리바를 멸하실 것이다. 그녀가 사모하던 그 준수한 소년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대할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인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려 했다. 이제 그녀의 죄악이 심판 받아야 한다. 33,34절은 오늘날 세상에 가득한 근심과 절망의 징후들을 묘사한다.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4)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23:36~49)

23:36~49 두 자매는 같은 죄를 범했다. 행음(문자적, 영적), 살

22) (23:5~10) 그릇된 예배의 중심지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에게 그들의 ‘교파적인 차이’를 변호했다.

인, 인간 제물을 바침(37절), 성전을 더럽힘, 안식일을 범함(38절), 우상숭배와 하나님 경배를 혼합함(39절), 열국과 영적인 간음을 범함(40~44절). 의인(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들)이 이 두 자매의 음란함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파멸로 갚아줄 것이다(45~49절).

유다의 종교는 통합적인 것이었다. 즉 여호와 경배를 우상숭배와 이교주의와 혼합했다. 슬프게도, 많은 현대교회들이 성경의 요소들을 유대주의, 이교주의, 동방종교, 인본주의, 심리학 등과 결합시키고 있다.

23) 끊는 가마의 비유(24:1~14)

24:1~14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되던 날 에스겔은 끊는 가마의 비유를 선포했다. 그 가마는 예루살렘이었고, 고깃덩이는 백성들이었다. 가마가 막 끊으려 했다. 거기에는 찌끼, 즉 음란한 우상숭배가 들어있었다. 가마는 완전히 비워진 후에 찌끼를 없애기 위해 불살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서 우상숭배를 제하실 것이다.

24)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의 징조(24:15~27)

24:15~18 에스겔은 그 눈에 기뻐하는 그의 아내가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날 밤 아내는 죽었고, 정상적인 반응과 반대되게 그는 슬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24:19~24 성취된 예언의 한가지 목적은 세상으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24절).

24:25~27 에스겔은 도피한 자가 그들의 요새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할 때까지 유다에게 더 이상 예언하지 말아야 했다. 그 사건은 33장 21,22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 중간에 삽입된 25~32장은 유다가 아닌 이방 열국에 대한 예언들이다.

3. 일곱 이방 열국에 대한 예언(25 ~ 32장)

여기서 우리는 일곱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반역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접촉을 가졌으며, 그분에 대해 알았으나, 그러나 그분께로 돌이키기를 원치 않았다. 이 사실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심판을 통해서든 은혜를 통해서든 항상 그분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1) 암몬에 대한 예언(25:1~7)

25:1~7 심판이 선언된 첫 번째 나라는 암몬이다.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성소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 유수를 보고 기뻐한 까닭에 바벨론 사람(동방 사람)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랍바는 약대의 우리가 되고 암몬은 양무리의 늪이 될 것이다.

2) 모압에 대한 예언(25:8~11)

25:8~11 두 번째 나라는 세일과 함께 유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모압이다. 모압 땅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열릴 것이며 암몬과 같은 운명을 당할 것이다. 그 영토에서 그 성읍들이 제

거될 것이며, 모압은 하나님이 여호와인줄을 알게 될 것이다.

3) 에돔에 대한 예언(25:12~14)

25:12~14 세 번째 나라는 에돔이다. 에돔이 유다 집을 쳐서 원수를 갚았으므로 이제 그분의 원수갚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4) 블레셋에 대한 예언(25:15~17)

25:15~17 블레셋 족이 네 번째 백성이다. 유다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로 인해 그들에게 여호와의 원수갚음이 임할 것이다.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들도 언젠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지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을 때에도 역시 유효하다. 우리는 모든 악의적인 기쁨과 고소해함과 보복적인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그 대신 에스겔처럼 슬퍼하고 중재하고 그리고 다른 신자의 죄를 우리 자신의 죄로 자복해야 한다.

5) 두로에 대한 예언(26:1~28:19)

(1) 두로의 멸망(26장)

26:1~2 하나님의 심판의 다섯 번째 대상은 두로라는 해변 도시이다. 그 징벌이 26장 2절에서 28장 19절까지 나와있다. 거대 상업 도시인 두로는 그 경쟁 도시인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예루살렘이 그 동안 모든 육상 무역로를 장악해왔는데 그곳이 멸망

했다는 것은 두로에게는 애굽과 기타 남방 나라들과 보다 원활하게 왕래하게 된 것을 의미했다.

26:3~11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사용하여 이 도시 국가를 징벌하실 것이다. 4~6절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뤄졌다. 첫째로 열왕의 왕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²³⁾이 북쪽에서 두로를 공격했다(7~11절). 그 에워싸임은 BC 587~574년까지 계속되었다. 화인 베르그는 이 유명한 도시가 견뎌낸 그 포위 상황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했다.

“요새와 토성과 방벽이 주위에 가득했다. 성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는데 커다란 방패가 사용되었다. 성벽을 부수는데는 대형 해머가 사용되었다. 모든 전쟁무기를 통칭하는 뜻에서 도끼라는 도구를 예로 들었다(9절). 어떤 이들은 10절 전반부를 과장법으로 간주하지만 그것은 문자적인 성취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적의 기병의 수가 무수하여 그것이 밀려올 때 온 성이 먼지로 뒤덮이는 동시에 마병과 병거 소리에 성벽이 뒤흔들렸을 것이다. 거리마다 물건을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칼에 죽임당했다. ‘건고한 석상’(11절)은 오벨리스크를 말하는데, 아마도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두로의 헤라클레스 신전에 세워졌다고 말한 그 오벨리스크를 가리킬 것이다. 하나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는 에메랄드로 만들어진 이 석상들은 밤에 찬란히 빛났으며, 두로의 신 멜카르트에게 바쳐졌다(왕상 7:15). 이 인상적인 기둥들이 침략자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²⁴⁾

26:12~14 그러나 백성들은 두로라 불리는 해안 섬으로 물건

23) (26:3~11) 느부갓네살이 이 칭호를 받아들인 것은 일찍이 다른 여러 왕들을 그의 통치에 굴복시켰기 때문이다.

24) (26:3~11) Feinberg, *Ezekiel*, p. 149.

을 가지고 도피했다. 그들은 거기서 250년간 안전하게 머물렀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가 원래 도시를 초토화하고 그 잔재를 바다에 처넣어서 섬으로 가는 독길을 만들었다. 알렉산더의 군사들이 행한 이 일(BC 332년)이 본문에 묘사되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1백 년 전에 한 여행자가 두로의 폐허를 보고 묘사한 다음 글은 본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된다.

“섬 길이는 1마일이 채 안 된다. 지협(地峽) 너머 남쪽으로 뻗은 부분은 4분의 1마일 넓이에 바위투성이이고 울퉁불퉁하다. 이제 그곳은 어부들의 ‘그물 치는 장소’로밖에는 쓸모가 없다.”²⁵⁾

26:15~21 두로의 멸망에 관한 소식은 다른 나라들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흠모하던 두로의 모든 아름다움이 훼손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그 나라의 일부인 산 자의 땅에 영원한 영광을 세우실 것이다.

두로는 21절의 예언대로 결코 재건되지 않았다. 피터 스톨너는 그의 책 ‘과학은 말한다’(Science Speaks)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로에 관한 이 예언은 그 모든 세부사항을 고려하고, 개연성의 원리를 사용할 경우, 성취될 가능성이 40억분의 1의 확률이었다.²⁶⁾

(2) 두로에 대한 애가(27장)

27:1~9 두로는 그 구조가 고급스럽고 전세계에서 가져온 물건이 가득한 아름다운 배에 비유되었다. 두로는 세계를 정복한 군사 도시가 아니었다. 두로 사람은 상인이었다. 각종 상품과 정보가 사적인 이득을 위해 교환되었다. 사람들은 두로의 가치를 널리 인정했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을 떠난 모든 아름다움과 지

25) (26:12~14) W. M. Thomson, *The Land and the Book* p. 155에서 인용.

26) (26:15~21) Peter Stoner, *Science Speaks*, p. 76.

식은 공허하다. 만일 온 세상을 얻고 자기 영혼을 잃는다면 영혼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27:10~36 바사와 룯과 붓에서 온 군사들을 포함한 두로의 군대가 10,11절에 묘사되어 있다. 고급 상품을 거래한 그 방대한 무역 규모가 12~27절 상반절에 나와있다. 그러나 그것은 동풍(바벨론, 26,27절)에 의해 파선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그 성의 멸망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다(28~36절).

(3) 두로 왕의 몰락(28:1~19)

28:1~10 두로 왕의 교만과 지혜와 부가 1~6절에,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그의 몰락이 7~10절에 나와있다. 이 왕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함이 분명하다.

28:11~19 11절에서 두로의 방백이 두로 왕으로 바뀐다(우리말 성경은 1절부터 ‘두로 왕’이라고 되어 있음-역주). 두로 왕은 두로의 방백을 움직인 영이다. 두로 왕은 그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으나 그 교만함으로 인해 몰락했다.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기름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라고 한 두로 왕에 대한 묘사를 종합해 보면 문학적인 과장을 감안하더라도 세상 어느 위대한 통치자에 대한 묘사로 보기에 너무 인상적이다. 그런 까닭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11~19절에서 사단과 그의 하늘로부터의 추락에 대한 묘사를 본다.

화인베르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에스겔은...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백성들의 교만과 불경

건의 화신인 두로의 통치자에게 주의를 고정한 듯하다. 그러나 그 군주의 생각과 행실을 살펴보면 그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부추기는 힘과 인격체를 분명히 감지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두로 왕이 그토록 여러 면에서 모방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와 활동을 본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23절에서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사건을 기억해보라.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가운데 그보다 더 엄한 말을 들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든 사단 자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다만 그분이 갈보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자한 베드로의 동기 뒤에 다름 아닌 귀신의 왕이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다. 본문은 그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인다.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은 에스겔이 열방을 다스리는 일을 맡은 다니엘의 책에 나오는 천상의 정사와 권세들에 비교될 수 있는 두로의 영 내지 정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다.”²⁷⁾

만일 교만이 극히 강력하고 지혜로운 존재를 멸망시키기에 충분하다면, 우리 죽을 인생들은 여호와를 떠나 행하지 않도록 얼마나 더 주의해야겠는가!

6) 시돈에 대한 예언(28:20~26)

28:29~23 하나님의 심판의 여섯 번째 대상은 시돈이다. 시돈은 두로 근처의 해안 도시였다. 하나님은 시돈이 염병과 칼에 굴복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으나, 영원히 멸망하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성경의 두로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26:21) 시돈은 오늘날도 레바논의 한 마을로 여전히 남아 있다.

27) (28:11~19) Feinberg, *Ezekiel*, pp. 161,162.

28:24~26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상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다.

7) 애굽에 대한 예언(29~32장)

심판 목록에 나오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나라는 애굽이다(29~32장). 이것은 가장 냉혹한 심판으로 보인다. 나일 강 없이는 애굽은 죽은 땅이다. 사람들은 애굽인이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으로 기대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 애굽은 죽음의 땅이다.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책은 ‘사자(死者)의 책’이다. 애굽에서 가장 큰 기념비는 거대한 무덤인 피라밋이다. 애굽의 왕들은 궁전은 작게 짓고 무덤은 크게 지었으며, 무덤에서 시간을 즐기도록 미이라로 만들어졌다! 애굽인들은 죽음 앞에서 덤덤했으며, 자기 주장으로 가득했다. 그러므로 심판이 애굽에 임해야 했다. 애굽은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한다.

(1) 바로와 그의 백성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29장)

29:1~12 1~5절에서 바로는 큰 강 나일에 있는 악어에 비유되었다. 이 악어는 오만하지만 시력이 어두웠다. “고기”는 애굽 백성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도움을 기대한 것은 부러진 갈대를 의지한 것이었다(6~9상). 애굽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까닭에 가장 가혹한 심판을 받는다. 만일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한 인격적인 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변화 받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

바로와 그의 오만함 까닭에 애굽 땅은 40년간 황폐할 것이다(9절하~12절)

29:13~21 그런 다음 하나님이 백성을 모으실 것이나 애굽은

다시는 큰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이다(13~16절). 느부갓네살이 일찍이 애써 두로를 에워쌌으나 그 샅을 받지 못했다(두로 백성이 소유물을 가지고 섬 요새로 도피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을 샅으로 주실 것이다(17~20절).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그 샅으로 받는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의 뿌리가 솟아나게 하셨으며(다른데서 언급되지 않은 권세의 부흥) 에스겔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21절).

(2) 애굽의 멸망에 대한 탄식(30:1~19)

30:1~12 애굽과 그 모든 동맹국(구스, 룿, 붓)은 바벨론 사람의 칼에 멸망할 것이다(1~9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땅을 멸할 자로 불리운다(10~12절).

30:13~19 그 우상 및 신상과 함께 멸망할 애굽의 주요 도시들이 열거된다-놉(멤피스), 바드로스(애굽 남방의 상부로 추정), 소안(타니스), 노(테베), 신(펠루시움), 아웬(헬리오폴리스), 비베셋(부바스티스로 추정), 드합느헤스(고대 다브네로 추정)²⁸⁾(13~19절).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리라”는 예언(13절)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 때 이후로 순수 혈통의 애굽인 왕조가 애굽을 다스린 적이 없다. 파로크(Farouk) 왕은 1800년대 초 아라비아인이 세운 왕조에 속했다. 파로크는 그 왕조 가운데 아랍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최초의 인물이었다!

(3) 바로의 몰락(30:20~31:18)

30:20~26 본문에는 애굽의 멸망이 두 단계로 나타나 있다. 바

28) (30:13~19) 이곳은 총독 그다라가 암살된 후 예레미야가 끌려간 잘 알려진 개척지이다(렘 43:7; 44:1).

로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BC 605년) 상징적으로 그 한쪽 팔이 부러졌다. 다른 쪽 팔이 부러진 것은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정복한 때였다.

31:1~9 바로는 그 위엄에 있어서 누구와 같았는가? 그는 높은 백향목인 앗수르 왕과 같았다. 그 왕은 점점 강성해져서 그 그늘에서 모든 큰 나라들이 집을 찾는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

31:10~14 그 마음이 자만하여 높아진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사람에게 내어주셨다.

31:15~18 앗수르인은 음부로 던져졌고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지켜보았다(15~17절). 전에 그들을 멸시하던 앗수르가 낮아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의미에서 열방이 위로로 받았다(16절). 바로는 위대해졌으나 앗수르인처럼 깊은 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다(18절).

(4) 바로와 애굽에 대한 탄식(32장)

32:1~16 바로는 스스로를 젊은 사자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그분의 그물로 잡아 멸하실 큰 악어로 간주하셨다. 바벨론 왕이 애굽의 자만을 꺾을 것이며, 그 땅은 황폐하고 잠잠해질 것이다. 열방이 눈물로 탄식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무리를 대신해서 애굽을 위해 슬퍼하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셨다.

주 예수님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보호의 날개 아래 오기를 거부하는 살인자들의 도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피조물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심판하기를 즐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이지여,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향한 연민의 눈물을 주소서!

32:17~32 17~31절에서 우리는 애굽이 내려간 음부(구덩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앗수르가 거기 있으며(22,23절), 엘람(24,25절), 메섹과 두발(26,27절), 에돔(29절) 및 시돈 사람(30절)도 거기 있다. 애굽은 이 세상에서 위대했으나 음부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수치를 당한다(28,31,32절). 이로써 일곱 나라(도시국가들)에 대한 에스겔의 메시지가 끝난다.

4.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대적의 징벌(33 ~ 39장)

33장에서 이 책 끝까지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1)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재임명받다(33장)

33:1~9 본장에서 에스겔은 파수꾼에 비유된다. 만일 그가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경고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멸망에 대해 책임이 있다. 만일 그가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그들이 멸망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이스라엘 집을 책임지게 하셨다. 모든 신자에게는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 하나님이 우리로 누구를 책임지게 하셨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경고해야 하나? 우리의 친척, 동료직원, 이웃, 친구? 그것은 엄위한 책임이며, 만일 그 책임을 신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33:10~20 백성들은 절망 중에 이렇게 물었다. “어찌 능히 살리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희망을 잃고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지. 주님의 대답은 이러하다. “회개하라!” 극악한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러나 그 유일한 소망은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것이 공평치 않다고 불평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악인은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아울러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의인은 징벌하실 것이다.

33:21~22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자가 이르러 “그 성이 함락되었다”고 알리자 에스겔의 입이 열렸고 더 이상 그는 병어리가 아니었다(24:27).

33:23~29 본문은 분명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스라엘 땅에 남은 소수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다. 만일 한 사람(아브라함)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그들과 같은 무리는 얼마나 더욱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있느냐고 그들은 항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이 아닌 질에 관심이 있으셨다. 그들은 그 당시도 각종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었으며, 그 땅은 그들을 쳐서 증거하는 그 가증한 것들을 씻어내야 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참(영적인) 후손이 아니었다. 그들의 외적인 고백은 그들을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는데, 이는 하나님은 단순한 말이 아닌 삶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이다(약 2:14).

33:30~33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기는 좋아했으나 그 말에 순종할 마음은 없었다! 그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며, 들은 말씀을 적용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한다.

설교에 대한 최선의 반응은 “훌륭한 메시지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며, 나는 뭔가 행해야 한다”는 결단이다.

2) 거짓 목자들과 선한 목자(34장)

34:1~6 목자들(지도자들)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고 양떼(백성)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엄하게 다스렸고 양들은 흩어졌다.

오늘날까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양떼를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의 ‘섬김’과 ‘소득’의 수단을 혼동했다. 우리는 양떼의 본이 되어 열심히 섬기는 지도자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양들이 흩어지도록 허락하셨다(10절). 예이츠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적절히 묘사한다.

“에스겔 당시의 신실치 못한 설교자들에 대한 가슴아픈 그림이 여기에 있다. 양떼가 돌보는 자 없이 주린 채 흩어졌는데, 이기적인 목자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고 아무 책임감 없이 게으름과 방종 가운데 빈둥거린다. 그들은 자기의 양식과 의복과 안일을 돌아보는 데만 마음을 쓰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잠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²⁹⁾

34:7~10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거짓 목자들에게서 그분의 양떼를 구하기로 결심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늘 축복을 마음에 두시며, 따라서 그분은 양떼를 모으고 각각의 필요를 돌아보실 것

29) (34:11~16) Yates, *Preaching*, p. 183.

이다. 최고의 축복은 여호와와 그분의 양떼의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친밀한 사귄다.

34:11~16 그분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그 땅에 모으고 다스리실 것이다(천년왕국 동안). 전도자 D. L. 무디는 그분의 양떼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훌륭하게 요약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양들을 위한 ‘내가 하리라’는 말씀을 주목하라.

목자와 양의 관계:

11절. 내가 그들을 찾고 찾으리라.

12절.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13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라.

13절. 내가 그들을 함께 모으리라.

13절. 내가 그들을 안으로 들이리라.

14절. 내가 그들을 먹이리라.

15절. 내가 그들로 눕게 하리라.

16절. 내가 상처를 싸매리라.

16절. 내가 병든 자를 강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우리에는 많은 야윈 양들이 있으나 그분의 목장에는 그런 양이 하나도 없다.”³⁰⁾

어떤 유형의 설교자를 비롯해서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에 제시된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엄하고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주장한다.³¹⁾ 존 테일러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목자로서의 하

30) (34:11~16) D. L. Moody, *Notes from My Bible*, p. 90.

31) (34:11~16) 1950년대에 워싱턴 DC의 한 자유주의 장로교 “감독”이 구약의 하나님을 “난폭자”라고 모독했다.

나눔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시키고 있다.

“방랑자를 찾는 목자의 그림(12절)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한 놀라운 예표이며(눅 15:4이하), 우리 주님은 이 에스겔 본문에서 그 비유를 끌어내셨음이 분명하다. 그 그림은 구약의 하나님의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을 더할 수 없이 선명하게 보여주며, 야웨,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이들에게 결정타를 가한다. 부드러운 목자에 대해 말해주는 본문은 그뿐만이 아니다(시 78:52이하, 79:13, 80:1; 사 40:11, 49:9이하; 렘 31:10).”³²⁾

34:17~24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참 양떼를 이기적이고 잔인한 거짓 목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23,24절의 “내 종 다윗”은 다윗의 후손이신 주 예수님을 가리킨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인 데이빗 베론은 이렇게 설명한다.

“유대인들도 본문의 ‘다윗’이라는 이름을 메시아(다윗의 집에 대한 모든 약속의 중심이 되는 다윗의 위대한 아들)에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예컨대 김치는 에스겔 34장 23절에 대한 해설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종 다윗-즉, 구원의 때에 그의 후손에게서 나올 메시아. 그리고 3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왕 메시아-그는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기에 그 이름이 다윗으로 불리울 것이다.’ 사실 모든 유대인 주석가들이 그렇게 본다.”³³⁾

34:25~31 그리스도의 미래 통치 동안 하나님의 양떼의 안전과 번영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다. 화평의 언약 아래(25절) 축복된

32) (34:11~16) Taylor, *Ezekiel*, pp. 220,221.

33) (34:17~24) David Baron, *The Shepherd of Israel*, pp. 8,9.

비와(26절) 유명한 땅(29절)이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형태의 정부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은혜로운 절대 왕정이다.

3) 에돔의 운명(35장)

35:1~7 세일산은 에돔을 가리킨다. 그 지역은 늘 유다를 미워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뻐하고, 그 피난민에게 냉정하고, 이스라엘 땅을 취하려고 피한 까닭에 여기서 여호와께 책망을 받고 있다. 에돔은 축복을 원했으나 여호와는 원치 않았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 없으며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사실이다. 에돔은 모든 산업이 끊기고 영구히 황폐해질 운명이다(7절).

35:8~15 에돔은 유다를 모독하고 그들을 적으로 대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그분의 백성과 동일시하셨다. 그분의 백성은 징계를 당했으나 거절당하지는 않았다. 에돔은 그 차이를 알지 못했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한 것처럼 온 세상이 에돔의 멸망을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신앙의 대적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참된 사랑은 친구든 적이든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도 만족해하지 않는다.

4) 그 땅과 그 백성의 회복(36장)

36장은 주로 25~30절 까닭에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불리운다.

36:1~7 이스라엘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나라들, 특히 에돔 족속은 여호와께 징벌을 당할 것이다.

36:8~15 이스라엘의 성읍들과 시골 지역에는 사람이 거하게 될 것이며, 그 땅은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비옥하고 번성할 것이며, 다른 민족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못할 것이다.

36:16~21 그 땅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도 그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쫓겨난 까닭은 피흘린 죄와 우상숭배 때문이었다. 그들은 들어간 그 열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했다.

36:22~23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방인과 율법 앞에서 유대인이 모순되게 행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22절을 인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닌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36:24~29(상) 24~29절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갱생을 묘사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새로운 출생)을 주고 그들을 불결함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카일은 이 중요한 대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칭의에 해당하는 죄 씻음은 성화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전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을 넣어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뒤에 따라온다.”³⁴⁾

34) (36:24~29상) Keil, “Ezekiel”, p. 110.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새로운 출생에 대해 무지한 것을 보고 놀라셨을 때, 그분이 그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알 것으로 기대하신 주요 본문 중 하나가 이 에스겔 본문이었을 것이다(요 3:10).

36:29(하)~30 곡식과 실과가 증가할 것이며 다시는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이다.

36:31~38 주변 열국은 하나님이 그 땅에 사람과 식물을 다시 거하게 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사람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득한 짐승처럼 가득할 것이다. 이 예언은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그 땅에 돌아왔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나, 그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미래 통치를 기다린다.

현대 이스라엘은 1948년 국가를 이루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신앙 가운데 그 땅으로 조금씩 모여들고 있다.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 분명하다.

5) 마른 뼈의 계곡의 이상(37:1~14)

37:1~8 1,2절의 이상에서 에스겔은 어느 계곡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른 뼈가 쌓인 것을 보았다. 그는 그 뼈들에게 소생할 것이라고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예이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기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다.

“신비로움과 생생함과 극적인 분위기 가운데 선지자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라는 고무적인 소식을 전한다. 소생이 가능하다! 힘줄과 살과 피가 없는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동일한

스틸있는 진리가 마른 뼈가 도처에 널려있는 이 세상에 여전히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소생이 온 땅에 미치도록 성령께서 그 소생케 하는 능력으로 임하시게 하는 것이다(창 2:7; 계 11:11).”³⁵⁾

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뼈에 생겼다.

37:9~14 이어서 바람 혹은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자 뼈에 생기가 들어갔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11~14절), 즉 먼저는 영적으로 죽은 백성의 회복과, 그리고 그들의 중생을 묘사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중생에서도 이와 비슷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중생에는 하나님의 말씀과(4절) 하나님의 영(생기; 9절)이 있어야 한다.

6) 이스라엘과 유다의 재결합(37:15~28)

37:15~23 에스겔은 이어서 하나는 유다를 가리키고 하나는 이스라엘(요셉 혹은 에브라임)을 가리키는 막대기 두 개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그 끝을 잡아서 하나의 막대기로 연결시켰다. 이것은 르호보암 시대에 찢어진 두 나라가 재결합될 것을 의미했다. 한 왕(메시아)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은 구원을 얻고 정결케 되고 회복될 것이다.

37:24~28 다윗(여기서는 주 예수님을 가리킨다)이 왕이 될 것

35) (37:1~8) Yates, *Preaching*, p. 184.

이며, 백성이 그분을 절대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것이며, 그들 가운데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장래의 일이다.

38,39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대적들의 멸망을 예언한다. 곡은 대적들의 지도자이며, 마곡은 그의 땅이다. 곡의 정체에 대해서는 성경학도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아마 여기에 묘사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때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온 후, 천년왕국 이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8절에 묘사된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 이후 기간에 속한다.

7) 이스라엘의 미래 대적들의 멸망(38,39장)

38:1~16 하나님이 곡과 그 동맹국을 부추겨 군대를 모으게 하실 것이다(1~6절). 곡은 어떤 이들이 러시아, 모스크바, 토볼스크라는 이름이 파생된 옛 이름으로 이해하는 로스³⁶⁾, 메섹, 두발의 왕으로 불리운다. 그것은 흥미로운 가능성이긴 하나 전혀 입증이 안 된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향해 남방으로 이동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성벽 없는 마을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미리 대적의 계획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시며, 이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를 준다.

36) (38:1~16) 히브리어 ‘로스’를 ‘주요한’을 뜻하는, 그리고 ‘왕(방백)’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보고 있는 KJV의 번역은 라틴어 불가타역과 탈군에 근거한 것이며, 정확하지 못하다. 놀랍게도 이 번역이 NIV에 보존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사람들이 ‘로스’라는 단어에서 러시아를 보게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로스를 고유명사로 취하는 것은 이 용어가 적용되는 범위를 결정해주지 못한다. 그것은 러시아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 역사가와 지리학자는 메섹과 두발을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으로 보고 있다.

38:17~23 그 때에 곡의 군대가 그 땅을 덮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투기를 당할 것이다. 그 땅은 큰 지진으로 무섭게 흔들릴 것이며, 곡의 백성은 온역과 피와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놀랄 것이다(17~23 절).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의 파멸은 우리로 이사야 54장 17절의 여호와와의 약속을 생각나게 한다.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제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이는 여호와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39:1~6 곡의 군대는 이스라엘 산 위에서 멸절될 것이다. 3절의 “활과 살”은 물론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장래 대적들이 꼭 원시적인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혹 그것이 그런 뜻이라면 아마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즉 오랫동안 강대국들이 탱크나 비행기 같은 현대 무기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방법을 연구해왔다. 만일 그 일이 실현된다면 다시 옛날처럼 말과 비현대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S. 맥스웰 코더는,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현대적이고 복잡한 병기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유동적인 의미라고 주장한다. 즉, 활과 살은 발사장치와 미사일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8장 4절의 “말”(horses, 문자적으로 “뛰는 것들”)은 탱크나 헬리콥터 같은 스스로 움직이는 기구를 가리킬 수도 있다. 39장 9,10절의 무기는 꼭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 단어는 기름이나 로켓트 연료와 같은 군사장비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³⁷⁾

39:7~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실

37) (39:1~6) S. Maxwell Coder, “That Bow and Arrow War”, *Moody Monthly*; April 1974, p. 37.

것이다.

39:9~10 산 위에 널려진 곡의 병기는 7년 동안 연료가 되어줄 것이다. 불을 피울 나무를 들이나 숲에서 취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버려진 많은 병기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듯하다.

39:11~16 죽은 자의 시체는 사해 동쪽 하몬곡(곡의 무리) 골짜기에 매장될 것이다. 그 일은 7개월이 걸릴 것이다.

39:17~20 말과 기병의 사체가 새와 들짐승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줄 것이다.

39:21~24 그 날에 열국은, 이스라엘의 포로됨이 하나님이 막을 힘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더러움과 죄악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39:25~29 이스라엘의 회복은 완전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수치를 잊고 여호와를 인정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집에게 그분의 영을 부으실 것이다.

5. 천년왕국의 모습(40~48장)

1)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전(40~42장)

40~42장은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의 세부사항을 보여준다. 많은 사항이 이해하기 어려우나 전반적인 개관은 살펴볼 수가 있

다. 폴 리탄은 이렇게 말한다.

“비문자적인 해석자들은 이 예언이 기독교 교회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중요한 예언은 천년왕국 성전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묘사와 치수 등을 담고 있어서 솔로몬의 역사적인 성전처럼 윤곽을 그려볼 수가 있다. 사실 F. 가디너는 엘리콧의 ‘성경주해’(Commentary on the Whole Bible)에서 천년왕국의 성전의 윤곽을 그리는데 성공했는데, 그 자신은 그 가능성을 줄곧 부인했다. 이에 자극을 받아 알바 J. 맥클라인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어떤 영감 받지 않은 주석가가 건축 계획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래 건축자는 필경 그 건물을 짓는데 아무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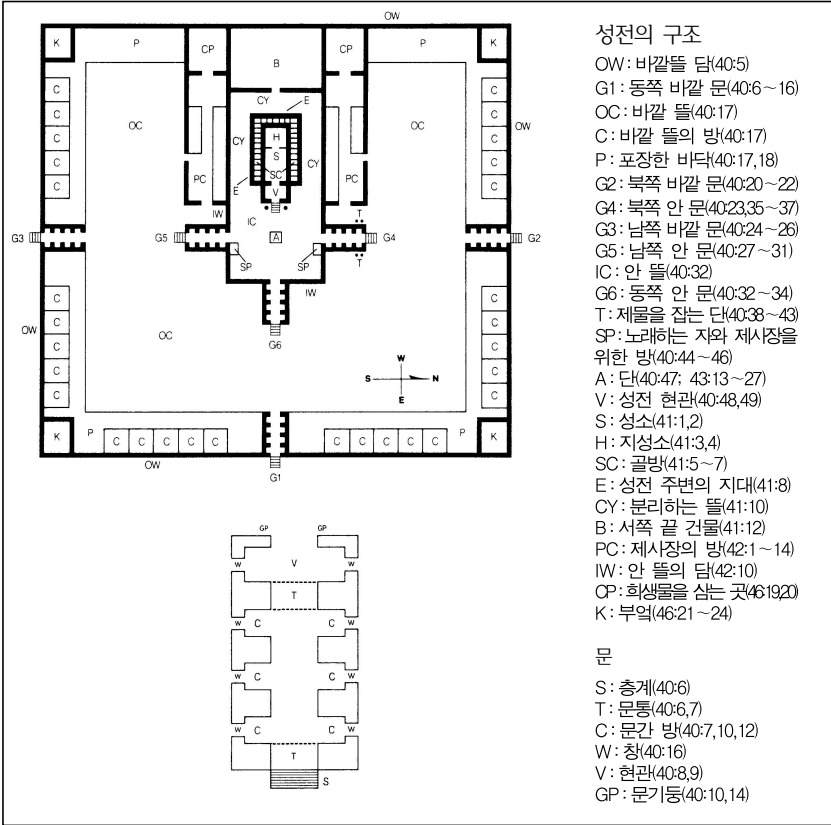
(1) 척량하는 장대를 가진 사람(40:1~4)

40:1~4 서두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과 천년왕국 성전에 대한 이상을 받는다. 예루살렘이 사로잡힌 지 14년 후에 에스겔은 이상 중에 이끌려 극히 높은 산 위에 놓였다. 그는 그 모양이 낮같이 빛나는 사람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천년왕국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되었다. 선지자 에스겔은 그 모든 본 것에 생각을 집중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집에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어지는 장들에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2) 바깥뜰의 동쪽 문(40:5~16)

40:5~16 성전은 동서로 위치했기 때문에 자연 입구는 동쪽 문이었으며, 이 문에 대한 묘사로 성전 구조에 대한 설명이 시작된

38) (40장 서론) Paul Lee Tan, *The Interpretation of Prophecy*, p. 161.



▲ 에스겔 성전

다. 첫째로, 성전 바깥 사면의 담이 척량되었다(5절). 그런 다음 이 바깥뜰의 동쪽 문이 묘사되었다(6~16절).

(3) 바깥 뜰(40:17~19)

40:17~19 역대하 7장 3절과 에스더 1장 6절처럼 모자이크 모양일 포장된 바닥 위에 30개의 방이 있다.

(4) 바깥뜰의 다른 두 문(40:20~27)

40:20~27 북쪽을 향해 난 문은 그 현관과 종려나무와 함께 동

쪽 문과 같았다. 남쪽을 향해 난 문도 치수와 구조가 같았다. 서쪽에는 문이 없다.

(5) 안뜰로 향하는 세 개의 문(40:28~37)

40:28~37 안뜰에도 남쪽 문과(28~31절), 동쪽을 향해 난 또 하나의 문과(32~34절) 북쪽 문(35~37절) 등 세 개의 문이 있다.

(6) 제사 도구(40:38~43)

40:38~43 북쪽 문 현관에 제물을 놓을 8개의 상(床)이 있다. 또한 번제에 쓸 다듬은 돌로 만든 네 개의 상이 있다. 제물을 잡는 기구들이 있고, 갈고리가 사면에 박혀 있다.

(7) 제사장을 위한 방(40:44~47)

40:44~47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방이 하나는 남쪽에, 하나는 북쪽에 있다. 남쪽 방은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고, 북쪽 방은 단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사도의 아들들)을 위한 방이다.

(8) 성전 현관(40:48,49)

40:48~49 성전 현관은 솔로몬의 성전의 현관처럼 구상된 듯하다. 기둥은 솔로몬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연상시킨다(왕상 7:21).

40장은 우선적으로 성전 주변 지역을 다루는데 비해 41장은 성전 자체를 묘사해준다.

40~43장의 자세한 수치는 우리의 모든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수고해야함을 상기시켜준다(출 25:40). 만일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건물이 아니라면 이같은 자세한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알레고리(諷諭)나 상징이라면 이렇게 자세한

수치를 밝힐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만일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라면 그 세부 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9) 성소와 지성소(41:1~4)

41:1~4 성소의 수치는 솔로몬의 성전과 똑같고 광야의 성전의 두 배이다. 늦처럼 빛나는 사람이 에스겔을 이끌고 성소에 들어갔으나 지성소에는 혼자 들어갔는데, 이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제한되었던 옛 성전과 성막을 상기시킨다(히 9:8,12; 10:19). 옛 성전의 이중적인 구분이 천년왕국 성전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10) 골방(41:5~11)

41:5~11 이 성전은 매우 육중하고 넓다. 그것은 3층 구조물로서, 각 층마다 30개의 방이 있다. 그 방들은 올라갈수록 넓었는데, 이는 계단식으로 주요 구조물에 가까이 이르렀음을 의미한다(7절).

(11) 성전 서쪽 건물(41:12)

41:12 성전 구조물 서쪽 끝에는 넓이 70규빗, 길이 90규빗의 별개의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의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다.

(12) 성전의 수치(41:13~15상)

41:13~15(상) 성전은 길이가 100규빗, 넓이가 100규빗이었다.

(13) 성전의 내부 장식과 기구 배치(41:15하~26)

41:15(하)~26 성전 내부에는 좌우편의 다락과 문통 벽과 닫힌 창이 있다.

그룹과 종려나무가 건물 사면에 하나씩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그룹은(창 3장) 한 종려나무를 향해서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 있고, 한 종려나무를 향해서는 사람의 얼굴이 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승리와 의(義)를 상징한다.

나무로 만들어진 제단은 에스겔의 안내자에 의해 “여호와 앞의 상”으로 불리웠다.

성전에는 각각 두 개의 문짝이 달린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여기에도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바깥 현판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다.

휘장, 궤,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휘장은 갈보리에서 찢겨졌다. 궤의 상징하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거기에 계신다.

(14) 제사장의 방(42:1~14)

42:1~14 제사장을 위해서는 성전 북쪽과 남쪽에 방이 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고 봉사에 필요한 거룩한 의복을 보관해두는 곳이다.

(15) 바깥뜰의 수치(42:15~20)

42:15~20 바깥뜰은 사면이 각각 500척이다. 20절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은 예배와 일상생활 간의 차이이다.

2) 천년왕국의 예배(43,44장)

43:1~5 에스겔서 앞 부분에서(11:23) 우리는 영광의 구름이 마지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실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주 예수님의 위(位)로 돌아올 것이다.

43:6~9 그분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은 성전의 은밀한데서 영적인 간음(우상숭배)과 가증한 일을 행치 않을 것이다.

43:10~12 이스라엘 집이 그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할 때 새 성전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다. (누군가 회개를 할 때 우리도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성전에 세워질 산 정상상의 모든 주변 지역이 지극히 거룩할 것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다.

여호와와의 영광의 광경은 우리로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한다(10절).

“베드로를 녹인 그 표정과
스테반이 바라본 그 얼굴과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린 그 마음만이
우리를 우상에게서 끌어낼 수 있으리.” (저자 미상)

43:13~17 이어서 계단식 모양이었을 제단의 치수가 밝혀져 있다. ‘번제단의 윗층’(15절)은 불을 붙이는 제단 위를 가리킨다. 그것은 바닥에서 위로 솟은 네 뿔이 있다. 이 제단의 특이한 점은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는 것인데, 이전 성전들에는 올라가는 것이 금지되었었다. 이 제단은 위에 올라가는 수단이 필요할 정도로 높다.

43:18~27 이어서 피로써 단을 성결케 할 때 좃아야 할 의식이 주어져 있다. 이 일은 7일이 걸리며, 이스라엘의 공중예배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출애굽기 29장 37절, 레위기 8장 11,15,19,33절, 열

왕기상 8장 62~65절, 역대하 7장 4~10절 등 여러 구약의 본문에서 엿볼 수 있다. 이 모든 의식을 마친 후 제 8일에, 정규 제사가 시작될 것이다.

43장은 격려의 말로 끝난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제사를 열납하실 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니”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날의 제사장은 사독의 아들들임을 주목하라(19절). 이는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사독의 변함 없는 충성심에 뿌리를 둔 것이리라.

44:1~3 바깥뜰의 동쪽 문은 영원히 닫혀질 것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일단 성전에 돌아오시면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왕만이 그 문 현관에 앉아 거기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 왕이 메시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수고할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F. W. 그랜트는 그가 아들이 있고(46:16) 자기를 위해 속제죄를 드리는 까닭에(45:22)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지적한다.³⁹⁾

44:4~9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 문 앞에 이르시자 에스겔은 그 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엎드렸다. 4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밝히 나타나 예배자들이 그분 앞에 엎드리는 예배모임에 대한 사모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여호와께서 성전과 그 입구와 출구에 관한 새 규례에 주의하고(5절), 백성들에게 성전 봉사에 이방인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경고하라고(6~9절) 에스겔에게 이르셨다.

39) (44:1~3) F. W. Grant, “Ezekiel”, in *The Numerical Bible*, 4:273.

44:10~16 이후로는 전에 우상숭배에 빠졌던 레위인들에게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이 맡겨질 것이다. 오직 사독의 자손만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길 수 있다. 사독의 자손은 다윗의 환란 때 충성스러웠다(삼하 15:24; 왕상 1:32; 2:26,27,35). 레위 족속은 엘리의 가족에 대한 저주 때문에, 혹은 열왕 시대 동안의 불충실함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로부터, 죄는 종종 쓰디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과, 충성스러움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44:17~19 제사장들은 양털 옷이 아닌 가는 베옷을 입어야 한다.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케 할까 함이니라”는 표현은(19하) 제사장의 정규 의무를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성소의 직무를 위한 의식적인 거룩함을 가리킨다(출 29:37; 30:29; 레 6:18,27; 학 2:10~12).

44:20~22 제사장에 대해서, 머리털에 관한 규정과 포도주에 대한 제한과 결혼에 관한 규정이 주어져 있다.

44:23~24 사독의 자손은 한편 교사와 재판관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한 것과 속되고 부정한 것을 분별토록 해준다.

44:25~27 그들이 부득불 시체를 만졌을 때는 일정한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한다.

44:28~31 그들은 여호와께 드린 물건으로 필요를 충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시며, 그들은 땅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고, 그로써 세상에 속한 것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섬기기를 원하신다. 바울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나(빌 4:11),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배울’ 필요가 있다. 부서진 심령의 소유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것이시라”(시 73:25,26).

3) 천년왕국의 행정(45~46장)

45:1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한 구역이 여호와께 거룩한 땅으로 구별될 것이다. 그것은 길이가 2만5천 척에 넓이가 1만 척이 될 것이다.

45:2~5 그 땅은 둘로 나뉠 것이다. 위쪽은 성소가 포함될 것이며 제사장을 위한 땅이 될 것이다. 아래쪽은 레위인을 위한 땅이 될 것이다.

45:6 그 구역 맨 아래는 또 한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예루살렘성을 포함하는 평범한 지역이다.

45:7~8 이 구역의 동쪽과 서쪽 국경까지 온 땅이 왕에게 속할 것이다.

45:9~12 이스라엘 왕들은 공의를 행하고(9절)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해야 한다.

45:13~17 본문에서 모든 백성은 정규 제사와 정한 절기에 쓰기 위해 이스라엘 왕에게 일정한 비율의 곡물을 드려야 한다.

45:18~20 첫째 달 첫째 날에는 성소를 정결케 해야 하고, 같은 달 일곱째 날에는 백성들이 무의식중에 혹은 부지중에 지은 죄를 씻음 받아야 한다.

45:21~25 첫째 달 14일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일곱째 달 15일에는 장막절을 지켜야 한다.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이 모든 의식과 성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영단번의 대속 사역에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 천년왕국의 제사

에스겔 43장 20,26절과 45장 15,17절에서 천년왕국 때 드려질 제사 중 일부는 분명 속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혀져 있다. 이것을 어떻게 히브리어 10장의 말씀과 조화시킬 수 있을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히 10:12,18).

구약의 용례에 의하면 “속죄”(문자적으로 ‘가리움’)는 결코 죄를 제거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히브리어 10장 4절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오히려 그 제물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히 10:3). 그렇다면 ‘속죄’는 무슨 의미였나? 그것은 제사가 외적인, 의식적인 정결을 가져온다는 뜻이었다. 제사는 백성에게 의식적인 정결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들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사귄 가운데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해주었다. 제사는 죄의 제거를 전혀 의식할 수 없는 단과 같은 무생물을 위해서도 속죄를 이뤄주었다(출 29:37). 다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이 의식적으로 정결케 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해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속죄와 관련하여 무의식적인 죄가 사해지는 것을 볼 때 (레 4:20), 그것은 다만 의식적인 부정함이 제거되어 사람이 가까이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은 ‘속죄’라는 단어가 보다 넓고 보다 깊은 의미를 얻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우리 죄를 제거하고 우리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사역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그런 의미가 없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 KJV의 ‘속죄’라는 번역은 JKV나 다른 번역처럼 ‘화목’으로 바뀌어야 한다).⁴⁰⁾

이스라엘 역사상 제사는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대망했다. 천년왕국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갈보리사역을 기념할 것이다. 그것은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기념이 되듯 이스라엘에게 기념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본문은 장래의 제사의식을 모두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그 본문들이 주장하는 바는, 장래의 제사가 죄를 효과적으로 제할 수 없는 것은 과거의 제사가 그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46:1~8 1~8절은 왕이 안식일과 월삭을 위해 제물을 가져올 때 안뜰 동쪽 문에 서서 경배 드리는 모습을 말해준다(6절). 그는 안뜰에 들어갈 수 없다. 백성은 왕 뒤에 서서 제사장이 제사드릴 때 경배해야 한다. 왕도 백성도 안뜰에 들어갈 수 없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것인데,

40) (평론) 1611년에는 ‘구속’(atonement)이 ‘at-one-ment’였으며, ‘화목’을 뜻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정확한 번역이었으나 1600년대 이후로 언어가 많이 변화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민족적으로 결코 보지 못한 것이었다.

46:9~10 백성들은 그 들어온 반대편 문을 통해 바깥뜰을 떠나야 한다. 그들은 왕의 행동을 좇아야 했다.

46:11~18 11,12절에는 왕의 자발적인 제사가, 13~15절에는 상번제가 묘사되어 있다. 왕의 재산에 관한 법은 왕이 재산을 영원히 잃어버리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46:19~24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위해 부엌이 마련되어 있다.

4) 천년왕국의 땅(47~48장)

(1) 물의 치료(47:1~12)

47:1~12 에스겔은 이상 중에 성전 문 앞에서 흘러나와 단을 지나고 동쪽 문의 남쪽 담을 따라 흘러 사해로 내려가는 강을 보았다. 바다의 물이 고침을 받을 것이며, 고기가 거기 가득할 것이다. 예이츠는 이렇게 말한다.

“생수는 구약에서 즐겨 사용되는 비유이다. 광야 지역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이 필요하다.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은 아라바의 건조지대로 흘러간다. 그것은 갈수록 깊이를 더해가면서 어디를 흘러가든 생명과 건강과 풍성한 실과를 가져다준다. 그것이 필요한 하나의 처방이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설교의 기초로 그 비유를 사용하셨다(시 1:3, 46:4; 욥 3:18; 슥 14:8; 요 4:7~15, 7:38; 계 22:1,2).”⁴¹⁾

41) (47:1~12) Yates, *Preaching*, p. 184.

이 강(실제의 지리적인 강일 것이다)은 그리스도의 천년통치 동안 흘러나올, 넓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축복에 대한 놀라운 상징이다(11절).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실 것이며, 따라서 점점 불어나는 축복의 강이 다른 데로 나아갈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며(고전 6:19), 따라서 축복의 강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야 한다(요 7:37,38).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고 그의 삶이 다른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뭔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일어난다.” 축복을 가져올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도전인가!

강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가져다준다. 이는 성령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사역에 대한 생생한 그림이다.

(2) 그 땅의 경계(47:13~23)

47:13~20 이어서 그 땅의 장래 지계(地界)와 분할에 대해 말한다. 여기서는 그 경계를 설명한다.

에스겔이 요단강을 그 땅의 경계로 말한 것은(18절) 실수일 리가 없다. 그는 그 땅이 동쪽으로 유브라데까지 미칠 것을 확실히 알았다(창 15:18). 다만 여기서는 예비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체를 차지할 것을 말한 것이리라. 아니면 요단이 동쪽 경계의 일부를 이루며 나머지는 유브라데까지 미칠 것을 암시한 말일 수도 있다. 두 번째 설명은 인기가 덜하지만 에스겔의 묘사가 상세하고 또 유브라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고려할 만한 의견이다.

47:21~23 각 지파의 영역 안에서 이스라엘 지파대로 제비뽑기로 땅을 나누되, 외국인도 기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3) 그 땅의 분할(48장)

48:1~7 그 땅은 지중해에서 동쪽 경계까지 수평으로 분할될 것이다. 맨 북쪽은 단 지파의 땅이고(1절), 그 아래는 납달리(3절), 므낫세(4절), 에브라임(5절), 르우벤(6절), 유다(7절) 등의 순이다.

48:8~22 유다 남방은 이미 왕에게 할당된 구역이 될 것이며, 성소와 예루살렘 성을 포함할 것이다. 이 “거룩한 땅”은 사해 북부를 경계로 한 넓은 지역이다. 그 땅은 수평으로 셋으로 나뉠 것이며, 맨 북쪽은 제사장에게 속하고 또 그 중앙에 천년왕국 성전이 위치할 것이다. 중간은 레위인의 땅이며, 남쪽은 일반 백성의 땅이며 중앙에 예루살렘이 위치할 것이다. 동쪽과 서쪽의 남은 영토는 왕에게 속할 것이다.

48:23~27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의 남쪽은 베나민(23절), 시므온(24절), 잇사갈(25절), 스블론(26절), 갓(27절)의 땅이 될 것이다.

48:28~35 새 예루살렘 성에는 사방에 3개씩, 이스라엘 열두 지파마다 하나씩, 12개의 문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은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일 것이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에 늘 있던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을 극히 사랑하사 항상 그들을 그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할 계획을 세우신다. 그분은 늘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물으며 회개와 믿음을 호소하신다. 그분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의 소원은 성취될 것이다. 즉 사람이 그분의 마음 가까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 마음 가까이 살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러면 히브리 그리스도인 구약학자인 찰스 L. 화인베르그가 요약한 말로 에스겔 주해를 마치고자 한다.

“이 비할 데 없이 독보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상으로 시작해서 영화롭게 된 예루살렘 성에 계신 여호와와 영광에 대한 묘사로 마감한다. 에스겔은 요한이 계시록을 마치듯이 하나님이 거룩함과 영광 중에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모습으로 이 글을 마감했다. 이 이상 더 위대한 역사의 목적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인간섭리는 없다.”⁴²⁾

42) (48:28~35) Feinberg, *Ezekiel*, p. 239.

참고 문헌

- Aletander, Ralph. *Ezekiel*. Everyman's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76.
- Davidson, A. B.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The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00.
- Feinberg, Charles Lee. *The Prophecy of Ezekiel: The Glory of the Lord*. Chicago: Moody Press, 1969.
- Grant, F. W. "Ezekiel". In *Numerical Bible*. Vol 4. Neptune, N. J.: Loizeaux Bros., 1977.
- Henry, Matthew. "Ezekiel".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 4. McLean, VA: MacDonald Publishing Company, n.d.
- Keil, C. F. "Ezekiel".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s. 22,23. Repri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 Mills, Montague S. *Ezekiel: An Overview*. Dallas: 3E Ministries, n.d.
- Tatford, Frederick A. *Dead Bones Live: An Exposition of the Prophecy of Ezekiel*. Eastbourne, East Sussex: Prophetic Witness Publishing House, 1977.
- Taylor, John B. *Ezekiel: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69.

교회 진리 연구서

| | |
|-----------------------------------------------------|-----------------------------------------------------|
| 순례하는 교회 E. H. 브로우드벳트/496면/11,000원 | 창세기 연구(상) 헨리 M. 모리스/432면/11,000원 |
| 그리스도인의 모임(교회) J. R. 리틀프라우트/192면/4,000원 | 창세기 연구(하) 헨리 M. 모리스/96면/2,000원 |
| 모임에 대한 성경의 원리 알프레드 P. 김스/96면/1,500원 | 사사기 룯기 강해 사무엘 리도우트/460면/6,500원 |
| 신약교회의 조직 도널드 L. 노비/128면/2,500원 |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강해 H. A. 아이언사이드/304면/4,300원 |
|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교회생활 O. J. 김스/128면/4,000원 | 메시아 시편 강해 T. 에네스트 윌슨/204면/3,500원 |
| 하나님의 교회, 그 시작과 성장 R. E. 할로우/128면/1,500원 | 잠언 강해 H. A. 아이언사이드/400면/8,000원 |
| 교회는 환난을 통과할 것인가? E. W. 로저스/128면/1,700원 | 아가서 강해 H. A. 아이언사이드/144면/2,800원 |
| 간추린 교회사 A. E. 호오투/96면/1,500원 | 사도행전 강해(상) 존 헤딩/320면/4,800원 |
| 교회 안에서의 여자들의 책임 겔투르드 할로우/36면/500원 | 사도행전 강해(하) 존 헤딩/416면/6,200원 |
| 지역교회의 인도자들 자독 다니엘스 · 켈 프라이스/36면/400원 | 로마서 강해 H. A. 아이언사이드/192면/5,000원 |
| 나는 어떤 교회에서 누구와 교제를 나누어야 할까? 편집부/36면/500원 | 히브리서 강해 윌리암 로저스/160면/3,000원 |
|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인도자들 알렉산더 스트라우크/416면/10,000원 | 야고보서 강해 알버트 맥베인/113면/2,000원 |
|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 알렉산더 스트라우크/224면/5,000원 | 요한계시록 강해 어거스트 반릴/264면/4,500원 |
| 하나님의 교회 프랭클린 피거슨/128면/3,200원 | 알기 쉬운 신지서 개요 윌리암 맥도날드/240면/5,000원 |
|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질문과 대답) 홍홍/64면/1,500원 | 갈라디아서 · 에베소서 주석 잭 헨트, 알버트 랭/1336면/5,500원 |
|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임스 갠/160면/5,500원 | 빌립보서 · 골로새서 주석 시드니 맥스웰, 토마스 번틀리/416면/8,500원 |
| 성경의 예언적 관점에서 본 교회사① 앤드류 밀러/384면/12,000원 | 데살로니가전 · 후서 주석 어니스트 윌슨 · 토마스 스미쓰/272면/5,000원 |
| 성경의 예언적 관점에서 본 교회사② 앤드류 밀러/272면/10,000원 | 신자 성경주석-마태복음 윌리암 맥도날드/432면/9,000원 |
| 바른 분별, 바른 실행 편집부/96면/2,000원 | 신자 성경주석-마가복음 윌리암 맥도날드/288면/7,000원 |
| | 신자 성경주석-누가복음 윌리암 맥도날드/400면/9,000원 |
| | 신자 성경주석-요한복음 윌리암 맥도날드/416면/9,000원 |
| | 신자 성경주석-사도행전 윌리암 맥도날드/368면/8,500원 |
| | 신자 성경주석-로마서 윌리암 맥도날드/288면/7,000원 |
| | 신자 성경주석-고린도전후서 윌리암 맥도날드/402면/10,000원 |
| | 신자 성경주석-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윌리암 맥도날드/384면/9,500원 |
| | 신자 성경주석-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윌리암 맥도날드/304면/8,000원 |
| 신자 성경주석-사사기②(시편 107편 ~ 아가) 윌리암 맥도날드/464면/15,000원 | 신자 성경주석-묵회서신서, 빌레몬서 윌리암 맥도날드/320면/8,000원 |
| 신자 성경주석-선지서①(이사야 ~ 다니엘) 윌리암 맥도날드/352면/12,000원 | 신자 성경주석-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윌리암 맥도날드/445면/11,000원 |
| 전도서 강해-헛되고 헛되니 윌리암 맥도날드/128면/2,800원 | 신자 성경주석-요한서신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윌리암 맥도날드/240면/7,000원 |
| 에스더 강해 알버트 맥사인/144면/3,500원 | 신자 성경주석-모세오경(창세기 ~ 신명기) 윌리암 맥도날드/416면/12,000원 |
| 욥기 강해 R. E. 할로우/192면/4,500원 | 신자 성경주석-역사서(여호수아 ~ 느헤미야) 윌리암 맥도날드/528면/15,000원 |
| 도망친 노예-빌레몬서 강해 R. H. 사익스/96면/2,500원 | 신자 성경주석-시가서①(욥기 ~ 시편 106편) 윌리암 맥도날드/448면/15,000원 |

성경 강해 및 주석

| | |
|-----------------------------------------------------|-----------------------------------------------------|
| 창세기 연구(상) 헨리 M. 모리스/432면/11,000원 | 창세기 연구(하) 헨리 M. 모리스/96면/2,000원 |
| 사사기 룯기 강해 사무엘 리도우트/460면/6,500원 |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강해 H. A. 아이언사이드/304면/4,300원 |
| 메시아 시편 강해 T. 에네스트 윌슨/204면/3,500원 | 잠언 강해 H. A. 아이언사이드/400면/8,000원 |
| 아가서 강해 H. A. 아이언사이드/144면/2,800원 | 사도행전 강해(상) 존 헤딩/320면/4,800원 |
| 사도행전 강해(하) 존 헤딩/416면/6,200원 | 로마서 강해 H. A. 아이언사이드/192면/5,000원 |
| 히브리서 강해 윌리암 로저스/160면/3,000원 | 야고보서 강해 알버트 맥베인/113면/2,000원 |
| 요한계시록 강해 어거스트 반릴/264면/4,500원 | 알기 쉬운 신지서 개요 윌리암 맥도날드/240면/5,000원 |
| 갈라디아서 · 에베소서 주석 잭 헨트, 알버트 랭/1336면/5,500원 | 빌립보서 · 골로새서 주석 시드니 맥스웰, 토마스 번틀리/416면/8,500원 |
| 데살로니가전 · 후서 주석 어니스트 윌슨 · 토마스 스미쓰/272면/5,000원 | 신자 성경주석-마태복음 윌리암 맥도날드/432면/9,000원 |
| 신자 성경주석-마가복음 윌리암 맥도날드/288면/7,000원 | 신자 성경주석-누가복음 윌리암 맥도날드/400면/9,000원 |
| 신자 성경주석-요한복음 윌리암 맥도날드/416면/9,000원 | 신자 성경주석-사도행전 윌리암 맥도날드/368면/8,500원 |
| 신자 성경주석-로마서 윌리암 맥도날드/288면/7,000원 | 신자 성경주석-고린도전후서 윌리암 맥도날드/402면/10,000원 |
| 신자 성경주석-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윌리암 맥도날드/384면/9,500원 | 신자 성경주석-묵회서신서, 빌레몬서 윌리암 맥도날드/320면/8,000원 |
| 신자 성경주석-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윌리암 맥도날드/304면/8,000원 | 신자 성경주석-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윌리암 맥도날드/445면/11,000원 |
| 신자 성경주석-사사기②(시편 107편 ~ 아가) 윌리암 맥도날드/464면/15,000원 | 신자 성경주석-요한서신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윌리암 맥도날드/240면/7,000원 |
| 신자 성경주석-선지서①(이사야 ~ 다니엘) 윌리암 맥도날드/352면/12,000원 | 신자 성경주석-모세오경(창세기 ~ 신명기) 윌리암 맥도날드/416면/12,000원 |
| 전도서 강해-헛되고 헛되니 윌리암 맥도날드/128면/2,800원 | 신자 성경주석-역사서(여호수아 ~ 느헤미야) 윌리암 맥도날드/528면/15,000원 |
| 에스더 강해 알버트 맥사인/144면/3,500원 | 신자 성경주석-시가서①(욥기 ~ 시편 106편) 윌리암 맥도날드/448면/15,000원 |
| 욥기 강해 R. E. 할로우/192면/4,500원 | |
| 도망친 노예-빌레몬서 강해 R. H. 사익스/96면/2,500원 | |

다니엘

다니엘 서론

“나는…이 다니엘 선지자보다 그리스도에 관해 분명히 말한 선지자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온다는 예언을 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는 정확한 시점을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여러 왕들의 순서를 밝히고, 관련된 실제 연수를 밝히고, 그리고 미래의 사건들의 분명한 징조들을 미리 밝혔다.” (제롬; AD 347~420)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다니엘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이다. 분명 그 자세한 예언 내용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배도한 세상 종교와 단호히 분리한 그 감명 깊은 본으로 인해, 다니엘서는 합리주의자와 불신 학자들의 공격을 받아왔다. 로버트 앤더슨 경 같은 보수적인 성경학자가 그의 책 중 하나를 ‘비평가의 굴에 갇힌 다니엘서’라고 이름 붙인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주된 공격 표적은 그 책이 보수적인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주장대로 실제로 BC 6세기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것인가, 아니면 익명의 2세기 저자가 ‘역사’(특히 11장)를 예언인양 기록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2. 기자

다니엘서의 전통적인 저자(기자)권이 널리 거부되고 또 이 중요한 책에 있어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까닭에,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대부분 책보다 더 충분히 다루고자 한다.

다니엘이 이방인 세계제국과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 자세한 이상을 받은 실제 선지자였다는 정통주의 입장을 향한 첫 번째 포격은 AD 3세기에 포피리(Porphyry)라는 불신 철학자에 의해 발포되었다.

그의 사상을 후에 17세기에 다수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다음 18,19세기에 기독교계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합리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그러한 사상은 자유주의와 준자유주의 진영에서 더욱 확장되고 더욱 널리 받아들여졌다.

메릴 F. 언거는 이렇게 말한다.

“현대 비평가들은 마카비 연대가 설정된 것과(BC 167년경) 전통적인 다니엘 기자권이 거부된 것을 그 시기에 확실히 이뤄진 일 중 하나로 본다. 그러나 그 견해는 매우 유동적인 오류와 타당치 않은 가정들 위에 세워졌다.”¹⁾

다니엘 기자권에 대한 주요 반대 의견을 면밀히 살피기 전에 먼저 다니엘 기자권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증거들을 살펴보자.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이 책을 다니엘의 것으로 인용하신다(마 24:15). 이것만으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다.

(2) 이 책은 마카비 시대의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고대 바벨론과

1) (서론) Merill F. Unger, *Introductory Guide to the Old Testament*, p. 396.

메대 바사의 지역적인 색채와 풍습들이 도처에 나타나 있다.

(3)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여러 세기 동안 이 책을 통해 교훈과 축복을 받아왔다. 영감 받지 않은 많은 글들도 그러한 반면에, 다니엘서에 대한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은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4) 쿵란 1동굴에서 발견된 다니엘서 사본은 마카비 시대 동안이나 그 이전에 필사된 것으로 믿어지는데, 그렇다면 원본은 그보다 더 연대가 앞서야 한다.

다니엘서의 진정성에 반대하는 주장은 언어학적, 역사적, 신학적 등 세 가지이다.

‘언어학적 주장’은, 이 책이 바사어와 심지어 헬라어 단어를 담고 있고 또 아람어가 후기 연대의 변화된 형태의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다니엘이 6세기에 기록한 것일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메대 바사 기간까지(BC 530년대) 생존하고 사역을 행했기 때문에 바사어 단어가 있다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팔레스타인에 바사어를 아는 2세기 위조자가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헬라어 단어에 대해 말하자면,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새개뿐이며 모두 악기 이름이라는데 놀란다. 어떤 문화에 속한 사물의 이름이 종종 문화적인 교류가 크게 일어나기 오래 전에 다른 언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니엘이 이 글을 쓸 당시 헬라 제국은 아직 미래의 제국이었지만, 헬라의 문화와 창의성이 이미 고대 세계에 파급되고 있었다.

아람어에 대해 말하자면, 키친과 쿠쳐는 그것이야말로 다니엘서의 제국시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다니엘서의 기자권에 대한 정통주의 입장에 반대하는 ‘역사적인 주장’에는, “다니엘”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그 부분의 정경이 이미 완성된 까닭에,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선지서가 아닌 구약

의 셋째 부분(‘성문서’; The Writings)에 위치시켰다는 주장이 있다. 다니엘은 소명에 의한 선지자가 아니라 사역에 의한 선지자였음은 쉬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는 직업상 정치인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이사야, 예레미야 등과 같은 전문적인 선지자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다니엘의 기자권에 대해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지만, 그 모두에 대해 신실한 보수주의 학자들은 지적인 해답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학자들을 연대순으로 소개하면 이러하다. 로버트 덕 윌슨, 찰스 보트플라우어, 존 F. 월부어드, R. K. 헤리슨, 클리어슨 아처.

다니엘 기자권을 반대하는 ‘신학적인 주장’은, 이 책이 천사와 사후의 삶(부활)과 메시아에 관해 너무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진화론을 종교에 적용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R. 파이퍼 같은 몇몇 자유주의 학자들이 정직하게 시인하듯이 다니엘서에 대한 반대의 참된 동기는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는 편견이다. 다니엘서에는 합리주의 비평에 부합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적과 너무 자세한 예언이 나와있다. 선지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아무 해를 당하지 않고 빠져나왔듯이, 다니엘서도 지적인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비평가의 굴”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3. 연대

다니엘서의 연대에 대해서는 BC 6세기에서 2세기까지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다. 자유주의 학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거의 대부분 현재의 형태의 다니엘서의 연대를 마카비 시대로 잡는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니엘서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무서운 반유대주의 정책 기간에 유대인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본다.

하나님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헬라와 로마)에 대한 일반적인 예언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수세기 전에 헬라 시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까지(11장) 영감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다니엘이 6세기에, 아마도 BC 530년경에 이 예언을 기록했다는 보수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영거의 지적대로 그들의 ‘늦은’ 연대를 인정하더라도, 비평가들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능하신 통찰력을 피할 수 없었다.

“설령 다니엘서의 편집 시기에 대해 가장 최근의 연대가 사실로 입증된다해도, 그 예언은 여전히, 오직 하나님의 영감에 기인한 것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미래에 관한 지식을 드러낸다.”²⁾

4. 배경 및 연대

그렇다면 기자와 연대에 대한 정통주의의 견해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다니엘이 여호야김이 유다 왕일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BC 604년경) 지성적이고 매력적인 젊은 유대인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고 믿게 된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다. 그의 성품과 행동은 그가 그 사실의 빛 가운데 살았음을 보여준다.

직위로 말하자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정부의 고위 정치인이었다.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자 다니엘은 다리오 왕 밑의 세 총독 중 하나였다. 그는 또한 고레스 치하에서도 관직을 맡았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히브리어 구약성경에 다니엘서가 영어성경처럼 ‘선지서’에 포함되지 않고 ‘성문서’로 알려진 부

2) (서론) Merrill F. Unger, *Introductory Guide to the Old Testament*, p. 399.

분에 포함된 이유인 듯하다.

그러나 다니엘의 사역은 선지자의 사역이었으며, 우리 주님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마 24:15; 막 13:14). 다니엘은 ‘세속’직업을 가지고 성경연구와 가르침에 많은 시간을 내는 이들과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연구가인 로버트 앤더슨 경은 빅토리아 시대 말 런던 경찰국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축복된 말씀사역을 널리 행했다.³⁾

이 책의 많은 부분이 이방의 열강과 관련이 있으므로 2장 4절에서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관련 있는 이방 언어로서 오늘날 영어가 그러하듯이 다니엘 당시에 국제적인 의사소통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언어상의 변화로 다니엘의 예언을 정리하기도 한다.

문맥관계로 말하자면, 다니엘 1~6장은 주로 해설 위주이고 예언적인 주제가 부차적인데 반해, 7~12장은 주로 예언 위주이고 해설이 부차적이다.

5. 개관

1. 다니엘과 그 동료들의 신실한 믿음(1장)
2. 네 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신상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이상(2장)
3. 느부갓네살의 금신상과 맹렬한 풀무(3장)

3) (서론) 앤더슨이 그의 명저 ‘장차 올 왕’에서 최초로 다니엘의 70이레의 상세한 연대기를 밝혔다.

4. 베임당한 나무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의미(4장)
5. 손으로 벽에 쓴 글로 선포된 벨사살의 운명(5장)
6. 다리오의 조서와 사자굴(6장)
7. 네 세계 제국을 묘사하는 네 짐승에 관한 다니엘의 꿈(7장)
8. 수양과 수염소에 관한 다니엘의 이상(8장)
9. 70이레에 관한 다니엘의 이상(9장)
10. 장래 사건들의 흐름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상
(10장)
11. 가까운 장래에 관한 예언(11:1~35)
 - 1) 헬라의 메대 바사 정복(11:1~3)
 - 2) 헬라 제국의 몰락(11:4~35)
 - (1) 애굽과 수리아의 전쟁(11:4~20)
 - (2) 사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11:21~35)
12. 먼 장래에 관한 예언(11:36~12:13)
 - 1) 적그리스도(11:36~45)
 - 2) 대환란(12장)

다니엘 주해

1. 다니엘과 그 동료들의 신실한 믿음(1장)

1:1~7 무대는 여호야김 통치 3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후의 바벨론 궁전이다. 느부갓네살은 몇몇 유다 청년들을 준비시켜 지혜와 지식의 사람들로 자신을 섬기게 했다. 그 중에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그들의 갈대아식 이름은 벨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 그들은 교육의 일부로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셔야 했다. 그 음식은 구약 율법에 부정하다고 규정된 고기가 포함되었거나 아니면 우상숭배에 관련된 음식이었을 것이다.

1절과 예레미야 25장 1절은 외관상 모순처럼 보인다. 여기서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통치 3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말하나,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여호야김 4년이 느부갓네살 원년이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유대인과 바벨론인의 계산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1:8~12 다니엘은 고결하게도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 환관장에게 그는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채소와 물을 먹여 시험해 보라고 요청했다. 유대인의 풍습이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 어느바 없는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으면 자기 목숨이 위경에 처할 것이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신

다.

1:13~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열흘 간 시험기간이 끝난 후 그들은 왕 앞에 서서 바벨론 모든 박사보다 10배나 나음을 입증했다. 이에 그들은 왕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

2. 네 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신상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이상(2장)

2:1~13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는 그 해석만이 아니라 그 꿈 자체의 내용까지 요구했다. 그것은 더 어려운 요구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갈대아 박사들이 그 꿈 내지 그 의미를 말해주지 못하자 그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포함한 모든 박사를 멸하라고 황급히 명했다!

2:14~30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은 밤의 이상을 통해 그 꿈 내용과 그 해석을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아름다운 찬양의 기도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했다. 그리고 아리옥에게 가서 더 이상 바벨론 박사를 죽이지 못하게 했다. 아리옥에 의해 왕 앞에 인도된 다니엘은 자신에게 은밀한 것이 계시되는 근원을 밝혔다.

2:31~35 다니엘은 왕이 찬란하고도 두려운 큰 신상을 보았다 고 말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가슴과 팔

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그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종아리는 철로, 그 발은 얼마는 철로, 얼마는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바라보는데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그 신상을 깨뜨리고 큰 산을 이뤄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2:36~45 그 신상은 세계지배권을 행사하며 유다 백성을 다스릴 4개의 이방 나라를 가리켰다. 느부갓네살이 절대군주로 다스리던 바벨론이 금으로 된 머리였다. 바사가 은으로 된 팔이었는데 한 팔은 메대를 한 팔은 바사를 가리켰다. 셋째 나라인 헬라가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였다. 로마제국이 철로 된 종아리와 발이었는데, 종아리는 제국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가리켰다.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소생한 로마제국을, 발가락은 열 나라를 가리켰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속의 가치는 감소되고 그 힘은 커지는 것을 보라(철과 진흙으로 된 발의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인간은 그의 제국을 가치있는 금속으로 묘사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일한 나라들을 들짐승으로 묘사하시는 것을 보라(7장). 주 예수님이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시다. 그분은 네 나라를 멸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2:46~49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지혜를 듣자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삼았다. 다른 세 유대인 청년들은 지방관리가 되었다.

3. 느부갓네살의 금신상과 맹렬한 풀무(3장)

3:1~7 느부갓네살이 높이 90피트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웠다. 그리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활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모든 사람이 엎드려 그 신상에게 절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 거절하면 무서운 풀무에 던져질 것이다.

3:8~12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으며, 이에 어떤 갈대아인들에 의해 왕에게 보고가 되었다.

3:13~21 왕은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의 구원의 확신은 놀라웠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께 충실하기로 했다. 그래서 왕은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일곱 배 더 뜨겁게 하도록 명하고 그 세 명의 유대인을 옷을 입은 채 던져 넣으라고 지시했다.

3:22~25 풀무가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던져 넣는 사람들이 타 죽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은 풀무속에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셋은 유대인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모양이 ‘하나님 아들’(NKJV) 혹은 ‘신들의 아들’(NKJV 난하주) 같았다. 왕이 누구로 보았든 간에 우리가 믿기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환란에서 건지시거나 아니면 환란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3:26~30 그 유대인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불이 그들을 묶은 줄만 태워버렸을 뿐이었다. 환란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우리를 엽매는 것에서 해방시키는데 성공한다. 왕은 크게 감명을 받아 유대인의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 세 청년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그들이 왕의 말을 거스렀

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4. 베어진 나무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의미(4장)

4:1~9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자신의 회심을 가져온 삶의 경험을 증거한다(1~3절). 그는 바벨론의 박사들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었으며, 이에 다니엘을 불러 그 꿈을 들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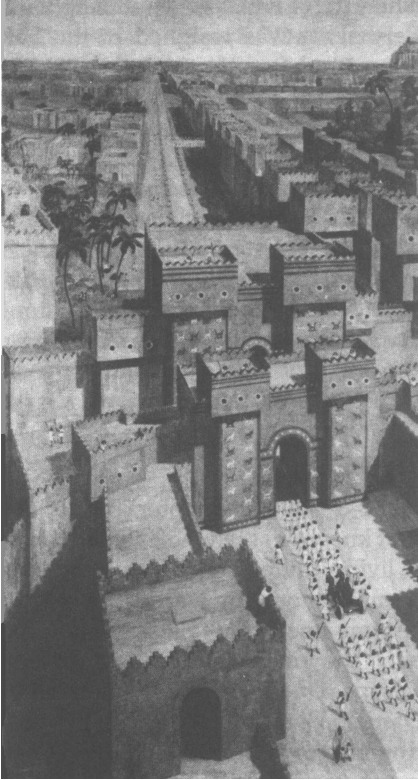
4:10~15(상) 그는 높고 아름답고 과실이 풍성한 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는 하늘까지 미치고 땅 끝까지 가지를 뻗었다. 한 순찰자, 즉 하늘에서 내려온 한 거룩한 자가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라고 명했다.

4:15(하)~18 이어서 그 거룩한 자가 한 사람이 이성을 잃고 7년간 땅의 들짐승처럼 지내는 모습을 묘사했다.

4:19~26 다니엘은, 나무는 그와 그의 세계제국을 상징한다고 왕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왕위를 잃고 7년간 이성을 잃고 들에서 짐승처럼 지낼 것이다. 그의 증상은 일종의 편집광(偏執狂)이다.⁴⁾ 그러나 “그루터기”는 느부갓네살이 몰락하지 않고 회복될 것을 상징했다.

4:27~37 다니엘은 또한 왕에게 그 태도를 바꿀 것을 제안했

4) (4:19~26) 기이한 형태의 ‘편집광’ 증세이다. R. K. 해리스 박사는 런던 정신과 진료소에서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난 경험을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다(*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p. 1114~17).



◀ 이스타르 문.

한 무리가 말뚝의 길을 따라 느부갓네살의 궁에 들어가려고 거대한 이스타르 문을 막 통과하고 있다. 그림 우측 상단에는 유명한 공중 정원이 있고, 그 뒤에는 바벨론 성의 지구라트(Ziggurat, 옛 바벨론, 앗수르의 피라미드 형 신전)이 보인다(그림-모리스 바단).

다. 그러나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그 이상이 실현되었다. 왕은 7년간 짐승처럼 지냈다. 그 기간 끝에 그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시인했다. 이에 그는 그의 나라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5. 손으로 벽에 쓴 글로 선포된 벨사살의 운명(5장)

5:1~4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자 느부갓네살의 손자였다(2절의 '부친'은 '조부'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는 큰 연회를 베풀

풀고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위한 축제에 쓰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사용했다. 왕과 신하들은 포도주에 잔뜩 취하여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5:5~9 그와 그의 신하들이 떠들썩한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왕은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자에게 자주색 옷과 금시슬을 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제안했다.

5:10~16 왕후의 제안대로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하도록 부름을 받았다.⁵⁾ 여러 해가 지나고 통치자가 바뀐 후에도 다니엘의 뛰어난 지혜와 영성을 적어도 몇몇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다니엘이 왕 앞에 인도되었다.

5:17~24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또 벨사살이 우상을 위한 연회에서 술을 마시는데 성전 그릇을 사용하여 더럽힌 일을 담대히 꾸짖은 후에 다니엘은 그 글씨와 그 의미를 알려주었다.

5:25~31 그 글씨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다. “메네”는 “수를 헤아리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제국의 수를 헤아려 끝나게 하신 것이다. “데겔”⁶⁾은 “무게를 달다”는 뜻이다. 벨사살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인 것이다. “우바르신”은 “나

5) (10~16) 이것은 아마도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소위 ‘황태후’를 가리킬 것이다.

6) (5:25~31) ‘데겔’은 ‘세겔’이란 히브리어 단어와 관계가 있다. 그 ‘어휘들’은 당시 사람들의 언어(아람어)에 있는 것들이나, 그 의미가 모호하여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면, 그 어휘들이 아람어에 사용된 문자가 아닌 정자(正字)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

뉘다” 혹은 분열을 뜻한다. (‘바르신’은 ‘페레스’의 복수형이며, ‘우’(U)는 “그리고”를 뜻한다.) 벨사살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날 밤 메대 바사 군대가 바벨론을 쳐서 벨사살을 죽이고 세계 지배권을 장악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 왕이 되었다.

6. 다리오의 조서와 사자굴(6장)

6:1~3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한 장인 이 장에서 다니엘은 바사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리오에 의해 120명의 방백을 다스리는 세 치리자 중 하나가 되었다. 다니엘의 뛰어난 총명 까닭에 다리오는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 했다.

6:4~8 다니엘을 시기하는 방백들이 그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음을 보고,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라고 제안했다. 일단 그 조서가 법이 되면 바꿀 수 없었다. 다니엘의 한결같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벧전 3:15,16).

6:9~13 다리오 왕이 조서에 서명을 했는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이에 그의 대적들이 곧 왕에게 그를 고소했다.⁷⁾

7) (6:9~13)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제로 왕도 신복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처벌하는 “변개할 수 없는” 법을 만든바 있다. 사자 굴의 위협을 당한 다니엘과 아하수제로를 대면해야 했던 에스더 모두 생명을 무릅썼다. 모두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줄을 의지하고 용감히 위협에 직면했다. 모두 바사 제국의 이방인이었다. 두 경우 모두에 바사 왕이 철회할 수 없는 법에 서명한 일을 후회했다. 두 경우 모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서 구원을 받았다.

6:14~17 다리오는 해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하고자 애썼으나 그 조서를 변경할 수 없었기에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이방 왕은 다니엘이 신실하게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다니엘을 격려했다. 때로 불신자들도 가까이서 관찰하는 신실한 신자들의 믿음과 도덕성을 옹호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자주,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기대하는 높은 표준의 믿음과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까닭에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과 친지들을 잃어버린다.

6:18~28 다리오는 늘 즐기던 밤의 여흥을 거절하고 금식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른 아침 급히 사자 굴에 가보니 그 유대인 선지자가 사자에게 아무 해도 당하지 않은 채 있었다.

그 경건한 선지자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그리고 다니엘을 고소하던 자들이 사자 굴에 던져져 사자 밥이 되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로 다리오 왕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7. 네 세계제국을 묘사하는 네 짐승에 관한 다니엘의 꿈(7장)

다니엘 1~6장은 주로 역사적인데 비해, 7~12장은 예언적이다. 7,8장의 다니엘의 꿈과 이상은 메대 바사가 세력을 잡기 전에 바벨론 왕 벨사살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7:1~4 7장에서 우리는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이상을 본다. ('큰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킨다.) 이 짐승들은 네 세계제국을 상징한다.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한다. “독수리 날개”는 정복의 신속성을 가리킨다.⁸⁾ “날개가 뽑힌 것”은 느부갓네살의 실성을 가리키고, 4절 나머지는 그의 회복 및 회심을 가리키는 듯하다.

7:5 “곰”은 메대 바사를 상징한다. 메대 바사에서 바사가 메대보다 훨씬 중요했다. 그것이 입에 문 “세 갈빗대”는 고레스 시대에 메대 바사에 의해 함락된 바벨론 제국의 세 부분, 즉 동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과 소아시아의 루디아 왕국을 가리키는 듯하다.

7:6 “표범”은 헬라를 상징한다. “그 등에 있는 네 개의 새의 날개”는 헬라제국의 급속한 확장을 가리킨다. “넷”은 세상을 가리키는 수이다. “날개”는 속도를 말한다. 13년 안에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인도까지 진격하며 세계를 정복했다. 그리고 그는 30살의 나이에 빈손으로 죽었다. 표범의 “네 머리”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의 네 장군에게 제국이 나뉜 것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7:7~8 강력하고 파괴적인 “넷째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달랐으나 그들의 야수적인 특징이 있었다. 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다”고 묘사되었다. 그 짐승은 헬라제국 뒤에 올, 그리고 상당한 공백기 동안 중단된 후 다시 일어날 로마제국을 가리킨다. 그 소생한 형태에서 그 제국은 “열 뿔”, 즉 열 왕과, “작은 뿔”, 즉 소생한 로마제국의 장래 우두머리인 적

8) (7:1~4) 사자가 영국의 상징이고 독수리가 미국의 상징이듯 날개 달린 사자가 바벨론의 상징이었다.

그리스도가 존재할 것이다.

7:9~14 9절에서 다니엘은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세계제국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나라를 묘사한다. 그분께 우주통치권이 부여될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묘사는 계시록 1장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흡사하다. 그러나 13절의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라는 표현으로 보아 그 정체가 다소 모호하다. 9절의 표현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라면 13절은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 앞에 나아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자 같은 이”는 나라를 받기 위해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주 예수님을 가리키게 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법정의 재판장으로 앉아 계신다(10,26절). “작은 뿔”과 그의 제국은 파괴되었다(11절). 다른 세계 제국들도 중지되지만 열국과 백성들은 존속된다(12절). 주 예수님이 우주통치권과 옮기지 않을 나라를 얻으신다(14절).

7:15~18 다니엘이 이상으로 인해 마음이 크게 번민할 때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한 해석자가,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것이나 지극히 높으신 이와 그의 성도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네 명의 세계 통치자를 가리킨다고 설명해주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사라질 것이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3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방 열국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오지만, 여기 17절에서는 그들이 세상(땅)에서 나온다. 이것은 그들의 땅에 얽매인 도덕적인 모습과 비영적인 속성을 말해준다.

7:19~22 다니엘은 특히 잔인함과 광포함이 다른 것들을 능가하는 네 번째 짐승에 관해 물었다. 또한 그는 “열 뿔과 그 앞에 세 뿔이 넘어지는 다른 뿔”에 관해 알고자 했다. 그는 그 작은 뿔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끝내고 나라를 그들에게 주실 때까지 환란기간의 성도들과 전쟁을 하는 것을 보았다.

7:23~28 그 이름 모를 해석자가, 넷째 짐승과 열 뿔과 거만한 작은 뿔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그 작은 뿔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모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3년 반 동안 유대인의 율력을 변경시키려 한다. (이것이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큰 환란’이다.) 그러나 그는 권세를 빼앗길 것이요, 우리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다니엘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반응했다.

8.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다니엘의 이상(8장)

8:1~4 2년 후 다니엘은 수양과 수염소에 관한 이상을 보았다. 수양은 바사를 가리키고, 두 뿔은 메대와 바사 왕들을 가리킨다.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높았는데, 이는 바사 왕이 더 세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쳐서 정복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듯했다.

8:5~8 그 때 수염소(헬라)가 서쪽에서 쳐들어왔다. 그것은 두 드러진 뿔이 하나(알렉산더 대제) 있었다. 수염소가 수양을 물리치고 가공할 정복사역을 펼쳐나갔다. 알렉산더가 죽자 그의 나라는,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올라간 네 현저한 뿔로 묘사된 네 부

분으로 나뉘었다.

8:9~14 그 중 한 나라가 후에 “한 작은 뿔”(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를 받았는데 그의 군대가 남동쪽을 취하고 “영화로운 땅”(팔레스타인)까지 침범했다. 10절은 그가 유대인을 핍박하는 모습을 묘사한다.⁹⁾ 그는 여호와를 모욕하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그치게 하고 성전을 더럽혔다(11,12절). 다니엘은 그러한 가증한 일이 2천 3백일간 계속될 것을 알았다. 그 일은 BC 171년에서 165년 사이에 일어났다.

8:15~17 가브리엘이 그 이상을 다니엘에게 설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8:18~26 다니엘은 비록 경건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천사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깊은 잠에 빠졌다. 아마 이것은 그분의 천사 앞에서도 느껴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을 강조한 표현인 듯하다. 그 이상에 대한 설명이 19~22절에서 시작하는데, 23절에서 우리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넘어 그와 비견되는 장래 왕, 즉 대환란 기간에 거룩한 백성을 잔인하게 핍박할 두려운 왕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간계하고 교만하고 기만적이고 그리고 만왕의 왕(주 예수 그리스도)을 거스려 일어날 것이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멸망할 것이다. 다니엘은 그 이상이 장래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9) (8:9~14) 안티오쿠스는 하만과 아돌프 히틀러를 포함한 긴 목록의 유대인 증오자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장차 올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듯하다. 안티오쿠스는 에피파네스(빛나는)로 불리우기를 원했으나,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미치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외경 마카비서에 나온다.

8:27 다니엘은 놀라고 당황하여 여러 날 앓아 누웠다.

9. 70이레에 관한 다니엘의 이상(9장)

9:1~2 이 장은 메대 왕 다리오 시대에 해당한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70년간의 포로기간이 거의 끝났음을 깨달았다.

9:3~19 그는 자신의 죄와 그의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그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선지자 다니엘에게 ‘성경예언의 중추’로 불리는 “70이레”에 관한 매우 중요한 계시를 허락하셨다.

다니엘의 간구는 하나님의 성품(그분의 위대하심, 두려움, 신실하심, 의로우심, 용서, 자비)과 그분의 관심사(주의 백성, 주의 성읍, 주의 거룩한 산, 주의 성소)에 근거했다.

9:20~23 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다니엘에게 이르렀다. 그는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말이기 때문에 매우 귀한 칭호였다. 그런 다음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유대민족의 장래 역사를 70이레라는 수치로 정리해주었다. 한 ‘이레’¹⁰⁾는 7년을 가리킨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한 문구 한 문구씩 살펴보고자 한다.

10) (9:20~23) ‘이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일곱으로 된 한 단위를 뜻하며, 따라서 어떤 이들은 ‘헵타드’, 즉 ‘일곱’에 해당하는 헬라이어 단어로 옮기는 것을 선호한다.

9:24 “70이레”는 “네 백성”(이스라엘)과 “네 거룩한 성”(예루살렘)을 위해 선포된 것이다. 이 예언의 전반부가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면 그 이레가 7년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70이레는 490년에 해당한다. 우리는 70이레가 7이레와 62이레와, 그리고 공백기간 후에 마지막 한 이레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70이레 끝에 다음 여섯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특히 메시아를 거절한 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남은 자들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며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가 용서될 것이다.

“죄악이 영속(화목)되며.” ‘화목’의 기초는 갈보리에서 놓였으나,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 중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미래의 일을 가리킨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것 역시 왕께서 의로 다스리실 재림과 천년왕국을 대망한다. 그것은 영원상태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영원한 의’이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 예언의 골격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지상 재림과 그 후에 이어지는 그분의 나라가 그 중심이다. 그러므로 예언의 대부분은 70이레 끝에 성취될 것이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궂)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천년통치가 시작될 때에 에스겔 40~44장에 묘사된 성전이 기름부음을 받을 것이다. 혹은 예루살렘에서 성별될 것이다. 영광이 여호와와의 위(位) 안에서 돌아올 것이다(겔 43:1~5).

9:25 그러므로 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그 일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 명령은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것이다(느 2:1~8).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것은 그리스도

의 초림만을 가리키지 않고 특히 그의 죽음을 가리킨다(26절 상).

“일곱 이레’(49년)와 ‘육십이 이레’(434년)가 지날 것이요.” 69 이레는 7이레와 62이레의 두 기간으로 나뉜다.

그 곤란한 동안에도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壕字)가 생길 것이다. 예루살렘이 그 7이레 동안 중건되어 넓은 광장과 방어용 운하가 건설되되 아무 방해도 혼란도 없을 것이다.

9:26 이어서 62이레 후, 즉 69이레가 끝난 후 “메시아(기름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 구주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을 보게 된다.

1백년 전 그의 책 ‘장차 올 왕’에서 로버트 앤더슨 경은 BC에서 AD로 바뀌는 월력상의 착오 등 중간 중간 경과한 년 수를 감안하여, “예언 년수”를 사용하여 69이레를 세세하게 계산한 결과 69이레가 예수님이 죽기 5일 전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날에 마쳤다고 계산해냈다.¹¹⁾

“없어질 것이며”(문자적으로, ‘아무 소유도 없을 것이며’). 이것은 그분이 그 찾아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다는 의미일 수 있다. 혹은 외관상의 후손 없이 죽은 것을 의미하거나(사 53:8), 혹은 그분의 극한 가난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진술일 수도 있다. 그분은 걸친 옷밖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장차 올 왕은 어떤 이들이 적그리스도로 분별하는 소생한 로마제국의 우두머리이다. 그가 대환란 동안 세력을 잡을 것이다. 그의 백성은 물론 로마인들이다.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로마인이 AD 70년 디도의

11) (9:26) 앤더슨에 의하면 AD 32년 4월 6일이다. 현 시대에 헤롤드 호너 박사는 다소 다른 시작연대(BC 444년)와 마감연대(AD 33년)를 사용해서 이 예언에 대한 완전한 연대표를 제시한다. *Bibliotheca Sacra*, January-March, 1975, pp. 62~64을 보라.

지휘 아래 예루살렘과 그 장려한 금줄이 새겨진 흰 대리석 성전을 파괴했다.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은 홍수에 엄몰되듯 황폐해졌다. 이를테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 디도는 헤롯의 성전에 불을 지르지 말라고 명했으나 군사들이 금을 얻기 위해 불순종하고 불을 질러 금을 녹였다. 그들은 돌 사이에 녹아 들어간 금을 채취하기 위해 큰 돌들을 다 떨어냈으며, 그렇게 하여 다니엘의 예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을 성취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 성의 역사는 전쟁과 파괴의 역사가 될 것이다. “끝”은 여기서 이방인의 때의 끝을 의미한다.

9:27 이제 우리는 70번째 이레에 도달했다. 앞서 말했듯이 69이레와 70이레 사이엔 공백이 있다. 이 공백기가 오순절에서 휴거까지 이르는 교회시대이다. 그 기간은 구약에 구체적으로 언급된바 없다. 그 기간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가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비밀이었다. 그러나 공백기의 원리가 나사렛 회당에서 우리 주님에 의해 훌륭하게 설명되었다(눅 4:18,19).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2절을 인용하셨으나 “주의 은혜의 해”(그분의 초림)에서 말씀을 끊고 그분의 재림의 심판, 즉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생략하셨다(사 61:2하). 그 두 사건 사이에 교회시대가 개입한 것이다.

“그가(로마 왕) 장차 많은 사람(이스라엘 민족 중 믿지 않는 대다수)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7년 환란기간)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언약은 우호적인 조약이나 불가침 조약, 혹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할 때 군사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약조 등일 것이다.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로마

왕이 돌이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제사와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강포하여.” 그는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멸할 것이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가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아마도 그것이 절하라고 명령할 것을 알게 된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날개”가 성전의 날개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70번째 이레의 후반, 즉 대환란으로 알려진 기간에 유대인에 대한 두려운 핍박이 계속될 것이다. 이어서 로마 왕, 즉 “황폐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불못에 던져져 멸망할 것이다 (계 19:20).

10. 장차 올 사건들의 흐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상(10장)

10:1~9 이 장의 사건들은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일어났다. 어떤 포로들은 고레스의 조서로 허락받은대로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갔으나, 다니엘은 포로된 땅에 남아 있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자들의 절망적인 보고 때문에, 포로된 땅에 남은 자들의 빈곤한 영적 상태 때문에, 혹은 그의 백성의 장래를 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다니엘은 3주간 슬퍼한 후에 히대겔(티그리스)강가에 서 있었다. 거기서 그는 세마포 옷을 입은 영화로운 사람의 이상을 보았다. 이 묘사는 계시록 1장 13~16절의 주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유사하다.

10:10~14 그 때 한 음성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된 이유를 설명했다. 바사국 왕이 21일 동안 막아섰던 것이다. 다니엘의 기도응답을 오랫동안 저지한 그 왕은 누구일까? 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보호자인 미가엘이 그 전쟁에 호출받은 것으로 보아 그 왕은 단순한 인간 ‘왕’보다 훨씬 강한 악한 영의 세력임이 분명하다. 레온 우드는 그의 훌륭한 다니엘서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헬라도 때가 되면 유사한 ‘왕’이 주어질 것이고(20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사가 헬라에게 멸망한 후 헬라의 지배를 받을 것이므로, 사단이 종종 특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정부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확실히 이 장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둘러싼, 높은 세력들(하늘의 권세들) 간의 전쟁의 성격에 관해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엡 6:11,12).”¹²⁾

그러나 어떻게 바사 왕이 21일간 성공적으로 여호와를 막아설 수 있으며, 전능하신 여호와가 왜 미가엘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는가(13절)?¹³⁾ 이에 대한 한가지 설명은, 5,6절의 “한 사람”이 여호와가 아니라 천사, 아마도 가브리엘이라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그 음성이 다니엘의 기도가 방해를 받은 이유를 설명해주었다. 앞서 말한 대로 바사국의 왕이 책임이 있었다. 그 음성은 또한 말일에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12) (10:10~14) 레온 우드, *A Commentary on Daniel*, pp. 272,273.

13) (10:10~14) 윌리엄 켈리 같은 이들은 13절의 화자(話者)가 여호와가 아닌 사람이라는 주장으로 이러한 반대의견에 답한다.

10:15~19 그 약속은 11,12장에서 시행되었다. 이 음성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의 음성인지 천사의 음성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니엘은 그 일로 쇠약해지고 또 할말을 잃었으나, 사람의 모양을 한 자에 의해 강건케 되었다.

10:20~21 그런 다음, 다니엘이 “내 주”라고 말한 그 자가, 자신이 먼저 바사 왕과 싸운 다음 헬라 왕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니엘에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자 했다. “너희”(다니엘과 그의 백성의) 왕 미가엘이 그 전쟁에서 그를 견고히 돕는 유일한 자였다.

11.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11:1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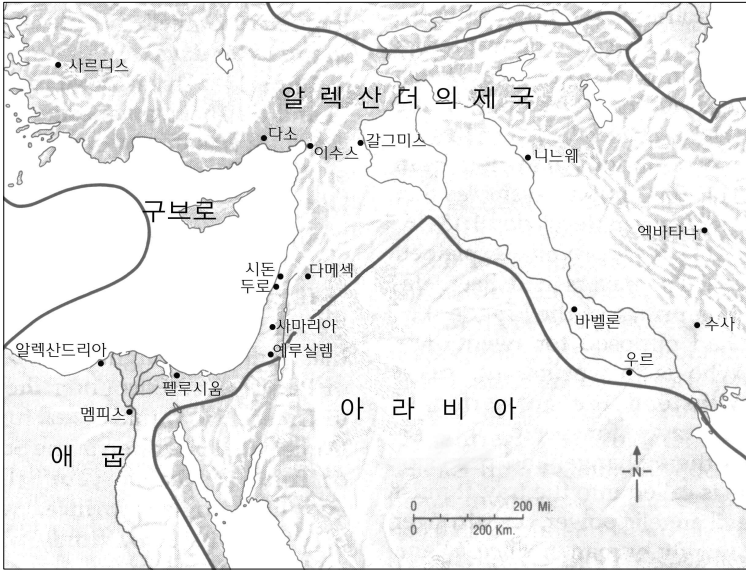
1) 헬라의 메대 바사 정복(11:1~3)

11:1~3 1~35절은 기록될 당시엔 미래의 일이었으나 이제는 과거의 역사이며, 36~45절은 지금도 미래의 일이다. 1절의 “그를”은 앞절에 언급된 미가엘이나 다리오를 가리킬 것이다. 2절은 바사의 네 왕의 세력과 마지막 왕이 헬라에 대적하는 모습을 말한다. 네 왕은 캄비세스와 수도-스메르디스와 다리오 1세(히스타스페스)와 그리고 크세르세스 1세(아하수에르)이다. 알렉산더 대제는 바사에서 헬라까지 판도를 넓힌 “능력 있는 왕”이었다.

2) 헬라제국의 몰락(11:4~35)

(1) 애굽과 수리아의 전쟁(11:4~20)

11:4 알렉산더가 죽자 그의 나라는 애굽, 수리아-바벨론, 소아



▲ 알렉산더의 헬라제국

시아 및 헬라의 네 부분으로 나뉘었다. 애굽의 통치자가 남방왕이었고 수리아-바벨론의 통치자가 북방왕이었다.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은 그의 후손은 하나도 없고 모두 그의 장군들이었다.

11:5~6 5~35절은 그 남방나라와 북방나라 간의 2세기에 걸쳐 계속된 전쟁을 묘사한다. 첫 번째 남방왕은 프톨레미 1세였고,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친” 자는 수리아의 셀루쿠스 1세였다. 이 둘은 처음에는 동맹관계였으나 이후에 적대관계가 되었다.¹⁴⁾ 이후에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케가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하여 두 나라 간에 화친을 꾀했으나, 그 전략은 음모와 살인의 소용돌이 속에 실패하고 말았다.

14) (11:5,6) “북방왕”과 “남방왕”이란 칭호가 앞뒤 문맥에 나오는 통치자들이 아니라 어느 구절에 묘사된 사건들의 때에 수리아와 애굽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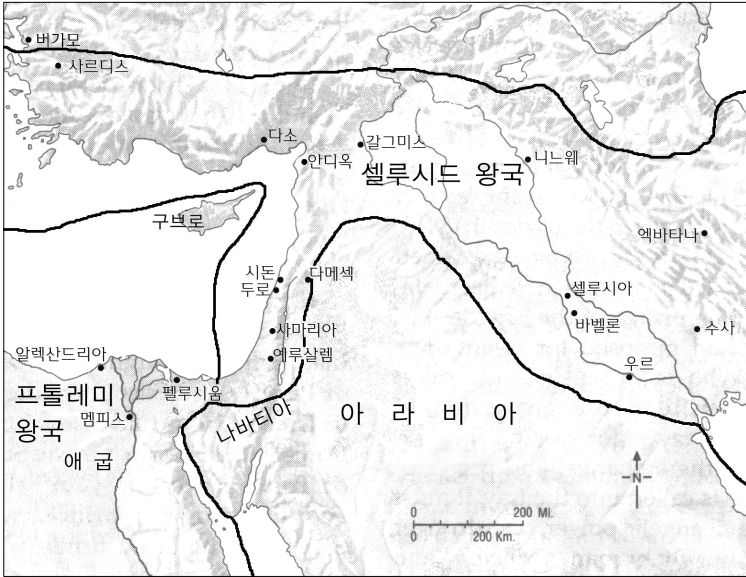


▲ 프톨레미의 팔레스타인 지배

11:7~9 베레니케의 오라비인 프톨레미 3세는 셀루쿠스 칼리니쿠스의 영토를 성공적으로 공격하여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애굽에 돌아왔다. 2년 후 셀루쿠스는 애굽을 쳤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11:10~17 “그 아들들”은 보다 성공적이었는데, 특히 안티오쿠스 3세가 그러했다. 10~20절은 북방과 남방 간에 전황(戰況)이 어떠한지를 묘사해준다. 17절 후반절은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과 손을 잡고,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유명한 애굽 여왕이 아님)를 프톨레미 4세와 결혼하게 했으나 클레오파트라가 변절하여 애굽편이 된 일을 말해준다.

11:18~20 안티오쿠스 3세는 헬라를 정복하려 시도했으나 더모필레와 마그네시아에서 로마군에 패배하여 본국에 돌아와 반



▲ 셀루시드의 팔레스타인 지배(BC 190년경)

란군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의 후계자인 셀루쿠스 필로파터는 “아름다운 나라”인 이스라엘에 과중한 세를 물린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비밀히, 아마도 독살로 죽었다.

(2)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11:21~35)

11:21~22 21절은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출현을 보여준다. 이 “비천한 사람”은 원래 그의 조카에게 속한 왕위를 “궤계로” 취했다. 여러 나라가 그의 군사력에 침몰되었으며, 유대인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즉 ‘동맹한 왕’이 살해되었다.

11:23~24 안티오쿠스는 여러 나라, 특히 애굽과 조약을 맺었으나 항상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조약을 체결했다. 그는 정복한 지방을 약탈하고 그 부로 세력을 확장해갔다.

11:25~26 그가 애굽과 벌인 전쟁은 특별한 언급이 부연되어 있는데, 즉, “남방왕”이 부분적으로 그의 추종자 가운데 반역이 일어난 관계로 그를 물리치지 못했다.

11:27~28 이어서 수리아 왕과 애굽 왕이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회동을 가졌다. 안티오쿠스는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큰 살육과 파괴를 가했다.

11:29~31 안티오쿠스는 또 다시 애굽을 쳤으나 이번에는 로마군(깃딤[구브로]의 배들)에 의해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퇴각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을 지나 돌아가는 길에 그 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았다. 일부 배도한 유대인들이 그를 도왔다. 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 성소에 세우게 했다. 세속 역사에 의하면, 그는 암태지를 단에 바쳐서 성전을 더럽혔다. “거룩한 언



▲로마의 팔레스타인 지배

약”(28,30,32절)은 유대인의 신앙, 특히 제사제도에 강조점을 둔 신앙을 가리킨다.

11:32~35 이러한 폭정이 유다 마카비와 그의 가족이 주도한 마카비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배도한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편에 섰으나, 신실한 유대인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했다.” 그 때는 한편으로는 무서운 살육의 때였으며, 한편으로는 영적인 용맹과 소생의 때였다.

12. 먼 장래에 관한 예언(11:36 ~ 12:13)

1) 적그리스도(11:36~45)

11:36~39 앞서 말한대로 36~45절은 여전히 미래의 사건이다. 36절은 적그리스도와 아주 흡사하게 묘사된 악한 왕을 소개한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실 때까지” 행동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열조의 하나님(우리말 성경에는 ‘신들’로 되어 있음-역주)”, “여자의 사모하는 것”(즉, 메시아) 등의 표현으로 보아 그가 유대인일 것이라고 믿는다. 유대인은 이방인 메시야에 의해 속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압도적인 무력으로 그의 세력을 크게 넓힐 것이다.

11:40~45 40~45절에는 “그”와 “그를”이 누구를 뜻하는지 의문이 있다. 한가지 해석은 이러하다: ‘남방왕’이 전쟁에서 그 악한 왕과 충돌한다. 그 때 ‘북방왕’이 팔레스타인을 휩쓴 다음 애굽으로 진격한다. 그런데 동쪽과 북쪽의 좋지 않은 소식 까닭에 그는 바다(지중해와 사해)와 예루살렘 사이에 진을 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간다. 그는 아무 돕는 자 없이 멸망할 것이다.

2) 큰 환란(12장)

12:1~3 1절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3년 반 전에 일어날 큰 환란을 묘사한다. 어떤 이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나, 죽은 악인들은 천년왕국 끝에 부활할 것이다(2절; 계 20:5). 주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믿음과 의로 인도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자임을 증명한 환란의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 중에 찬란히 빛날 것이다.

어떤 주석가들은 2절을,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부활’이 아닌 ‘민족적 도덕적 소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하나님의 옛 백성이 불신앙 중에 그 땅에 다시 모인 후에 잔존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들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다른 모든 이들은 수욕과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 세기 동안 이방인 중에 장사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소생할 것이며, 그 때 믿는 잔존자는 이사야 26장 19절과 에스겔 37장에 묘사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12:4 다니엘은 이 예언을 책에 보관해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4절 후반절은 일반적으로 운송과 과학지식의 진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아마도 그런 의미는 아닌 듯하다. 다비는 “많은 사람이 부지런히 조사할 것이다”라고 읊었다. 트레겔레스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라고 읊었다.¹⁵⁾ 본문은 많은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할 것이며 그 지식이 대 환란 때에 증가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15) (12:4) S. P. Tregelles, *The Prophetic Vision in the Book of Daniel*, p.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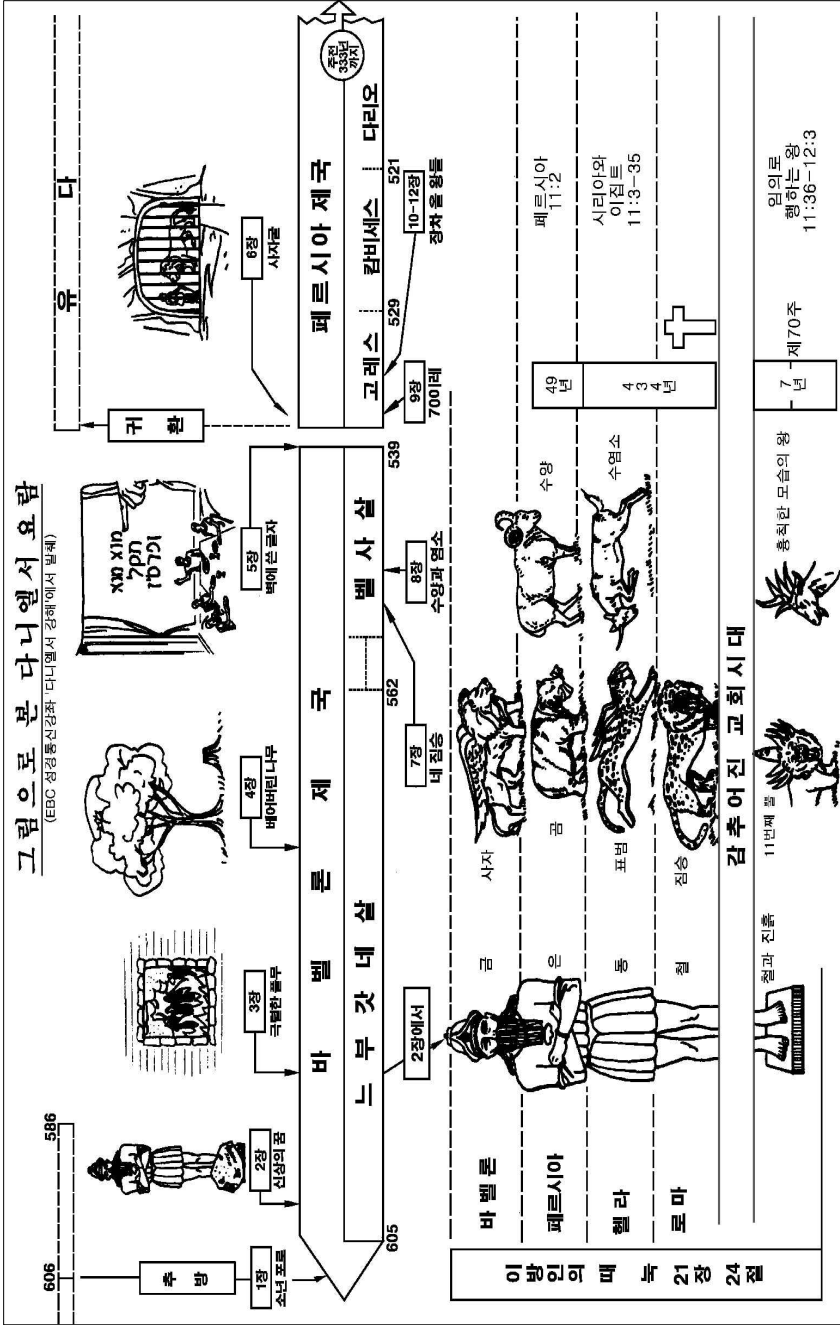
12:5~10 본문은 두 명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과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사이에 그 때의 끝이 언제인가는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묘사한다. 주어진 기간은 3년 반이다(“한 때 두 때 반 때”). 다니엘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 이상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으리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은 정결케 되고 악인은 악인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오직 지혜있는 자만 깨달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대환란 시작에서 그 끝까지 한 때, 두 때, 반 때(3년 반, 혹은 1,260일)가 될 것이다.

12:11 아마 대환란이 시작하기 30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해야 본문의 “1,290일”이 설명될 것이다.

12:12 “1,335일”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분의 대적들의 심판을 지나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12:13 다니엘은 평안히 쉬다가(죽음으로) 부활하여 그의 기업, 즉 그의 메시아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림으로 본 다니엘서 요람
(EBC 성경통신강좌 '다니엘서 강해'에서 발췌)



참고 문헌

Anderson, Sir Robert. *The Coming Prince*. London: Hodder & Stoughton, 1881. Reprint.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 1975.

Baldwin, Joyce G. *Daniel: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8.

Campbell, Donald K. *Daniel: Decoder of Dreams*. Wheaton, IL: SP Publications, Victor Books, 1977.

Dennett, Edward. *Daniel the Prophet: And the Times of the Gentiles*. Reprint. Denver: Wilson Foundation, 1967,

Gaebelein, Arno C. *The Prophet Daniel. A Key to the Visions and Prophecies of the Book of Daniel*. New York: "Our Hope", 1971.

Keil, C. F.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24.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1.

Luck, G. Cleman. *Daniel*. Chicago: Moody Press, 1978.

Pentecost, J. Dwight. "Daniel". In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Wheaton: Victor Books, 1985.

Tregelles, S. P. *The Prophetic Vision in the Book of Daniel*. London: Samuel Bagster & Sons, 1864.

Walvoord, John F. . Chicago: Moody Press, 1971. *Daniel: The Key to Prophetic Revelation*

Wilson, Robert Dick. *Studies in the Book of Daniel*.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Wiseman, D. J., et. al. *Notes on Some Problems in the Book of Daniel*. London: Tyndale Press, 1965.

Wood, Leon. *A Commentary on Daniel*.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3.

신자 성경주석(구약)—선지서(1)

발행일 : 2003년 11월 5일 1판 1쇄 발행

지은이 : 윌리엄 맥도날드

옮긴이 : 정 병 은

발행인 : 이 치 일(E. Ritchie)

발행소 : 전도출판사(등록 98-43호)

연락처 :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 화 : (031) 914-2732

팩 스 : (031) 917-4520

정 가 : 12,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ISBN : 89-7531-535-6 03230